The background image shows a road leading to a tunnel entrance. A sign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reads '능내 터널' (Nungnae Tunnel) and '라이트를 켜시오' (Turn On Lights). The tunnel entrance is a large, dark, circular opening. The road is paved and has a yellow arrow pointing towards the tunnel. The surrounding area is hilly and wooded.

제2편

역사문화환경

- 제1장 지리지와 지도 속 군포
- 제2장 행정 영역과 취락의 변화
- 제3장 '군포' 지명의 유래
- 제4장 풍수지리로 본 군포
- 제5장 교통과 상업의 발달
- 제6장 주거양식과 주생활
- 제7장 문화유산의 분포와 현황
- 제8장 전통건축유산의 현황과 특징

제1장 지리지와 지도 속 군포

정부매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지리지(地理誌)와 지도 속에서 군포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기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다. 그 이전 시기에서는 현재의 군포 지역에 대한 기록은 드러나지 않는다.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할 때, 현 군포시의 중앙부·동북부·동남부는 과천에 속하였고, 남서부는 광주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군포의 옛 모습은 조선시대 과천과 광주에 관한 지리지와 지도 안에 담겨 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를 군포의 지역문화 및 지역 정체성의 토대와 조우하게 해 준다. 더불어 근현대 지형도에 나타난 군포 지역을 시기별로 읽는 과정을 통해, 최근까지의 지역 변화와 앞으로의 모습도 그려 볼 수 있다.

1. 옛 지리지와 지도에서 만나는 군포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지리지가 편찬되었으며 지도도 함께 제작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들어 그 종류가 다양해졌는데, 전기에는 지역 간 문화교류와 당시의 세계관을 보여 주는 세계지도, 국토에 대한 인식체계가 반영된 전국전도 등이 제작되었으며, 후기에는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1765)를 비롯한 읍지가 광범위하게 편찬되었고, 전국지도, 도별지도, 관방지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공간, 즉 각 고을을 상세하게 그린 군현지도가 제작되었다. 이들 지도는 낱장 지도로 그려지거나 지도책 혹은 지리지에 첨부하기 위해 제작되기도 하였다.¹⁾

그렇다면 군포 지역은 조선시대 지리지와 옛 지도 속에서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담겨 있을까? 여기에서는 이 지역의 바탕이 되는 과천과 광주의 대표적인 기록을 살펴보고, 오늘날 군포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 주요 지명과 경관요소를 들춰내 읽고자 한다.

1) 지리지 속 군포

군포는 1989년 탄생한 신생 도시이다. 따라서 전국 지리지에서 지금의 군포 지역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는 없다. 다만 옛 과천현(果川縣)과 광주부(廣州府)의 범위 안에서 현재 군포와 연결되는 주요 지형지물과 몇몇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전국 지리지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대동지지(大東地志)』(1860년대)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군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 과천현과 광주목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수리산(修理山)과 북방면(北方面)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천현 산천조(山川條) : 수리산이 관아 남쪽 25리 지점에 있다.
- 광주목 문헌비고 : 북방(北方)은 서남쪽으로 첫머리가 70리요, 끝이 90리이다.

전국 지리지와는 달리, 읍지(邑誌)나 도지(道誌)에서는 군포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풍부하고 상세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읍지와 도지는 17세기 중엽 이후 사회질서가 정비되면서 지방사회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에 편찬되었다. 그 일환으로 18세기 들어서 『동국여지승람』의 개정작업이 시도되었지만 완결되지 못한 채 18세기 중반 『여지도서』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영조대에 편찬된 이 지리지는 지방통치에 필요한 행정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추구하였고, 각지에서 간행된 읍지를 종합하여 55권으로 완성되었다. 각 읍지에 기록된 지역규모는 기본적으로 면(面) 단위를 유지하지만, 때때로 리(里)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곳도 있다. 또한 『여지도서』의 각 군현읍지는 앞머리에 채색지도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그 구성을 보면, 방리조(坊里條)가 첫머리

1) 김기혁, 2007,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108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19~142쪽.

에 있고 도로·산천·성씨·제언·교량·전결·부세(均稅)·군병 등의 항목이 설정되어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내용이 이전의 지리지에 비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과천현의 내용을 보면, 방리조에 남면의 위치와 호수, 남녀별 인구가 기록되어 있다. 산천조에는 수리산과 태을산이 별개의 산으로 기술되어 있다. 제언조(堤堰條)에는 괴곡리·장간리와 당정리 제언의 둘레와 깊이를 적은 기록이 보인다.

- 방리조 : 남면(南面)이 관아의 남쪽 30리에 있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378호이다. 남자는 652명, 여자는 1,095명이다.
- 산천조 : 수리산이 관아의 남쪽 25리에 있다. 태을산(太乙山)이 관아의 남쪽 25리에 있다. 수리산 북쪽 기슭에서 산줄기가 나뉜다.
- 제언조 : 괴곡성자제언(槐谷盛字堤堰)의 둘레는 600척, 깊이는 3척이다. 장간리신자제언(章千里慎字堤堰)의 둘레는 630척, 깊이는 3척이다. 당정리삽자제언(塘井里插字堤堰)의 둘레는 467척, 깊이는 4척이다.

『여지도서』 광주목의 내용을 보면, 방리조에는 오늘날 대야동에 속하는 속달리·둔대리·대야미리·도마교리의 위치와 호구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산천조에는 수리산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 방리조 : 북방면(北方面)의 속달리(速達里)는 관아에서 1백 리 거리이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79호이다. 남자는 141명, 여자는 130명이다. 둔대리(遁岱里)는 관아에서 1백 리 거리이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37호이다. 남자는 51명, 여자는 66명이다. 대야미리(大夜味里)는 관아에서 1백 리 거리이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39호이다. 남자는 153명, 여자는 150명이다. 도마교리(刀馬橋里)는 관아에서 1백 리 거리이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35호이다. 남자는 54명, 여자는 84명이다.
- 산천조 : 수리산은 수원 광교산(光教山)에서 뻗어 나오며, 으뜸 되는 산줄기를 이룬다.

한편, 1789년경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는 지리지는 아니지만, 18세기 말엽 군현의 리 단 위까지 호구내용이 적혀 있어, 당시 마을의 명칭과 규모, 나아가 마을의 분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이에 따르면 과천 남면은 금정리(衿井里), 당리(堂里), 봉성리(鳳城里), 당정리(堂井里), 장간리(章千里), 산저리(山底里), 부곡리(富谷里)로 구성되었다. 이곳의 원호(元戶)는 460호이며, 구(口)는 1,929명이고 그중 남자는 807명, 여자는 1,122명이었다. 바로 지금의 금정동, 당동, 당정동, 산본동, 부곡동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광주 북방면은 속달리, 둔대리(屯岱里), 대야미리, 도마교유곡리(道馬橋柳谷里), 팔곡리(八谷里), 건건리(乾乾里)로 구성되었다. 이곳의 원호는 347호이며, 구는 1,347명인데 그중 남자는 713명, 여자는 634명이었다. 현재 안산시에 속하는 팔곡리와

건건리를 제외한 나머지 리가 오늘날 군포시에 속한 속달동, 둔대동, 대야미동, 도마교동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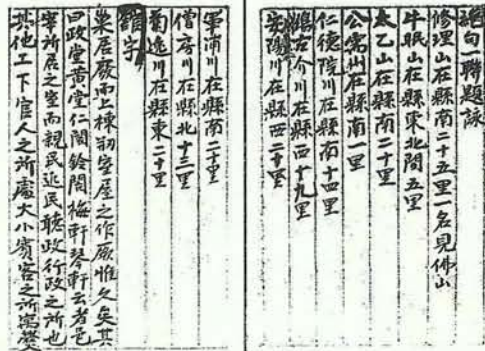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지명의 한자들이 『여지도서』의 그것과 다소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함께 눈에 띄는 것은 도마교리와 유곡리가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리로 편제되어 있는 점이다. 18세기 말까지는 아직 두 개의 마을로 나뉠 정도의 인구 증가나 부양력의 성장이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다.

군포 지역 중 옛 남면의 토대를 살펴볼 수 있는 군현읍지로 『과천읍지』(『과천현신수읍지(果川縣新修邑誌)』)와 『과천군읍지(果川郡邑誌)』, 『과천현읍지(果川縣邑誌)』가 있다. 그러나 이들 읍지에는 군포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적고, 산천조와 제언조에서 몇 개의 지형지물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다만, 1699년 제작된 일명 『과천현신수읍지』로 불리는 『과천읍지』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 중 ‘군포(軍浦)’라는 한자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읍지의 산천조에는 군포천이 “관아 남쪽 20리에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²⁾ 이 외에 수리산과 태을산이 묘사되어 있고, 제언조에서 괴곡제언·장간제언과 당정제언이 보인다.

제언의 축조는 16세기 이래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 저습 충적지의 개간이 이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헌상의 과천 제언(방죽) 기록을 보면, 군포천 하류의 장간리와 당정리를 시작으로 18세기에 이미 수리산 아래 산저리 지역의 충적지까지 제언 건설이 확대되어 경지 개간이 진행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산천조 : 수리산이 관아 남쪽 25리에 있다. 일명 견불산(見佛山)이다.
태을산이 관아 남쪽 20리에 있다.
군포천(軍浦川)이 관아 남쪽 20리에 있다.
- 제언조 : 괴곡제언(槐谷堤堰)이 관아 남쪽 25리에 있다.
장간제언(章干堤堰)이 관아 남쪽 30리에 있다.
당정제언(塘井堤堰)이 관아 남쪽 25리에 있다.

1842~1843년에 간행된 『경기지(京畿誌)』는 경기 33개 군현과 영종진(永宗鎭)의 읍지를 합편한



『과천읍지』 산천조

2) 군포천의 한자는 이후 ‘軍布川’ 혹은 ‘軍浦川’ 등의 표기로도 종종 등장한다.

것이다. 그중 제3책에 실린 「과천읍지(果川邑誌)」의 방곡칠면(坊曲七面)에서 남면이 확인된다. 산천조의 내용은 「과천읍지」(『과천현신수읍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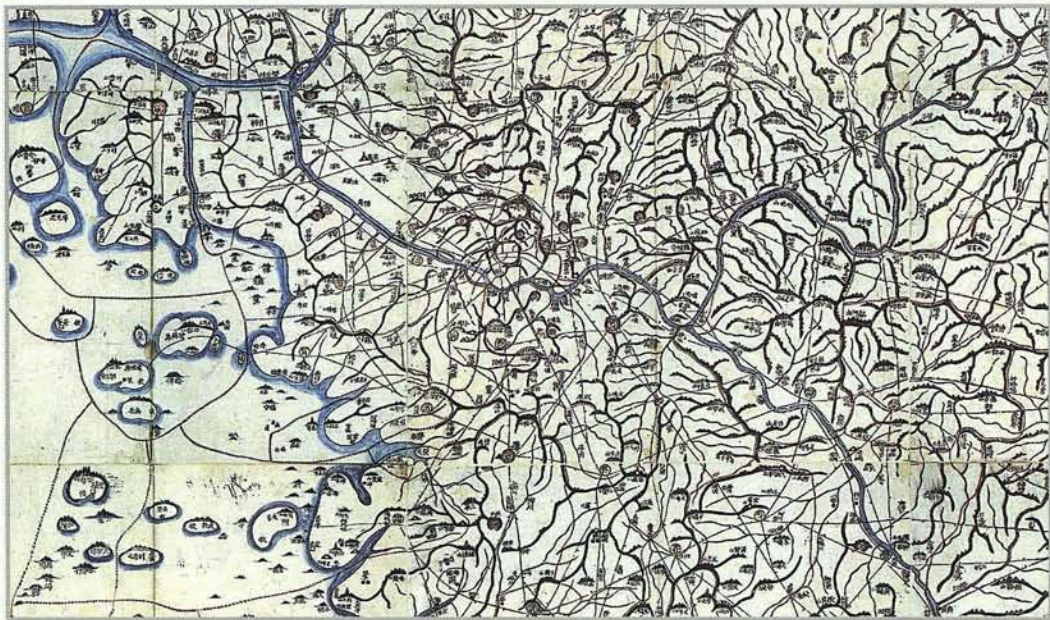
한편, 광주 지역의 경우 1779년(정조 4)에 서명응(徐命膺)이 왕명을 받고 착수하였으나 미완으로 그친 『남성지(南城志)』와 1846년(헌종 12)에 홍경모(洪敬謨)가 편찬한 『중정 남한지(重訂 南漢志)』, 그리고 1899년(광무 3)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작성된 『광주읍지(廣州邑誌)』가 있다. 그중 『중정 남한지』 방리조에서는 광주를 상중하로 나누어 상도·중도·하도라 하였는데, 북방면(北方面)은 하도 7개 면 중 하나로 “부의 서남쪽에 있으니 초경(初境)은 70리이고, 종경(終境)은 90리이다. 동쪽은 월곡면(月谷面) 사사리(沙士里)에 접하고, 서쪽은 성곶면(聲串面) 백오촌(百五村)에 접해 있고, 남쪽은 수원의 명고서원(明臯書院)에 접해 있고, 북쪽은 과천의 백석현(白石峴)에 접해 있다.”고 적고 있다. 같은 조 월곡면에 “서쪽은 북방면의 유곡(柳谷)에 접해 있고”라는 내용이 보인다. 산천조에서는 “수리산이 주 북쪽 과천과 안산의 경계에 있으니, 일명 견불산(見佛山)이며 주맥은 수원의 광교산(光敎山)이다.”라고 적고 있다. 불우조(佛宇條)에 “수리사(修理寺)가 수리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말엽 광주 지역을 기록한 『광주읍지』를 들추어 보면 “북방면은 초경이 70리이고, 종경이 90리이다.”라고 하여 『중정 남한지』 방리조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고, “호(戶) 327호에, 인구는 남자가 684명, 여자가 687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말엽 『호구총수』에 기록된 수치와 비교할 때 원호와 인구 모두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 군현지도 속 군포

오늘날 군포 지역을 담고 있는 옛 지도는 크게 지도첩에 포함된 경기도 지도와 고을을 그린 군현지도가 있다. 그중 지도첩에 포함된 경기도 지도에서 군포를 만날 수 있는 지도는 10여 종 정도인데, 16~19세기에 제작된 『동국지도(東國地圖)』, 『해동지도(海東地圖)』, 『여지도(輿地圖)』, 『청구도(靑邱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광여도(廣輿圖)』, 『지도(地圖)』 등에 「경기도」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지도에서 오늘날 군포와 관련을 맺는 공통적인 지형지물 요소는 수리산인데, 이 수리산은 주로 안산(安山)의 진산(鎭山)인 수암봉(秀岩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도에 비해서 고을을 자세히 그린 군현지도는 오늘날 시군 단위의 지역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조선 후기 군현지도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홍문관(弘文館) 주도로 편찬된 ‘회화식 군현지도’, 비변사(備邊司) 주도로 편찬되거나 이를 모사하여 부분 수정된 ‘1리 방안식 지도’, 전국 지도의 제작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20리 방안식 지도’, 그리고 각 고을에서 지방



『대동여지도』(규 10333)의 경기도 부분

화원들이 그려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지방군현지도'이다.

비변사에서 제작한 지도는 1735년(영조 10)부터 회화식으로 각 도별로 작성되었지만, 축척과 방위 등이 중시되지 않아 실용적이지 못하였다. 이후 1리 방안의 대축척 지도가 제작되었다. 영조 대인 1750년대 초반에 홍문관에서 제작한 『해동지도』는 바로 비변사의 회화식 도별 군현지도첩을 원도로 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한 지도이다. 이 지도책이 제작된 1751~1752년은 홍문관에서 『여지도서』의 편찬을 위해 전국 군현의 읍지와 군현지도를 수합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해동지도』와 『여지도서』는 전국 군현을 망라하여 지도와 지리서를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편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지도가 완성된 이후 1770년경에는 새로운 형태의 군현지도 제작이 시도되었다. 이와 관련한 사료에서는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영조의 명을 받아 주척 1촌을 1선으로 하는 방안식 군현지도를 그렸으며, 이를 『여지도』라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 지도는 20리 방안에 그려진 군현지도로, 연결하면 전국 지도가 되도록 제작되었다. 이로써 여러 형태의 대축척 조선지도가 제작되었다.³⁾

19세기에는 책자식으로 만들어진 『청구도』와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된 필사본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목판본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지도책이 아닌 단독의 군현지도로서 대표적인 지도는 1872년 국가적 차원에서 제작·수합한 규장각 소장 『1872년 지방』

3) 김기현, 2007,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108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25~126쪽.

果川縣 距京三里

元戶三千一百五十八戶 男二千二百六十八口 女一千八百九十口

元田番一千五百六十五結六員東內雜頗餘

宗八百九十五結十三員九米

還救控數

大米二百八十九石

各樣雜穀一萬五千五百八十八石

軍兵控數

兵曹屬騎步兵二百九十二名

訓局及禁御各色軍保并二百四十一名

京各司屬各色軍保并八十七名

控戎廳屬將校及各色軍保并五百五十九名

守禦廳屬各色軍保并一百六十九名

監營旗手五十四名

經理廳守備軍官二人

烽燧軍十名

各陵軍保并九十三名

各面東面里上北面里下北面里

下西面里上西面里南面里

驛院良才驛在縣里店站北在縣

露梁院在露梁津南仁德院在縣

彌勒院在縣西五金院在縣北

光院在縣西

光院在縣西



西極邊山及海邊山于千里
北抵州城山于五里
東至州城山于五里
南抵州城山于五里
東至州城山于五里
南抵州城山于五里

孤明在縣北五里由露梁津有最高險峻地以結蓋州界以南
可伏數千兵馬而晚上結蓋宮都東安津與三邑松
坡南漢城城南望州地沙可視賊行此乃本縣要衝
此外無險防嚴記

郡名粟木冬斯勝栗津富林富安果州
本高句麗粟木郡新羅景德王改栗津郡
高麗初改果州顯宗屬廣州本朝太宗改今
名陞為縣監并于衿川稱衿果即羅世祖
以衿川合于縣上未幾各復其舊置縣監
山川冠岳山在縣清溪山在縣東一名修理山在縣
露梁津在縣公需川在縣仁德院川在縣鶴古
介川在縣
佛宇清溪寺在清溪山百華寺在清溪冠岳寺在冠
音寺在松山松泉寺在松山

『해동지도』(규 古大4709-41) 중 「과천현」

廣州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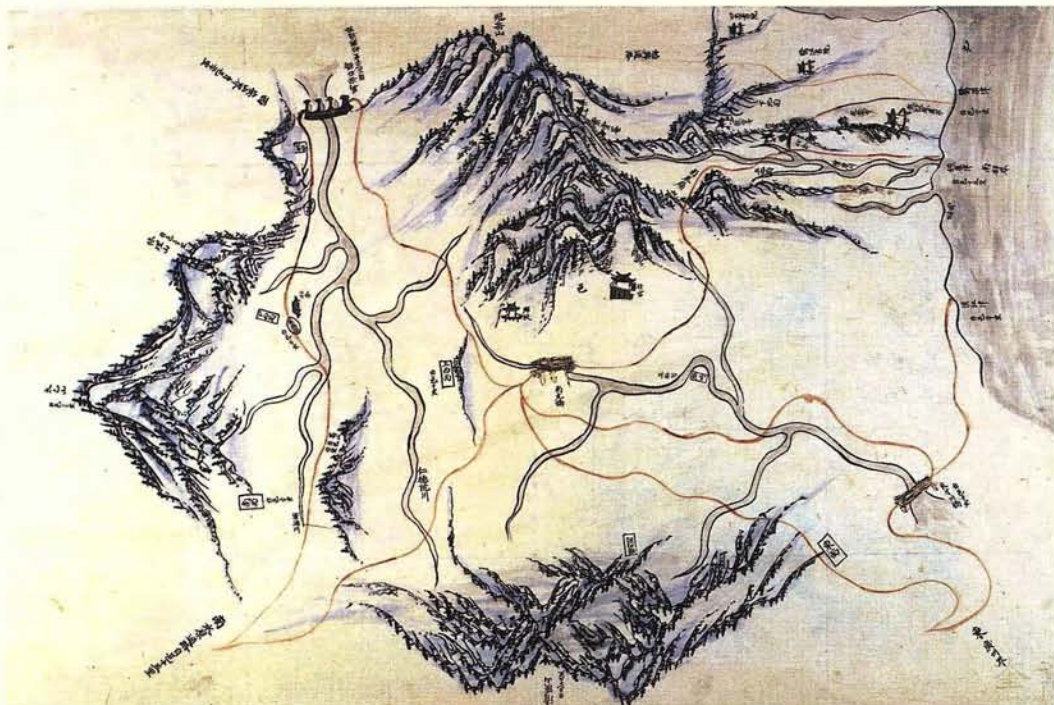
東距終境廣時五千里 北距終境比地三十里 西距終境浮米監二十五里 南距終境險川四十里 距京四十里
 距廣現利川界七十里 距楊州屈雲驛界七十里 距廣津三十里 距南陽界一百里 名南漢山漢山州淮安
 距陽智界八十里 距楊州界車騎時六十里 距松坡津三田渡三里 距水原界八十里

元戶一萬二千五百二十四戶內女一萬五千七百七十九
 量田田畝并五千八百五十五結六十八畝四求內 雜項除
 宗畝千八百六十五結三十四畝
 田千四百五十五結三畝八求

各面于三面



「해동지도」(규 古大4709-41) 중 「광주부」



『1872년 지방군현지도』(규 10661) 중 「과천지도」

군현지도』가 있다. 총 459매로 된 이 지도는 전국 각 군현과 관방을 대축으로 그린 낱장 군현지도로, 1871년에 전국적인 읍지 편찬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듬해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군현지도인 『해동지도』와 『1872년 지방군현지도』에서 군포 지역이 어떻게 묘사되고 기록되었는지 살펴보자. 물론 옛 지도에 표현된 모든 지형지물과 공간을 당시 사람들이 객관적 실재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지도에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지역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지도에 표현된 세계는 역사적·공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읽을 수 있으므로, 고지도를 하나의 텍스트로서 인식하고 해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⁴⁾ 이로써 옛 지도를 자료로 하여 시간축과 공간축을 유연하게 연장해, 지역을 읽는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1750년대 초반 제작된 『해동지도』의 「과천현」 도엽을 보면, 진산(鎭山)인 관악산과 청계산, 수리산, 그리고 북단에 뚜렷하게 그려진 한강이 과천현을 에워싼 형국이다. 특히 한성으로 가는 한강의 노량진과 동작진까지의 길은 물론이고, 인접한 광주, 안산, 금천(衿川)을 잇는 도로망이 붉은 선으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주로가 북쪽 방향으로 경도대로(京都大路), 남쪽 방향으로 삼남대로(三南大路)로 표기되어 있다. 당시의 지역 인식 정도와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짐

4) 전중환, 「지역 문화의 해석에 있어서 경관 연구의 함의」, 『중원문화논총』 10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75쪽.

距京都五十里
 西距果川界三十里
 南距陽智界七十里
 北距楊州界三十里
 東距利川界七十里
 東南距州界六十里
 東北距振界三十里
 西南水原界三十里
 西北距楊州界三十里
 慶安面初境十里終境四十里
 五浦面初境三十里終境五十里
 都文面初境四十里終境七十里
 寶利面初境十里終境七十里
 草月面初境十里終境四十里
 遂利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草真面初境三十里終境六十里
 東部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西部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龜川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中基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細利面初境五里終境二十里
 安馬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康生面初境十五里終境四十里
 大旺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蘇州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儀公面初境四十里終境六十里
 旺倫面初境五十里終境七十里
 月谷面初境七十里終境八十里
 北方面初境七十里終境九十里
 蘇華面初境八十里終境一百里
 慶安站三十里
 康生站三十里
 松坡站二十里
 奉安站三十里
 球觀站七十里



「1872년 지방군현지도」(규 10661) 중 「광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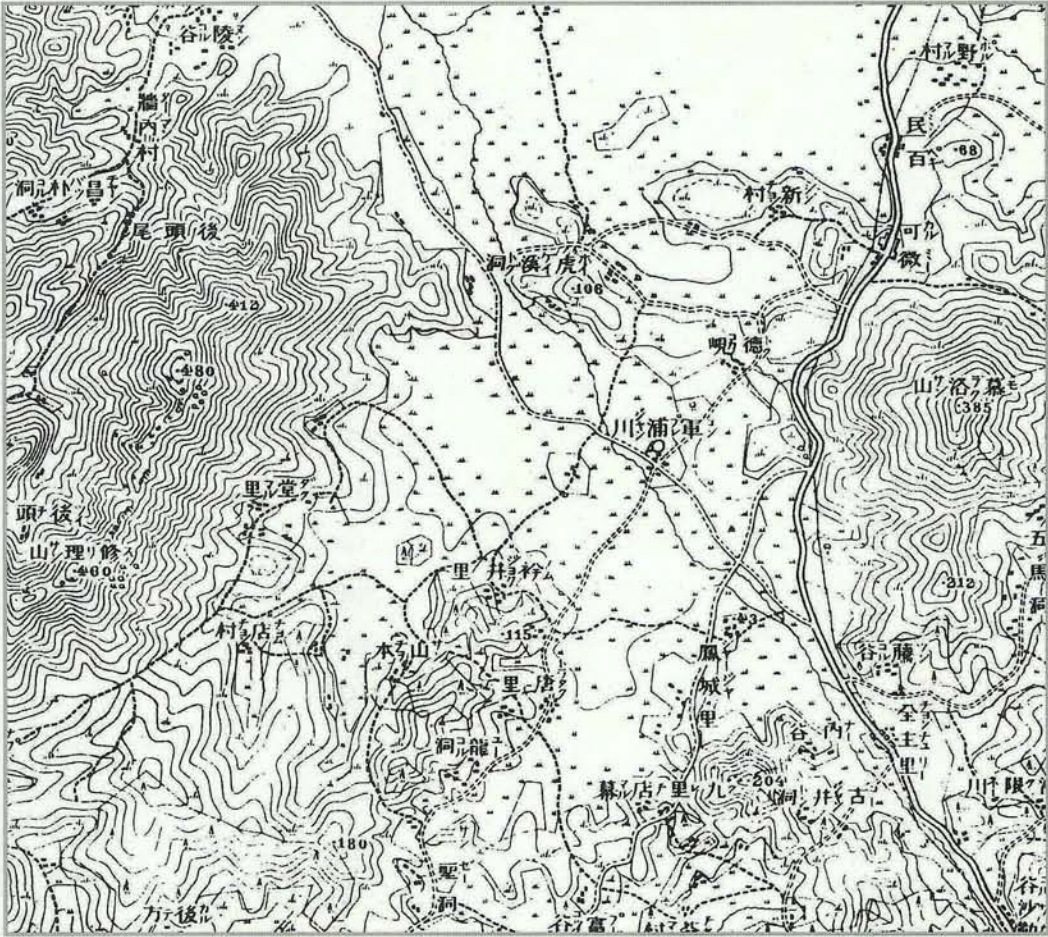
작게 해 주는 부분이다. 안양대천(安養大川)도 보인다. 「광주부」도엽에는 서북단에 북방면 지명과 그 아래 부곡주막(富谷酒幕)이 기록되어 있다.

『1872년 지방군현지도』는 회화적 성격이 매우 강한 지도로, 산에는 바위와 수목 등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기존 지도들에 비해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사창, 장시, 도로 등을 많이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해동지도』에 비해서 지역에 대한 정보량은 적은 편이다. 「과천지도」를 보면, 고을의 진산인 관악산이 있는 서북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읍치에는 향교와 행궁 건물만이 그려져 있고 다른 관아 건물은 생략되었다. 수리산과 태을산이 서쪽을 아우르고, 태을산 자락 아래 남면이 보인다. 그 오른쪽에는 군포천(軍浦川) 줄기가 보인다. 하서면(下西面, 현 안양시 일부) 가까이에 군포장(軍浦場)이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의 안양시 호계동에 해당한다. 『해동지도』와 마찬가지로 수원, 안산은 물론 한성으로 가기 위한 노량진과 동작진까지의 도로가 붉은 선으로 묘사되어 있다. 「광주지도」에는 서북단 과천 경계에 수리산과 북방면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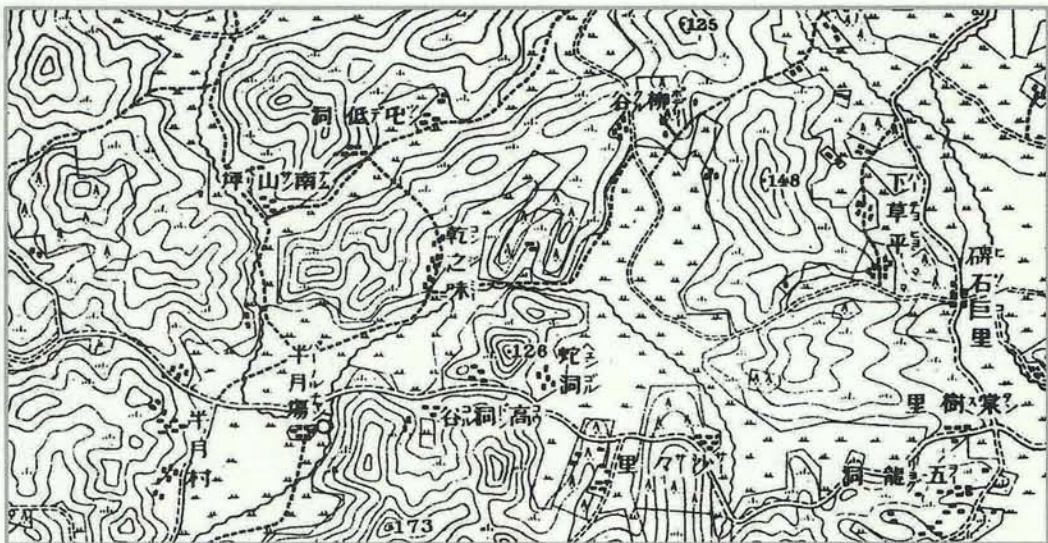
지금까지 옛 지리지와 지도에서 오늘날 군포와 관련 맺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군포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수리산은 문헌상 조선 초기부터 인식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리지와 옛 지도에서 수리산은 안산의 진산으로 표현되었고, 수암봉(秀岩峯, 鷲岩)과 수리산의 혼동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18세기에 들어서 활발하게 편찬된 군현 단위의 읍지와 군현지도에서는 수리산과 태을산이 서로 독립된 지형지물로 묘사되고 있다. 또 '군포(軍浦)'라는 지명은 1699년에 편찬된 『과천읍지』 산천조에 기록된 군포천에서 처음 확인된다. 군포의 바탕이 되는 과천현 남면과 광주부 북방면을 담고 있는 옛 지도, 특히 조선 후기 군현지도에서 한성은 물론 광주, 안산, 금천을 잇는 도로망의 발달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지금의 군포시가 갖는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기능과도 잘 연결되는 부분이다.

2. 근현대 지형도로 본 군포

오늘날 군포시의 출발선상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시장취락 및 역전취락의 배경이 함께한다. 즉, 군포장(軍浦場)과 경부선 군포장역 개설이 군포의 성립 및 성장·변화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본래 군포장은 구군포사거리와 안양천(뚝은내) 사이에 있던 장시(場市)이자 마을명이었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하면서 현 군포역의 전신인 군포장역이 만들어졌고, 1925년에 안양천 범람으로 군포장을 군포장역 앞으로 옮겼다. 군포장역은 1938년에 군포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⁵⁾ 1979년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의 「과천」, 도엽 중 군포장 부근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남양」, 도엽 중 현 대야동 일대

에 남면이 읍으로 승격할 때 군포읍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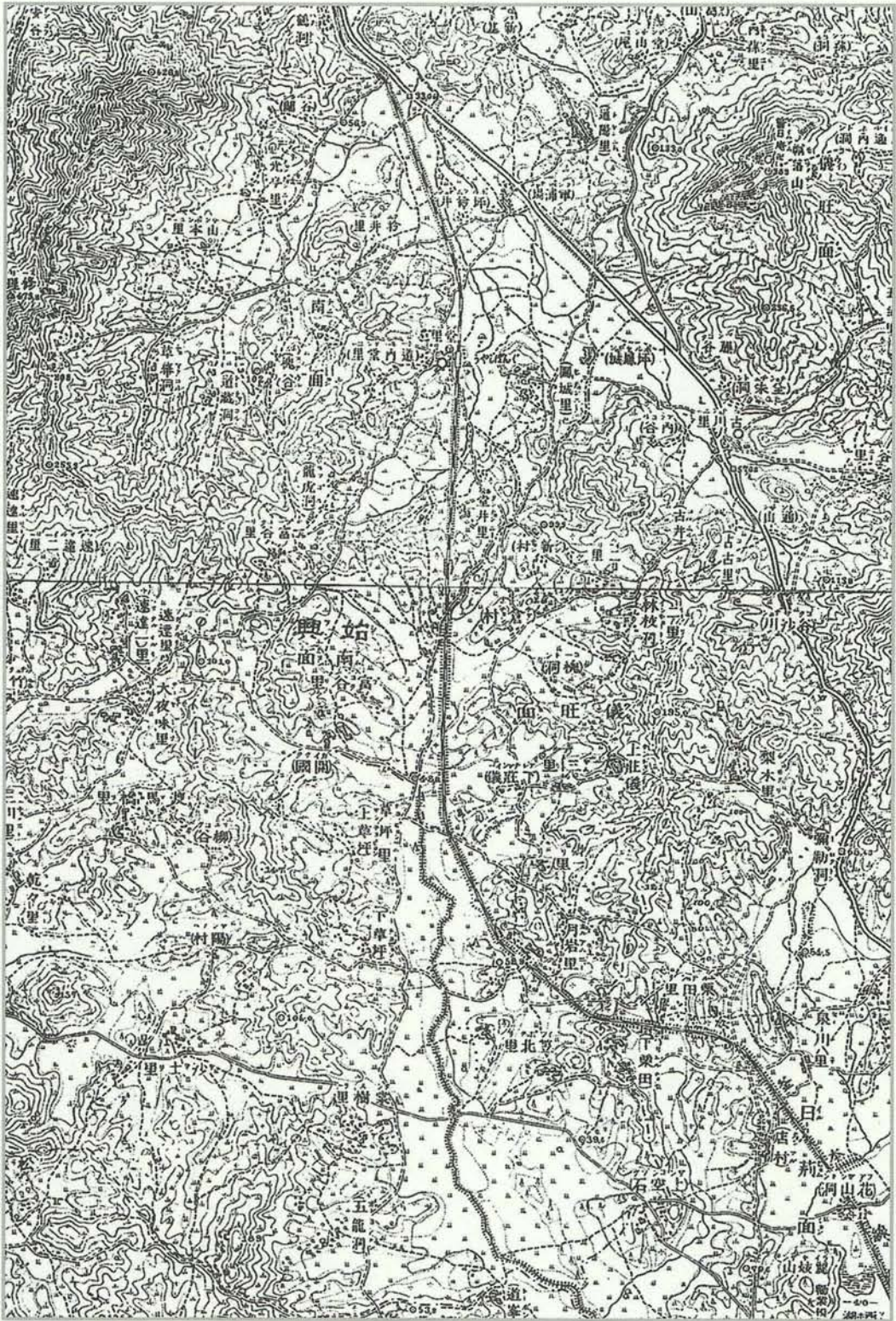
이러한 근현대 군포 지역의 시계열적 변화상을 근현대 지형도로써 살펴보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4개 시점, 즉 1890년대, 191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지형도를 읽어 보고자 한다. 그중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근대 지형도는 두 종류가 있다. 먼저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는 일본 육군 참모본부 육지측량부에서 1894년에서 1906년 사이에 제작한 것이다. 근대적인 삼각측량법이 아니라 목측(目測)과 보측(步測)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지명 자체의 오류는 물론이고, 지명의 위치에도 꽤 많은 오정보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지도는 1890~1900년대 초반 군포의 대체적인 지형환경과 마을명,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근세조선오만분지일지형도』는 총독부가 1914년에서 1918년 사이 발행한 것이다. 전국에 걸쳐 구축한 삼각측량점망에 근거해 제작한 지형도로 지형지물과 지명의 위치정보가 경위도 값을 갖고 있다.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의 「과천」 도엽에서는 지명의 한자나, 위치 표기에 오류가 적지 않으나 당시 군포 지역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이 지도에서 현 군포 지역과 관련하여 군포천·수리산 등의 자연지명과 하단 금정동, 당리, 산본, 봉성리(현 당정동 일부), 부곡, 삼성동(현 부곡동 일부), 용동(용호동, 현 당동 일부), 후방(뒷맹이, 현 대야미동 일부), 복개(현 둔대동 일부) 등의 마을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군포의 북서쪽에 안양촌이, 북동쪽에 인덕원이 있으며, 인덕원을 지나 남태령을 넘어 한성으로 이어지는 제주로가 보인다. 또 군포천과 안양천 유역에 충적지가 넓게 발달해 있다. 이 충적지는 1970년대 군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사라졌다. 한편, 남서단 구릉지 산록은 산본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깎여 나갔다. 이 때문에 신도시 단지 안 곳곳에 경사면을 가진 도로가 생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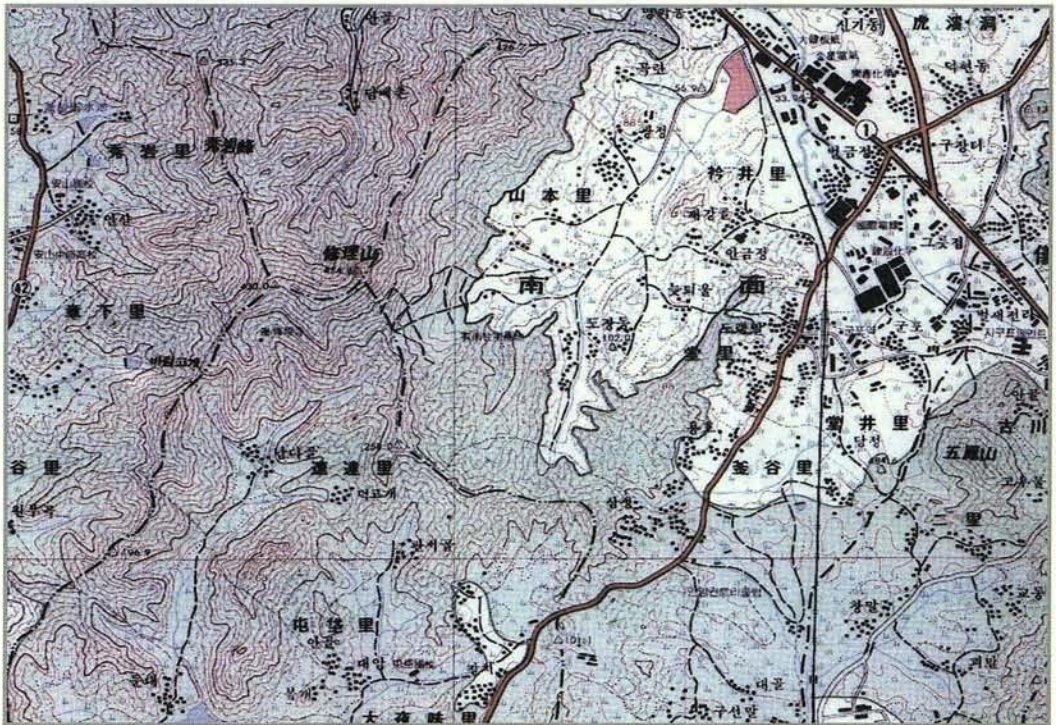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의 「남양」 도엽도 지명의 한자 표기나 위치에는 오류가 적지 않다. 이 지도에 나타난 갈대(갈티, 현 대야미동 일부), 유곡(현 도마교동 일부), 둔저동(현 둔대동 둔터) 등이 현 군포 지역과 관련된 지명이다. 이중 갈대는 「과천」 도엽의 후방과 위치가 뒤바뀌었으며, 둔저동은 현 안산시 건건동과 위치가 바뀌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 지형도에서는 반월저수지가 보이지 않는데, 저수지가 들어서는 곳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곳을 관통하여 안산읍치로 향하는 꽤 넓은 도로가 놓여 있다.

일제시기 지형도인 『근세조선오만분지일지형도』의 「군포장」과 「남양」 도엽을 보면, 과천군에 속했던 남면이 시흥군에, 광주부에 속했던 북방면이 안산군에 이속되었다가 수원군 반월면에 편제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속달리가 1리, 2리, 3리로 분화한 상태가 눈에 띈다. 이와 같은 행정 영역 편제의 변화와 마을의 분화 상태는 1917년 간행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서도 확인된다.⁵⁾ 이 밖에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는 보이지 않던 경부선 철도가 개설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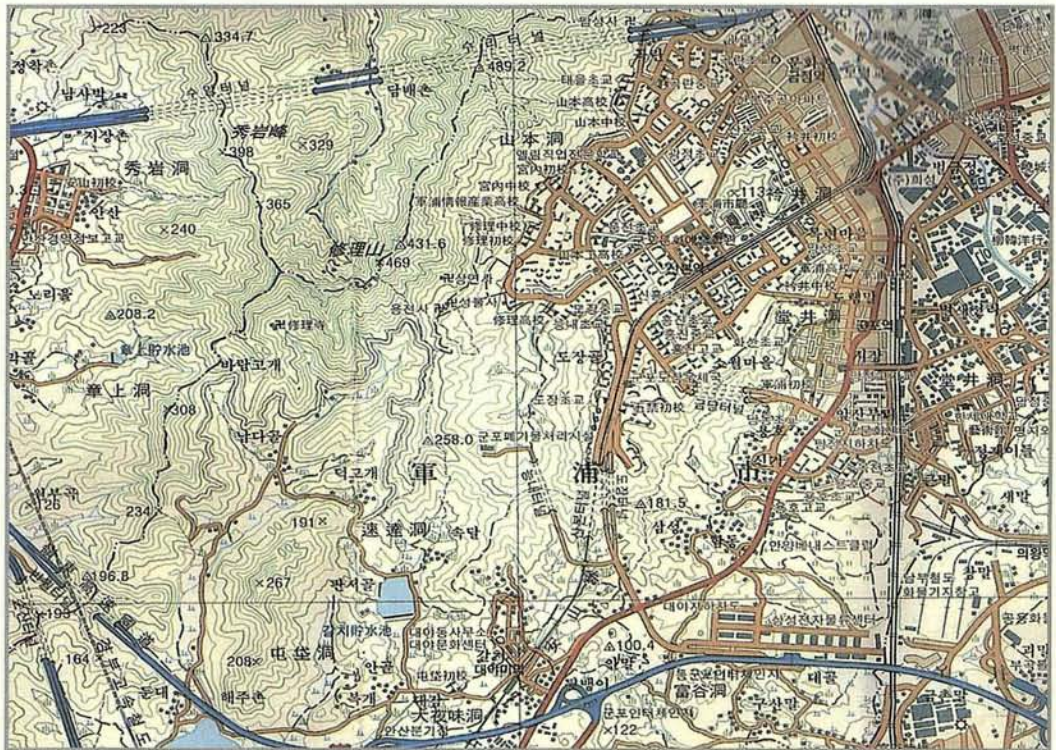
5)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316쪽.



'근세조선오만분지일지형도, 「군포장(위쪽) 및 「남양(아래쪽) 도엽



1978년 편집 '인양' 도엽(축척 1:50,000) 중 군포



2007년 수정 '인양' 도엽(축척 1:50,000) 중 군포

이 확인된다. 옛 제주로와의 사이에 보이는 충적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그 일대의 지형을 반영한 평봉성, 평금정 등의 지명이 나타나 있다. 수리산 산록에 자리한 산본리에도 꽤 넓은 충적지가 분포하고, 도마교와 부곡동 주변도 개석지 형태로 이해되는 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시작은 1970년대 초반 ‘군포 산업단지’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그 변화는 산업시설의 입지를 넘어 도로망의 확충이 병행되고, 더불어 취업기회를 찾아 전입해 온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다.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할 때인 1979년과 2000년대 지형도를 비교하면, 1970년대 이래 급속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군포읍 승격 무렵 지형도에서 이미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당정리와 금정리 부근에는 규모가 있는 공장들이 적지 않게 들어서고 당리에 가옥이 밀집한 양상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구릉성 산지의 많은 부분이 개발제한구역(녹색으로 표시)으로 지정된 것도 확인된다. 남서부의 속달리, 대야미리, 둔대리, 도마교리는 아직 군포시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옥들의 소규모 응집을 보이며, 개석지에 취락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최근 2000년대 중반 지형도에서 군포 지역은 1989년 시로 승격할 후, 1994년 12월에 화성군 반월면의 4개 리를 편입해 행정 영역을 확장한 이후의 모습이다. 이 지형도를 통해 현재 군포시의 지역 구조를 조망할 수 있다. 우선 읍 승격 무렵에 비해 도로망 확충과 시가지화 면적의 확대가 확연하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갈~안산 간 고속국도, 서해안고속국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되었고, 경부선(금정역~군포역)을 비롯해 지하철 안산선(금정역~대야미역)과 과천선(금정역)이 들어섰다. 20세기 초부터 경부선 군포장역을 중심으로 역전취락을 이루며 성장해 온 군포는 국도47호선을 통해 남북으로의 원활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광역도로망과 지하철 노선의 확대를 타 지역과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지역구조를 더욱 견고히 해 가고 있다.

제2장 행정 영역과 취락의 변화

정부매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군포시는 1989년에 태어난 젊은 도시이다. 20세기 초반 경부선 역전취락(驛前聚落)이었던 이 지역은 1970년대 접어들면서 서울의 공업과 주거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로 급성장하였고, 산본 신도시 건설로 지역구조에 큰 변화를 겪었다. 이후 행정 영역 바깥 경계와 안쪽 경계의 변화를 거듭하였고, 현재 교통시설 확충과 역세권 정비, 택지개발 등 역동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계속하고 있다.

군포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행정 영역과 취락의 변화를 파악하는 까닭은 행정 영역이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지역 경계와 문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¹⁾ 취락의 형성과 발달 양상은 지역의 모습살이를 보여 주는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지역의 행정 영역과 취락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조선시대 행정 영역, 지형환경, 생활양식 및 도시화의 전개 시기 등을 토대로 3개의 세부권역, 즉 기존 도시권, 산본 신도시권, 대야동권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군포 지역이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의 조화, 농업환경을 지닌 대야동과의 조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성을 가치화 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기술하였다.

1) 김종혁, 2003,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변동과 복원」,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2호, 97쪽.

1. 행정 영역과 경계의 변화

오늘날 군포 지역의 행정 영역은 조선시대 과천현 남면과 광주부 북방면에 바탕을 둔다. 1789년 『호구총수』를 보면, 당시 과천현 남면은 금정리(衿井里), 당리(堂里), 봉성리(鳳城里), 당정리(堂井里), 장간리(章干里), 산저리(山底里), 부곡리(富谷里) 등 7개 리로 구성되었다. 광주부 북방면은 속달리(速達里), 둔대리(屯垔里), 대야미리(大夜味里), 도마교유곡리(道馬橋柳谷里), 팔곡리(八谷里), 건건리(乾乾里) 등 6개 리로 구성되었고, 그중 앞의 4개 리가 현재의 군포 지역에 속한다. 북방면은 1906년에 광주부에서 안산군으로 이속되었다.

옛 군포 지역의 모습을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의 과천현과 광주부 도읍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특히 광주부 도

읍에서는 북방면의 위치와 몇몇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수리산(修理山)과 안양대천(安養大川), 부곡주막(富谷酒幕) 등이 보인다. 더불어 안산과 광주로 이어지는 중로(中路)가 묘사되어 있다. 당시의 지역 인식 정도와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짐작케 해 주는 부분이다.

이들 지도 외에 ‘군포천’과 ‘군포장’ 처럼 이 지역의 지명이 드러난 문헌과 옛 지도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 군포라는 지명은 1699년에 편찬된 『과천읍지』(일명 『과천현신수읍지』) ‘산천조’²⁾에 기록된 ‘군포천(軍浦川)’에서 처음 확인된다.³⁾ 이후 『1872년 지방군현지도』에서 군포장과 군포천



『해동지도』(규 고대 4709-41) 「광주부」 도읍의 북방면 지역

2) '산천조'에 군포천이 '관아 남쪽 20리에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3) 이후 '軍布川' 혹은 '軍鋪川' 등의 표기도 종종 등장한다.

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며, 『대동여지도』(1861)에서도 동일 한자로 된 군포천 지명이 보인다.

일제 초기에는 과천군 남면이 10개 동리, 안산군 북방면 중 현 군포 지역이 6개 동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1912년에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에 의해 전자는 5개 리, 후자는 4개 리로 각각 통합되었다.⁴⁾ 한편,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군·과천군 전체와 안산군 일부가 시흥군으로 통합하면서 과천군 남면은 시흥군 남면이 되었다. 이때 안산군 북방면은 월곡면·성곶면과 더불어 수원군 반월면이 되었고, 1949년에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신설된 화성군에 이속되었다. 이러한 행정 영역은 그 이후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표 1〉 1912년 동리 통합 전후 비교

행정구역	동리명	
	전	후
과천군 남면	산본동(山本洞)	산본리(山本里)
	초막동(草幕洞)	
	금정리(衿井里)	금정리(衿井里)
	과곡동(槐谷洞)	
	당리(堂里)	당리(堂里)
	용호동(龍虎洞)	
	당정리(堂井里)	당정리(堂井里)
	봉성리(鳳城里)	
	부곡리(富谷里)	부곡리(富谷里)
	장간리(章干里)	
안산군 북방면	대야미(大夜味)	대야미리(大夜味里)
	속달리(速達一里)	
	속달2리(速達二里)	속달리(速達里)
	속달3리(速達三里)	
	둔대리(屯岱里)	둔대동(屯岱洞)
	도마교(渡馬橋)	도마교리(渡馬橋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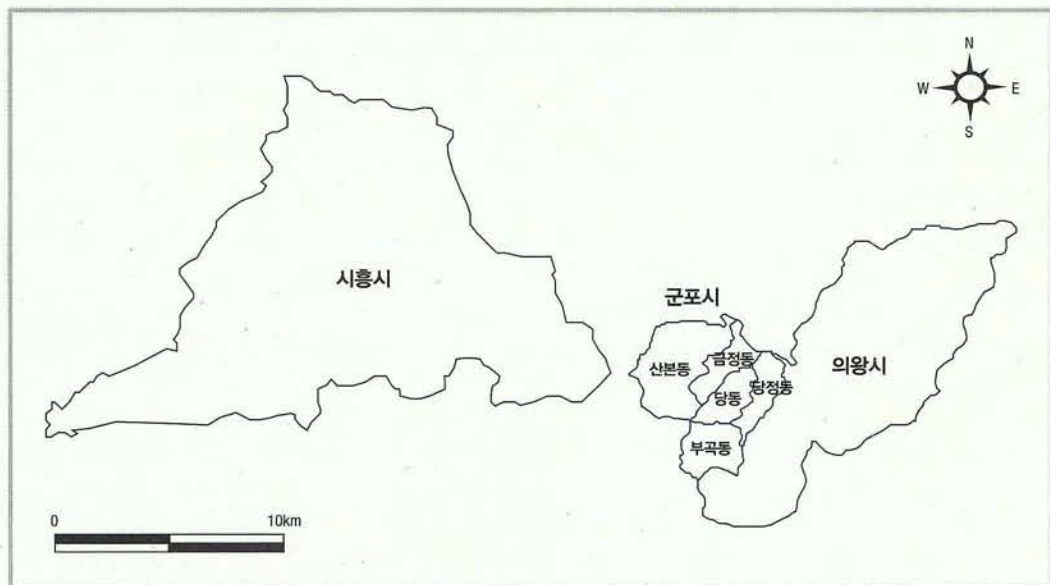
출처 : 『安山郡面内洞里ノ區域名稱變更』,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2월 8일; 『果川郡面内洞里ノ區域並名稱變更』,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7월 29일.

군포시는 시흥군과 화성군 반월면의 해체과정 속에서 행정 영역의 독립과 확대 과정을 경험하였다. 1970년대 산업시설의 입지와 인구 증가에 힘입어 시흥군 남면은 1979년 5월 1일에 읍으로 승격하여 군포읍이 되었고, 1989년 1월 1일에는 다시 시로 승격하면서 독립적인 행정 영역을 갖게 되었다. 이때 의왕읍도 시흥군에서 분리되어 의왕시로 승격하였고, 시흥군의 나머지 지역도 시흥시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1994년 12월 26일에 화성군 반월면의 대야미리, 도마교리, 둔대리, 속달리

4) 『地方廳公文』,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2월 8일; 『地方廳公文』,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7월 29일.

가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 군포시에 편입되어 오늘날 행정 영역의 기본 윤곽을 갖추었다. 군포시는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10만 1,330세대, 27만 7,590명(외국인 제외)이며, 군포1동(軍浦一洞), 군포2동, 산본1동(山本一洞), 산본2동, 금정동(衿井洞), 재궁동(齋宮洞), 오금동(五禁洞), 궁내동(宮內洞), 수리동(修理洞), 광정동(光亭洞), 대야동(大夜洞)의 11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시 승격 이후 군포 지역의 영역과 경계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군포시는 1989년 시 승격 당시 5개 법정동(금정동,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에 6개 행정동(군포1·2동, 금정동, 당정동, 산본1·2동)을 설치하였다. 이후 1992년 5월 1일에 금정동과 산본2동 일부를 분동하여 재궁동을 설치함으로써 7개 행정동이 되었다. 1993년 1월 14일에 재궁동에서 오금동을 분동하고, 같은 해 6월 8일에 산본2동에서 수리동을 분동하여 9개 행정동이 되었다. 1994년 7월 19일에는 수리동에서 궁내동을 분동하여 10개 동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화성군 반월면에서 편입된 4개 리를 각각 법정동으로 삼고 대야동이라는 하나의 행정동을 설치하여 11개 행정동이 되었다. 대야동 일대의 편입은 군포시 바깥 경계의 가장 큰 변화인 셈이다. 이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부와 동안구 호계동 일부가 군포시로 편입되었고, 군포시의 산본동 일부가 안양시로, 당정동 일부가 의왕시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다. 이후 1995년 2월 28일 산본2동에서 광정동이 분동하여 12개 행정동이 되었다가, 1998년 10월 1일에 당정동을 군포1동에 통합하여 다시 11개 행정동이 되었다. 이후 2005년 7월 24일에 의왕시 고천동·이동·삼동·초평동 일부가 군포시에 편입되고 군포시의 당정동 일부가 의왕시에 편입되는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행정 영역과



시흥군 지역의 시 승격 현황과 군포시 법정동(1989)

11개 행정동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군포 지역은 이처럼 자신의 바깥 경계로 인접 지역과 영역을 구분하며, 분동(分洞) 혹은 병합을 통해 다시 안쪽 경계를 만들거나 변경하면서 영역성(territory)을 확보해 왔다. 특히 안쪽 경계에서 산본동과 금정동의 행정동 분화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산본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및 가구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하나의 지역은 자신의 영역을 재구성하면서 사람과 일체화되고 독특한 생활 양식을 생산하는데, 군포 지역도 이러한 지역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2. 권역별 주요 경관

현재의 군포시는 역사성과 행정 영역 변동, 공업지역의 형성, 시가지화 과정, 생활권 등을 기초로하여 크게 3개의 세부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산본 신도시 건설 이전까지 지역의 중심지였던 '기존 도시권', 신도시 개발로 지역 중심지가 된 '산본 신도시권', 그리고 다른 두 곳과 달리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대야동권'이 그것이다. 물론 각 권역 안에는 선명하게 범주화할 수 없는 지역도 있지만, 대략적인 세부권역 구분은 군포시의 공간구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기존 도시권

기존 도시권은 조선시대 과천현 남면 지역의 일부이며, 안양천 서쪽에 자리한다. 오늘날의 법정동으로는 당정동·당동·부곡동⁶⁾ 등 3개 동이, 행정동으로는 군포1동과 군포2동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금정동 일부도 이 권역에 포함된다.⁷⁾

5)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군포시, 2007) 등에서는 생활권 구분에 기초하여 군포 지역을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상정하고, 세부적으로는 당동중생활권, 당정중생활권, 대야중생활권, 산본중생활권 등 4개의 중생활권으로 나누기도 한다.

6) 군포2동의 남쪽에 해당하는 부곡동은 크게 보면, 옛 장간리에 해당하는 상부곡과 부곡리에 해당하는 하부곡으로 나뉜다. 그중 하부곡은 지역의 생업적 특성이나 기초 환경 측면에서 기존 도시권보다 의왕시의 부곡동 권역이나 대야동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군포복합화물터미널 건설(1998년 12월 공용 개시)과 최근의 택지개발로 지역 변화가 전개되어 대야동권과는 다른 차별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7) 이 글의 세부권역 구분에서 금정동은 산본 신도시권에 포함하였지만, 군포동에 인접한 금정동 일부가 기존 도시권에 속해 여기에 부분적으로 함께 기술한다.



법정동(좌)·행정동(우) 경계와 권역 구분(2009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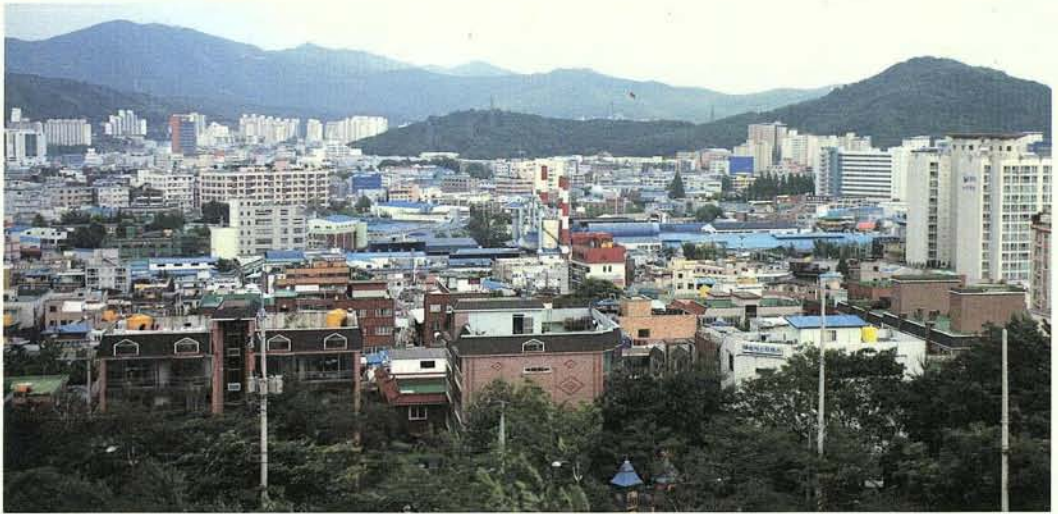
이 권역에서 군포1동은 1905년 경부선 철도 부설과 군포장역 설치를 계기로 군포 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각종 공공시설이 자리하고, 1925년 12월에 군포장(軍浦場)이 이전해 오면서 1920년대에는 명실상부한 지역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산본 신도시 건설 이전까지 이러한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였다. 맑은내(안양천)와 새전들에 자리 잡은 당정동은 1970년대에 군포 공업지대가 조성되면서 인구유입이 늘고 시가지화가 진전되었다.

군포 지역은 1970년대 접어들면서 서울의 공업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고용 기회가 늘어나자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었고 주거기능도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 도시권은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서쪽의 당동 주거지구와 동쪽의 당정동 공업지구로 기능이 분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이 일대의 변화는 다음 내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원래 군포공단이 들어설 무렵 이 일대(군포역 주변)는 농사하는 흙바닥이었고, 군데군데 공터들도 있었지.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 연립들이 들어서더니 조금 있다가 학교(군포초등학교) 부근에 낮은 아파트들이 건설되었지. 몇 년 후에는 산본으로, 이쪽 원주민들이 많이 나갔어. 역 건너편 공장들은 거의 중소기업체들이네, 잘 될 때는 우리 시장점포 상인들도 좋았는데, ……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졌어. <백남면(여, 1942년생, 군포시장 상인) 구술>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군포시의 기업체는 1,163개소이고, 종사자수는 2만 958명에 달한다.⁸⁾ 이

8) 「군포시 기업체 현황(2008. 12. 31. 현재)」,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biz.net>) '기업현황'.



당동 당집에서 바라본 군포역 주변 경관



금정역 부근(큰보통) 중국어 간판 경관

를 동별로 보면, 당정동이 704개 업체에 1만 4,006명, 금정동이 300개 업체에 4,819명, 당동이 85개 업체에 1,427명 등의 순이다. 군포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 산업기능이 여전히 당정동, 당동을 비롯한 기존 도시권과 금정동을 중심으로 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현황을 보면, 1980년대 초반 군포시에서 전개된 도시적 취락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4~6층 높이에 1~4개 동 규모의 저층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당동과 금정동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⁹⁾ 특히 기존 중심지였던 당동 일대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

반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고층아파트들이 늘어났는데, 그 결과 당동의 아파트 밀집지역은 흔히 '신산본'으로 불린다. 이 외에도 현재 당동2지구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군포역 일대의 정비사업(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도 계획되어 있다.

9) 군포시청(<http://www.gunpo21.net>) '공동주택정보'.



부곡택지개발지구와 복합물류센터(2008년 8월)

금정동에서도 2009년 초 ‘금정역세권 뉴타운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의 효시로 삼는다는 방침이 발표되어,¹⁰⁾ 연립주택이 주축을 이루는 기존 주거지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정역 건너편 ‘큰보뜰’ 주위에는 주택과 상가가 혼재하며, 중국어 간판도 즐비해 이색적이다. 이러한 언어경관은 금정동의 다문화적 주민 구성과 다양한 생활양식의 일면을 보여 준다. 단순한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부곡동은 농촌 경관이 유지되는 가운데, 부곡택지개발지구 공사가 한창이다. 부곡동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연마을인 고랑치기 앞 경지에는 비닐하우스 경관이 펼쳐져 있다. 이 마을의 북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그 너머에는 복합화물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다. 고랑치기마을 앞은 예로부터 서울에서 남태령을 넘어 당수리로 빠져서 발안으로 나가는 주요 통로였다. 보행길로는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2) 산본 신도시권

산본 신도시권도 기존 도시권과 함께 조선시대 과천현 남면에 속했다. 오늘날 법정동으로는 산본동과 금정동에 해당한다. 행정동으로는 산본1·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이 이 권역에 해당한다.

이 권역은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과 1990년대 산본 신도시 건설로 형성되었다. 1989년 2월 산



10) 「군포시, 지역 균형발전·교육명품도시 구현, 『뉴스시스』(<http://www.newsis.com>) 2009년 1월 2일



중영로 좌우의 신도시 아파트 경관

본동, 금정동, 당동 일원이 '군포산본택지에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수리산 동쪽 산록에 산본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시 승격 당시 군포 지역은 군포1동과 산본1동, 금정동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신도시의 중심이 된 산본2동은 목장과 초지가 대부분이었다.¹¹⁾ 하지만 산본2동은 신도시 건설 이후 대단위 주거지역을 형성하며 군포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행정동의 분화도 이곳에 집중되었다.

산본 신도시권은 기존 도시권과는 다르게 반듯한 바둑판 모양의 도로와 아파트 밀집 경관이 주축을 이룬다. 산본 중심상가는 군포 제일의 중심상업지구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상가의 야경은 군포8경 중 하나이다. 산본 신도시 건설은 오늘날 군포시 지역구조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동인(動因)이라 할 수 있다.

3) 대야동권

대야동권은 조선시대 과천현 남면에 속했던 기존 도시권 및 산본 신도시권과 달리 광주부 북방면에 속했다. 오늘날 법정동으로는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도마교동 등 4개 법정동이 여기에 속한다. 이 권역은 앞서 기술한 두 곳과는 다른 행정 영역 변화를 경험했다. 북방면은 1906년 안산군에 속하게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북방면이 같은 군의 성곶면, 월곡면과 통합되어

11)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31~36쪽.



둔대동의 개발제한구역 표지석(좌)과 속달동의 논(우)

수원군 반월면이 되었다. 그리고 수원군 반월면은 1949년 8월 수원읍의 시 승격에 따라 신설된 화성군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반월면의 대야미리, 도마교리, 둔대리, 속달리가 1994년 12월 군포시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¹²⁾

대야동권은 그 면적이 15.34km²에 달해 군포시 전체 면적 36.36km²의 약 42%에 해당하는 넓은 권역이다. 최근에 대야미동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아파트가 늘어났고, 도마교동에서도 송정지구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경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권역의 95%인 14.57km²가 개발제한구역¹³⁾으로 지정된 까닭에 아직은 농촌 경관이 두드러지고 자연마을의 분포와 마을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속달동 동래 정씨 마을의 상징경관을 비롯하여 덕고개 당숲과 둔대농약 등 오랜 전통이 남아 있는 대야동권은 군포 지역이 다양한 면모와 가치를 갖도록 이끄는 권역이라 할 수 있다.

12) 1994년 반월면이 본격적으로 해체될 당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로 편입되고자 하는 주민들과 화성군에 그대로 남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은 주민투표로 결정이 되었는데, 대야미리, 속달리, 둔대리, 도마교리는 1,302세대 중 982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87.4%의 찬성으로 군포시에 편입되었다.

13)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70쪽.

3. 취락의 입지와 변화 양상

1) 취락의 입지 특성과 취락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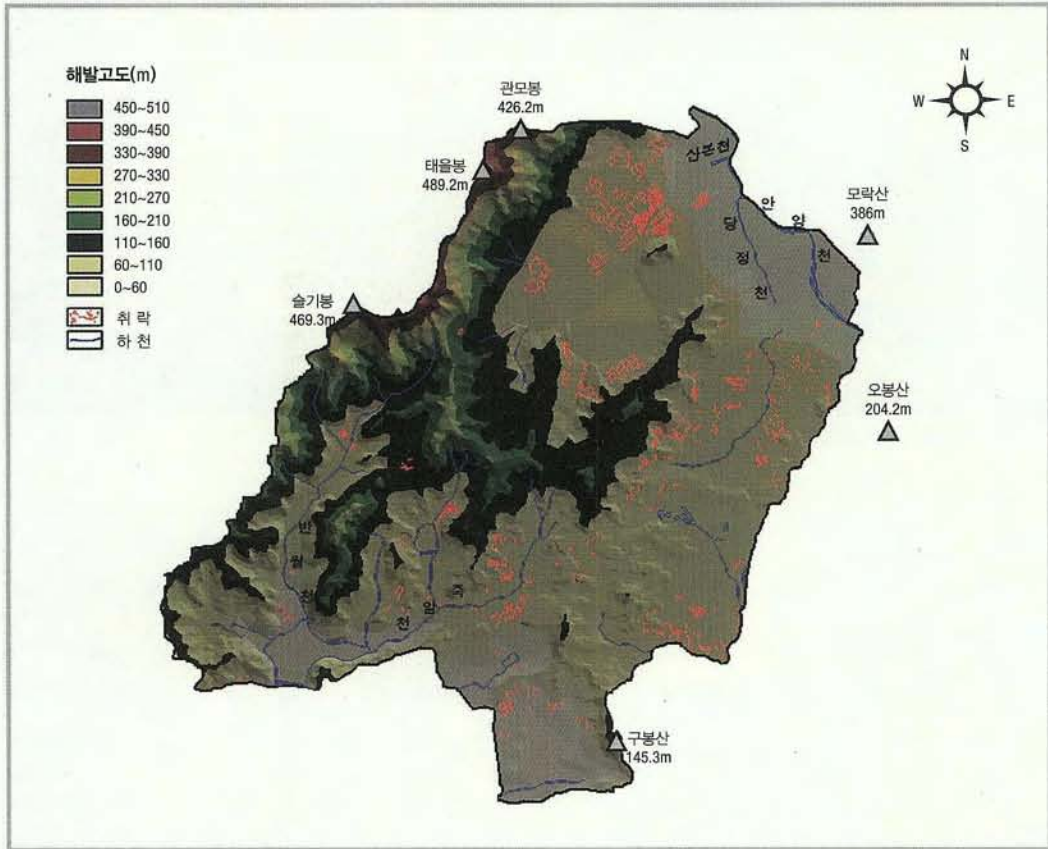
군포 지역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일까? 군포 취락의 바탕이 되는 자연마을들은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을까? 정확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몇몇 유적과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 내용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1988년 신갈~반월 간 고속도로 공사구간 가운데 대야미동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었고, 부곡동에서 청동기 유적이 발굴되었다. 또한 산본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산본동 고분군과 백자요지가 발견되었다. 2004년 군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는 산본동에서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가 발견되었는데, 수리산 자락은 산세가 완만한 지점이어서 청동기시대 취락지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골안[谷蘭]을 비롯해 광정마을, 문화촌 등지에서 지석묘가 발굴 조사되었다. 이렇듯 군포 지역은 구릉성 산지와 한강으로 유입되는 안양천 상류 유역에 자리하고 있어 선사시대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산본동, 부곡동 등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취락생활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유적과 유물도 출토되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과천과 광주부에 속했던 군포 지역은 특히 과천 일대가 경기 남부 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과정에서 취락의 성장도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⁴⁾

군포 지역은 수리산 능선에 의해 안양천, 반월천, 황구지천의 3개 수계로 구분된다. 안양천 수계는 지류인 산본천과 당정천이 금정역 부근에서 안양천과 합류하며, 반월천 수계는 반월천 상류부와 죽암천이 반월저수지로 유입되었다가 서해로 흘러든다. 황구지천 수계인 삼성천은 황구지천 상류부의 지류로 왕송저수지로 유입된다. 시의 동부 안양천 유역권에 속하는 기존 도시권과 산본 신도시권은 도시화의 확장으로 자연마을은 거의 사라졌다. 반면, 반월천 유역의 대야동권은 토지이용의 제도적 제한(green belt)이 작용해 농촌 경관과 자연마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황구지천 유역권에 속하는 부곡동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복합화물터미널이 입지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등 환경 변화가 현저했지만, 아직까지는 고랑치기 같은 자연마을이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취락의 초기 입지와 분포에는 자연환경, 특히 지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군포시는 서부의 수리산(修理山), 동북부의 모락산(帽洛山), 동부의 오봉산(五鳳山), 남동부의

14) 세종대학교박물관·군포시, 2004,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3~56쪽.



지형과 취락 분포

구봉산(九峰山)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이다. 군포의 진산(鎭山)인 수리산이 위치한 서쪽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고, 동쪽은 낮은 형세를 띠고 있다. 시의 동쪽을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안양천은 안양시와 동북쪽 경계를 이루며, 남서쪽에서 안산과 경계를 이루는 반월천은 시화호를 지나 황해로 유입된다.

군포시는 전체 면적의 69.2%가 100m 이하의 저지(低地)이고, 300m 이상의 고지는 2.5%에 불과하다. 경사도 5% 이하가 71.2%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거지나 산업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기존 도시권과 대야동권, 산본 신도시권의 중심부가 대부분 경사도 5% 이하이다. 특히 표고 100m 이하가 대부분인 기존 도시권 중에서도 당정동 일대의 공업지역은 군포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¹⁵⁾

군포 지역의 취락 입지는 지형환경을 기초로 해 볼 때, 전반적으로 고도 60~110m 내외의 낮은 침식 구릉지 말단부에 주로 입지한다. 시 중심부 곳곳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낮은 구릉지가 마을

15) 연제항, 2000, 「군포시의 도시화와 기능지역의 구조변화」,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17쪽; 마성환, 2000, 「군포시의 지역별 수질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쪽.



당동의 낮은 구릉지에 자리한 주택·가로 경관



산본동의 구릉지 위에 자리한 아파트 경관

입지 터로 선호되어 온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당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시권뿐만 아니라 산본 신도시권의 아파트 지역에서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동북부 안양천의 지류인 산본천 주변의 금정동에서는 매우 평탄한 지형 위에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다. '큰보뜰', '중보뜰' 같은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적 취락이 들어서기 전에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충적평야가 이 일대에 분포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남서부 대야동권의 자연마을은 수리산자락 아래 형성된 개석곡(開析谷)이나 침식 구릉지 말단부에 입지하는 경향이 짙다. 남동부 부곡동의 경우는 구봉산과 같은 낮은 구릉성 산지를 뒤로 하고 60m 내외의 저지에 입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군포 지역 촌락의 입지는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에는 높은 산지가 적고, 대부분 지역이 구릉성



도마교동 송정마을의 입지
산을 등진 마을 앞으로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평탄면으로 이루어진 침식평야나 하천의 충적물이 쌓인 충적평야가 넓게 나타나는 것과 연결된다. 특히 도시화 이전에 중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촌락들이 산록에 발달한 구릉지 주변에 형성되었고, 평야지대에서는 촌락의 대부분이 평탄면으로 둘러싸인 개석지에 분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¹⁶⁾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 입지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배산임수형이다. 군포 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지류하천의 발달이 미약한 편이어서 전형적인 배산임수형태의 마을은 흔치 않다. 대신 도마교동 송정마을처럼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경지가 펼쳐지는 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과거 서해의 바닷물이 지금의 논바닥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대야동권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2) 동리의 변화와 자연마을 현황

1759년(영조 35) 편찬된 『여지도서』를 보면, 당시 광주부 북방면의 동리 명칭까지 확인할 수 있다. 북방면에는 속달리, 둔대리, 대야미리, 이리, 도마교리, 삼리, 팔곡리가 기록되었는데, 둔대리(屯垓里)와 도마교리(渡馬橋里)의 한자를 지금과는 달리 ‘遁垓里’와 ‘刀馬橋里’로 적고 있다. 또한 1789년(정조 13)에 편찬된 『호구총수』는 처음으로 과천 고을 각 면의 이름과 면별 리명(里名)에 호구 내용을 적고 있다. 여기에서 남면의 금정리, 당리, 봉성리, 당정리, 장간리, 산저리,¹⁷⁾ 부곡리 등 7개 리를 확인할 수 있다. 원호는 460호이고, 인구는 1,929명(남 807명, 여 1,12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광주부 북방면의 경우 속달리, 둔대리, 대야미리, 도마교유곡리, 팔곡리, 건건리 등 6개 리가 확인되며, 원호는 347호, 인구는 1,347명(남 713명, 여 63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 2〉 『여지도서』의 과천현과 광주부 북방면 호구

(단위: 호, 명)

구분	호수(戶數)	인구수(人口數)		구분	호수(戶數)	인구수(人口數)			
		남	여			남	여		
과천현	현내면	551	1,018	1,313	광주부 북방면	속달리	79	141	130
	동 면	407	678	1,304		둔대리	37	51	66
	상서면	283	300	680		대야미리	39	153	150
	하서면	283	568	947		이 리	22	46	48
	남 면	378	652	1,095		도마교리	35	54	84
	상북면	812	1,679	1,941		삼 리	47	130	156
	하북면	436	805	832		팔곡리	58	125	177

16) 정재훈, 1990, 「한국의 촌락입지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응용지리』, 141~1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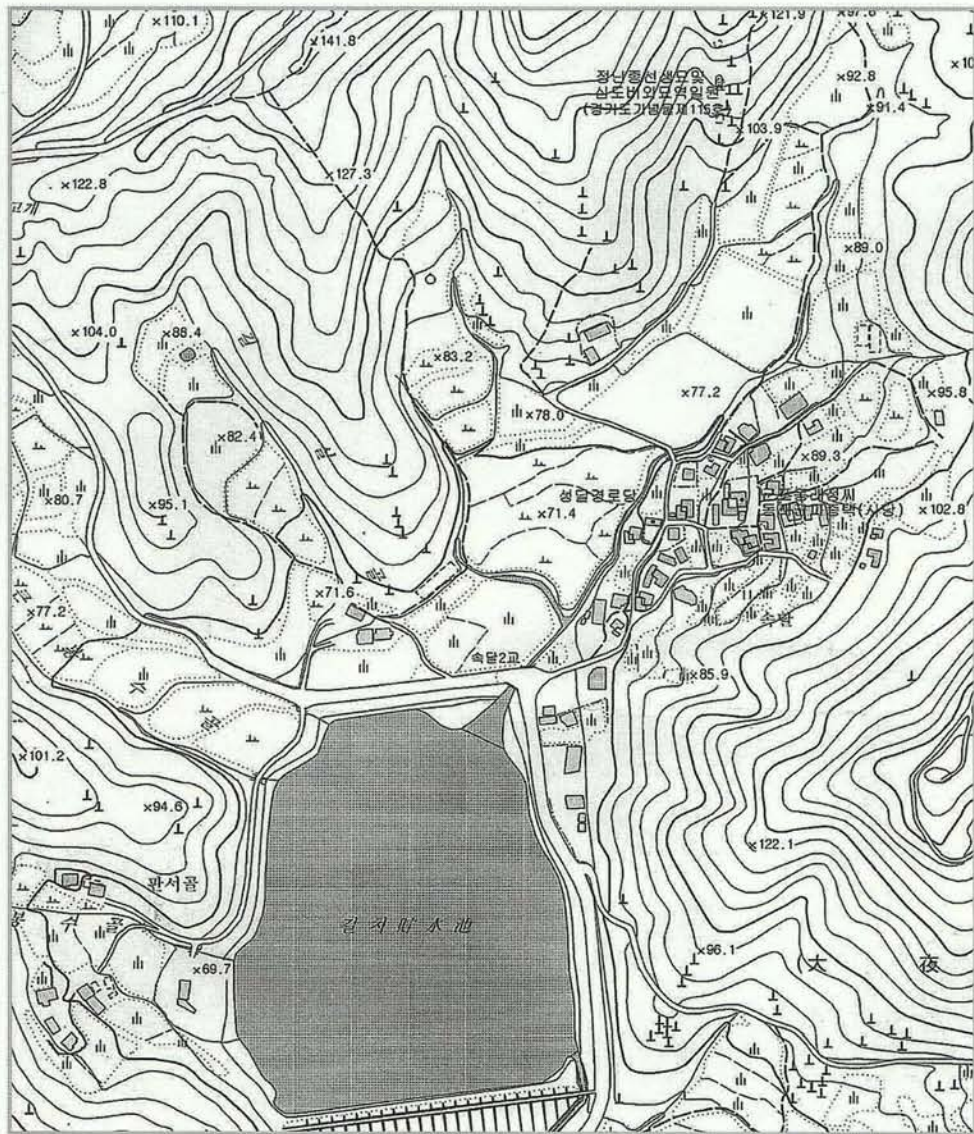
17) 산저리는 19세기 중반 이후 산본리로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청주 한씨 장도공파 소장 자료 중 「대청 함풍 9년(1859) 2월 토지매매문서」에도 ‘산본’이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한편, 1917년 오타 타다시찌(超智唯七)가 편찬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서 1914년 일제에 의해 강행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마을명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폐합 이전 마을명에서 자연마을이 성장, 분화해 동리의 수가 늘어난 것이 발견된다. 3개 리로 분화했던 속달리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1912년 경기도고시에 의해 속달1리(현 대야미동 갈티마을)는 대야미와 함께 대야미리로, 속달2리와 속달3리는 속달리로 통합되었다. 속달리와 대야미리의 성장과 분화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군포 지역에서 주요 세거문중의 입향 시기를 입묘(入墓)를 기준으로 보면, 그 시점은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시대 세조~연산군 때이다.¹⁸⁾ 조선 후기에 와서야 ‘군(郡)-면(面)-동리(洞里)-촌(村)’의 행정 편제가 확연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¹⁹⁾ 군포 지역에 세거문중들이 입향하는 시기에 자연촌들은 산거집단(散居集團)으로 존재하면서 반독립적인 형태의 자연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군포 지역에 남아 있는 종족집단의 거주지 경관과 관련 인물들의 활동 연대(생몰시기)를 통해 취락의 전개 양상을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다. “근친자(近親者)는 사자(死者)를 그의 거주지 부근에 매장하는 고향이 있다.”²⁰⁾는 견해에 따르면, 군포 지역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거주지는 금정동, 산본동, 속달동, 대야미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 군포 관련 주요 인물의 생몰시기와 묘소

이름	생몰시기	묘소 위치	비고
송복산	1390년(공양왕 2)~1467년(세조 12)	금정동	
홍일동	1412년(태종 12)~1464년(세조 10)	금정동	산본 신도시 건설로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리 남양 홍씨 선영으로 천장
안 의	1423년(세종 5)~1468년(세조 14)	산본동	
송숙기	1426년(세종 8)~1489년(성종 20)	금정동	
한치의	1440년(세종 22)~1473년(성종 4)	산본동	현 강남구 수서동에서 1970년 9월에 군포로 천장
정난중	1433년(세종 15)~1489년(성종 20)	속달동	
안우삼	1441년(세종 23)~1494년(성종 25)	산본동	
정광필	1462년(세조 8)~1538년(중종 33)	속달동	
안우하	1458년(세조 4)~1544년(중종 39)	산본동	
이 항 (안양군)	1480년(성종 11)~1505년(연산군 11)	산본동	1900년에 당시 양주 금곡에서 과천 남면으로 천장
이기조	1595년(선조 28)~1653년(효종 4)	산본동	1672년 장단에서 수리산 아래로 천장하였고, 1708년 4월에 죽산으로 천장하였다가 1728년 8월에 수리산 아래로 다시 천장
김만기	1633년(인조 11)~1687년(숙종 13)	대야미동	
김명연	1753년(영조 29)~1830년(순조 30)	금정동	산본 신도시 건설로 1990년에 의왕시 왕곡동 청풍 김씨 선영으로 천장
김동헌	1791년(정조 15)~1869년(고종 10)	금정동	산본 신도시 건설로 1990년에 의왕시 왕곡동 청풍 김씨 선영으로 천장



1:5,000 지형도의 속달마을

군포 지역의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 세거문중의 현황은 1955년 『경기도지』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실린 주요 성씨를 보면, 당리의 경주 김씨(57호), 부곡리의 현풍 곽씨(23호), 당정리의 남원 양씨(22호), 그리고 둔대리의 신안 주씨(25호), 청송 심씨(39호), 속달리의 동래 정씨(23호)이다.²⁰⁾

18) 군포시, 1999, 『군포시사』, 99~1004쪽.

19)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45쪽.

20) 川島藤也, 1974, 『文化柳氏の氏族の移動と性格』, 『朝鮮學報』 第70輯, 43~75쪽.

21) 경기도지편찬위원회, 1957, 『경기도지』, 하, 508·515쪽.



둔대동 죽암마을

그중 동래 정씨 동래부원군과 문중이 세거해 온 속달동 속달마을은 수리산 줄기가 동남쪽으로 뻗어 내려 남향으로 형성된 골짜기의 동쪽 자락에 서향으로 입지하였다. 이 문중의 입향은 정난종의 입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황해도관찰사로 재임할 때 이시애의 난(1467년)을 평정하여 공을 세우고, 1470년에 동지중추부사로 사은부사가 되어 명(明)에 다녀와 이듬해 좌리공신 4등으로 동래군에 봉해져 파시조가 되었다. 낮은 구릉을 따라 놓인 마을 안길을 올라가면,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로 지정된 이 문중의 종택이 나타난다. 이 가옥은 유교적 공간질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실제적인 쓰임새를 중시하는 조선 후기 살림집의 특징을 담고 있다.²²⁾ 전통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유교적 질서에서 위계가 높거나 신성한 공간들은 마을의 상부와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둔대동의 둔대(屯垓)라는 이름은 임진왜란 때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리에 군사들이 주둔했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지금도 테미산 봉우리에는 넓은 공터가 있다고 한다. 둔대동은 반월저수지에 접한 둔터마을과 대야미동 쪽의 3개 자연마을로 구성된다. 그중 후자에서 '죽암(대감)'은 마을이 형성되기 이전인 조선 초기부터 훌륭한 죽림(竹林)이 있어 풍류를 즐기는 대감들의 행차가 잦아 죽암(竹巖)이라 부르다가 점차 변해 대감 혹은 대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의 뒷능선을 넘으면 10여 채의 집이 모인 '안골(내곡)'이 있고, 죽암과 안골 중간쯤에 바닷게가 없드린 듯한 형상이라고 설명되는 '복개[복게, 복해(伏蟹)]'가 있다.

대야동 인구의 85% 정도가 밀집해 있는 대야미동은 주택개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갈터 마을 일대는 대야빌라, 약수빌라, 생수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빌라는 논 한가운데 혹은 연못을 메우고 건축한 것들이었다. 또한 현재 대야미역이 들어선 곳은

22) 군포시, 1999, 「군포시사」, 994~995쪽; 경기도, 2005, 「경기도 문화재 총람 : 도지정편」, 490~491쪽.



택지개발사업 시행 이전의 부곡동 삼성마을

예전에 '뒷뱅이' 혹은 '뒷박' 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으며, 그중에서도 대야미역 동쪽의 건양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마루테기' 라고 불리던 곳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남양에서 반월-뒷뱅이-갈고개-안양을 거쳐 노량진으로 갈 때 이용하던 길이라고 한다.

도마교동은 큰말, 송정, 새골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다. 마을 입구의 낮은 언덕에서 마을 전체를 바라보면, 구봉산 앞자리에 펼쳐진 넓은 들판을 끼고 자리한 마을 형국이 삼태기 모양이다. 그 중 송정은 농성 구씨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고, 70~80년 전 화재로 재실과 종택 등 소중한 상징경관들이 소실되었다고 한다.²³⁾ 한편, 송정 일대는 과거 유곡으로도 불리었는데, 그 지명에서도 읽혀지듯 버드나무가 지금도 마을에 줄지어 서 있다. 큰말과 송정마을은 최근 '송정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어 마을의 물리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대야동권 외에 지금도 자연마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역시 부곡동이다. 기존 도시권에 가까운 상부곡은 삼성과 황등, 복합화물터미널 아래쪽의 하부곡은 각성바지 마을로 고랑치기, 구선말, 장터벌, 무지개골(홍촌), 변씨촌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부곡의 경우, 현풍곽씨와 남평 문씨가 대성을 이루었고, 하부곡에서는 남원 양씨, 신안 주씨, 원주 변씨 등이 대성을 이루었다. 상부곡은 당동2지구택지개발로, 하부곡은 복합화물터미널 건설과 최근의 부곡지구택지개발로 대부분의 자연마을이 사라졌고, 현재는 고랑치기마을만이 남아 있다. 고랑치기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되어 마을 형태가 남아 있으나 이미 복합화물터미널이 인근에 입지하면서 마을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곳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장 행정 영역과 취락의 변화

23)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대야동 마을지』, 8쪽.

〈표 4〉 행정동별 자연마을 지명

행정동	자연마을
군포1동	당말[堂里], 동막골[花山洞], 웃터[上垆洞], 잠상[蠶桑], 당넘어[堂下里], 아구랑[阿邱閣, 阿口洞], 앞산뿌리, 취락 마을(79번지 마을), 벌말, 벌새전리[평봉성], 봉성리[鳳城里, 안새전리], 넘말, 구군포장, 소당정, 방죽말, 큰말
군포2동	용호동[龍虎洞, 요골], 새터말[新基, 새터말골], 교전말[校前], 도내동[道乃洞, 도랫말, 도랭말], 삼성(三姓, 三星, 三升), 황동(黃東, 黃登), 변씨촌[邊氏村], 솔태백이, 구선말[九仙洞], 무작골[虹谷, 무지개골], 부곡[富谷, 대골], 각골말[角谷村], 고랑치기, 안말, 옥천[玉泉], 장터(장터골, 장터벌)
산본1동	노루목
산본2동	골안[谷內, 谷蘭]
금정동	안금정[內衿井], 버금정, 점말
재궁동	느티울[槐谷], 짱골[齋宮골]
오금동	오금절이(오금자리)
수리동	도장골[道藏洞], 초막골[草幕洞], 둔전[屯田]
궁내동	궁내(宮內, 궁안)
광정동	광정(光亭)
대야동	뒷뱅이, 갈티, 큰말[大村], 유곡[柳谷], 안골, 복개[伏浦, 伏蟹], 죽암[竹岩, 大岩, 대감], 해주촌[海州村], 대야미(大夜味), 둔터[屯垆], 납다골[納德谷], 덕고개[德峴], 판서골[判書洞], 새골[鳥谷], 속달[速達], 송정(松亭)

출처 :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2004,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군포시: 군포시, 1995,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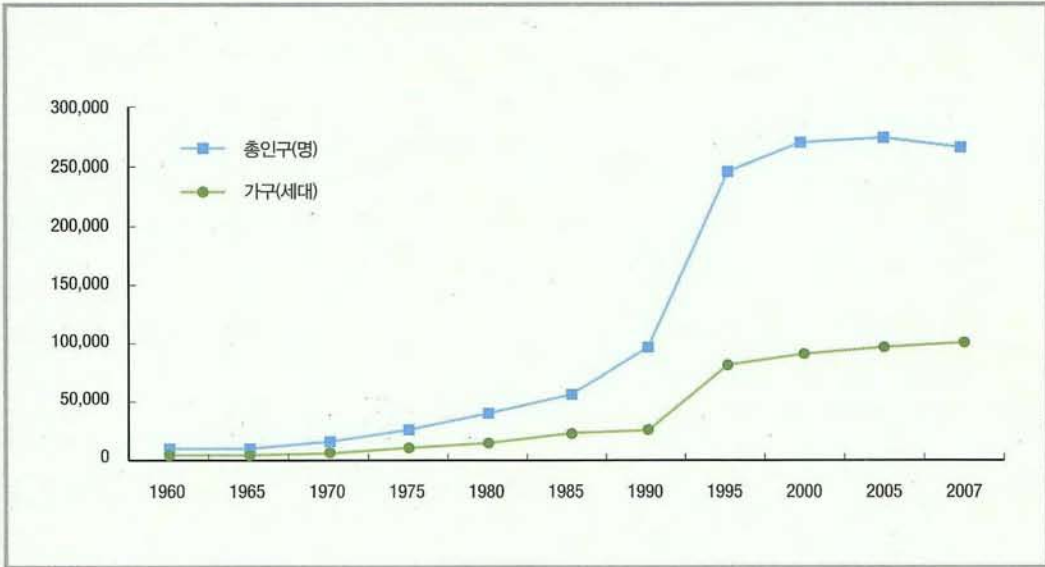
3) 산본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

산본 신도시 건설은 군포 지역의 본격적인 도시적 취락의 전개를 이끌었다. 물론 이보다 앞서 1973년에 안양시도시계획으로 당정리와 금정리 주거지역은 공업용지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당정·군포공업지역’이 개발되었고, 도시하부구조 내실화를 통해 산본주택지역의 효율적 주거지 조성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제시되기도 했다.

1970년 이후 군포 지역에서 전개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제조업체 및 종사자수의 증가 양상이었다. 특히 1970년 이후 군포시에 입지한 제조업체 가운데 30% 이상의 업체가 서울에 본사나 지사를 두어 왔으며, 이들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1970년 이후 군포읍 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따라서 군포 지역은 서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입지함으로써 고용기회가 크게 확대되는 고용교외화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²⁴⁾

이러한 밑거름 위에, 정부의 수도권 5대 신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군포시의 인구와 가구수가 급증했다. 특히 산본 신도시 개발기간에 해당하는 1990~1995년 인구 및 가구수의 변화 폭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크다. 1989년 2만 9,489세대 10만 4,595명이던 인구는 1990년에는 신도시 개발 보상에 따른 주민 이주로 2만 7,481세대 9만 9,956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 가 끝나는 1995년에는 7만 8,036세대 24만 5,190명으로 증가하였다. 5년 만에 세대수는 2.8배, 인구

24) 권용우, 1989, 『수도권 위성도시-군포·의왕·시흥·미금·오산·하남시』, 『도시문제』 통권 272호, 24~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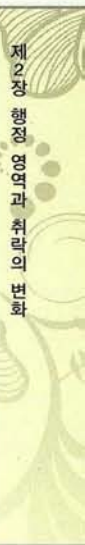


인구 및 가구수 변화(1961~2008년) 25)

는 2.5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산본 신도시 건설이 군포시 전체 취락구조와 지역 공간구조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행정동별 인구 규모는 군포2동, 군포1동, 광정동, 오금동, 재궁동, 궁내동, 산본2동, 산본1동, 수리동, 금정동, 대야동 순이다.²⁶⁾ 세대수는 군포1동, 군포2동, 광정동, 산본1동, 오금동, 재궁동, 궁내동, 수리동, 산본2동, 궁내동, 대야동 순이다. 인구와 세대수 모두 기존 도시권에 속하는 군포1·2동이 가장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산본 신도시권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면적이 큰 대야동권의 경우 두 도시권에 비해 인구 및 세대수가 매우 적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인구와 세대수의 권역별 차이는 지역의 경제적 기능을 비롯한 각종 기능의 지역차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산본 신도시 건설 이전에 건축된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주축으로 한 도심재건축 사업이 군포역 및 금정역세권 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당동1지구, 부곡지구, 당동2지구, 송정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도 병행되고 있다.



25) 시흥군, 『통계연보』 각 연도;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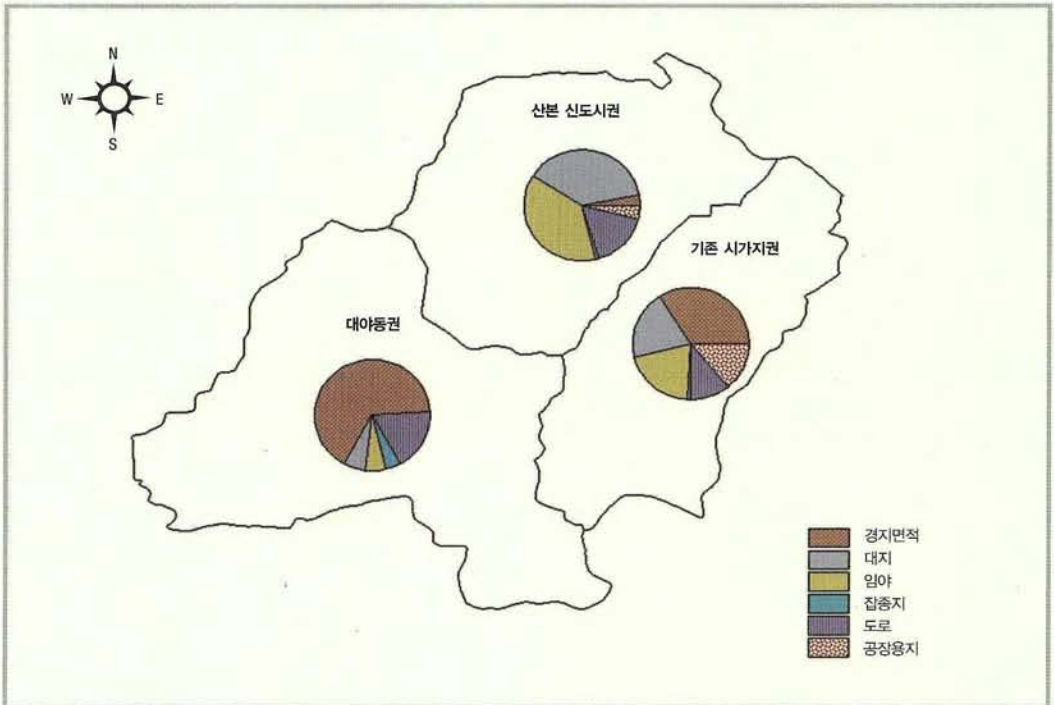
26) 군포시청(<http://www.gunpo21.net>) '월별인구현황'.

4. 조화로운 삶을 구성해 가는 군포

군포시는 조선시대 과천현 남면과 광주부 북방면 일부 지역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 시흥·수원·화성 지역의 성장과 해체 과정 속에서 행정 영역의 독립과 확대를 경험하면서 1989년에 이르러서야 독자적인 행정 영역을 갖춘 새로운 도시다.

도시 성장의 측면에서 군포시는 20세기 초반의 경부선 역전취락의 형성으로 발전의 계기를 맞은 이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공업과 주거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로서 급성장했다. 특히 산본 신도시 건설은 이 지역의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군포시는 행정 영역 안팎 경계의 변화를 거듭하고, 교통시설 확충과 역세권 정비, 택지개발 등 역동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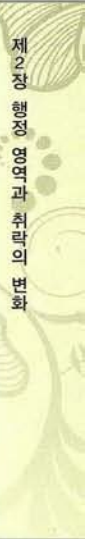
그런데 한 지역이 과거의 서로 다른 두 개 행정 영역을 토대로 구성되었을 경우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처럼, 군포시는 경부선 군포장역 설치를 계기로 형성된 기존 도시권, 1980년대 말 주택 200만 호 건설 과정에서 형성된 산본 신도시권, 그리고 1994년 12월에 화성군 반월면에서 편입되어 현재도 농촌 경관과 가치



권역별 토지이용

가 유지되고 있는 대야동권으로 나뉠 수 있다. 이들 세 권역을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부곡동을 포함한 기존 도시권은 경지와 대지의 면적이, 산본 신도시권은 대지 면적이, 대야동권은 경지면적이 중심을 이루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성격을 달리하는 세 권역이 병존하는 곳이 군포시다.

이렇듯 군포시가 안고 있는 기존 도시권과 산본 신도시권, 그리고 이들 두 권역과 농업지역인 대야동권 사이의 기능적 차이는 극복해야 할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역마다 지닌 차별성을 군포시의 다양성으로 승화해 조화를 이룬다면, 긍정적인 잠재력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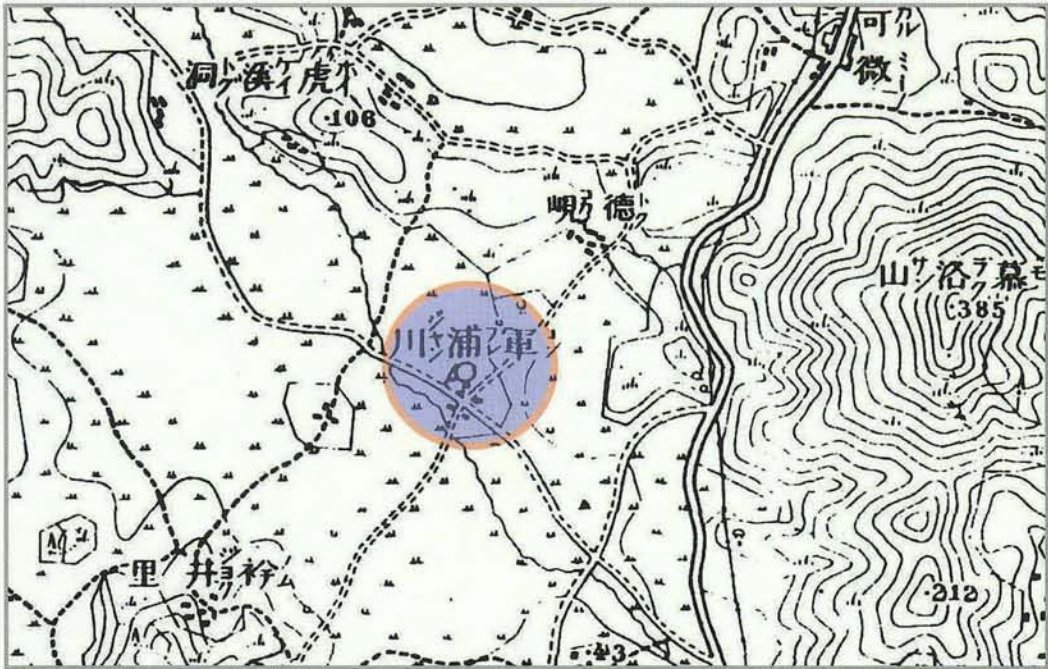
제3장 '군포' 지명의 유래

이상열 | 군포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1. 군포라는 행정 명칭의 등장

1970년대 공업화와 1980년대 도시개발의 결과, 읍에서 시로 승격한 군포시는 독자적인 행정영역을 갖춘 지 20년밖에 되지 않는 도시다. 그리고 군포라는 이름이 행정기구의 명칭으로 쓰인 지도 30년밖에 되지 않았다. 군포라는 행정 명칭은 시흥군 남면이 1979년 5월 1일에 법률 제4050호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1989년 12월 31일 공포)에 의거하여 군포읍으로 승격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면이 읍으로 승격할 때에는 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서 '남읍' 혹은 '남면읍'이라 하지 않고 기존에 쓰지 않던 군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 지역이 예로부터 군포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한자로는 '군사군(軍)'과 '개포(浦)'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군포란 본래 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에 있던 지명 중 하나였다. 호계3동 일대를 도양리(道場里)라 하였고, 그 중에서도 현재의 구군포사거리에 형성되었던 군포장(軍浦場) 일대를 군포라고 하였다. 군포장은 1770년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군포천장(軍浦川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며, 초기에는 매 3일과 8일에 장이 서다가 1796년에 안양장이 개설되면서 개시일을 1·6일로 바꾸게 되었다. 이후 개시일은 5·10일로 변하였다.



한말 지형도에 나타난 경부선 부설 이전 군포(구군포)와 군포천 주변

그런데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 당시 장터가 있던 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이 아니라 군포시 당동에 군포장역(軍浦場驛)이 설치되었고, 1925년 12월 23일자로 기존 군포장마저 폐지되고 새로운 군포장이 매 2·7일에 군포장역 앞에 개설되었다.¹⁾ 이처럼 중요한 두 시설이 당동에 설치되면서 지역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기존 군포장이 있던 곳을 구군포, 현재의 당동을 군포 혹은 신군포로 부르게 되었다. 넓게는 옛 시흥군 남면 일대를 통칭할 때에도 군포라고 하였다.

이처럼 군포라는 행정 명칭이 사용된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군포라는 지명을 행정 명칭으로 사용하면서도 이 지명 자체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만약 군포라는 명칭이 특정 마을이나 그 속에 속한 하나의 지명이었다면, 그 유래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지금보다 훨씬 약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 도시의 명칭으로 사용되다 보니 시민들의 긍·금증이 증폭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시민이 지역신문에 기고한 다음 글은 시민들의 생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 아직까지 군포(軍浦)라는 지명의 유래가 무엇인가조차 모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선조의 기록을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성세대가 자신이 사는 곳의 지명조차 규명하지 못한다면 후세의 질타를 어찌

1)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1호』, 『조선총독부관보』 1926년 1월 12일;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2호』, 『조선총독부관보』 1926년 1월 12일

감당하려 군포라는 곳의 '지역적 특성은 어떤가?' '그 이름의 유래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실은 군포시민이라면 당연히 알아 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지만 현재 군포시의 지명유래는 여섯 가지나 존재한다. ……²⁾

이렇다 보니 행정담당자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진 향토사가들의 고심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시청은 시 승격 이후 군포의 유래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박이 원로들, 과거에 군포읍이 속했던 시흥시와 국가기록원 등을 찾아다니며 그 유래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래된 지명의 특성상, 명확한 유래를 찾을 수는 없었다. 또한 기존에 수차례 발간된 지명유래집에서도 이 문제에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다루었으나 명확한 유래를 찾지 못하였다. 그간의 노력은 오히려 대략 6가지에 달하는 유래만 나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군포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켰다.

2. '군포'의 유래에 관한 각양각설

군포시청 홈페이지 등에서는 군포(軍浦)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설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청일전쟁 때 군인이 머물렀다는 설
- 둘째, 군포장역(軍浦場驛)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 셋째, 군포(軍布)에서 군포(軍浦)로 바뀌었다는 설
- 넷째, 군포천(軍浦川)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 다섯째, 옛날에 군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데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 여섯째, 군웅산(軍雄山)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이제 이들 유래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2) 김용하, 「우리의 고장, 왜 군포인지 궁금해」, (2009년 7월 7일), 군포신문(<http://www.gunponews.net>).

1) 청일전쟁 때 군인이 머물렀다는 설

‘청일전쟁 때 군인이 머물렀다는 설’에서는 189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청(淸)과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청일전쟁을 군포라는 지명의 유래로 설명한다. 당시 청군이 군함을 타고 이곳에 와서 머물렀고, 그것이 유래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유래설은 일정 정도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

청일전쟁은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으로 조선 조정이 청에 원병을 요청한 일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서 발발하였다. 조선의 요청에 따라 청은 1894년 6월에 군대를 파병하였는데, 이는 1885년에 청과 일본이 맺은 텐진조약(天津條約)을 위배한 것이었다.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고, 이후 조선에 출병할 경우에는 서로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청이 군대를 파병하자 일본도 조선에서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동학군 토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파병하였다. 일본은 동학군을 진압하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철병을 거부하며 침략 야욕을 노골화하였다.

1894년 10월에 일본군이 군포에 잠시 머문 사실은 몇몇 문헌 자료에 나타난다. 이는 동학군의 수원부 습격과 관련한 것인데, 일본군 1개 소대가 제물포를 출발하여 관군과 합류하기 위해 그달 26일에 군포장에서 머물렀다. 이에 대해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朝鮮 군대 응원병으로 1개 소대를 原田 小尉가 이끌고 濟物浦를 출발하여 내일 果川縣의 軍浦場에서 조선 군대를 기다릴 것이다. 따라서 조선 군대는 길을 재촉하여 빨리 그곳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 또 조선 관리를 파견하여서 양식의 매입, 人馬의 준비, 숙사의 마련 등을 주선시켜야 하며, 관리 중 日本語가 통하는 자 1명을 파견하기 바람. 이 점 外務大臣에게 신청할 것.³⁾

이처럼 청일전쟁 당시 군대가 머물렀다는 설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을 맺는다. 이 사건은 군포 지역 토박이 원로들의 할아버지 대에 일어난 일이므로 그 상황이 구전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군 외에 청군이 이곳에 주둔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군포장역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군포장역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은 경부선의 부설로 인해 설치된 군포장역(軍浦場驛)과 관련

3) 『東學黨의 水原府 습격에 따른 朝鮮政府의 원조요청의 件3』(1894년 10월).



한 해석이다. 경부선은 대한제국 시절이던 1905년 1월 1일에 개통하였고, 이때 과천군 남면 당리(현 군포시 당동)에 군포장역이 설치되어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경부선 철도의 개통 당시와 건설계획 수립 당시의 노선은 서로 달랐다. 당초에는 명학리(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와 군포장, 사그내(현 의왕시 고천동)를 지나서 지지대고개(현 의왕시와 수원시 경계)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지지대고개가 예상 외로 높아서 노선을 변경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군포역과 의왕역을 지나는 노선이 채택되었다. 즉, 옛 군포장에 설치되어 야 할 군포장역이 노선의 변경으로 현 군포시 당동에 설치된 것이다.

3) 군포(軍布)에서 군포(軍浦)로 바뀌었다는 설



『일성록』 1796년 11월 24일 을축의 군포장과 안양장 병설(並設) 기사

‘군포(軍布)에서 군포(軍浦)로 바뀌었다는 설’에서 군포(軍布)란 군적(軍籍)에 오른 장정들에게 군역을 면제하는 대가로 받는 벼를 말하는 것으로, 군역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 설은 조선 22대 왕인 정조(正祖, 1752~1800)의 재위기간(1776~1800)에 편찬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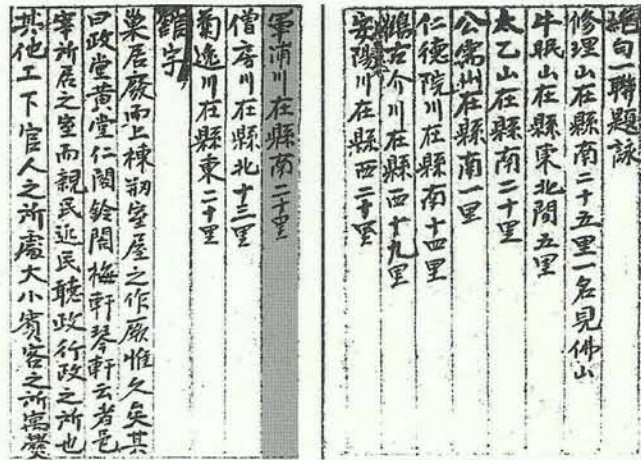
헌상의 기록과 관련된 해석으로 보인다.

정조는 부왕인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의 화산으로 천묘하기 한 달 전인 1789년(정조 13) 9월에 능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을 편찬하도록 어명을 내렸다. 그에 따라 『원행정례(園幸定例)』가 편찬되었는데, 여기에 ‘군포천교(軍布川橋)’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또한 그해의 『일성록(日省錄)』에는 ‘군포천점(軍布川站)’이 등장한다. 그리고 『일성록』의 1796년 기록에는 ‘베 포(布)’가 아니라 ‘물가 포(浦)’를 사용한 ‘군포장(軍浦場)’이 나타난다.⁴⁾ 즉, 이 설은 정조 대에 편찬된 문헌상의 한자 표기가 초기에는 ‘군포(軍布)’로 적혔다가 이후에 ‘군포(軍浦)’로 변화하여 등장한 것을 배경으로 하였다고 추정된다.

4) 『원행정례』 도로교량조(道路橋梁條). 『일성록』 1789년 9월 5일 무자. 『일성록』 1796년 11월 24일 을축.

4) 군포천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군포천에서 유래하였다
는 설’은 안양천 상류의 군포천
(軍浦川)이 옛날부터 수운을 이
용하는 포구로서 널리 알려졌
고, 여기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군포천은 안양천 상류의 군포
시 구간의 옛 이름으로, 1699년
『과천읍지(果川邑誌)』(일명 『과
천현신수읍지』)에 처음 등장한
다. 이 문헌에서는 군포천의 한
자를 현재와 같이 ‘군사(軍)



『과천읍지』(1699) 산천조

과 ‘물가 포(浦)’로 표기하고 “관아 남쪽 20리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군포천의 한자는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동국문헌비고』(1770), 『경기지(京畿誌)』(1842~1843)와 『과천지도』(1872) 등에도 『과천읍지』와 동일하게 기록되었다. 앞서 살펴본 『원행정례』, 1800년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 1815년 『헌경혜빈상례도감의궤(獻敬惠嬪喪禮都監儀軌)』와 『현릉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監儀軌)』 등에는 ‘군포천(軍布川)’으로 기록되었고, 『대동지지(大東地志)』(1860년대)에는 ‘펼 포(舖)’를 사용하여 ‘군포천(軍舖川)’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문헌부터는 대체로 현재와 같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5) 옛날에 군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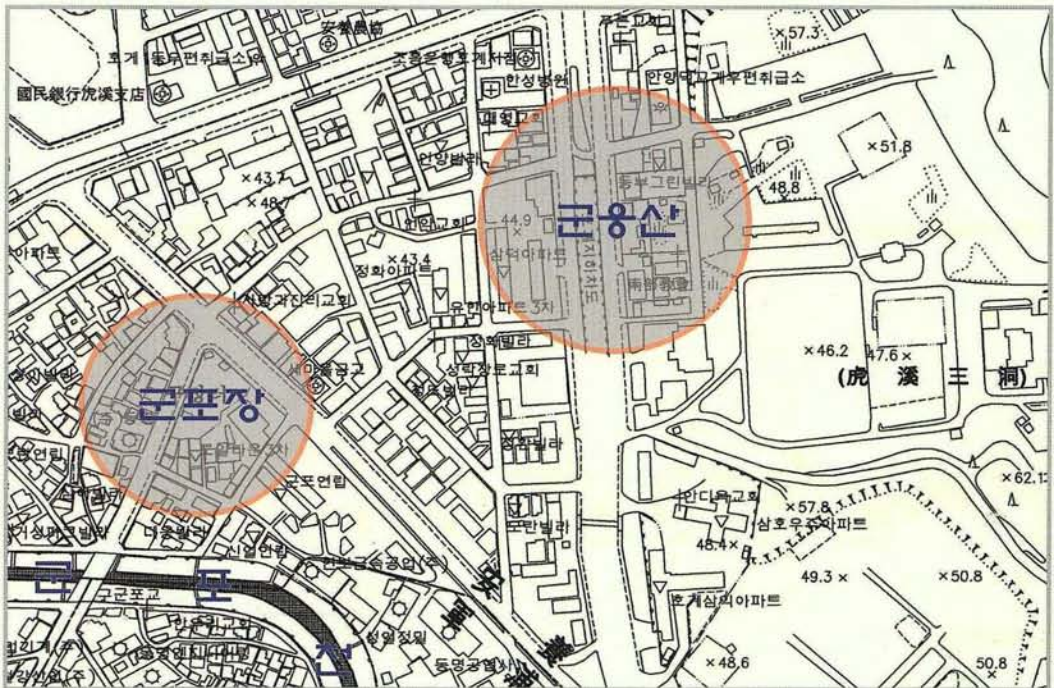
‘옛날에 군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설’은 임진왜란과 관련한 내용으로 전해 오고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당시 왜군에게 패하여 후퇴하던 의병과 관군이 이 지역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였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이 굶주린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에 사기를 진작한 의병과 관군이 왜병을 크게 무찔러 큰 공을 세웠다. 그 후부터 이 지역을 굶주린 관군이 배불리 먹은 지역이라 하여 ‘군포(軍飽)’라 하였다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군포(軍浦)’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설은 1980년대에 간행된 지명유래집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그보다 앞서 이미 일제강점기 여행안내서나 철도 관련 간행물에 ‘옛날에 관군이 이곳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기세를 높였다’는 식

으로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34년 『조선여행안내기(朝鮮旅行案内記)』에서는 군포장역에 대해 “옛날에 이곳에서 군병(軍兵)들에게 술과 음식을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이고 위로하였다는 의미로 군포장(軍飽場)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역명의 기원이 되었다.”⁵⁾고 소개하였다.

6) 군웅산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마지막으로 ‘군웅산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은 옛 군포장 부근에 군웅산(軍雄山)으로 불리는 산이 있고, 그 아래 물가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므로 군웅산의 군(軍)과 물가를 뜻하는 포(浦)를 합하여 군포라고 이름하였다는 설이다. 이 산은 현재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의 호계파출소 북쪽 약 100m 지점에 있었고, 예전에 구군포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10월 2일에 군웅제(軍雄祭)를 지내던 곳이라고 하여 이렇게 불리었다. 1960년대 말에 이곳에 민가가 신축되자 주민들은 파출소 북쪽 50m 지점으로 제당을 옮겨 제를 지내다가 그곳 역시 소유주가 바뀌자 1980년대 초부터 제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⁶⁾



군포천·군포장·군웅산의 위치

5) 朝鮮總督府鐵道部 1934, 『朝鮮旅行案内記』, 38쪽.
 6) 안양시지편찬위원회, 1992, 『안양시지』, 689~690쪽.

군웅은 무속(巫俗)에서 모시는 무신(武神)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액을 막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신을 모시는 군웅곳은 경기도의 도당곳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곳거리이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군웅이 마을의 안녕을 지켜 준다고 믿으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3. 군포의 유래를 좁혀 보기

지금까지 군포라는 지명에 대한 여섯 가지 유래와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 설 외에 자료상에서 또 하나의 설을 찾아볼 수 있다. 1927년 간행된 『조선철도연선요람(朝鮮鐵道沿線要覽)』에 소개된 유래인데,⁷⁾ ‘옛날에 군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설’과 유사하되 그 시기는 조선 초기로 올라간다.

소재지 : 경기도 시흥군 남면 당리

역세개요(驛勢概要) : 고려 말엽의 충신 조견(趙楗)이 이태조의 즉위에 반대하여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와서 때가 이미 대세를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두발(頭髮)을 자르고 승(僧)이라 하고, 우마(牛馬)를 잡아서 병사(兵士)를 포식(飽食)시켰다고 하는 사실(史實)로 인하여 ‘군포(軍飽)’라 불렀다가, 후에 ‘군포(軍浦)’로 고쳤다.

조견(趙楗, 1351~1425)은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거경(巨卿), 호는 송산(松山), 초명은 윤(胤)이다. 일찍이 승려가 되어 여러 절의 주지(住持)를 역임하고, 30세가 넘어 환속하여 문과에 급제하였다. 고려 말 안렴사(按廉使)가 되고, 이성계 추대에 가담하여 1392년 조선이 개국하자 상장군으로 2등 개국공신에 책록되고, 평양군(平壤君)에 봉해졌다. 1421년(세종 3) 궐장을 하사받고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양주의 정절사(旌節祠)·송산사(松山祠)에 제향되었다. 일설에는 그가 고려에 절의를 지켜 조선 태조의 회유를 물리치고 청계산으로 피했다고 한다. 원래 청계산의 최고봉을 만경대(萬景臺)라 불렀으나, 조견이 이곳에서 고려의 수도 개성을 바라보며 통곡하였기에 이후 망경대(望京臺)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혹은 태조가 조견을 위하여 산꼭대기에 초막을 지어 주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초막을 떠났고, 망경대는 그 초막이 있던 자리라는 설도 있다.⁸⁾ 『조선철도연선요람』에 수록된 내용이 구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7) 龜岡榮吉 등, 1927, 『朝鮮鐵道沿線要覽』, 朝鮮鐵道資料調査會, 219쪽.

8) 과천시지편찬위원회, 2007, 『과천시지』, 1, 529쪽.

이러한 야사들을 종합하여 수록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설까지 포함하면 군포의 유래는 총 7가지 설이 되는데, 이들 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런데 그 등장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몇 가지 설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우선 '청일전쟁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은 군함이 안양천 상류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를 따져 보기 전에 최초로 군포라는 지명이 등장하고부터 200여 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하므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군포장역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도 마찬가지이다. 이 설은 시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군포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역명을 다시 지명 등장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다음으로 '군포(軍布)가 군포(軍浦)가 되었다는 설'은 정조 대에 한정할 경우에는 일정 정도 설득력을 갖지만, 이미 1699년 『과천읍지』에서 군포천이라는 지명에 '물가 포(浦)'가 쓰였으므로 시기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표 1> '군포' 지명의 유래 개요

지명유래설	한자 표기	등장 배경	관련 문헌
청일전쟁 때 군인이 머물렀다는 설	軍浦場	청일전쟁(1894)	
軍浦場驛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軍浦場驛	경부선 개통(1905)	
'軍布'에서 '軍浦'로 바뀌었다는 설	軍布川橋 軍布川站	현릉원 천봉(1789)	『원행정려』 도로교량조 『일성록』 1789년 9월 5일(무자)
	軍浦場	현릉원 원행	『일성록』 1796년 11월 24일(을축)
軍浦川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軍浦川		『과천읍지』(1699)
옛날에 군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설	軍飽	임진왜란	
軍雄山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軍雄山	마을신앙	
조건의 우마를 잡아 병사를 포식시켰다는 설	軍飽	조선 건국	『조선철도연선요람』(1927)

다음으로 '군포천(軍浦川)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은 군포의 한자 표기와 관련해서는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데 이 설은 행정 명칭으로 군포라는 지명을 쓰게 된 유래와는 관련이 되지만, 군포라는 지명 자체의 유래는 설명하지 못한다. 즉, 군사 군(軍)과 물가 포(浦)라는 한자로 군포를 표기하게 된 유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네 가지 설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옛날에 군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설'과 '조건의 우마를 잡아 병사를 포식시켰다는 설'은 임진왜란과 조선 건국 초를 시대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그 내용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야기 구조는 비교 검토해 볼 만하다. 두 유래설은 원인과 전개에서는 유사한 구조를 지니지만, 결말은 차이를 보인다. 즉, 전자의 결말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지만, 후자에서는 대세를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싸움을 포기한다. 이는 두 역사적 사실의 결말과도 맥이 닿는다.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 다소 차이

가 있음에도 이 두 설은 서로 닮은 점이 많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군포 한자 표기에 대한 해석도 동일하다. 따라서 두 설은 서로 관련을 맺으며 등장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건과 관련된 설은 그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실제 군포라는 한자 지명이 등장하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너무 크다는 한계를 지닌다.

〈표 2〉 임진왜란 관련 설과 조건 관련 설의 구조

구분	옛날에 군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설	조건이 우마를 잡아 병사를 포식시켰다는 설	
배경	원인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전개	관군과 의병 등이 왜군과 싸웠다.	조건이 이성계의 즉위에 반대하여 3천 명의 군사를 모았다.
		관군과 의병은 왜군에 패하였다.	조건은 군사를 이끌고 군포에 왔으나 대세를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포기하였다.
		패전한 관군과 의병이 군포에 모여서 전열을 정비하였다.	조건은 스스로 두발을 자르고 승이라고 하였다.
	결말	주민들의 관군과 의병에게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였다.	조건은 소와 말을 잡아서 병사들을 배불리 먹였다.
결과	사기를 진작한 관군과 의병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래서 그 장소를 '軍飽'라고 하다가 '軍浦'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장소를 '軍飽'라고 하다가 '軍浦'로 바뀌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699년 『과천읍지』 이전까지 군포 지역 관련 문헌상에 군포천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안양천(安養川)은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난종의 손자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의 문집 『호음잡고(湖陰雜稿)』에는 그가 현 군포시 속달동에 있는 선대의 묘에 오가는 과정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도 안양천이라는 지명은 보인다. 또한 17세기 초에 현재의 군포시 산본동 광정 일대에 살았던 이응희(李應禧, 1579~1651)의 시문집 『옥담유고(玉潭遺稿)』에도 안양천이라는 지명은 수차례 나타나지만, 군포천이라는 지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군포천이라는 지명은 1699년 처음 등장한 이래, 그 한자 표기에 차이는 있으나 여러 문헌에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군포라는 지명은 양란 이후에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임진왜란 관련 설이 조건 관련 설보다는 지명유래담으로서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양란 시기 군포 지역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이는 관련 자료가 없어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시 군포가 포함된 과천과 인근 수원 지역의 전투 상황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왜군 수중에 있던 도성을 수복하고자 충청·전라·경상도의 군사 5만 명이 북상을 개시하여 6월 초에는 수원까지 진출하여 한성 탈환을 시도하였으나 문소산(文小山)에서 와키자카 휘하 일본군의 공격에 대패하고, 이어서 나머지 군사들도 광교산(光敎山)에서 대패하는 일이 있었다. 1636년 일어난 병자호란 기간 중에는 조선의 근왕병은 남한산

제 3 장 군포, 지명의 유래

성을 목표로 하여 집결하였는데, 과천 인근의 전투로는 전라병사 김준룡(金俊龍)이 이끈 전라도 군 왕병이 1637년 1월 5일 수원 광고산에서 청군을 격파하고 그 지휘관 양굴리(楊古利)를 전사하게 한 전투가 있다. 광고산 전투는 평안병사 유림의 군대가 김화 백동에서 승리한 것과 함께 병자호란 중 조선군이 승리한 두 전투 중 하나이다.⁹⁾ 한편, 조익(趙翼, 1579~1655)의 『포저집(浦渚集)』에는 병자호란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 이에 즉시 운계를 불러 여러 사람들과 상의해서 수군(水軍)을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응모한 사람들이 거의 100명에 이르렀다. 이때 마침 무인(武人) 박능(朴功)이 찾아왔는데, 그의 말을 들어 보니 매우 씩씩하고 꽤나 담략(膽略)이 있는 듯하기에 그를 장수로 정하였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모집한 군병을 거느리고 과천(果川)과 수원 사이로 나가서 요해처(要害處)에 군병을 매복시킨 뒤에 노략질하는 적병을 요격(邀擊)하게 하였으니, 이날이 23일 이었다. ……¹⁰⁾

이들 전투가 군포 지역에서도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영향이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구군포에서 바로 바라다보이는 모락산의 유래도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때 인근 백성들이 왜군을 피해서 모락산에 있는 굴로 피난을 갔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미처 굴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울고 있었다. 이를 본 왜군이 주민들이 굴로 피신한 것을 알고, 굴 입구에 불을 질렀다. 그로 인해 굴 속에 있던 주민들이 모두 죽게 되었고, 그 후로 사람들을 ‘몰아서 죽였다’고 하여 모락산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군웅산에서 유래했다는 설’은 기존 지명과 각 지명의 지리적 관계 등에 기초한 후대의 해석이다. 또한 군웅굴 혹은 군웅제와의 관련성도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지역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군포의 유래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현재로서는 ‘옛날에 군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설’과 ‘군웅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군포 지명의 유래로 상대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군포라는 지명의 등장 시점이 양난 이후라는 점에서 시기적 배경에 부합한다. 다만, 구전에 근거하였다는 한계를 지니며, 주로 등장한 시기가 일제강점기이므로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해석이 확대 재생산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후자는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부합하나 기존 지명을 토대로 한 최근의 해석이며 군웅산이라는 지명의 등장시기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옛날에 군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설’이 유래담으로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지명유래라는 것의 특성상 어느 설이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9) 과천시지편찬위원회, 2007, 『과천시지』 1, 258·266~267쪽.

10) 『浦渚集』 권25 집저(雜著) 병정기사(丙丁記事), 한국고전종합DB(<https://db.kci.or.kr>).

여 백



제4장 풍수지리로 본 군포

최원석 | 경상대학교 연구교수

1. 군포의 풍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풍수는 전근대에 한국의 취락 입지와 문화경관을 형성하였던 중요한 지리적 요인 중 하나로 지명, 설화, 조경, 건축, 문화경관, 취락 입지, 민속, 신앙,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문화에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군포의 풍수를 살피는 일은 군포 지역에 뿌리내리면서 삶을 이루었던 주민들의 지리적 생활과 태도를 이해하는 일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구체적 환경에 어떻게 이상적으로 적응하고 최적의 입지조건을 구비하고자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선조들이 유지하였던 지속가능한 발전방식의 지혜를 조명하는 의의도 갖고 있다.

풍수지리는 군포 지역의 취락 입지와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풍수는 군포의 문화경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역사적으로 풍수사상이 군포의 지역공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군포의 여러 전통취락은 풍수적으로 입지·배치되었으며, 풍수적 명당형국을 선정하여 묘지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풍수이론에 근거하여 지형적 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비보(裨補)를 통해서 형국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노력도 뒤따랐다. 또한 풍수에 영향을 받아 지명과 설화도 새로 생겨나거나 기존의 지명이 풍수적으로 재해석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풍수가 군포 지역의 공간에 파급되면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

한 영향과 변화를 주었는지 풍수적 지명이나 설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풍수지리가 군포 지역의 공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군포의 땅과 장소는 풍수적으로 어떻게 조직 및 구성되었는지를 전형적인 마을 입지를 사례로 하여 고찰하고, 풍수적 경관 보완이라고 할 수 있는 풍수적 비보가 어디에 그리고 왜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풍수문화에 대한 경관론적인 접근과 장소이미지의 해독(解讀)은 문헌적인 연구와 함께 군포의 풍수문화를 살피는 주요 방법이 된다. 풍수적 문화경관은 그것이 이루어진 사회의 생활양식과 상징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텍스트로서 장소적 의미가 해독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풍수문화의 형성을 주도한 문화 지배계층 혹은 사회집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곧 풍수적 문화경관을 창출한 사회집단 혹은 문화집단이 어떻게 풍수경관을 만들었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강화하였는지는 주요한 논제가 된다. 이러한 지배집단이 그들의 정치적 세력을 유지, 강화하는 문화적 전략으로서 실천한 풍수에 대한 이미지 및 상징 조작은 지명이나 설화, 그리고 입지와 경관 등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현대에 들어 군포시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토지개발 압력이 강화되고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담당하면서 아파트와 같은 집단주택의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지형 및 취락 경관들이 대규모로 변형되고 훼손되었다. 이와 같은 군포의 고유한 지역성과 장소적 정체성이 와해되는 변동기의 상황에서 군포의 자연환경 및 전통적 경관에 풍요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쾌적하고 정겨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군포를 가꾸기 위하여 풍수사상이 지향하는 전통적 지혜는 더욱 적극적으로 조명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2. 풍수지명에 드러난 주민의 환경 인식 및 태도

땅이름에는 이름이 지어지거나 바뀌었을 당시, 땅의 생김새와 장소적 성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표현되어 있고 아울러 땅이름을 지었던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인 사고가 투영되어 있다. 또한 지명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장소성 구축과 강화라는 상징이미지적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관을 텍스트로 보고 읽은 후에, 해당 지역의 지형에 부합하는 풍수적 지명을 부여하여 추상적 공간을 친밀하고도 의미가 있는 구체적 장소로 바꾸며,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풍수적 장소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명은 장소감 혹은 장소성 구축의 가장 일차적인 지리적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돈대동 북개마을 위성영상¹⁾

땅이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변천하지만 그 과정에 끼친 풍수사상의 영향 또한 매우 컸다. 풍수문화가 지역에 파급되면서 새로운 풍수지명이 지어지거나 기존의 지명이 풍수적으로 풀이된다. 이제 군포 지역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돈대동 북개마을은 ‘복포(伏浦)’라고도 불리었는데, 그 이름

의 유래를 보자면 최초에는 자연지형적인 갯골에서 비롯된 북개 혹은 복포였으나 풍수의 영향으로 비슷한 발음의 ‘복해(伏蟹)’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도 복해라는 새로운 지명에는 이곳 지형이 마치 바다의 게가 앞드려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붙여진 것이라는 설명이 더해졌다.²⁾ 이것은 풍수의 복해혈(伏蟹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풍수문화의 파급으로 지명 의미가 추가 및 확대 해석되는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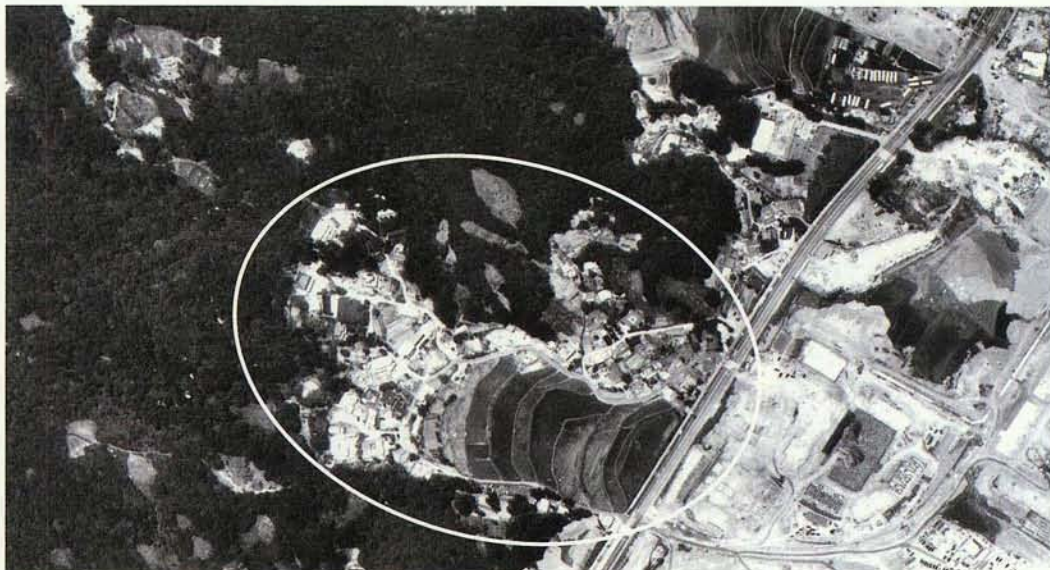
유사한 예로 당동의 용호동을 들 수 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는 과천현 남면 용호동이라 불리었으나 주민들은 ‘요골(또는 요꼐)’이라고 부른다. 지명의 유래는 이 마을 북서간 산 중턱에 있는 동래 정씨 선대의 묘가 풍수로 보아 좌청룡 우백호에 해당되므로 이곳 아래에 위치한 마을을 용호동이라 하였다고 한다.³⁾ 요컨대 원래는 요골로서 풍수적 의미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지명이었으나, 묘지풍수의 영향으로 ‘용호’라는 풍수적 지명으로 새로이 개칭되고 의미가 바뀌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때도 용호동이라는 지명 속에는 주거집단이 마을의 입지지형을 풍수적 길지로 강화하려는 이미지 전략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풍수는 지명의 개명과 의미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고 사회집단에 의해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포의 오래된 씨족마을인 군포2동의 용호마을과 신기마을에 주로 살고 있는 경주 김씨가 처음 용호마을에 정착하게 된 내력은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 년 전 조선시대에 경주 김씨 상촌공파 김직이 군포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즈음 용호와 신기마을을 흐르는 개천에는 큰 오리나무가 있었는데, 김직은 노곤한 몸을 이끌고 그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청하였다. 그의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는 “요골(지금의 용호마을)에 올라가서 터를 잡고 살아라”고 하였고 그 뜻을

1) 이 글에서 사용된 모든 위성영상의 출처는 ‘구글어스(Google Earth)’이다.

2) 경기도, 1987, 『지명유래집』, 377쪽.

3)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2004,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군포시, 88쪽.



1995년 용호동 일대(○표시 부분)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따라 지금까지 여러 대를 이어 살게 되었다고 한다. 용호마을은 풍수지리상 좌청룡, 우백호의 지역으로 그 한가운데 주산에서 지금도 마을의 경주 김씨들이 모여 산제사를 정성스럽게 올리고 있다.⁴⁾

풍수론 중에서도 특히 땅의 생김새에 빗대어 풍수를 설명하는 형국론은 취락의 입지지형에 널리 적용되어 가장 흔한 풍수지명으로 정착되었다. 예컨대 당동에는 ‘잠상(蠶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의 뒷산이 돌산이라서 풍수로 보아 누에혈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⁵⁾ 도마교동에는 ‘유곡(柳谷)’이라 불리던 마을이 있었는데, 그 형국이 버드나무 같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현재 ‘송정(松亭)’ 일대가 그에 해당한다고 전한다. 풍수의 형국명에도 ‘버드나무 가지에 꾀꼬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 모양(柳枝鶯巢形)’이 있는데, 유곡도 이러한 풍수적 형국명과 관련시켜 재해석된 것으로 추정된다.

풍수는 길지 혹은 명당이 인사(人事)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논리를 지니고 있으니 풍수서인 『청오경(靑鳥經)』에도 “큰부자가 될 땅은 둥근 봉우리가 금궤처럼 생겼고, 빈천한 땅은 난잡함이 마치 개미떼가 흩어지는 것과 같다(大富之地 圓峯金櫃 貧賤之地 亂如散蟻)”고 하여 땅의 모양으로 길흉을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풍수에서 용·봉황·거북·학 형국은 존귀함을, 소 형국은 풍요로움을, 많은 씨를 퍼뜨리는 매화 형국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였으니 좋은 형국명이란 대체로 부귀와 풍요와 장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4)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2004,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조사, 군포시·군포문화원, 34쪽.
5) 군포시, 1999, 『군포시 지명유래집』, 35쪽.

군포의 풍수적 지명 및 그에 대한 해석에도 이상과 같은 주민들의 풍수적인 인식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풍수적 형국을 사람과 동물에 비유한 지명들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산과 땅의 형세를 생명이 깃든 것으로 보는 유기체적 인식과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사람들이 공간과 장소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예증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을의 터전을 길상(吉相)의 유기체적인 형국명으로 호칭하는 단계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단순한 유기체적 속성의 가시적 형상에서 인간적 의미와 가치가 부가된 상징적 형상으로 은유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좋은 마을의 터전에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리려는 소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당정동의 ‘봉성리(鳳城里, 안새전리)’도 “봉황이 날개를 펴고 앉아 있는 형국이기에 봉성리라 불렀다.”⁶⁾고 풍수적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3. 풍수설화에 반영된 주민의 사회적 인식

풍수설화는 일반 서민들의 풍수적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소재가 된다. 일반 민중들은 문자로 된 기록 대신에 설화를 통해 영향력 있는 풍수적 인식 및 태도를 전승시키고 사회적인 담론으로 정착시키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풍수지명이 지리적 자연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표징하고 있다면, 이제 살펴볼 풍수설화에는 지역 주민의 사회집단적인 성격과 윤리성이 게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풍수설화는 내용에 따라 풍수적 지형의 정기를 타고 태어난 아기장수형 설화, 지맥을 인위적으로 끊으면서 생기는 문제를 다룬 단맥형 설화, 그리고 풍수적 지형에 대한 일정한 공동체적 금기를 다룬 금기형 설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유형의 설화는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있다. 그중 아기장수형 설화는 대내적인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계급갈등이 반영되어 있고, 단맥형 설화는 외세와의 갈등 및 신분계급 간 혹은 빈부계층 간의 갈등이 주종을 이룬다. 그리고 금기형 설화는 주거집단이 풍수적 환경을 보전 및 유지하는 문화생태적 적응을 위한 상징이미지 구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아기장수형 설화에는 피지배집단(서민 혹은 문중)과 지배집단(왕조) 간의 계급적 갈등과 역학관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용마바위 혹은 용마산(龍馬山)의 기운을 타고 아기장수가 탄생한다는 풍수적인 계기를 구조로 지닌다. 그러나 지역적인 풍수 명혈의 음덕을 받고 아기장수가 태어남에도

6) 군포시, 1999, 『군포시 지명유래집』, 47쪽.

불구하고 신분적 한계나 사회구조적 제약으로 아기장수의 역할이 좌절되고 마는 이야기의 결말에는 당시의 사회환경 및 풍수를 둘러싼 사회집단 간의 역학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아기장수형 설화는 많은 지역에서 전해지는데, 당정동에서도 채록되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당정동 별세전리 남쪽에 장군바위가 있다. 세전마을에서 의왕시로 넘어가는 길옆에 있는 바위이며, 이 바위에는 아기장수와 용마에 얽힌 전설이 전한다. 옛날 가난한 부부가 옥동자를 낳았는데 부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아기가 천장에 올라가 있었으며 갓난아기의 옆구리에는 날개가 돋아 있었다. 이 아기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장차 아이가 자라나면 역적이 될 것이 두려워서 이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부모는 곧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거운 맷돌을 가져다가 아이를 눌러서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뒷산인 오봉산에서 용마가 튀어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죽었다. 이 용마는 장차 아기장수가 탈 말로서 아기장수가 죽자 용마도 스스로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 바위에 흡사 말 발자국 같은 자국이 남아 있으며, 이런 연유로 인하여 이 바위를 장군바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⁷⁾

단맥형 설화는 명당을 이루는 지맥을 끊거나 차단하는 풍수적 계기를 포함하는 구조로서 대외적 갈등과 신분계급 간 혹은 빈부계층 간의 갈등이 주종을 이루며, 시기적으로는 임진왜란과 일제 시기의 것이 많다. 일제시기 단맥형 설화의 경우, 일제 치하에서 수탈에 대한 강한 적대감으로 일본인들이 민족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존재로 잠재의식 속까지 깊이 새겨진 결과, 철도나 도로의 건설에 따른 실제적 행위와 함께 단맥의 행위자로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⁸⁾ 군포 지역의 단맥형 설화 중에서 대외적 갈등구조나 신분계급 간의 갈등양상이 표출된 것은 채록되지 않았으나,⁹⁾ 빈부 갈등을 드러낸 설화들은 전한다.

구봉산 부근에 큰부자가 살았다. 그 부자는 하도 많은 손님이 자신의 집에 와서 부탁하는 것이 귀찮았다. 그래서 이름난 스님이 시주를 오자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도록 막아 달라고 했다. 시주승은 산허리의 혈을 자르면 사람들이 끊어지게 된다고 했고, 그 부자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정말 부자의 집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부자도 갑자기 망하고 말았다. 부자를 만들어 주던 혈을 끊었기에 망한 것이다. 지금도 부자의 집터 자리와 혈을 끊은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한다.¹⁰⁾

예전에 학자골에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큰부자가 살았다는 집이다. 학자골의 부자는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하루는 중이 시주를 왔길래 도대체 귀찮아서 못살겠으니, 손님을 그치게 할

7)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2004,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군포시, 75쪽.

8) 강중탁, 1986, 『조선설화의 연구-풍수설화적 성격을 중심으로』, 『월산 임동권박사 송수기념논문집-국어국문학편』, 66쪽.

9) 군포시에서 채록한 설화 중에, "예전에는 명당자리가 많아서 장수도 많이 나고 명인도 많이 나왔다. 그런데 왜놈들이 산마다 다니면서 혈을 찔러서 지금은 명인도 안 나오고 장수가 없어졌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2004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조사』, 군포시·군포문화원, 112쪽), 군포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구술이러므로 군포 지역의 단맥설화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10)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대야동 마을지』, 208쪽.

방도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중이 선심을 베푸는 일이 마땅하다고 타일렀지만, 주인이 계속 졸라대자 학자꼴 넘어가는 골짜기에 돌담을 치면 손님이 그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주인은 귀찮은 마음에 당장 일꾼들을 시켜 돌담을 쳤다. 그 이후로 집안이 홀랑 망하여서 찾아오는 손님도 없어지고, 와도 줄 만한 양식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¹¹⁾

그 밖에도 군포 지역에서는 조선 사회에서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드러난 부계 위주의 신분과 사회적 구조가 반영된 다음과 같은 풍수설화도 채록된 바 있다.

고려 말엽 이 고을에 살던 현풍 곽씨의 딸이 주씨 집으로 출가를 했다. 그녀는 시부모를 봉양하던 중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더니 친정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놓고 유언을 하고 있었다. “내가 죽거든 흰 나무가 세 그루 있는 북서쪽 높은 봉우리에 묻어 다오.” 그러나 이 같은 유언을 남긴 친정아버지는 타계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갔다. 그녀는 친정식구 몰래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가 말한 명당에 모셨다. 그 후부터 새벽이면 산봉우리에서 용 두 마리가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오빠들은 사돈이 자기 아버지가 쓸 밧자리를 차지한 것을 알고 여동생에게 이장을 권했으나, 그녀는 듣지 않았다. 어느 날 큰아들은 낫을 가지고 산봉우리에 올라가 싸우던 두 마리의 용 중 한 마리를 베어 죽였다. 죽은 용은 곧 자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했다. 얼마 후 그의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그 후 주씨네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곧 몰락했고, 곽씨네는 번창했다고 한다.¹²⁾

4. 취락의 풍수입지와 풍수경관

1) 취락의 풍수적 입지와 배경

누구나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구비한 장소를 찾고 거기에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자 한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처음 이루어지는 행위는 터 잡는 일일 것이다. 풍수는 중국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정교한 입지 논리로 한국의 문화경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터 잡기는 풍수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상징화되었다. 다음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꿈을 통한 신비적 체험이나 동물적 감각의 선택이라는 초월적이고 우연적인 계기가 터 잡기를 합리화·정당화하였다.

11)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2004,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조사』, 군포시·군포문화원, 34쪽.

12) 군포시, 1999, 『군포시 지명유래집』, 36~37쪽.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 년 전 조선시대에 경주 김씨 상촌공파 김직이 군포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다. …… 김직은 노곤한 몸을 이끌고 오리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청하였다. 그의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는 “요골(지금의 용호마을)에 올라가서 터를 잡고 살아라.”고 하였고 그 뜻을 따라 지금까지 여러 대를 이어 살게 되었다고 한다.¹³⁾

금정동 안금정 서쪽 산의 동산 봉우리(102.8m)에는 도당대라는 산제당이 있다. 어느 해에 제물로 사용할 소를 사서 매어 놓았는데 소가 줄을 끊고 도망가 버렸다. 온 마을 사람들이 소를 찾아보니 현재의 당이 있는 참나무 밑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명당자리라고 생각하여 도당대 제단을 설치하였다.¹⁴⁾

한국에서 취락의 형성 기원에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요인 등이 있지만, 그중 문화적 요인으로 풍수를 중요하게 꼽을 수 있다. 예컨대 속달동의 자연마을인 속달은 정난종(鄭蘭宗, 1433~1489)이 문헌 이후 동래 정씨(東萊鄭氏) 세거지로 자리 잡았다. 즉, 풍수적으로 선정된 터에 묘가 입지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취락풍수는 풍수의 전통적인 분류방식에 따르면 양기(陽基)풍수에 해당한다. 이는 음택(陰宅) 풍수와 대별되며, 주택 혹은 가옥이라는 양택(陽宅)풍수를 포함한 개념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기풍수와 양택풍수를 구별하기도 한다. 양기풍수는 국도, 고을, 마을, 주택 등의 공간 규모의 단위로 세분될 수 있다.

촌락의 풍수적 입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촌락풍수의 역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자연 및 지형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그 형성 배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첫 번째 역사적 측면으로서, 한국의 촌락에서 풍수가 입지 원리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한국에서 풍수는 일찍이 중국에서 전래되었으나 8세기 신라 하대(下代)에 선불교가 중국에서 전래되자 이에 부수(附隨)되면서 풍수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왕족과 지방호족 세력에 널리 확산되어 국가의 수도 및 지방 도읍과 같은 행정중심지의 입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 바 있다. 조선시대에는 음택풍수의 성행과 맞물리면서 일반 서민층에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촌락의 입지에 풍수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중후기로, 이때부터 촌락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촌락이 생겨나는 시기도 조선 중기 이후라고 알려져 있다.

해방 전의 조사에서 동족촌락의 발생을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총 1,227개 동족촌락 중 300~500년 전에 발생한 촌락이 646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조선 중기 이후에 널리 성행한 풍수사상과 조상숭배사상의 보편화와 더불어 14~19세기를 중심으로 종법사상의 보급, 동성동본

13)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2004, 『군포시 전설·실화·민담 조사』, 군포시·군포문화원, 34쪽.

14)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2004,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군포시, 103~104쪽.

의식의 강화, 부계혈통 중심의 친족의식, 장자우대 관행, 족보 간행 등이 사회적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동족촌락의 탄생을 가져왔다고 설명할 수 있다.¹⁵⁾

두 번째 사회적 측면으로서, 촌락의 풍수적 입지는 촌락을 형성한 사회집단 및 계층과 관련이 깊다. 민촌보다는 양반촌에서, 이성잡거촌보다는 동족촌에서, 기능적으로는 농촌에서 풍수적 입지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 지방에 낙향하여 새로 촌락을 일구는 사족층 촌락의 마을에서 풍수는 적극 도입되어 마을 입지의 요인이 되었다. 그 배경 및 이유는, 풍수가 지배세력의 권위를 표현하고 유지, 강화시키는 문화적 전략이자 힘이었기에 조선시대 지배층들이 풍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차지한 데 있다.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듯이 한국의 민촌에서 나타나는 풍수적 보완물로서의 비보경관과 비보적 상징물은 민속문화와 복합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는 조선 중기 이후 반촌의 풍수적 입지에 영향을 받아 민촌에서도 풍수적으로 입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에 맞추어 비보경관을 조성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풍수적 조건이 불비하더라도 다시 마을을 옮길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보적 수단으로 풍수적 조건을 보완하고, 또 주민들의 주거안정감을 확보하고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 자연 및 지형적 측면으로서, 한국의 촌락 입지는 배산임수라는 일반적 표현이 대변하듯이 전형적인 지형조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양기의 입지론을 지형지세별로 크게 산골짜기와 평산지(혹은 산기슭) 입지라는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특히 산골짜기[山谷] 입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구릉지 완사면의 입지로서 골짜기 본류의 구릉지에 입지하는 경향이고, 특히 하천 주변에 발달한 취락은 주로 하천을 따라 띠 모양으로 열촌(列村)의 경관을 띠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본류에서 다시 지류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작은 분지에 입지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입지는 수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골짜기 입지의 경우에는 풍수적으로 장풍(藏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¹⁶⁾ 전통적인 풍수서에 따르면 산골짜기의 집에서는 요풍(凹風)을 가장 꺼리는데, 바람이 흩어지면 기도 흩어지기 때문이다.¹⁷⁾ 평산지 입지는 주위에 완만한 구릉성 산지의 산을 두르고 평지 혹은 구릉지 기슭에 입지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면 군포의 마을은 풍수적으로 어떻게 입지하였는지를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기로 하자.

15) 전중환, 2005, 『동족집단의 경관과 장소』, 논형, 85쪽.

16) 『雪心賦』, “若居山谷最要藏風”.

17) 『雪心賦』 徐試可註, “山谷之宅 最忌凹風 風散則氣散”. 여기서 요풍이란 산의 양쪽 머리는 높고 가운데 허리는 낮게 꺼져서 찌자 모양과 같은데, 거기서 불어오는 매우 급한 바람을 말한다(『雪心賦』 孟浩註, “凹風者 山兩頭高中腰低陷 如凹字一樣 其風來最急也”).

2) 군포 지역의 마을풍수 사례

군포 지역도 취락 입지의 지형적 환경은 산곡 입지와 평산지 입지가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에서는 속달동의 속달과 덕고개의 사례로 풍수적 입지와 비보풍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속달마을의 풍수적 입지를 보면, 수리산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이 마을을 겹싸면서 작은 분지지형을 형성하였고, 마을의 주거지는 주산지맥의 서쪽 사면에 입지하였다. 따라서 주택 배치의 풍수적 지세향(地勢向)은 서향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이, 군포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속달동 24-4번지 소재,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은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서향으로 말미암아 일조조건은 불리하지만, 장소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전면과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지맥들이 주택지를 에워싸고 있어, 이상적인 풍수 조건이 심리적인 위호감(衛護感)과 안온감(安穩感)을 불러일으킨다.

동래부원군파 종택에서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안채와 사랑채, 작은 사랑채, 행랑채 등 4동이



속달동 속달마을 위성영상



속달마을의 현재 모습

뒤로 산을 등지고 서사면에 주택이 입지하였다.



동래 정씨 종택의 뒤쪽에서 바라본 경관

집 앞과 왼편으로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는 풍수적 길지를 형성하는 지형경관적 요소가 된다.

지만 원래는 사랑마당 바깥쪽으로 행랑과 연못, 작은 사랑채 뒤에 초당, 안채 뒤에 사당, 외양간 등이 있었다. 일제 말기, 속달에는 30~40세대 정도가 거주했고, 그중 동래 정씨가 15~20호, 그 밖에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가 비슷한 호수로 거주했다. 현재 속달마을을 동래 정씨는 6가구 정도이다.¹⁸⁾

다음으로는 덕고개마을의 풍수적 입지와 비보숲 경관을 고찰하기로 하자. 덕고개마을에 관한 기존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20여 호가 살고, 한국전쟁 무렵에도 지금과 비슷한 규모로 빈촌이었다

18)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대야동마을지』, 197~198쪽.



속달동 덕고개마을 위성영상

마을이 호리병 모양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 그 병목의 입구 부분에 비보숲(○표시 부분)이 조성되었다.



덕고개마을의 현재 모습

가옥들은 뒤의 돈독한 주산을 배경으로 산기슭 자락에 입지하고 있다.

고 한다. 현재 이곳은 각성바지 마을인데, 경주 김씨가 3가구로 가장 많다. 이곳에는 본래 동래 정씨가 많이 살았는데, 그들은 정난종의 2자인 정광필(鄭光弼, 1462~1538)을 파시조로 하는 문익공파다. 문익공파 후손은 일제시기에 토지를 일본인에게 팔고 안양으로 이주했다가 20여 년 전에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마을은 풍수상 삼태기 형국으로 알려져 있다.¹⁹⁾ 삼태기 형국이란 마을의 지

19)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대야동마을지』, 39쪽.



마을 안에서 바라본 덕고개마을 비보숲
비보숲으로 인하여 마을 내부는 아늑한 공간감과 장소이미지를 준다.

형이 삼태기처럼 뒤와 좌우가 나지막한 언덕으로 에워싸인 소분지 형상을 풍수적으로 비유한 말이다. 지형도나 위성사진을 보아도 덕고개마을의 지형은 마치 호리병 모양의 형국을 이룬다.

그런데 삼태기 형국은 뒤와 좌우는 언덕이나 산으로 에워싸여 있으나 앞은 허하여 이상적인 풍수 명당적 지형에 비추어 볼 때 보완되어야 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덕고개마을의 지형적 특성으로 마을 앞에 비보숲을 조성하게 되었다. 실제 덕고개마을의 비보숲은 마을 앞을 감싸고 있는 좌우 지맥을 연결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풍수적 지기(地氣)의 벨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보숲은 생물종의 다양성 유지 및 토양 유실 방지 등의 생태환경적 효과가 있음이 학계에서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마을 밖에서 마을의 내부가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안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한 환경심리적 효과도 겸비하고 있다.

덕고개마을이 풍수적으로 안정된 형국을 갖춘 것은 허술했던 마을 서쪽을 인위적으로 높여 조산(造山)을 이룬 결과다. 그 조산의 결과물이 바로 덕고개마을의 군웅숲이라고 한다. 이곳 동래 정씨 문중에는 본래 언뿔이 있던 곳에 독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군웅숲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풍수상 안산(案山)이 트여 있으면 안 되므로, 그 방향에 해당하는 남덕골 쪽을 막기 위해서 독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비보하였다는 이야기다.²⁰⁾ 이렇듯 비보란 인간이 자연환경과 상생·조화 관계를 맺으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풍수전통이며, 자연적 성국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인위적으로 좋은 환경을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널리 행해진 비보형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면, 고려시대에는 산천과 국도

20)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대야동마을지』, 39쪽.



덕고개마을의 군용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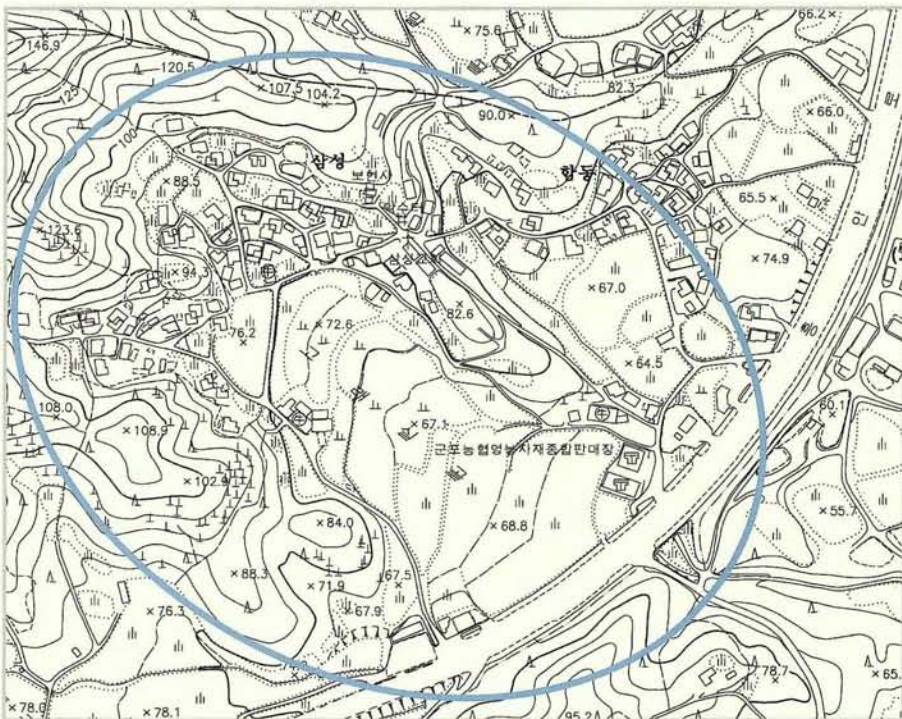
비보를 위해 사탑을 설치하였고, 조선조에 이르면 고을과 마을에서도 일반적으로 비보가 이루어진다. 비보 형태는 사탑 비보, 숲 비보, 조산 비보, 장승 비보, 못 비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보 기능은 수구막이, 보허, 형국보완, 화재방어, 수해방어, 흉상차폐, 음풍방지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비보숲은 형국의 풍수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으로서, 국도, 고을, 마을 등의 취락에 비보수단으로 널리 응용된 바 있다. 비보숲은 초기에 국도 주산과 주위의 산에만 제한적으로 조성되다가 읍 혹은 마을로까지 확산되었고, 본격적으로 비보숲이 조성된 시기는 조선 중기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 비보숲은 주 기능인 보허(補虛), 장풍(藏風) 외에도 지기 배양 및 용맥비보, 수해방지, 흉상차폐 등의 고유 기능을 발휘한다. 덕고개 당숲은 보허 기능의 유형에 속하는 비보숲이다. 이러한 한국의 비보설은 역사상에서 지리가의 종조(宗祖)로 취급받는 도선(道詵, 827~898)의 비보사탑설에서 비롯하였고, 이것이 비보풍수설로 발전하면서 이상적인 취락 공간 형태를 조영하는 지리적 원리가 되었다.

군용숲이라는 이름은 군용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용이란 무당이 섬기는 신(神)의 하나이자 무신(武神)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액을 막아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군용을 섬기며 마을의 평안과 수복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덕고개 군용제는 대야동의 대표적인 마을신앙이다. 이 제의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행해지는데, 속종이 군용제를 직접 지냈다는 이야기도 마을 내에서 구전된다. 군용제를 올리는 숲은 주민들에 의해 군용숲 또는 당숲이라 불리고, 그 일대는 군용터(또는 구릉터)로 불린다. 예전에 이 일대에는 커다란 연못도 있었다고 한다. 군용숲과 연못 근처에는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이 공간

을 신성시했다고 전한다. 군웅숲은 수령이 200년 이상 된 신갈나무 등이 우거져 있다.²¹⁾

군웅숲은 마을신앙과 풍수의 복합 양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최초에는 비보를 목적으로 숲을 조성하였다가, 이 숲을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마을신앙의 기능이 복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숲을 특히 조산숲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조산숲은 수목신앙과 풍수신앙의 접이적 유형이자 수목신앙의 뿌리를 지닌 샤머니즘적 경관으로 풍수숲의 앞선 형태이다. 조산숲은 토착신앙 및 마을신앙의 대상이 되며, 형태상 숲 가운데에 신앙목이 있다.

한편, 현대에 들어 군포시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토지개발 압력이 증가하고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담당하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축이 폭증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연 및 취락 경관이 변형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부곡동 삼성마을은 신령스러운 기가 있다는 수리산(修理山)을 뒤로 하고 있으며, 종 모양에 삼태기같이 포근한 형태를 띠고, 마을 가운데 북스럽게 살짝 뻗쳐 나온 언덕과 양 끝짜기 사이 바위에서 솟아나는 두 샘물이 있어 명당 터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의 감투봉은 마치 장원 급제한 벼슬아치의 관모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관모봉이라 불리기도 하였고, 애절한 두 남녀의 못다한 사랑의 사연이 담긴 감투봉 아가씨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현재는 택지개발로 마을 터가 변형되면서 마을의 옛 경관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1:5,000 지형도(2004 발행) 상에 나타난 삼성마을(○표시 부분) 옛 모습

21)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대아동마을지』, 197~198쪽.



부곡동 삼성마을 위성영상(2007년 기준)



당동2택지개발지구 내 삼성마을 터

5. 군포 지역 풍수의 현대적 의미

이 글은 경기도 군포 지역의 풍수지리를 고찰하고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기 위하여 주민의 풍수적 환경인식 및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풍수지명 및 풍수설화를 해석하며, 마을의 입지경관에서 보이는 풍수적 입지 유형을 살펴보았다. 군포 지역의 풍수지명 및 설화, 풍수경관에서는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었고, 사회계층 간의 역학관계가 상징화되어 반영되기도 하였다. 군포 지역의 풍수적 고찰은 군포 지역 주민들이 지역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선조들이 유지하였던 지속가능한 발전방식의 지혜를 조명해 보는 의의도 갖고 있다.

군포의 풍수적 지명은 풍수문화가 이 지역에 파급되면서 새로운 풍수지명이 지어지거나 기존의 지명이 풍수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새로 해석되는 과정도 거쳤다. 최초에 풍수적인 지명이 아니라더라도 발음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말 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풍수적으로 풀이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풍수지명을 통하여 주거지의 풍수적 길지라는 상징성과 장소이미지를 강화하는 인식과 태도도 나타났다.

풍수설화에는 주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군포 지역에도 사회계층 간의 신분적 갈등이 반영된 아기장수형 설화, 사회계층 간의 반부 갈등이 반영된 단맥형 설화 및 조선사회에서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드러난 부계 위주의 신분 및 사회적 구조가 반영된 풍수설화가 나타나고 있다.

풍수지리사상이 군포 지역에 파급되면서 동족촌락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마을에서는 풍수에 기인한 취락 입지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덕고개의 마을숲에서 살펴보았듯이 풍수적인 이상경관에 비추어 해당 마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경관도 조성되었다. 이러한 풍수적 입지 및 비보의 조성은 지역의 기후 및 지형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리적 조건을 자연으로부터 얻고, 유지·보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주거기능의 과중한 부담으로 대규모 취락지가 조성됨에 따라 전래로부터 이상적인 풍수적 입지를 한 마을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군포의 고유한 지역성과 장소적 정체성이 급속히 와해되는 상황에서, 군포의 자연환경 및 전통적 경관에 풍요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식으로 인간적인 장소 만들기를 추구했던 선조들의 지혜는 재조명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여 백

제5장 교통과 상업의 발달

천종호 | 용문고등학교 교사

사람이 모여야 물건이 모인다. 물건과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 법이다. 그러면 사람과 물건을 모으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흔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목 좋은 곳'이라는 말이 있다. 목 좋은 곳이 장사가 잘되고 상업이 번창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목 좋은 곳은 결국 길목을 말한다. 길목은 사람이나 물자가 주로 지나다니는 길이다. 즉,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교통이다. 결국 교통이 좋아야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고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야 상업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은 상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실시로 도로변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며 울상이다. 국도변 고갯마루의 휴게소들은 고개 아래로 뚫린 터널이나 우회도로로 인해 문을 닫은 곳이 많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기존 경부선이 정차하던 지방 소도시들은 상권 축소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교통로 변화에 따른 상업의 성쇠, 상권의 부침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인문적 현상이다.

교통은 각각의 중심지와 기능지역¹⁾을 연계시키고 교통수단의 결절점을 확대시키며 상권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교통의 발달과 상업을 지역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심지들 간의 교통네트워크는 물론, 교통로들이 만나는 결절지점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²⁾

이 글에서는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수도권의 대표적 위성도시인 군포시에서 나타난 교통의 발

1) 하나의 중심지 및 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주변지역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지역의 단위이다.

2) Taaffe, E. & Gauthier, H., 1973, *Geography of Transportation*, Prentice-Hall, p.2.

달과정과 그에 따른 상업발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통의 발달과정을 근대적 교통수단이 생겨나기 이전에 도보와 우마차 등에 의존했던 '전통적 교통의 시기', 개항 이후 도입된 철도가 국토구조를 바꾸기 시작한 '철도교통의 시기',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광역전철과 고속국도가 발달한 '전철과 고속국도의 시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군포 지역의 상업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 전통적 교통의 시기

전통적 교통의 시기에는 도보와 말, 우마차 등이 지배적인 교통수단이었다.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훌륭한 도로란 외형적으로 웅장한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좋은 것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의 옛 도로는 대제국의 도로처럼 넓지 못했고, 포장인 안 된 상태였으며, 노변시설도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만들었고, 노복과 노면은 그 시대의 사회 및 경제 사정에 맞추어 설계·건설되었다. 다시 말하면, 토양침식이 심한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우리 조상들은 소박한 도로를 만들어 이를 잘 보수·관리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³⁾

따라서 우리 국토에는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발달된 교통로가 여럿 있었고, 이를 따라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면서 지역경제가 발달해 왔다. 산맥이 남북으로 뻗은 지형적 특색과 도읍지 한양이 국토 중앙에 위치한 관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옛 도로는 기본적으로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X'자형의 도로망이었다.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군포 지역이 속해 있던 과천현을 지나가는 주요 노선은 통영으로 향하는 제6로와 보령으로 향하는 제8로였다. 또한 조선 후기 한강 유역의 간선도로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도로가 시흥(현 금천구 시흥동)에서 갈라져 지금의 안양과 군포를 거쳐 의왕과 지지대고개를 경유하여 수원으로 이어졌으며, 전남 해남의 우수영으로 향하는 도로도 남태령을 지나 지금의 과천과 인덕원 및 군포를 경유하여 남하하였다.⁵⁾

3) 최영준, 2002, 『영남대로와 문경』, 『길 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 실천문화사, 58쪽.

4) 최영준, 2004, 『한국의 옛길 영남대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1쪽.

5) 김중혁, 2001, 『조선 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소』,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0쪽.

〈표 1〉 조선시대 주요 도로 노선

노선번호	구간	경유지	방향	비고
제1로	한양~의주	개성, 평양, 안주	서북	의주대로
제2로	한양~서수라(경흥)	김화, 함흥, 회령	동북	경흥대로
제3로	한양~평해(울진)	양평, 원주, 강릉	동	관동대로
제4로	한양~동래	용인, 충주, 대구, 밀양	동남	영남대로
제5로	한양~통영	용인, 충주, 상주, 성주	남	
제6로	한양~통영	과천, 공주, 익산, 남원	남	
제7로	한양~제주	익산, 태인, 나주, 강진	남	호남대로
제8로	한양~충청수영(보령 오천)	과천, 평택, 예산, 보령	서남	
제9로	한양~강화	양천, 김포, 통진	서	강화대로

출처 : 용인시·용인문화원 외, 2000, 『용인의 역사지리』, 88쪽; 도도로키 히로시, 2000, 『일본인의 영남대로 답사기』, 한울, 9쪽.

한편, 군포는 조선시대 여러 임금이 온양의 온천에 거동(擧動)할 때 반드시 거치는 노정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인조, 현종, 숙종, 영조, 정조 등의 온천 거동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거동 노정은 대개 양재역~과천~사근천(현 의왕시 관내)~수원 등을 거치게 되었고, 과천과 수원은 가고 올 때 유숙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정조가 수원 현릉원에 거동할 때 초기에는 과천로를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시흥로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군포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⁶⁾

정조의 화성프로젝트와 원행(園行)은 수원로의 발달을 가져왔다. 노량진에서 수원까지의 도로는 과천을 비롯하여 금천과 광주, 수원의 4개 읍에 걸쳐 있었다. 과천과 금천, 수원에서는 새로 길을 닦았고 광주에서는 옛 도로를 정비하여 노량진에서 수원까지의 길을 확장하였다. 수원로의 개설과 확장은 노량진에서 수원까지가 정조가 행차하던 어로였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나, 여기에는 상품유통 발달에 따른 교통의 편리성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다. 정조는 수원을 정책적으로 경제 신도시로 조성하려 했는데, 이러한 수원 번영책에 힘입어 서울과 수원 사이에 있던 군포 지역도 물화유통이 활성화되었다.

시흥로도 화성의 건설과 함께 정비되었다. 정조는 처음엔 과천로를 이용하였으나, 남태령이 높고 험준하며 도로 정비에 백성의 고충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시흥로를 이용하게 되었다.⁷⁾ 이 도로는 과천로에 비해 거리상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도 높낮이가 고르고 길이 평평하고 넓다는 경기감사 서용보(徐龍輔, 1757~1824)의 의견에 따라 1794년 4월에 금천로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다. 나중에 금천현이 시흥현으로 바뀌면서 시흥로라 불리게 되었다.⁸⁾ 정조를 이은 순조 즉위 초에는 노량

6) 군포시, 1999, 『군포시사』, 161쪽.

7) 과천 지역에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김상로(金尙魯, 1702~?)의 형 김약로(金若魯, 1694~1753)의 묘가 과천로에 있었기 때문에 시흥로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8) 군포시, 1999, 『군포시사』, 161~163쪽.

진에서 시근평까지의 도로가 정조 때보다 확장되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원 사이의 길은 19세기 이후 10대로에 포함되는 간선도로로 승격하기에 이르렀다.

시흥로의 개설로 도로변에 시흥행궁(현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831-6 부근)과 안양행궁(현 안양역 앞)이 설치되었고, 정조는 원행 시에 이 행궁들에 묵게 되었다. 원행 행렬은 안양행궁을 지나면서 대략 오늘날의 국도1호선을 따라 군포, 의왕을 거쳐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으로 향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군포는 한양에서 남서쪽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거치게 되는 중간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군포 지역의 도로는 조선시대에 매우 중요했으며 경기 지방의 중요한 교통상의 경유지였다. 국왕의 행차에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법이며, 국왕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는 정비도 철저했을 것이니 당연히 사람과 물자가 모이고 상업이 발달할 여건도 마련되었을 것이다. 장시는 기본적으로 도로변에 입지하기 때문이다.

당시 군포 지역에는 ‘군포장’ (또는 ‘군포천장’)이 개설되고 있었다. 이 장시는 현 안양시 만안구 호계동 구군포사거리 일대에 개설되었는데, 처음 개설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770년(영조 46)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매 3일과 8일에 개시(開市)한다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대동법 실시와 양란(兩亂)을 거치면서 경기도 지역의 장시개설 엄금정책이 차츰 완화되는 가운데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포장은 정조의 화성 건설과 함께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96년(정조 20)에는 군포천 부근에 개설되던 장시를 안양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인근 백성들이 이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조는 군포와 안양에 모두 장시를 개설하도록 명하였고, 이에 장시일을 달리하여 열도록 함으로써 군포장을 존속시킨 기록이 있다.⁹⁾ 군포의 장시를 안양으로 옮길 경우 군포 주민들이 의지할 바가 없고, 과천을 경유하는 거동이 군포를 지나므로 백성들의 사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표 2〉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군포 인근 장시의 개시일

군현	장시명	개시일
과천	군포장	매 3, 8일 ⇒ 매 1, 6일
	안양장	매 3, 8일
	읍내장	매 1, 6일
	노량장	매 4, 9일
시흥	읍내장	매 5, 10일

출처 : 군포시, 1999, 『군포시사』, 150쪽 〈표 3〉 군포 지역의 장시망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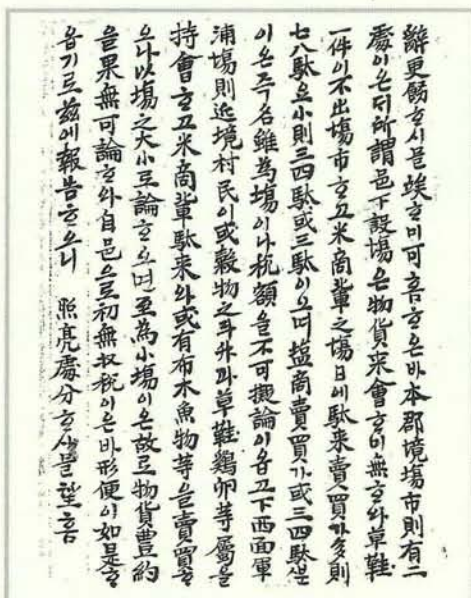
9) 『일성록』 정조 20년 11월 24일 을축.

조선 후기 군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의 장사에서 유통된 상품들은 1827년 실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편찬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통해 대략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 일대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미곡·면포·어염·마포·소 등이었는데, 군포장에서는 미곡·면포·마포·과일·어염·소·담배·철물 등이었다.¹⁰⁾ 거래된 품목의 수나 종류를 인근 지역의 장사와 비교해 보아도 군포장은 일정한 규모와 세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군포장은 매 1일과 6일에 개설되었고,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민가도 모여드는 형국이었다.

〈표 3〉 19세기 초반 군포 인근 장시의 거래 상품목록

군현	장시명	취급품목
광주	성내장	쌀, 면포, 삼베, 과일, 어염, 소, 담배, 꿩담, 사기
수원	부내장	쌀, 면포, 과일, 어염, 소, 담배
남양	부내장	쌀, 콩, 보리, 면포, 과일, 어염, 담배
인천	소암장	쌀, 면포, 삼베, 어염, 소, 담배, 돛자리, 철물, 목기
안산	상직곶리장	쌀, 면포, 과일, 어염, 돛자리, 철물, 유기, 옹기
용인	현내장	쌀, 과일, 어염, 소, 담배, 유기, 옹기, 사기
과천	군포장	쌀, 면포, 삼베, 과일, 어염, 소, 담배, 철물

출처 : 군포시, 1999, 『군포시사』, 148~149쪽 〈표 2〉 경기도내 상품유통 내용' 재구성.



『공문편안』 84책(규 18154-v.84) 문서 163의 군포장 관련 보고

군포장은 19세기 후반에는 장세(場勢)가 약했던 듯하다. 『공문편안(公文編案)』 84책에는 과천군 소재 장시에 대한 보고 내용이 실렸다.¹¹⁾ 이 보고에서는 “..... 하서면(현 안양시) 군포장에는 인근 촌민이 곡물과 짚신, 계란 등을 가지고 모여서 미상(米商)들과 거래하고 혹은 포목, 어물 등을 매매하지만, 장시의 대소(大小)를 말하자면 소장(小場)이므로”라고 적고 있어 당시 군포장의 상황을 알려 준다.

이처럼 군포장이 위축된 것은 장시망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조선 후기에 군포 인근 지역 장시망의 변화에는 수원 북문박장의 영향력이

10) 군포시, 1999, 『군포시사』, 148쪽.

11) 『공문편안』 84책(규 18154-v.84) 문서163, 건양 원년 2월 24일.

켰다. 북문밖장(2·7일장)은 수원부의 읍치가 새로 건설한 화성으로 옮겨지고 나서 개설되었다. 이렇게 되면 수원 북문과 가까운 군포장과 북문밖장의 연계가 강화되어 옛 군포장의 상업적 역할을 안양장이 새로 떠맡게 되는 셈이었다. 군포장과 안양장이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이런 이원적 장시체계가 나타난 것은 군포장이 북문밖장과 연계하면서 서울~수원 간의 남북도로망에 위치한 반면, 안양장은 금천~시흥~안산을 연결하는 동서도로망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¹²⁾

한편, 현 대야동 일대가 속했던 광주부 북방면 주민들은 수원장과 안양장을 주로 이용하였다. 특히 수원장은 우시장이 크게 들어서면서 이용 빈도가 높아졌다. 19세기 말에는 북방면 내에 반월장이 있다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¹³⁾ 이 장시가 처음 개설된 시기나 당시 장의 규모는 분명하지 않다.

2. 철도교통의 시기

지금의 군포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가 놓인 것은 1904년이다. 그리고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 개통으로 군포 지역은 철도망과 연결되면서 근대적 상권과 교통망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철도의 개통은 우리나라의 교통은 물론 상권에 커다란 변화를 주어, 개항으로 이미 시작된 상업의 변화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 영향은 군포 지역에도 미쳤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은 도보나 말, 그리고 수운에 의존했다. 특히 많은 상품이 배를 통해 운



한말 경기 서부와 남부의 철도 교통망¹⁴⁾

12)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대야동 마을지』, 71~73쪽.

13) 泮月場 米穀與如干草物等屬賣買而地稅租納于本府矣 自乙未廢止(『建陽元年八月 日廣州郡各場市庖厨邸陶店及般集區別成册』).

14) 『경기도』, 『대한신지리지부지도』, 국립중앙도서관 고지도웹검색서비스(<http://www.nl.go.kr/Map/index.php>).

반되었으므로 강가나 바닷가의 포구가 상업중심지로 변창하였다. 한강 연안의 경강상인들이 서울의 상권을 장악하였던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러나 철도의 개통은 상품의 유통망을 철도 노선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경부선의 개통은 서울의 상품 수집력을 강화시킨 반면, 인천의 집산력을 감소시켜, 마침내 서울은 전국 최대의 소비지이자 화물 집산지로 위상이 확대되었다.¹⁵⁾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서울과 경부선으로 연결된 군포 지역의 교통요지로서의 입지도 19세기 후반에 비해서 좀 더 확고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자본에 의해 건설된 철도는 단순히 유통루트의 재편에 그치지 않고, 주로 수로에 의존해 온 조선의 상업을 일본자본이 압도하고 내륙의 상권을 장악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철도 운송은 도심과의 접근성, 침몰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신속성 등의 측면에서도 유리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유통루트를 점령하였다.¹⁶⁾ 서울과 경기 지방의 전통적인 유통망과 시장은 급격히 쇠퇴하면서 새로운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경부선 개통으로 군포 일대의 지역구조와 장시도 변화를 겪었다. 당시 서이면사무소는 호계리(현 안양시 호계동)에서 지금의 안양역 앞으로 옮겨 왔으나, 군포장은 한동안 서이면 호계리에 위치하였다. 1913년 기준으로 군포장에서는 장날 하루 거래액이 200원 정도였고 장세(場稅)로 그 100분의 1인 2원 정도가 걷혔다.¹⁷⁾ 이는 철도 중심으로 교통과 상업이 재편되면서 안양역 일대가 급속

히 발전하고, 군포 지역의 중심도 기존 군포장 일대에서 당리의 군포장역(軍浦場驛) 일대로 이동하면서 군포장의 세력이 약화된 결과로 보인다. 게다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하천변에 형성된 군포장은 큰 피해를 입었다. 결국, 그해 12월 23일자로 기존 군포장은 폐지되고, 당리 군포역전으로 장터를 옮겨 새로운 군포장이 개설되었다.¹⁸⁾ 이때 장날을 매 2일과 7일로 정하여 1960년대까지 존속하였다. 안양장도 같은 시기에 재개설되고 장날을 매 5일과 10일로 정하였다.

비록 기존 군포장이 장세의 약화와 홍수 피해 등으로 폐장되었지만, 그것이 군포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차지하던 의미는 상당히 컸다. 군포장은 안양장이 폐장과 개설을 반복하던 상황에서도 존속하였고, 경부선

日許可セリ 大正十五年一月六日 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二號 市場設置ノ件左ノ通許可セリ 大正十五年一月六日 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一號 始興郡西二面虎溪里ニ設置セル軍浦場市場廢止ノ件大正十四年十二月二十三		時實 秋 穗 時實 秋 穗 時實 秋 穗
軍浦市場 同郡南面堂 南面 陰曆二、七ノ日 二相當スル日 穀類、水産物、雜貨	安養市場 面安養里 西二面 陰曆五、十ノ日 二相當スル日 穀類、水産物、雜貨	名 稱 位 置 經 營 者 開 市 日 取 引 時 實 秋 穗 取引ヘキ主ツル貨物ノ種類 許 可 日 月 年

1925년 12월 23일 군포장 개설(좌)과 폐지(우) 고시

15) 박은숙, 2008, 『시장의 역사』, 역사비평사, 198쪽.

16) 박은숙, 2008, 『시장의 역사』, 역사비평사, 235쪽.

17) 조선총독부철도국, 1914, 『朝鮮鐵道運輸一斑』, 상권, 434~435쪽.

18)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1호」, 『조선총독부관보』, 1926년 1월 12일;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2호」, 『조선총독부관보』, 1926년 1월 12일.

개통과 함께 업무를 시작한 역의 명칭이 군포장역이었음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려 준다.

군포장역은 경부선 철도 개통과 더불어 설치되어, 1944년 부곡간이정차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군포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의 의왕과 반월 지역의 일부 주민들도 이용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개통 초기에는 안양역보다 역세가 컸다. 1913년을 기준으로 이 역의 역세를 보면, 연간 승하차 인원은 총 2만 9,727명, 발착화물은 1,997t이었다. 이에 비해서 안양역은 연간 승하차 인원이 2만 7,166명, 발착화물은 1,367t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 말기로 갈수록 역전되는데, 안양 지역이 군포 지역보다 좀 더 일찍 산업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1920년대 후반에 시흥군 관내에는 영등포장, 안양장, 군포장, 삼거리장이 있었다. 그중 군포장은 3번째 규모였다. 이 외에 군포장 인근인 반월면 건건리에 반월장이 서고 있어서 현 대야동 주민들은 군포장이나 안양장, 반월장 등을 이용하였다. 이 시기 군포장은 이미 안양장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장세가 악화된 상태였으나 반월장에 비해서는 장세가 큰 편이었다.

한편, 1950년에 발간된 『금천지』에서는 1949년 무렵 시흥군의 장시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장시는 모두 안양장, 군포장, 삼거리장, 안산장 등 4개소인데, 이 가운데 삼거리장은 소를 거래하던 우시장이었다. 이 시기 군포장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은 듯하나, 4개 장시 가운데 시장규모가 가장 작았다.

〈표 4〉 1928년과 1949년 시흥군 관내 장시 현황

(단위: 원)

연도	시장명	위치	개시일	개시점포수	연간 거래액					
					계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산물	기타
1928	영등포장	영등포면 영등포리	3, 8	64	48,525	-	-	48,525	-	-
	안양장	서이면 안양리	5, 10	75	23,894	5,522	1,713	4,671	9,970	2,018
	군포장	남면 당리	2, 7	65	5,300	5,300	-	-	-	-
	삼거리장	수암면 능곡리	5, 10	36	627	278	-	-	-	349
1949	안양장	안양읍 안양리	5, 10		248,400,000	66,000,000	25,100,000	53,000,000	41,300,000	63,000,000
	군포장	남면 당리	2, 7		1,150,000	500,000	200,000	250,000	-	200,000
	삼거리장	수암면 능곡리	5, 10		12,520,000	-	-	-	12,520,000	
	안산장	수암면 수암리	2, 7		2,820,000	1,000,000	820,000	500,000	-	500,000

출처: 경성상업회이스, 『조선경제잡지』 1922년 9월호, 9쪽; 시흥군, 1950, 『금천지』, 130쪽.

철도의 개통은 안양과 군포 지역 성장에 견인차가 되었지만, 군포장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장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철도 개통과 대홍수 등의 자연적·사회적 요인으로 군포장은 서이면 호계리 일대에서 남면 당리의 군포역 앞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안양 지역의 성장으로 안양역 인근의 안양장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1920년대 중반 이후 군포장은 지속적으로 위축되었다. 1937년에 군포장역의 명칭을 군포역으로, 군포장우편소의 명칭을 군포우편소로 바꾼 것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3. 전철과 고속국도의 시기

1) 도시화와 전철망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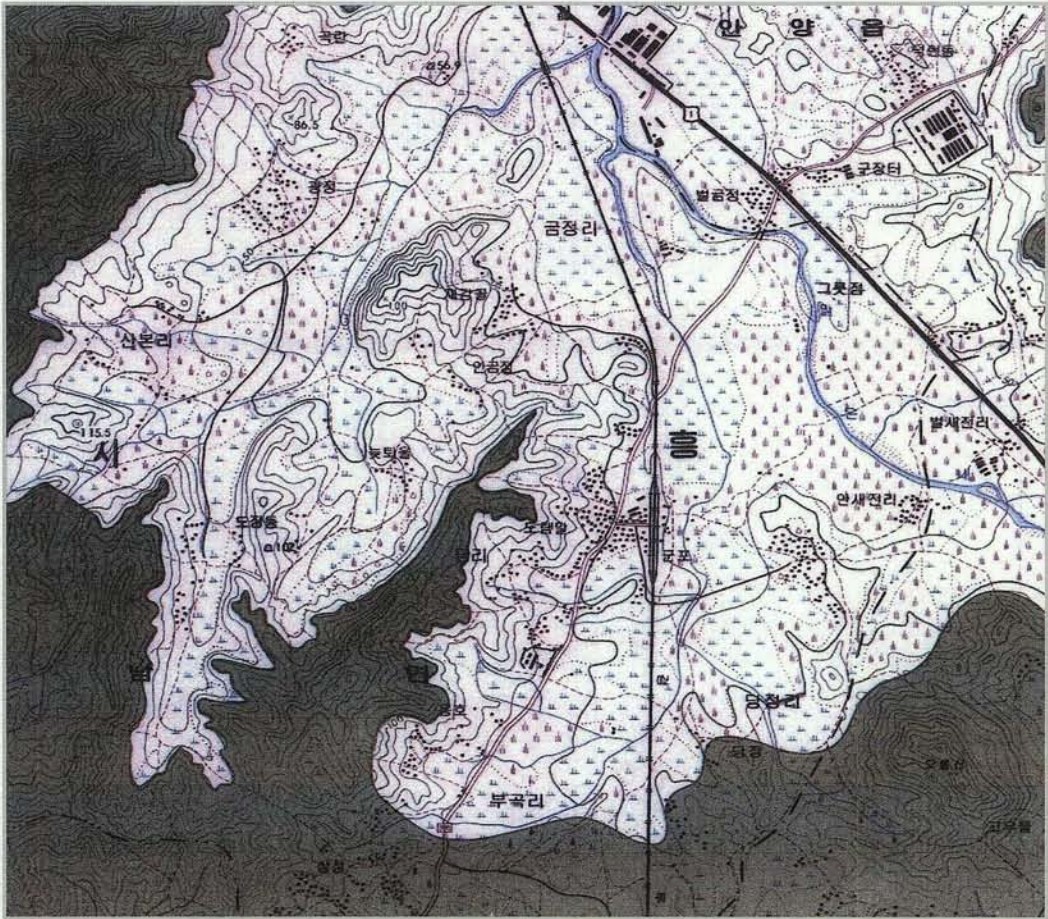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이었음에도 군포 지역의 상업이나 도로교통은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다. 철도교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포의 행정구역 내부를 지나가는 철도는 경부선뿐이었고 열차가 정차하여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역은 군포역이 유일하였기 때문이었다. 비록 1979년에 읍으로 승격 되었지만, 군포 지역은 수도권 외곽의 공업도시에 불과했다. 이곳은 대략 안양천 서쪽에 위치하여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서쪽의 주거지구와 동쪽의 공업지구로 나뉜 전형적인 공업도시였다. 전기, 전자, 유리, 페인트, 피혁, 식품 등의 공업이 발달한 군포는 도시 중심부가 군포역전에 형성된 역전 취락일 뿐이었다.¹⁹⁾ 이처럼 군포는 공업도시로는 성장하였지만, 상업도시로는 성장하지 못했다.

1969년대 말 수정 편집(1972년 발행)된 1:25,000 지형도를 보면, 군포 지역에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으나, 당리의 군포역전 일대에만 취락이 두드러질 뿐, 다른 동리의 취락 발달은 매우 미약하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산본리 일대에는 소규모의 취락만 분포하며, 금정역 부근에는 가옥이 몇 채 보이지 않는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이 발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공업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구 증가가 동반되었고, 이는 상업이 발달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군포 지역의 공업화도 이 지역의 상업 발달을 견인하게 되었다. 또한 1974년 8월 15일에 있었던 수도권전철의 개통이라는 사건은 이 지역에 보다 많은 공장이 들어서서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인구 증가와 상업 발달을 가져왔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과밀과 주택 부족으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

19) 권혁재, 1995, 『한국지리-지방편』, 법문사, 56쪽.



1969년 편집(1972년 발행) 1:25,000 지형도의 군포 지역

〈표 5〉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

(단위 : 천평, 천명)

명칭(위치)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	중동(부천시)
면적	5,940	4,760	1,540	1,270	1,650
계획인구	390	280	170	170	170
사업기간	1989. 8~1996. 12.	1990. 3~1995. 12.	1989. 8~1995. 12.	1989. 8~1994. 12.	1990. 2~1994. 12.

출처 : 손장권 외, 2003, 『신도시의 형성』, 백산서당, 48쪽.

은 여론과 민심을 악화시켜 당시 노태우 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1988년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5곳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 신도시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지금의 산본 신도시이다.

산본 신도시는 수도권 5개 신도시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았다. 따라서 도로 연장과 면적, 상업 용지 면적 등도 신도시 가운데 가장 작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산본 신도시 건설은 군포 지역의



경부선 철도와 군포 공업지대

교통과 상업이 한 차원 높게 발달하는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도로망이 크게 확충되었기에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중산층이 전입해 들어오면서 소비인구가 늘어나 상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수도권 개발과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전철망의 연장과 확대를 가져왔다. 그 영향으로 과거 정착역이 하나뿐이던 군포시에도 전철역이 늘어났다. 우선 군포와 안산을 잇는 안산선이 건설되면서 금정역이 1988년 10월에 생겨났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4호선 종착역인 사당역에서 과천과 평촌을 거쳐 군포로 이어지는 과천선도 건설되었다.

처음에 금정역은 금정~안산 간의 경부선 지선역이었으나, 1993년에 과천선 금정~인덕원 구간이, 1994년에 인덕원~남태령 구간이 개통하면서 서울지하철 1호선의 연장인 수도권전철 경부선과 4호선의 연장인 과천선·안산선의 환승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산본 신도시 내 상권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금정역 일대는 군포시 최대의 상권이였다. 금정역은 산본 신도시의 동쪽 지역 아파트와 가깝고 신도시로 연결되는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통과하므로 산본 신도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역이다. 인근에 산본시장과 군포의 벤처 단지가 있다.

군포역도 1999년 6월 1일부터 경부선 일반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서 완전히 수도권 전철역의 기능만 담당하게 되었다. 산본 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된 1990년대 중반에는 군포역이 자리한 당동 일대의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당동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군포역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이 역 주변에는 초·중·고교들을 비롯하여 한세대학교가 있으며, 군포의 공단, 의왕시청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수도권전철 안산선의 산본역은 산본 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역이다. 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군포시의 중심 역으로 떠올랐다.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역이 없었으나 산본 신도시 건설이 한창이던 1992년 5월부터 역사 운영이 개시되었다. 주변에 산본 중심상가 및 군포시청, 군포우체국, 군포경찰서, 군포의왕교육청, 군포청소년수련관 등의 공공기관을 배후지로 하고 있다.

수도권전철 안산선에 속하는 대야미역은 금정역과 함께 1988년 10월에 개통하였다. 배후지가 군포의 외곽지역이라 초반에는 이용승객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 대야미역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용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군포시에서 안산시로 넘어가는 마지막 역이다.

수리산역은 산본역과 대야미역 사이에 위치하며, 군포의 역 가운데 가장 늦게 생긴 역이다. 본래는 산본역에서 대야미역으로 직접 연결되었으나 산본 4~5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전철역사 신설 민원이 수용되어 2003년 7월에 역이 생겨났다. 원래 명칭은 도장역이었으나 인근 수리산의 이름을 따서 수리산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수리산의 주요 등산로나 산림욕장 입구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들 5개 역 외에 2008년 6월에 착공한 당정역이 2010년 1월 완공하여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역은 군포역과 의왕시의 의왕역(옛 부곡역) 사이의 역간 거리가 너무 길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

〈표 6〉 군포시 소재 전철역 현황

(단위: 명)

역명	군포역	금정역	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노선	1호선 연장	1, 4호선 환승	4호선 연장	4호선 연장	4호선 연장	
영업 개시일	1905. 1. 1.(일반철도) 1974. 8. 15.(도시철도)	1988. 10. 25.	1992. 5. 1.	2003. 7. 18.	1988. 10. 25.	
구조	2면 4선	3면 5선	2면 4선	2면 2선	2면 2선	
승차 인원	1990	2,871,939	3,874,823	-	-	
	1992	3,146,868	5,546,561	733,884	-	
	1994	3,905,500	8,516,180	4,304,443	-	
	1996	2,523,943	8,161,019	6,662,688	-	614,507
	1998	2,702,708	8,250,852	7,624,833	-	747,832
	2000	2,824,259	5,302,477	7,304,993	-	700,650
	2002	3,747,749	4,400,375	9,546,244	-	841,076
	2004	3,333,841	7,934,073	6,907,846	1,358,627	754,087
	2006	3,587,741	8,676,397	7,117,500	1,093,281	822,657
2007	3,718,764	8,809,122	6,507,712	1,535,982	881,915	

출처: 「코레일소개」, 코레일(<http://www.korail.com>);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고, 당정동과 부곡동 일대에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인구가 늘어나 신설하게 되었다. 역사 명칭 선정 과정에서 기존의 군포역(이미 군포역은 '한세대앞'이라는 부역명이 있다)보다 당정역이 한층 더 가까운 한세대학교 측은 역명을 한세대역으로 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공모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당정역'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당정역 신설은 지금의 금당터널과 한세대학교 사이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며, 한세대학교 학생들은 물론 앞으로 조성될 당동2지구의 입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표 6〉에서 군포의 전철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는 산본 신도시 건설이 진척되고 어느 정도 입주가 이루어진 후인 1990년대 중반에 급격히 늘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교통의 발달이 군포의 도시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군포에서는 단연 금정역의 이용객이 제일 많다. 군포의 유일한 환승역이라는 점과 산본 신도시로의 버스 환승이 쉽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 같다. 한때는 큰 차이가 없었던 산본역 승객과의 격차가 최근에 다시 벌어지는 이유는 서울시와 경기도 간 버스·전철 환승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노선이 많은 금정역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본역은 금정역에 비해 승객수가 적지만, 산본 신도시의 중심적 지점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은 수리산역이 개통되면서 승객수가 많이 감소한 듯하며, 특히 수리산역 개통 후 산본을 종점으로 하여 출발하던 몇 편의 전동차가 폐지되면서 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야미역과 수리산역의 승객수는 다른 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두 역 모두 배후지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특히 대야미역은 배후지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앞으로도 승객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송정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그 인구를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도로망과 도로교통

군포시의 도로망은 전체적으로 격자형 패턴으로 지역 간 도로 연결도는 양호한 편이나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 통과교통량이 많은 편이다.²⁰⁾ 내부적으로는 산본 신도시 지역의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다. 이에 비해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 등과의 도로망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그럼에도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도로의 길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승격 첫해인 1989년 도로 연장이 총 4만 8,361m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6만 5,312m로 늘어나기에 이르렀다.

군포시의 도로 가운데 일반국도로는 국도47호선과 국도1호선이 중요하다. 국도47호선은 대략

20) 군포시, 1999, 『군포시사』, 621쪽.



영동고속도로 대이미동 구간

군포시의 남서부와 북동부를 가르는데, 북으로는 안양시의 평촌과 과천시를 경유하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방향으로 이어진다. 남으로는 인천시·안산시·수원시를 잇는 국도42호선이나 화성시·평택시로 이어지는 국도39호선과 만난다. 따라서 국도47호선은 군포시 외곽의 많은 지역과 연결되는 핵심적인 도로라고 할 수 있다. 군포시의 승용차나 버스도 대부분 국도47호선을 따라 이동한다. 서울로의 통근자가 많은 군포 지역에서는 매우 요긴한 도로라고 하겠다. 국도1호선은 경수산업도로라고 불리면서 군포의 공업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통근 자동차는 물론 많은 화물차가 지나다니는 노선이다. 그 노선 중에서 군포시 통과 구간은 군포 공업지대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면적도 작다. 그러나 군포시와 안양시, 군포시와 의왕시의 경계를 따라 지나가면서 군포시민들을 서울시와 수원시 등으로 이동하게 해 주는 중요한 도로이다.

경부선 철도는 군포시를 남북으로 종단하며 동쪽의 공업지역과 서쪽의 주거지역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군포시의 도시화에 일정 정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의 북쪽인 산본1동과 가운데인 금정동에는 고가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남쪽의 군포1동에는 지하차도가 있어서 안양시나 의왕시 등으로 동서 방향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둔대동 반월호수 옆으로는 경부고속철도 일부 구간이 지나간다.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주정차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해당 도시와 다른 도시의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켜 준다. 군포시에는 세 가지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한다. 그중 시 북쪽을 동서 방향으로 지나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퇴계원 구간이 1991년 11월에 완공되었고, 군포가 포함되는 일산~판교 구간은 1999년 11월에 개통되었다. 건설기술에 관한 여러 사항의 검토와 당시로는 생소했던 요금징수방법 등의 논란으로 개통구간과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일산~퇴계원 구간은 민간자본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유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북한산 통과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2007년 12월에야 완공되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는 산본IC가 있다. 당시 새롭게 조성된 산본 신도시의 북서쪽으로 나들목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고속도로인 영동고속도로는 원래 경기도 용인의 신갈과 강원도 횡성의 새말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1971년 12월에 개통되었다. 계획으로는 서울~강릉 구간이었으나 국제개발협회(IDA)의 차관을 도입하는 게 지연되어 예산상 먼저 신갈~새말 구간을 개통한 것이었다. 이후 수도권 교통수요의 급증에 따라 세계개발은행(IBRD)의 차관을 얻어 안산~신갈 구간을 2001년 5월에 개통시킴으로써 군포의 고속도로시대를 열었다. 군포의 남쪽 국도47호선에 연결되는 군포IC가 대야미동에 설치되어 있고,²⁰⁾ 부곡동에는 복합화물터미널과 연결된 동군포IC가 있다.

세 번째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이다. 인천광역시와 전남 목포시를 잇는 이 도로는 1990년 12월 착공되어 2001년 12월 완공되었다. 순산터널과 팔곡터널 구간이 둔대동의 반월저수지 서쪽으로 지나지만, 관내에 나들목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도로망을 기반으로 군포의 노선버스 운행은 <표 7>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버스노선을 살펴보면, 군포시 밖으로 운행되는 노선은 대체로 과천시·안양시·의왕시·안산시 등 수도권 다른 도시와 연결되거나 서울시의 금천구·구로구·동작구 방향 및 서초구·강남구 방향으로 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군포 시민의 통근권과 생활권이 주로 이러한 지역까지임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군포시 노선버스 운행 현황

업체명	노선 번호	배차 간격	첫차	막차	운행 구간
보영운수	917	10~15	05:00	23:30	공영차고지~4단지~문화예술회관~금정역~(주)효성~방축로~범계역~인덕원~과천~삼성역~잠실종합운동장
	11-2	7~10	04:55	23:00	공영차고지~4단지~산본역~신환A~금정역~비산사거리~인덕원~과천~사당~정금마을
	11-5	10	04:50	23:00	공영차고지~문화예술회관~금정역~호계사거리~평촌~인덕원~과천~사당~정금마을
	15	5~10	04:50	23:00	8단지~문화예술회관~금정역~만안구청~중앙로~안양1분기~창박골
	15-2	10~15	05:00	23:00	당정LG(아)~금당터널~흥진중고~산본역~군포시청~금정역~만안구청~중앙로~안양1분기~창박골
	3030	12~15	05:30	01:00	군포공영차고지~군포역~군포시청~문화예술회관~금정역~평촌~과천~양재~역삼동~강남역~논현역~신사역
대원여객	9503	12~15	05:30	01:00	군포공영차고지~군포역~군포시청~문화예술회관~금정역~평촌~과천~양재~역삼동~강남역~논현역~신사역
	5624	10	04:30	22:50	공영차고지~군포역앞~금정역~안양~석수역~시흥~구로디지털단지역

업체명	노선 번호	배차 간격	첫차	막차	운행 구간
군포교통	5531	4	04:20	23:00	공영차고지~군포역~금정역~안양~시흥동~대방동~노량진
	5623	5	04:20	23:00	군포공영차고지~당동주공~금당터널~문화예술회관~금정역~안양~시흥동~여의도
삼영운수	20	20	05:30	22:30	석수LG(아)~관악역~안양중앙시장~만안구청~금정역~군포역~당동주공
	8	8	05:00	22:40	충훈부~박달동~인덕원~호계신·구사거리~농심~군포동~당정고가~고천
	8-2	15	05:00	22:50	고속철광명역~충훈부~중앙시장~만안구청~금정역~신환앞~군포중~군포역~당정동~고천
	60	10~12	05:00	22:40	당정LG(아)~한세대~용호고~군포역~농심~구군포길~범계역~인덕원~흥안로~호계사거리~오전동~고천
	88	10	05:00	23:00	4단지~흥진중고~산본역~군포경찰서~금정역~중앙시장~충훈부
우신버스	4425	7~8	04:30	23:50	공영차고지~문화예술회관~금정역~비산동~인덕원~과천~사당~강남고속버스터미널~강남성모병원
	540	6~7	05:10	11:30	공영차고지~4단지~3·1단지(산본역)~호계사거리~인덕원~과천~사당~강남고속버스터미널~강남성모병원
	5530	4~5	04:30	22:50	공영차고지~4단지~3·1단지~시청앞~11단지~금정역~안양~시흥~서울대입구역
경원여객	31-7	15	04:50	22:20	4단지~3,1단지(산본역)~금정역~안양~시흥신천동~소사역~북부역~남부역
	3100	20~30	05:30	22:30	안산공대~초지고~풍림아파트~고잔고~한양대학입구(레포초교회)~성안고사거리~푸른마을~상록수~반월동(서해아파트입구, 대림아파트입구)~대야미~용호고교~당동주공아파트단지~군포문화센터~한세대학교~당정초교~군포제일공단~제일모직~고천·의왕시청~원호·충무아파트~등기소~의왕톨게이트~고속도로~양재화물터미널~양재동꽃시장~양재역~뱅뱅사거리~강남역(중점)
제부여객	330	15~20	05:45	24:05	군포시청~금정역~군포역~구반월~비봉~남양~서신송고리(제부도입구)
	330-1	60	06:25	19:00	군포시청~금정역~군포역~구반월~비봉~남양~마도산업단지
태화상운	직행	20	05:10	22:30	성남(모란)~군포시청~대야동~구반월~상록수~한양대앞~안산터미널~안산시청~안산역~시화단지
경기고속	3500 직좌	20	05:40	23:20	캐피코~한세대~흥진고~산본역~군포시청~문화예술회관~외곽순환도로~서현역~미금역~양지마을~오리역~벽산(아)
경기공항리무진버스		20~30	05:00	20:45	광정동사무소앞~범계역(안양)~인천국제공항(여객청사7A)

출처 : 「대중교통」, 군포시청(<http://www.gunpo21.net>).

한편, 군포시 마을버스 운행노선은 <표 8>과 같은데, 주로 주요 아파트 단지와 공공기관, 상가, 전철역을 연결한다. 따라서 군포의 주요 상업시설들은 전철역이나 주요 버스정류장이 인접한 지역에서 발달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군포시 마을버스 노선 현황

업체명	노선 번호	운행 거리	배차 간격	첫차	막차	운행 구간
군포운수	1	8.3	7	05:30	23:30	5단지~산본역~시청~9단지~12·13·14단지~노루목주유소~금정역~금정초교
	1-2	27.1	100	06:30	21:00	군포공영차고지~대아동전지역~도마교동~도장중~6·7단지~산본역
	6	9.9	7	05:30	23:30	대야미역~군포보건소~용호고~당동주공~쌍용아파트~당동우체국앞~군포역~재궁동주공~시청(마트 앞)~대림아파트~문화예술회관(광정동장미아파트)~산본2동사무소(산본2동백합아파트)~산본1동사무소~금정역~산본시장~구주공아파트
	6-1	9.3	12	06:00	22:00	반월호수~둔대초교~대야미역~부곡동~용호사거리~당동초교~당말터널윗길사거리~2단지~산본역~이마트~군포시청~2단지
(주)행복운수	2	7.5	8	05:50	23:20	9단지~궁내동사무소~8단지~수리동사무소~6·7단지~산본역~시청~장미(아)~12·13·14단지~산본시장~금정역~금정초교
(주)사랑교통	3	12.4	7	05:50	22:52	당동노인복지회관~당동주공~군포1동사무소~군포중고~흥진중고~산본역~시청~E마트~9단지~11·12·13·14단지~산본시장
	3-1	8	12	05:50	23:10	당동노인복지회관~용호고교~당동초교~당동제2공영주차장~당말터널윗길사거리~2단지~산본역~6·7단지~8단지~중앙도서관~9단지~궁내동사무소~중앙도서관
(주)오성교통	5	8.7	10	06:00	23:00	당정2동(큰말)~대우성원(아)~당정LG(아)~당정지하차도~당동우체국~군포역앞~군포중~서초슈퍼~신환(아)~군포경찰서~산본역~5단지 입구~4단지 입구

출처 : 「대중교통」, 군포시청(<http://www.gunpo21.net>).

3) 주요 상권의 형성

교통로 및 교통망의 발달로 군포에는 몇 군데의 상업지역이 형성되었다. 물론 산본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가 있지만 그 세력권은 주변 아파트에만 미친다. 따라서 비교적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지역을 선별해 보면, 금정역 주변상가, 군포역 주변상가, 국도47호선 주변상가, 산본역 주변상가, 당동상가, 대야미역 주변상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정역 주변상가는 금정역 이용 승객수에 비해 규모가 작다. 대부분의 상가가 3~5층 정도이고, 상가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이른바 금정역 먹자골목에 요식업소들이 대거 밀집해 있고, 역 주변에는 주로 음식점이나 제과점, 약간의 의류점과 숙박업소가 모여 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원들도 있는데, 편리한 교통은 직업학원들의 입지에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정역의 경우 이용승객은 많지만 환승역이다 보니 역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또한 전철을 이용하여 다른 도시로 가는 길목이다 보니 식사와 음주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 요식업소만 밀집하는 결과를 낳은 듯하다.

금정역 인근에 있는 산본시장은 군포시 최대의 재래시장이다. 금정역에서 산본 신도시로 들어

오는 길목에 위치한 이 시장은 시민들이 명절 때 특히 많이 이용하는 상업시설이다. 수도권 외곽과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으로 농산물 값이 싸면서도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장점이다. 서로 다른 3개의 가로망이 연결되어 형성된 시장으로 규모도 크고 품목도 다양하다.

군포역 주변상가도 그리 크지 않다. 이곳도 역시 상가건물들이 3~5층 수준을 넘지 못하며, 업종도 마트나 편의점, 소규모 금융기관과 병원, 음식점, 다방, 고시원, 부동산중개업소, 금은방, PC방 등이다. 군포역 앞에는 군포역전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으나 100m도 안 되는 가로에 펼쳐져 있어 산본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작다. 그나마 군포역 서쪽의 주택가에 이러한 상가들이 발달했을 뿐 동쪽의 공장지대는 자동차정비소들과 기계제조업체들로 채워져 상가발달이 미약한 편이다. 이는 금정역도 비슷한 실정이다. 상가의 발달에는 교통도 중요하지만 배후지의 성격도 중요하다. 군포역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적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다. 따라서 대규모 상가가 발달하기 어렵다. 부동산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소규모 원룸이나 고시원 등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함을 반영한다. 군포역 주변상가는 역전상가와 주택지상가의 중간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군포역과 금정역을 연결하는 국도47호선 주변에도 상가들이 분포하는데, 대체로 금정역으로 향하는 방향에서 왼쪽에 위치한다. 기본적으로 마트나 음식점이 분포하나 기계설비, 사무용가구, 공업사, 타일 및 페인트 등의 건축재, 철물, 주방설비 등의 업소도 여럿 눈에 들어온다. 아마도 인근에 군포 공업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주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주유소도 여러 군데 분포한다. 또 인근 금정역과 군포역의 영향에다가 금정역의 많은 요식업체 탓인지 모텔도 눈에 많이 띈다. 산본 신도시와 가까운 구간에는 자전거대리점, 낚시용품점, 애완용품점 등 취미와 관련된 업종도 간혹 나타난다.

산본역 주변상가는 단연 군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점 밀집가이자 현대식 상가이다. 흔히 산본 중심상가로 불린다. 이 상가지대는 금정역이나 군포역의 상가에 비해 훨씬 나중에 형성되었음에도 군포시의 중심상가로 성장하였다. 구매력이 비교적 높은, 신도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성장의 원동력인데, 이것으로도 배후지의 역할이 큼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의 상가건물은 보통 7~8층이고 10층을 훌쩍 넘는 고층상가도 많다. 대형 오피스텔과 종합 병원도 분포하고 일반 개인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가지역보다 규모가 크다. 대형 할인마트도 두 곳이 있다. 산본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마련된 상점가라서 상가의 가로망이 규칙적이고 넓으며 시설도 양호하다. 주요 업종들은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전문식당, 병원과 약국, 미용실, 의류점, 안경이나 화장품 또는 무선통신기기 등을 판매하는 전문상점, 큰 규모의 금융기관, 카페나 커피숍, 극장, 학원 등이다. 산본 신도시의 중심부에 있어 유동인구도 많다. 따라서 학원이나 학생 상대의 음식점이 많다. 중심상가의 지하에는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어 금정역이나 군포역 상가에 비해 이용하기 훨씬 편리하다. 신도시 형성 후에 들어선 대형 할인매장이 이곳에 있는데, 한 번에 모든 소



산본 중심상가

핑을 해결할 수 있고 편리한 주차시설과 쾌적한 쇼핑분위기 조성, 친절한 마케팅 전략 등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매자가 오도록 하여 군포의 상업을 발달시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영세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산본 신도시에서 금당터널을 넘어 당정동 방향으로 가는 길목, 즉 군포초등학교 사거리 일대는 당동상가로 불린다. 이곳은 당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달아 건축되면서 빠른 속도로 상가가 확장되고 있다. 이곳 역시 상가의 규모가 크고 고층이다. 학원, 병원, 금융기관, 프랜차이즈 식당, 전문음식점, 커피숍과 카페, 미용실 등이 많이 입지해 있어 산본역 주변상가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데, 마치 산본역 상가의 축소판 같은 인상을 준다. 다만, 산본역 주변상가처럼 넓게 분포하면서도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고, 군포초등학교 사거리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 뒤늦게 상가가 형성되어 상가건물의 상태는 산본역 일대보다 양호하다. 특이한 것은 다른 상가지대에 비해서 독서실과 골프용품 상점이 눈에 많이 띄는 점이다. 독서실이 많은 것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학생수가 많아지고 이 일대가 산본역 주변보다는 유흥가적인 분위기가 덜하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골프용품 상점이 많은 것은 인근에 안양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이 있기 때문이다.

대야미역 주변은 상가가 적고 듬성듬성 분포해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가 늘어났으나 아직도 밭이나 공터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자동차부품업소, 정비소, 학원 등이 주된 업종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업소가 많은 편이며, 안산시나 수원시로 가는 길목이라 자동차 관련 업소도 여럿 분포한다. 타 업종에 비해 학원이 많은 편인데, 대야미역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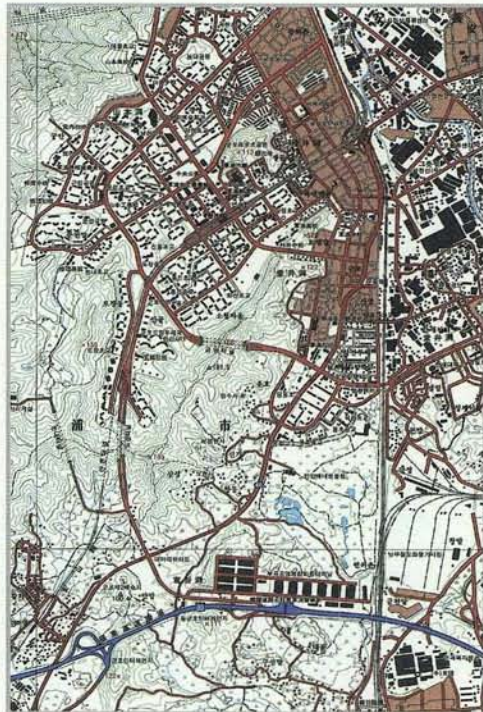
이 군포시에서는 비교적 외딴 곳이고 군포나 산본의 중심상가까지의 교통도 다소 불편하기 때문이다. 즉, 대야미는 규모는 작지만 하나의 독자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수리산역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외에는 이렇다 할 상가지대가 없다. 4단지가 2,887세대, 5단지가 3,450세대 등 두 단지에 총 6,337세대가 거주하여 일정 정도 배후 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좁은 골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상가지대가 형성될 공간이 없고, 수리산역도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가 형성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다음은 1994년과 최근인 2006년에 수정 편집된 1:25,000 지형도의 군포 지역이다. 1994년 지형도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커지기 시작한 군포역 일대는 물론 산본 신도시 일대의 시가지가 매우 크게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국도가 확장되었음은 물론 산본 신도시 일대에 격자형의 가로망이 발달하여 도로교통이 눈에 띄게 편리해졌고, 산본역과 금정역 일대의 시가지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확대된 시가지에는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섰다. 다만, 대야미역 일대는 여전히 취락의 발달이 빈약하다. 최근 2006년에 수정된 지형도에서는 군포역, 산본역, 금정역이 주요 교통의 결절점이 됨은 물론, 시가지 발달도 뚜렷함이 분명히 나타난다. 세 역의 주변은 붉은색이 강하게 나타나 시가지의 밀집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고층건물을 나타내는 검정색 사각형도 많이 분포한다. 이러한 곳에는 대규모의 상업시설들이 분포한다. 대야미역 인근도 과거에 비



1994년 수정(1995년 발행) 1:25,000 지형도의 군포 지역



2006년 수정(2007년 발행) 1:25,000 지형도의 군포 지역

해서는 시가지가 확대되었으며, 국도47호선 주변이나 당정동 일대의 시가지 발달도 두드러진다.

군포의 상업 변화를 나타낸 통계자료는 <표 9>와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각 표는 산본 신도시가 형성된 직후인 1995년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안 적용 전인 2006년의 상업 및 서비스업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업종들은 비교적 상가의 형태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업종들이다. 표를 보면, 군포1동, 군포2동, 광정동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군포1동은 군포역, 군포2동은 당동의 아파트 단지 조성, 광정동은 산본 중심상가와 산본역의 영향으로 보인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야미동의 성장도 통계수치에 나타난다.

<표 9> 1995년 동별 상업 및 서비스업 현황

(단위: 개, 명)

지역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합계	2,770	6,825	1,689	3,702	64	980	588	3,009	476	3,097	176	733	1,047	2,610
군포1동	492	1,031	289	543	10	184	84	226	61	233	30	112	174	338
군포2동	108	277	32	80	-	-	21	73	23	159	2	17	49	348
당정동	138	675	101	231	1	4	15	64	5	123	-	-	46	96
산본1동	640	1,344	373	795	9	89	89	171	68	215	48	155	218	379
산본2동	141	272	54	100	1	9	50	297	37	206	4	10	56	130
금정동	571	1,341	319	557	14	200	61	282	75	375	14	48	174	319
재궁동	217	704	118	258	7	40	79	416	52	401	23	105	110	337
오금동	69	125	23	46	1	8	33	302	26	327	10	35	37	87
수리동	70	158	20	46	1	10	26	227	26	165	7	19	29	79
궁내동	104	155	41	88	2	34	35	336	38	339	7	18	37	150
광정동	189	676	288	882	17	388	91	594	56	514	31	214	102	320
대야동	31	67	31	76	1	14	4	21	9	40	-	-	15	27

출처: 군포시, 1996,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82~93쪽.

군포1동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늘었음을 뜻하는 지표이다. 눈여겨볼 것은 종사자수에서 금융·보험업의 대폭 감소이다. 이는 산본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런 기능들이 산본 신도시 방향으로 이전하였음을 보여 주는 근거이다. 아무래도 종산층이 많은 산본 지역이 이런 기능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할 것이다. 2006년 통계에서는 개인서비스업에 수리서비스업 부분이 들어가서인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증가도 나타난다. 각종 정비소의 영향인 듯하다.

군포2동은 당정동이 포함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업의 규모가 커졌는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증가 말고도 부동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당정동 일대의 아파

트 단지들로 인해 부동산업이 많이 늘었고, 학생수 증가로 교육서비스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5년에는 없었던 금융·보험업이 2006년에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 단지의 조성이 주된 변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광정동은 산본 중심상가와 산본역의 영향으로 상권이 급성장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급증이 나타났음은 물론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사업 등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산본 신도시를 배후지로 하면서 학생수가 늘었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과 의료기관이 대거 입지하였기 때문에 풀이된다.

〈표 10〉 2006년 동별 상업 및 서비스업 현황

(단위: 개, 명)

지역	도·소매		숙박·음식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 관련 사업		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합계	2,660	9,356	2,272	6,624	86	1,234	730	2,270	731	6,398	438	3,026	588	2,082	1,468	3,714
군포1동	588	2,286	497	1,247	12	92	120	398	72	889	45	209	98	249	275	926
군포2동	220	757	201	661	8	67	98	303	116	971	68	498	75	444	162	523
산본1동	436	1,336	385	859	4	25	91	168	53	222	58	299	103	186	209	372
산본2동	154	493	80	252	5	72	43	150	60	420	35	287	32	66	77	185
금정동	399	1,620	395	1,063	11	177	62	109	42	257	18	117	60	131	230	505
재궁동	153	338	83	197	6	130	68	146	68	546	32	232	30	226	107	216
오금동	42	90	27	73	1	10	36	193	44	452	25	91	5	12	44	86
수리동	51	99	27	100	1	10	28	169	24	296	14	67	5	10	40	117
궁내동	67	124	40	93	3	37	44	166	58	684	24	91	16	87	54	96
광정동	489	1,970	465	1,894	33	600	123	435	182	1,594	111	1,094	151	637	236	635
대야동	61	243	72	185	2	14	17	33	12	67	8	41	13	34	34	53

출처: 군포시, 2007,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400~415·428~443쪽.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군포의 교통은 수원이 정조의 원행과 화성의 축성 등으로 중요시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하고 군포장역이 설치되면서 군포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길목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내에 기차역이 한 곳밖에 없었고 점차 세력을 안양에게 빼앗기면서 교통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군포 지역의 교통이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산본 신도시가 조성되면서부터이다. 기존의 국도가 확장되었고 고속도로가 3개 노선이나 군포시를 경유하게 되었다. 수도권전철망의 확대도 군포의 교통발달과 도시화를 가져온 주된 원동력이었다. 서울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연장노선이 금정역에서 만나고, 이 역을 비롯해서 군포시는 산본역, 군포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등 5개 역을 거

느린 도시가 되었다. 당정역이 설치되면 그 수는 6개 역으로 늘어난다.

군포 지역의 상업은 조선 후기 군포장에서부터 발달했다. 군포장은 일제강점기에도 존속할 정도로 생명력을 유지하였으나 인근 안양장이 커지면서 세력을 잃게 되고, 1960년대에 상설화되었다. 군포 지역의 상업은 산본 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다시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된다. 산본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현대식 상가가 들어섰다. 앞으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더 커지고 편리한 교통이 인근 지역민들까지 흡수한다면, 그리고 당정역이 신설되면 군포 지역의 상업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 백



제6장 주거양식과 주생활

기량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원

1. 옛것과 현대가 공존하는 군포시

군포시는 20세기 우리나라 다른 지역처럼 주생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고가옥은 이전보다 빨리 소멸해 수십 년 내에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근까지 추진된 전국 각 지역의 주생활 조사는 이런 배경에서 19세기 이전(혹은 20세기 전반)에 지어진 ‘고가옥’, 즉 ‘과거’ 조선시대의 전통적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오늘날 군포시 중심 영역인 산본 신도시와 당동 아파트 단지는 현대 도시의 면모를 보여 주는 반면,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둔대동 등지에는 전통적인 농촌의 면모가 남아 있다. 하지만 군포시 전역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흐름을 잇는 소위 ‘한옥·단독주택’ 보다는 새로이 형성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양옥·공동주택’이 주류를 이룬다. 이번 주생활 조사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기존 조사 대상인 고가옥 위주의 ‘과거의 흔적과 모습’을 기록하는 데에서 탈피하고, ‘현대가옥’을 함께 선정하여 조사 내용도 ‘현재의 흔적과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 대상은 시기와 형식,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건립 시기에 따라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고가옥, 1990년대 이후의 현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거 형식과 종류로는 한옥단독주택, 양옥아파트로 나눌 수 있다.



전통가옥과 현대식 가옥이 공존하는 농촌경관

고가옥으로는 군포시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정운석 가옥(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과 함께 청송 심씨 집성촌인 둔대동 죽암마을에 자리한 심돈섭 가옥을 선정했다. 조사 내용은 두 가옥 모두 현대 생활에 맞추어 주거 내부를 개선하고 생활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파트는 건립 시기와 규모를 고려해 3채를 선정했다. 군포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이곳의 주택수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7만 3,027호이며, 그중 아파트가 5만 8,959호(80.7%), 다세대주택이 7,721호(10.6%), 단독주택이 3,962호(5.4%) 등이다. 따라서 아파트는 통계상으로는나 경관상으로 군포시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현재’의 주거상이다. 조사 내용은 서양식 주택인 아파트에서의 생활 모습을 기록하면서 ‘전통적’ 요소가 아파트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표 1〉 주생활 조사 대상

건립 시기	18~20세기 초반	1990~2000년대
범주	고가옥, 한옥, 단독주택	현대가옥, 양옥, 아파트
대상	정운석 가옥(속달동, 문화재 지정 가옥) 심돈섭 가옥(둔대동 대감마을)	배○○ 가옥(산본2동, 산본 주공1단지 아파트, 22평) 방○○ 가옥(오금동, 산본 주공4단지 한라차아파트, 26평) 정○○ 가옥(당동, 쌍용아파트, 36평)

2. 신도시 개발이 가져온 주거양식의 변화

1970~1980년대 경기도 지역의 변화 양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서울과 그 주변에 광범위한 수도권이 형성되면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대도시 집중 현상이 시작된 시기는 1960~1970년인데, 여기에는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직접 관련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을 낳은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교통망의 발달이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의 교통망 확충은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유발하여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하였다. 이 중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전철의 개통은 서울 인구의 분산을 유도하여 수도권의 영역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역시 급증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인구밀도를 보인 경기도는 1970년대 이후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20%에 달해 서울·부산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1980년대 들어서도 수도 서울의 과밀한 기능과 인구 집중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상당 부분은 경기도가 풀어내야 할 숙제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과천·안산 등 신도시가 출현하였다. 이들 신도시가 기존 도시와 다른 것은 처음부터 도시의 전반 규모를 계획한 후 건설하였다는 점이다. 이후 이러한 형태의 신도시는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의해 더욱 늘어났다. 그리하여 분당·일산·평촌·중동 등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는 수십만 규모의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이제까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었다.¹⁾



아파트 숲으로 변한 군포시

1)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경기도 역사와 문화』, 406~4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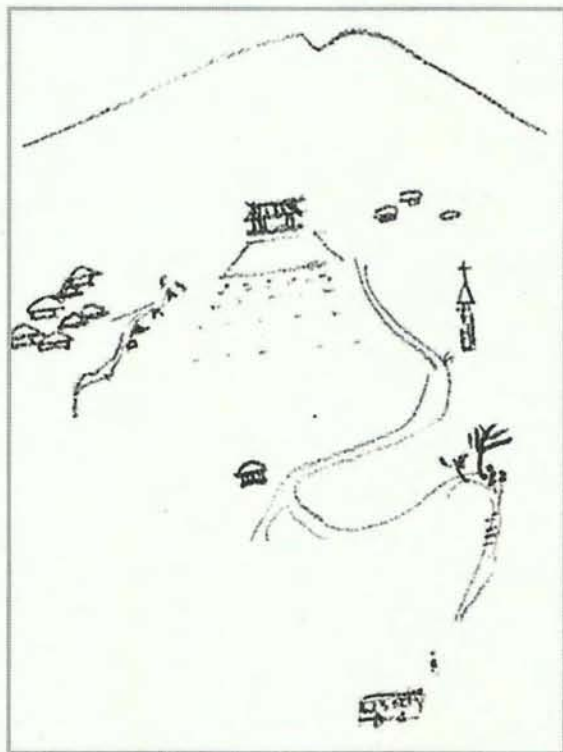
산본 신도시도 이 같은 배경하에 탄생한 신도시이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산본에는 아파트 4만 1,397호와 단독주택 577호, 총 4만 1,974호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었다.²⁾ 산본 등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 및 택지의 대량 공급은 수도권의 주택가격과 주거생활 안정은 물론 도심인구 집중의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³⁾

산본 신도시의 탄생으로 군포시의 외형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수리산을 배경으로 분포하던 기와집이나 초가 같은 가옥들은 자취를 감추고 아파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산본 신도시의 도시설계를 담당한 김진에 씨가 산본에 있던 할머니 댁을 기억하는 글⁴⁾에는 다음처럼 사라져 버린 기와집과 풍경이 그림과 함께 잘 묘사되어 있다.

맨 먼저 보이는 것은 수리산을 배경으로 보이는 집의 전경이다. 마을 모두 초가집이었을 때 할머니 댁은 기와집이라는 것이 한껏 자랑스럽기도 했던 어린 시절이었다. 게다가 우리 집 앞에는 마사토로 깨끗하게 닦아 놓은 바깥마당이 있어 참으로 좋았다. 마치 마을의 중심 같아 보이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 바깥마당에서 봄이면 모종판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여름밤이면 모닥불 피워 놓고 하늘의 별을 헤며 자곤 했다. 가을이면 타작일 하랴, 고추 말리랴, 겨울철이면 마당에 붙어 있는 행랑채의 방 안에서 새끼 꼬기, 가마니 짜기를 구경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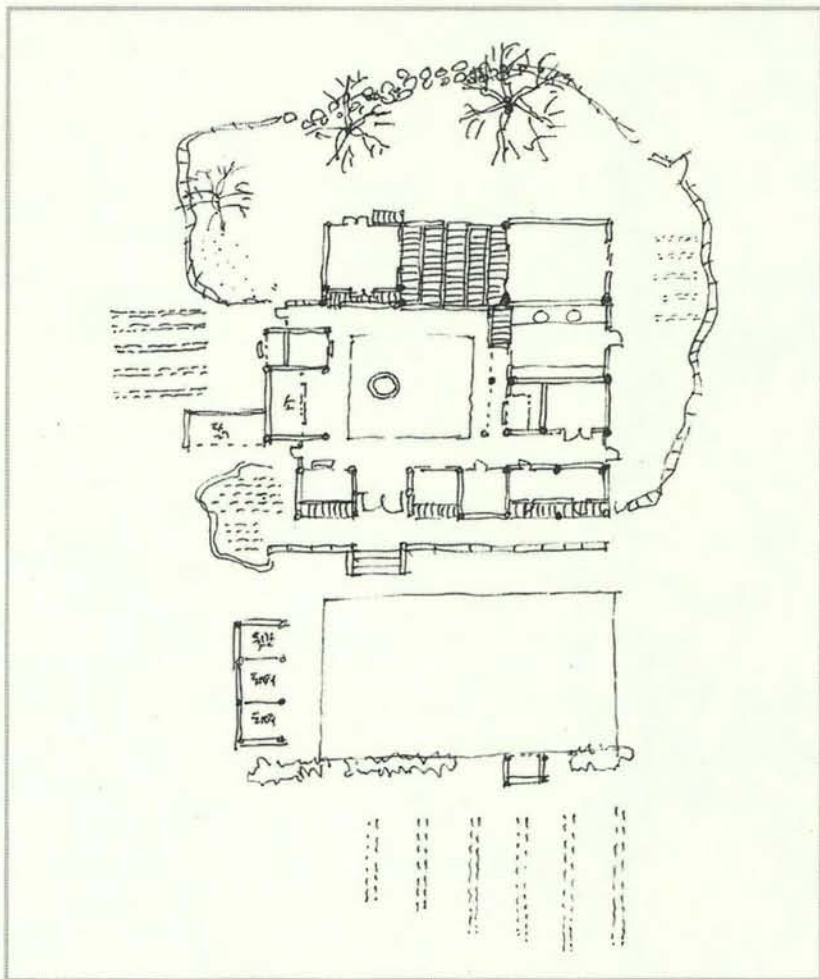
바깥마당에서 네다섯 단을 오르면 대문간과 행랑채가 있다. 대문 오른편의 행랑채는 사랑채도 겸했다. 할아버님이 동네 어른들과 소일하시며 항상 곰방대 담배 냄새가 피어오르는 방 하나와 항상 일감이 그득그득 쌓인 방이 하나 있다. 대문 왼편은 곳간과 허드레 부엌이 있고, 항상 큰술이 걸려 있어 쇠죽도 끓이고, 철마다 매주 담그기, 간장 담그기, 떡시루 찌내기가 벌어졌다.

안마당은 언제나 집의 중심이었고, 그 마당의 중심은 우물이었다. 마당 중앙에서 약간 비껴나 우물과 장독대가 있



산본 할머니 댁의 이미지 맵

2)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개발사』, 706쪽.
3) 군포시, 1999, 『군포시사』, 215~217쪽.
4) 김진에, 2000, 『이 집은 누구인가』, 한길사, 281~285쪽.



산본 할머니 덕의 평면 구성

이 마당 한가운데에는 너른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이곳에 평상도 놓고, 때마다 야채 다듬기에 주르르 모여 밥도 먹던 곳이다. 마당 한편 외양간 안의 소가 저녁이면 하루 일에서 돌아와 그 순한 눈으로 밥 먹는 우리를 고즈넉이 바라보곤 했고, 언제나 고양이 한두 마리, 멍멍이 한두 마리가 주변에 얼렁거리며 식구를 보태 주기도 했다.

마당 한쪽의 작은 쪽문이 인상에 남는다. 모든 동물들은 그곳으로 통한다. 새벽과 저녁이면 소가 그 문으로 드나들었다. 닭들도 그 문으로 통한다. 바깥마당의 한쪽에 있는 돼지우리와 닭장에 모이 주러 어린애들도 그 쪽문을 드나들었다. 계란을 주우러 갈 때면 서로 가겠다고 더욱 즐거운 쪽문. 한바탕 시끌벅적하면서 개울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던 문도 그 쪽문이었다. 어린애들은 동물에 속하는 모양인가?

부엌, 시골의 부엌은 언제나 낭만적이었다. 매일매일을 그 끝없이 일 많은 부엌에서 허리 휘어질새라 가마솥과 씨름하며 보내야 하는 사람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는 채, 나는 불때기가 그리도 좋았다. 가끔은 나도 뒷산에 나무하러 가기도 했었고, 내가 해 온 나무를 땀 때는 더 기분이 좋았다. 아궁이에 쓸데없이 나무 많이 넣는다고 할머니께 야

단도 맞았지만, 나는 특히 마른 잎이 잔뜩 달린 잔가지를 넣으면 그 이파리들이 따다다닥 소리를 내며 불뚱을 튀기며 타오르는 모습에 한없이 황홀해 했다. ‘쪼끄만 불꽃놀이’ 였던 셈이다. 불장난은 어린아이의 주요한 장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 딸들도 가끔 사촌들과 함께 집 옥상에 올라가서 양철통 안에다 불을 지피고 감자를 구워먹기도 하는데, ‘불’의 매력에 끌려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할머니 댁 시골 한옥의 매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끝이 없다. 시냇가에서 고기 잡던 일, 텀벙텀벙 먹감던 일, 뒷마당의 감나무에서 감 따먹던 일, 여름철 복날 축제 때 뒷산에서 돼지 잡던 일 등.

(중략)

우리 집에서 보면 산봉우리가 고기 입 모양같이 생겨서 ‘봉어산’이라 즐겨 불렀던 수리산에 올라가 산딸기며 머루 따먹던 일, 겨울철 공공 언 눈에서 썰매 타던 일, 설날 한복 입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세배하던 일, 귀신 나올 듯한 한밤중에 제사 지내던 일 등등, 참으로 추억 속에 아름답기만 한 ‘시골마을 집’의 모습들이다.

이처럼 ‘시골마을 집’에 대한 기억을 가진 그녀는 산본의 도시설계를 진행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⁵⁾

(그 과정에서) ‘꽃 피는 산골동네’라는 이미지를 그리곤 했다. 수리산만큼 높지는 않지만 20층이 되는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산본 신도시, 그나마 어떻게 산골동네의 맛을 살릴까가 고민 중의 고민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수리산에 기대어 사는 산본은 그런대로 동네의 분위기들이 나는 편이다. 길을 많이 내느라, 또 되도록 단지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않으려 애를 많이 썼는데 효과가 있다. 그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수리산을 배경으로 모인 모습이 드라마틱해 보이는 장소들도 있다. 모형에서 고민하면서 궁리해 낸 것들이 그나마 효과를 낸 셈이다. 수리산 중턱의 단독주택지들, 작은 길들이 괜찮다. 여전히 보기 싫은 곳은 중심상가 지역인데 아무리 보행공간을 만들어 놓았어도 건물들도 그렇고, 건물들에 덕지덕지 붙은 간판들도 시원치 않다.

다행히도 산본에는 오래 뿌리내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신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뿌리내린 시민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괜찮다는 것 아닐까? 이제 7~8세⁶⁾밖에 안 되었으니 시간이 지나며 자꾸 익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늑하고, 애들 키우기 좋고, 수리산 오르는 재미를 즐긴다는 주민을 만나곤 하는데, 아직도 선산에서 산본 신도시를 보고 계시는 조상들에게 다소나마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을 수 있을 때다.

시골 할머니 댁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한 김진애 씨가 설계한 산본 신도시에는 이러한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산본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5) 김진애, 2000, 『이 집은 누구인가』, 한길사, 288쪽.

6) 산본 신도시 최초 입주부터 김진애 씨가 이 책을 쓸 당시(2000년)까지를 기준으로 한 기간을 말한다.

1994년 12월 26일에 화성군 반월면에서 군포시로 편입된 대야동 일대는 편입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농촌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 산본 신도시 일대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농촌 모습도 군포시의 '현재'를 구성하지만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남아 있을지 불투명하다.

농촌에서는 가족 전체가 외지로 이주하는 경우보다 가족 일부는 남고 일부는 떠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1960년에 농가별 가족수가 10.6명이던 것이 1970년에는 5.8명, 1980년에는 5.2명, 1990년에는 3.77명으로 감소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0년의 농가별 가족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평균 가족수인 3.83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농가 인구는 고령화 추세를 보이며, 과거에 '농가=대가족형'이란 등식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⁷⁾

2005년을 기준으로 군포시의 전체 주택 중 197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없다. 아파트 중에서 1980~1989년 건축된 경우는 5.9%에 불과하며, 1990~1999년 건축된 경우는 82.4%, 2000년 이후 건축된 경우는 11.7%이다. 이로써 전술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과 맞물려 1990년대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05년 기준 주택 분포

(단위: 호, %)

주택유형	구분	건축 시기				주택 규모			
		합 계	'79년 이전	'80~'89년	'90~'99년	'00~'05년	~19평 이하	20~29평	30평 이상
계		70,627(100.0)	634(0.9)	7,830(11.1)	52,552(74.4)	9,611(13.6)	39,550(56.0)	15,209(21.5)	15,868(22.5)
단독주택		3,904(100.0)	384(9.8)	1,558(39.9)	1,596(40.9)	366(9.4)	291(7.5)	443(11.3)	3,170(81.2)
아파트		56,916(100.0)	0(0.00)	3,362(5.9)	46,919(82.4)	6,635(11.7)	32,838(57.7)	12,032(21.1)	12,046(21.2)
연립주택		1,910(100.0)	211(11.0)	858(44.9)	506(26.5)	335(17.5)	1,245(65.2)	485(25.4)	180(9.4)
다세대주택		7,483(100.0)	22(0.29)	1,923(25.70)	3,350(44.77)	2,188(29.24)	5,054(67.5)	2,160(28.9)	269(3.6)
영업용건물 내 주택		414(100.0)	17(4.1)	129(31.2)	181(43.7)	87(21.0)	122(29.5)	89(21.5)	203(49.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주택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19평 이하가 전체의 56.0%였고, 20평형대와 30평형 이상의 경우에는 비슷한 비율이었다. 1990년대까지는 20평 미만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점차 20형평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주거 규모가 점차 커지고 주거 환경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택 보급률은 1995년 67.3%에서 2005년 99.9%, 2007년 98.8%로 증가하여 100%에 육박하고 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주택이 급속히 건설된 것이다. 1995~2007년에 늘어난 주택수는 2만 498 호인데, 이 가운데 아파트가 1만 7,681호로 전체의 86.3%를 차지해서 결국 군포시 주생활의 변화는 아파트가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7) 고도임, 1994, 『경기도 전통 농가의 주생활연구』, 성심여자대학교출판부, 10~11쪽.

〈표 3〉 주택 종류 및 보급률

(단위 : 호, %)

구분 연도	유형별 주택수						주택 보급률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995	52,529	4,372	41,278	1,617	4,587	675	67.3
1996	55,224	4,395	43,939	3,157	3,086	647	86.6
1997	61,069	3,327	50,696	923	5,322	801	87.1
1998	62,492	3,334	51,905	953	5,496	804	88.3
1999	62,654	3,334	51,905	1,023	5,586	806	88.4
2000	64,114	4,219	51,758	5,729	1,822	586	92.2
2001	67,158	4,311	53,668	5,679	2,864	636	92.4
2002	68,681	4,890	54,783	5,689	3,319	-	92.9
2003	68,438	4,999	54,313	5,759	3,667	-	90.0
2004	70,179	4,695	55,968	5,756	3,760	-	89.7
2005	72,490	3,959	58,443	2,017	7,644	-	99.9
2006	73,112	4,369	59,082	2,004	7,657	-	99.3
2007	73,027	3,962	58,959	1,958	7,721	427	98.8

출처 :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1980년대 말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는 군포시는 신도시 입주가 완료된 1995년까지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산본'이라는 이름은 군포의 상징처럼 되었다. 그 후로도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군포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 중심지였던 당동 일대에서 택지개발이 추진되었고, 현재 부곡택지개발지구, 당동택지개발2지구, 송정택지개발지구에서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도심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산본 신도시 건설 이전에 건축된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금정역 주변에 대한 뉴타운개발계획도 수립된 상태이다.

3. 자연마을 내 전통가옥의 주생활

1) 속달동 정운석 가옥⁸⁾

정운석(남, 1913년생) 가옥은 속달동 속달마을에 위치한 고가(古家)이다. 이 가옥은 정난중(鄭蘭宗, 1433~1489)을 파시조(派始祖)로 하는 동래 정씨 동래부원군 종택으로, 2000년 4월 11일에 경

8) 정운석 가옥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 부부인 정준수(남, 1945년생) 씨와 박숙현(여, 1947년생) 씨의 제보가 있었다.

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1999년 8월 5일에는 경기도의 생활문화 전통을 잘 보존해 온 11개 종가를 대상으로 선정한 '경기도 인정 종가'가 된 바 있다. 이 가옥은 본래 동래부원군파 묘역 근처에 있었으나 그곳에서 호환(虎患)이 발생한 이후로 현 위치로 옮겼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중손인 정운석 씨는 10여 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큰아들 집에 머물고 있고, 현재 이 집에는 둘째 아들 정준수·박숙현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정준수 씨는 군 제대 후 고향으로 내려와 근처 범박골에서 목장을 운영했었고, 지금은 신문지국을 운영 중이다.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처형의 소개로 박숙현 씨를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중국에서 유학 중인 막내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수리산 기슭에 갈치저수지를 끼고 자리한 이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큰사랑채, 작은사랑채)를 비롯하여 마방채, 문간채, 광채, 사당, 헛간 등 여러 채로 이루어졌으며,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옛 모습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본래 사랑채는 1877년에 건축되었고,⁹⁾ 안채는 그보다 100여 년 전에 건축되었다고 전한다. 안채의 대청마루 종도리 장여 측면에 상량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지(干支)는 보이지 않으나 '성상즉위칠년(聖上即位七年)'이라는 글자가 보이므로 안채는 조선 정조(正祖) 7년인 1783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당초 배치는 알 수 없으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탈진 경사지에 배치되었고, 지형보다는 절대향인 남향을 중시해 사랑채는 남향, 안채·문간채·마방채는 서향인 독특한 좌향(坐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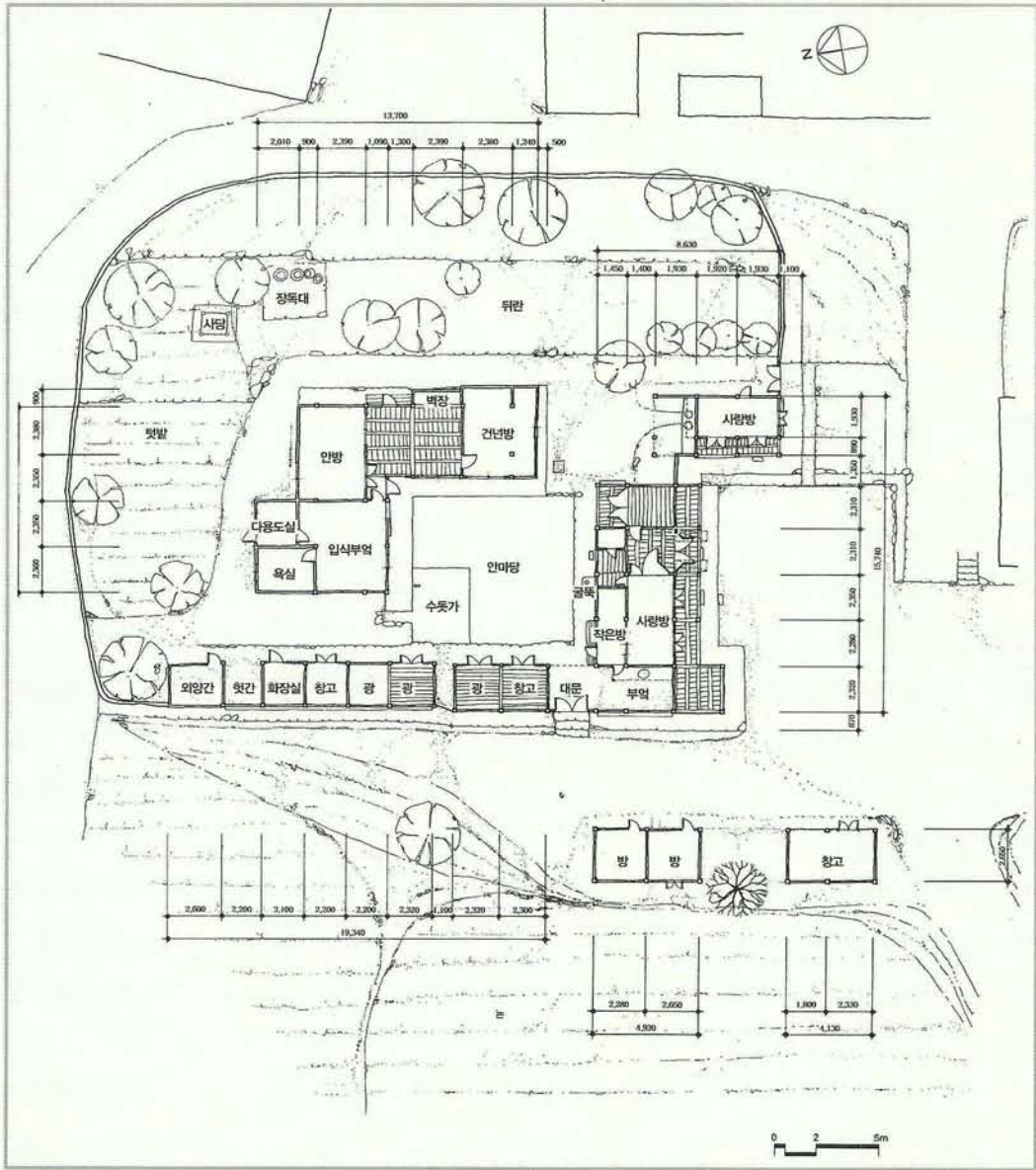
이 가옥의 평면은 여자들의 생활공간인 안채가 ㄱ자, 남자들의 생활공간인 큰사랑채와 문간채가 ㄴ자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는 ㄷ자형이다. 조선시대 내외법에 따른 남녀 구분이 생활공간에도 영향을 준 양반가옥으로 미로처럼 연결된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사랑채의 평면 구성이 흥미롭다. 현재 안채, 큰사랑채, 작은사랑채, 문간채, 마방채 등 30여 칸이 남아 있고, 최근 복원한 사당이 안채 후면에 자리하고 있다. 복원된 마방채에는 외양간과 헛간 등이 있다. 외양간에는 구유를 걸어 놓았다. 대문간과 이어진 광채 말고도 다른 광채가 안채 부엌 후면에, 별당이 안채 건넌방 뒤쪽에, 헛간이 바깥마당 연지 전면에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안마당에는 수도가 있고 뒷마당에는 장독대와 텃밭이 있다. 또 건조대와 빨랫줄을 두어 빨래를 말리게 되어 있다.

안채는 안방과 부엌, 건넌방, 대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방-대청 방향으로 전면 4칸, 측면 1칸 반, 안방-부엌 방향으로 전면 4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전퇴집이다. 부엌 옆에 안방이 있고, 그

9) 정준수 씨는 사랑채가 건립되던 해(1877년)에 흥년이 들었는데, 재목도 마련된데다가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큰 토목공사를 벌였다고 한다. 사랑채 누마루 난간은 배치는 목수(門手)가 썼으며, 누마루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매심사(梅心舍)'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10) 정준수 씨는 안채의 종도리가 연기에 그물려 있어 상량문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가, 오래전 자신의 누님과 함께 서까래를 닦는 과정에서 상량문을 발견했다고 한다. 지금 그 글씨는 잘 보이지 않으나, 대신 종도리 하부 정여에는 후대에 쓴 다음 글씨가 있다.

應天上之三光 海
龍 辛巳年閏四月十九日午時立柱上樓
備人間之五福



정운석 기옥 평면도¹¹⁾

옆으로 꺾어진 ㄱ자집이다. 안방(2칸) 옆에는 대청(전면 2칸, 측면 1칸 반), 그 옆으로 건넌방¹²⁾(전면 1칸, 측면 1칸), 뒷마루(전면 0.5칸, 측면 1칸)이며, 안채 주 칸살은 2,400mm, 뒷 칸살은 1,200mm이다. 안채 마루에는 후면에 바라지창이 있어서 매우 시원한데, 대나무 돛자리까지 깔려 있어 더 시원하다. 장독대가 안채 뒷쪽에 있어 바라지창 너머로 장독대 풍경이 멋지게 들어온다. 마루 양쪽 끝에

11) 경기문화재단, 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재권 전통민가편, 261쪽.

12) 박숙현 씨는 '건너방'이라고도 한다.

는 이층통이 각각 있다. 보수 공사로 안채 대청에 먼지가 워낙 많이 들어와 집안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마루 전면에 분합문을 달았다. 분합문은 띠살창 형식인데 안에 유리를 끼웠다.

안채에 딸린 부엌은 5년 전에 현대식 주방과 식당을 갖춘 입식 부엌으로 바뀌었다. 주방에는 싱크대, 가스레인지, 식탁이 있다. 마당에서 부엌으로 출입하는 이중문이 있는데, 바깥문은 판장문이며 안쪽문은 알루미늄문이다. 예전에는 부엌에 찬장처럼 쓰던 찬방이 있었는데, 안방이 좁아 옷장으로 바꾸면서 안방을 확장한 셈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살창이 가려졌다. 텔레비전은 안방과 사랑방에 모두 있다. 생활은 주로 사랑방에서 하지만, 여름에는 안방에서도 많이 하는 편이다.

광채에는 광, 보일러실, 화장실, 목욕탕이 있다. 광은 찬마루와 흙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찬마루에는 여러 살림살이와 식료품 등의 음식, 채반·광주리·소반 등의 식생활도구가 있고, 땅에 김치를 묻기도 한다. 화장실에는 대·소변기와 세면대가 있고, 목욕탕에는 욕조와 세탁기가 있다. 사랑방 아궁이에 불을 때면 가마솥의 물이 뜨거워져서 일 년 내내 목욕탕에서 목욕할 수 있다.

큰사랑채는 큰사랑방, 누마루, 마루방, 행사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전후퇴집이다. 서쪽부터 방(1칸)-사랑방(2칸)-마루방(1칸)-행사청(1칸) 순이며, 주 칸살은 2,300~2,390mm인데, 돌출한 누마루 측면 주 칸살만 2,100mm로 작다. 사랑방은 전면에 퇴가 있어 매우 아늑하게 느껴지고, 띠살창과 용(用)자창의 이중창으로 되어 있다. 첫째 칸의 서쪽 끝방은 다른 퇴칸보다 반 칸을 더 내밀어 1칸 규모의 누마루로 구성하고 문간 쪽으로는 하부에 아궁이, 상부에 사랑방에서 연결되는 다락을 두었다. 누마루는 방에서 출입할 수 없고, 사랑방 전면 퇴마루에서 퇴침을 이용해 오르내렸다. 누마루 하부에는 장작더미가 보관되어 있다. 돌출된 누마루는 마당에서 불 때 매우 시각적·권위적인 요소가 된다. 사랑방은 후면에 외벽이 있는 퇴마루를 두어 누마루 뒤편 다락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 옆에 있는 마루방을 통해 뒤쪽 안채로 드나들 수 있다. 행사청은 전면에 창만 있고 출입문은 없으며, 후면 마당쪽으로 퇴마루가 놓여 안마당을 향하도록 구성되었다.

작은사랑채는 방과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전퇴집이다. 주 칸살은 전면 1,950mm, 측면 2,310mm이며, 퇴 칸살은 900mm로 다른 채에 비해 작다. 이것은 칸수를 줄이는 대신 주 칸살의 크기를 줄이는 실용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문간채는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서 대문(1칸)-광(2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대에 지어진 광이 그 옆에 있다. 작은사랑채는 정준수 씨 큰아들이 쓰다가 직장 때문에 서울로 나가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당은 1960년대에 없어진 것을 2007년 복원하고, 2009년 봄에 단청을 했다. 정준수 씨에 따르면, 원래 전면 2칸, 측면 1.5칸 규모로 한쪽에 동래부원군 위패(신주), 그 옆에 4대조 위패(신주)가 있어서, 그 당시 집에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이곳에 참배하고 혼례 때에도 폐백을 드리곤 했다고 한다. 현재는 전면 1칸, 측면 1칸 규모로 복원되어 있다. 새로 지은 사당에서는 아직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현재까지 기제사는 대청에서 지내고 시제는 재실에서 지낸다. 기제사는 본래 이곳에서 지



안채



안채 대청



안채 부엌



사당과 뒤곶



대문간



큰사랑채(좌), 작은사랑채(우)



큰사랑채 누마루



큰사랑채 부엌



뒷밭

정운석 가옥의 주요부

냈으나 정준수 씨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즈음부터 형님 댁으로 옮겨 지내고 있다. 한식과 추석 차례는 이곳에서 지낸다. 제사에 필요한 제수와 음식은 정준수 씨 집과 큰집에서 나눠서 마련한다.

박숙현 씨는 시집을 때 살림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는데, 시집오자마자 15일 만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자연스레 안방 물림이 되어 정운석 씨가 큰사랑채에 머물고, 아들인 정준수 씨 내외는 안방에서 생활하고, 다른 자식들은 건넌방과 작은사랑채에서 생활했다. 당시 식구는 13명에 달하는 대가족이었다. 종부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살림에 익숙하지 않던 그녀는 힘들어서 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 기제사 때에는 동네와 문중의 아주머니들이 갖 시집온 그녀를 도와 전을 부치고, 묵을 쑤고, 두부를 만드는 등 제수 준비를 거들었다. 제사를 지내면 며칠 전부터 많은 분이 와서 묵기 때문에 그들의 식사 등에 쓰이는 음식의 양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제사 음식을 많이 하지 않고 제사에 필요한 양만 만든다. 시제를 지낼 때에도 손님들은 오래 머물지 않고 관광버스를 타고 왔다가 음복만 하고 간다. 그래서 필요한 음식은 식당에서 준비하고, 음식 나르는 일도 모두 식당 직원들이 한다.

정준수 씨 부부는 주로 큰사랑채에서 생활한다. 안채는 기름보일러라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외지로 나가기 전에는 안채에서 기름보일러를 때며 생활했는데, 자녀들이 외지로 나가면서 큰사랑방에서 장작을 때며 생활하게 되었다. 겨울이면 안채는 얼지 않을 정도로만 보일러를 가동시켜 놓고, 생활은 장작을 때는 큰사랑채에서 하면서 부엌은 안채 부엌을 사용한다. 안채에서 주로 생활할 당시에는 겨울을 나려면 세 드림(한 드림에 15만 원)씩 두 번을 사는 등 연료비로 100만 원 정도가 들었지만, 사랑채에서 주로 생활하는 요즘에는 30만 원이면 된다. 사랑방에는 주변에서 주운 나무나 집 짓는 사람이 버리는 나무를 가져다가 저장해 놓고 사용하므로 난방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 큰사랑채 부엌의 아궁이 주변에는 장작이 보관되어 있다. 주말에 가족이 모이면, 여름에는 대청마루에서 식사하고, 겨울에는 안방에서 식사하지만, 잘 때는 서로 함께 자는 것을 좋아해 큰사랑채에서 같이 잔다.

조사차 방문했을 때도 정준수 씨는 큰사랑방에 있었다. 큰사랑채와 안채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현재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는 듯 보였다. 두 칸 규모의 큰사랑방 내부에는 박숙현 씨의 말처럼 ‘불박이 창고’가 있다. 큰사랑채에서 보는 주변 풍경이 매우 좋은데, 박숙현 씨는 “(오래) 살다 보면 전망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시원하고 좋다.”고 한다. 그래도 안채 안마당에는 화단을 만들어 놓고 관상용 양귀비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마당이 나지막한 게 화단 꾸미기에 좋겠다 싶어서” 화단을 꾸몄다고 한다. 사랑채 바깥에도 연못이 있어 주변에 옥잠화 등 화초도 심고 텃밭도 조성했다.

이 가옥에는 창호지로 바른 창과 문이 많다. 장마가 지나고 나서 9월이나 10월쯤 선선한 바람이 불 때가 되면 창호지를 바르는데, 모두 다 바르지 않고 1년이 지나 누렇게 지저분해진 곳에 바른다.

도배는 자주 하지는 않으나, 일 년 내내 사용하는 큰사랑방만은 지저분해진 곳을 찾아서 매년 도배한다. 사랑방 아궁이에 장작을 때니까 잘 그을려지고 그로 인해 킁킁해지기 때문이다. 안방 도배는 5년 전 공사할 때 했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아서 아직 깨끗해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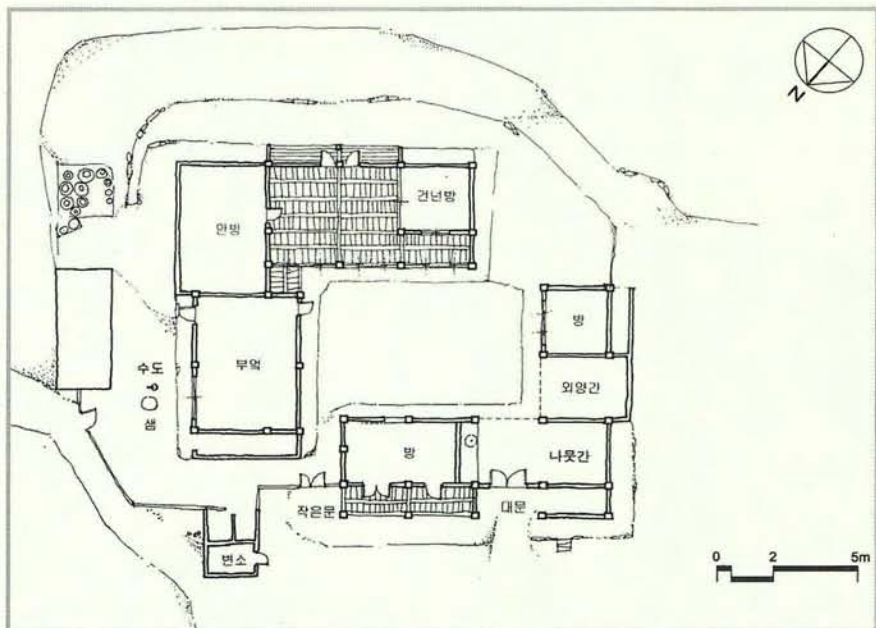
정준수 씨 부부가 거주하는 속달마을은 대야미역에서도 꽤 들어온 곳에 위치한 자연마을로 아파트촌보다는 이웃 간에 왕래와 교류가 활발하다. 그래서 박숙현 씨는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에 갇혀 살다 보니까 자기만 알지만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좋다.”고 한다. 그러나 불편한 점도 적지 않은데, 생필품 구입 등에서 특히 그렇다. 뒷밭에서 가꾸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채소류 외에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는 시내의 시장이나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시장을 이용할 경우, 약 20여 년 전에는 수원 소재 시장을 주로 이용했고, 그 후로는 군포시장을, 요즘에는 산본시장을 주로 이용한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대형 할인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장을 보거나 마을 밖으로 나갈 일이 있을 때에는 주로 승용차를 이용한다. 한편 마을버스 정류장이 마을 입구에 있고 버스 배차시간도 이전에 비해 많이 짧아져서 버스 이용은 과거에 비해 많이 편리해졌다고 한다.

문화재 지정 가옥을 비롯한 고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랑채보다 안채에서 생활하지만, 이 집은 반대로 외부 접근성이 뛰어난 사랑채와 이늑한 생활공간인 안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박숙현 씨는 아파트에서 2년 정도 살아 보니 무척 답답했다면서 요즘 서울에 있는 자식들 집에서 머물다 보면 답답해서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올 만큼 이곳이 편안하다고 한다. 자식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고칠 곳도 없다는데, 그 이유는 살면서 여러 채와 마당을 살기에 적합하게 변화시키고 삶을 공간에 맞게 적용시킨 결과이다. 부족한 공간 없이 주변 경치를 누리며 마을 사람과 오가는 정이 여전히 살아 있는 이 집이 아파트보다 노년을 보내기에 좋을 것이다. 정준수 씨 아들이나 손자가 이곳에서 계속 생활하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집은 사람과 함께 호흡할 때 수명이 길다는 사실을 이 집을 통해, 그 후손을 통해 증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2) 둔대동 심돈섭 가옥¹³⁾

심돈섭 가옥은 청송 심씨 집성촌인 둔대동 죽암마을에 위치하며, 이 가옥에는 현재 심돈섭·윤대남 부부가 생활하고 있다. 이 가옥은 경기도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튼□자 평면으로 100여 년 전 심돈섭 씨의 조부 대에 건축되었다고 하며 당시로서는 꽤 잘 지은 집이었다고 한다. 낮은 산을 등지고 북서향하고 있다. 가옥의 배치는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바깥채가 튼□자로 이루어져 있

13) 심돈섭(남, 1927년생) 가옥에 대해서는 그의 부인인 윤대남(여, 1929년생) 씨의 제보가 있었다.



심돈십 가옥 평면도¹⁴⁾

며, 안채 옆으로는 헛간과 장독대, 우물이 자리하고 그것을 담이 에워싸고 있다. 이 가옥은 외형상 지어질 당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랑채는 고치지 않았으나 현재 생활공간인 안채는 개조하였다. 지붕은 이영에서 시멘트기와로 바뀌었다. 집 전체가 깔끔하고 이용하지 않는 나룻간과 외양간도 잘 정리되어 있다.¹⁵⁾

안채는 안방-마루-건넌방이 一자로 놓이고 안방에서 아래로 꺾여 부엌이 있는 ㄱ자형 평면이다.¹⁶⁾ 마루와 건넌방 전면에는 뒷간이 있는데, 마루 전면 뒷마루에는 유리분합문이 있고, 건넌방 전면은 뒷마루가 높게 걸려 있고 그 아래로 아궁이가 있다. 마루와 건넌방 후면에는 벽감과 쪽마루가 있다. 가구는 오랑구조이며, 흘쳐마에 차양이 있다. 기단은 시멘트 몰탈 마감이고 자연석 초석이다. 지붕은 시멘트기와로 된 맞배지붕이다. 안채의 주 칸살은 대개 2,540~2,590mm 크기인데, 마루만 2,270mm로 되어 있다. 마루의 주 칸살은 다른 공간의 주 칸살에 비해 1자 가량 작는데, 이것은 두 칸 규모를 유지하면서 재료·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려로 보인다.

안방과 부엌은 21년 전 집을 고치면서 확장했다. 확장 전에도 넓었던 안방은 측면과 후면 방향으로 넓히면서 더욱 넓어졌다. 그 과정에서 안방 문을 고치고 안방과 부엌 사이에 문을 내었는데, 이렇게 문이 생기면서 동선이 단축되어 훨씬 편리해졌다. 안방에는 자개로 된 장롱과 화장대, 문갑이 있으며, 서랍장과 TV, 장식장이 있다. 부엌은 광이 있던 곳까지 늘리면서 원래보다 많이 넓어졌

14) 경기문화재단, 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권 전통민가편, 257쪽.

15) 윤대남 씨는 나룻간을 '낭구간(갯)' 이라고, 외양간을 '오양간' 이라고 부른다.

16) 윤대남 씨는 마루를 '말루'·'말래', 건넌방을 '거름방'·'건너방'·'건느방'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바깥채와 마당



안채 대청



안채 대청 상부 시령의 돛자리



부엌

심톤섭 기옥의 주요부

다. 부엌 안에 있는 주방과 화장실은 본래 장작을 쌓아 놓던 나뭇간이었다.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가스레인지로 취사를 하는 등 이전과 생활이 달라지자, 부엌 공간에도 변화가 와서 나뭇간과 부엌은 화장실이 딸린 입식 주방으로 새롭게 변모했다. 주방에는 싱크대와 찬장, 가스레인지가 있고,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도 있다. 주방 상부에 있는 다락은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짐 수리 과정에서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다. 건넌방은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부부만 단출하게 살고 생활도 안방에서 주로 하기에 굳이 수리하거나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있는 마루는 전면 2칸, 측면 1칸 반, 3칸 규모이다. 마루에는 자개 장식장과 장롱이 있다. 또한 오래전에 만든 뒤주와 삼층찬장도 있다. 목수를 데려다 한 달이나 걸려서 뒤주와 찬장을 짰는데, 찬장은 튼튼하고 잘 만들어져서 그릇이나 물건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뒤틀리지 않는다. 현재 뒤주 위에는 작은 병을 여러 개 올려놓았고, 그 위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이라고 새긴 스킨자수 액자가 걸려 있다. 뒤주 뒤쪽에 벽감(壁龕)이 있다. 마루 상부 시령에는 제사용 돛자리가 여러 개 있다. 그리고 안방 문 입구 위에는 절에서 작년과 올해 받은 부적이 붙어 있고, 건넌방 문 입구 위에는 '수복천세(壽福千歲)' 라고 쓰인 액자가 있다.

바깥채는 L자형 평면으로 사랑방(2칸)-대문(1칸)-사랑방나뭇간(1칸)이 하나로 놓이고 그 위로

꺾어져 외양간(1칸)과 아랫방(1칸)이 있다. 바깥채 앞에 있는 마당이 넓은데, 이 공간은 주로 고추 말리기 등을 위한 작업 공간이나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사랑방 전면에는 툇마루가 있어 마당에서 볼 때 훨씬 아늑해 보인다. 바깥채는 대문간을 겸하며, 채 가운데에 대문이 있다. 대문에는 ‘건양 다경(建陽多慶)’,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고 쓰인 입춘첩이 붙어 있으나 너무 오래되어서 글자가 찢겨 나갔다. 요즘에는 이 대문은 잘 쓰이지 않고, 안채와 사랑채가 만나는 곳의 작은 문이 주 출입구로 쓰인다. 바깥채의 가구는 평사랑구조이며, 홑처마에 차양이 있다. 기단은 시멘트 몰탈 마감이고 자연석 초석이다. 지붕은 시멘트기와와로 된 우진각지붕이다.

뒤쪽에는 장독대와 샘, 헛간 등이 있다. 장독대 아래에 있는 헛간에는 항아리가 가득 했었는데, 많이 깨져서 내버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숫자가 제법 많다. 장은 장독대에 둔다. 윤대남 씨의 시어머니는 장독대에 터주가리를 모셨다고 하나, 윤대남 씨 대에는 모시지 않는다.

제보자인 윤대남 씨는 인천 송도에서 18살에 죽암마을로 시집을 왔다. 태평양전쟁이 치열하던 일제강점기 말 시골로 시집을 가야 위안부로 뽑히는 걸 피할 수 있다고 하여 대고모 할머니의 중매로 심돈섭 씨와 결혼하였다. 당시 시아버지는 사랑방에서,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심돈섭 씨 부부는 건넌방에서 생활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40여 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들 부부가 안방물림하게 되었다. 이후에 건넌방을 사용하던 자식들이 결혼해 나가면서 건넌방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심돈섭 씨 부부는 아들 2명, 딸 2명을 낳았는데, 자식들은 산본동을 비롯해서 서울시, 화성시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바깥채에 딸린 아랫방에는 심돈섭 씨의 동생인 완섭 씨 부부가 분기하기 전까지 잠시 살았다.

현재 심돈섭 씨 부부는 안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식사나 텔레비전 시청 모두 이곳에서 한다. 사랑방에도 텔레비전이 있지만 잘 이용하지 않는다. 자손들이 오면 안방에서 식사하고, 잠을 자더라도 안방에서 모두 함께 잔다. 손님맞이도 안방에서 한다. 예전에는 남녀가 소위 ‘내외’해서 함께 자리하지 않았기에 남자 손님은 사랑방에서, 여자 손님은 안방에서 맞이하였으나, 요즘에는 부부가 함께 있을 때라도 가리지 않고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다.

아이들이 기거하던 건넌방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으며, 마루보다 한 단 높은 건넌방 툇마루에는 각종 살림살이가 보관되어 있다. 마루도 잘 활용되지 않는데,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식사하는 공간이나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쓰인다.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음복도 마루에서 했으나 요즘에는 안방에서 한다. 제사 때에는 심돈섭 씨 동생들과 결혼한 아들들이 참석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다른 일가친척도 참석하는 등 인원이 제법 많았다. 제사 음식은 제삿날 준비하고, 차례 음식은 그 전날에 준비하는데, 윤대남 씨는 “제사는 여전히 큰일”이라고 한다.

안채의 건넌방과 마찬가지로 바깥채의 사랑방도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윤대남 씨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밤이면 ‘말’ (마을, 마실)을 오는 이들이 많아서 이 덕 사랑방을 ‘말방’

으로 불렀다고 한다. 남자 노인들은 마작이나 화투를 하면서 밤이면 국수를 먹었다. 요즘에는 저녁이면 다들 텔레비전을 보느라 다른 집에 밤마을 할 일이 거의 없다. 젊은이들도 농사철에는 농사짓느라 바쁘고 고단해서 놀지 않지만, 겨울이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고스톱을 치기도 한다.

심돈섭 가옥은 가족수가 줄면서 생활공간도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확장한 안방에서 주로 생활한다. 안방 옆에 있는 부엌을 개조하고 화장실을 두는 등 주거 환경도 개선하였다. 가족수의 변화가 가옥 구조와 공간 이용에 반영되는데, 두 사람이 살기에 넓은 집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실용성과 합리성이 엇보인다. 그러나 집이 낡고, 난방도 여전히 불편한 실정이다. 윤대남 씨는 마루 전면이 유리분합문으로 되어 있어도 제사 지낼 때는 여전히 춥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고친다면 ‘말래’를 방처럼 따뜻하게 고치고 싶다.”고 한다.

4. 시가지 내 공동주택의 주생활

1) 산본 주공11단지 아파트 배○○ 가옥¹⁷⁾

(1) 입지와 평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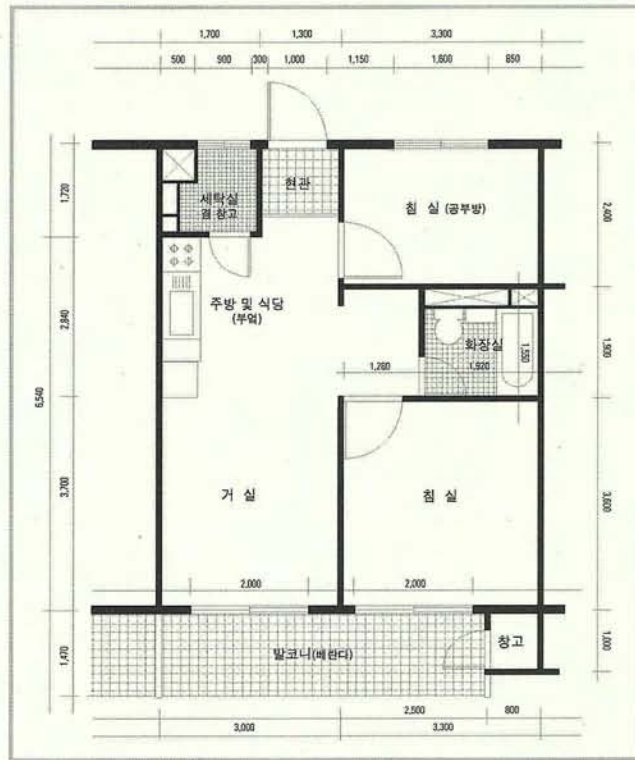
배○○ 가옥이 위치한 산본2동 주공11단지 아파트는 11개 동 1,400호 규모이며, 15~24평형¹⁸⁾ 9개 평면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본 신도시 건설 이전에 착공된 아파트로, 1992년 11월 사용 승인을 받



산본 주공11단지 아파트(좌)와 단지 입구 상가(우)

17) 배○○(남, 36세, 회사원) 가옥에 대해서는 그의 부인인 박○○(여, 36세, 주부) 씨 및 주공1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제보가 있었다.

18)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법정도량형 제도에 따라서 ‘평’ 단위 용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기존 관행에 따라 병기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을 사용한다.



배○○ 가옥 평면도

았다. 이곳에는 자가(自家)에 비해 전세와 월세가 더 많은데, 평형이 비교적 작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 동(棟)의 배치는 모두 남향이다. 단지 입구는 동쪽에 있는데, 그곳에 상가동과 관리사무실·노인정·입주대표회의실을 갖춘 관리동이 있다. 그 밖에 편의시설로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4개소, 테니스장 1개소 등이 있다.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 단지와 달리 차량 출입구가 1개만 있어서 진출입이 다소 불편하다. 단지 서쪽에 학원과 상가가 밀집해 있고 대형 할인점과 중앙공원이 있어서 주민들은 이 시설들을 이용한다. 단지 앞에는 주공1단지와 2단지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그중 조사 대상 가옥이 위치한 1104동은 단지의 맨 안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15층 120호 규모의 복도식 아파트다. 22평형 아파트로 구성되는데, 이 평형의 분양면적은 72.95㎡, 전용면적은 49.94㎡이다. 평면은 1990년대 초반 건축된 일반적인 소형 아파트 평면처럼 침실과 거실이 남쪽 전면에 배치된 2Bay형이다. 이 아파트 이후 지어진 산본 신도시의 다른 아파트 평면은 이와 큰 차이가 없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2009년 여름을 기준으로 매매가는 2억~2억 1,000만 원으로 3.3㎡당 950만 원 정도이고, 전세가는 1억~1억 1,000만 원에서 형성된다고 한다.

현재 이 가옥에는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들은 2001년 결혼하면서 1억 원을 주고 이 집을 신혼집으로 구입하였다. 남편의 직장이 산본에 있었기에 출퇴근을 감안해서 산본역과 가까운 곳을 찾다가, 가격이 저렴하고, 소아과와 산부인과 병원이 근처에 있으며,

대형 할인점도 가까운 이 아파트를 택하게 되었다. 이사하면서 '손 없는 날' 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남편이 서울 잠실로 출퇴근하지만, 주변에 학원도 많고, 병원과 쇼핑 장소, 공원이 있는 등 생활하기에 좋은 곳이어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고 한다.

이 가옥은 침실 2개와 거실 1개, 주방, 화장실, 세탁실(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평면은 거실-식당-부엌이 일렬로 배치된 LDK인데,¹⁹⁾ 이 집에서는 식당을 없애고 부엌에 통합하였다. 이 평형의 거실은 가족 구성이나 상황에 따라 침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평면이어서 설계상에는 두 실 사이에 미서기문이 있었다. 그러나 제보자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미서기문은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이에 비해서 옆집은 입주 당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거실 없이 침실이 3개이다.

〈표 4〉 배○○ 가옥의 공간 이용 현황

명칭1	명칭2	면적		용도	주요 집기·가구
		m ²	평		
계		49.94	15.10		
침실	침실(안방)	11.88	3.59	취침, 컴퓨터	침대, 5단 서랍장, 화장대, 협탁, 거울, 책장(2), 옷장(9.5자), 컴퓨터
침실	공부방(작은방)	7.92	2.40	준형이 공부방	5단 서랍장, 책상, 책장(2), 작은 책장(1), 장난감
거실	거실	10.80	3.27	평소 거처, 손님맞이, TV 시청, 놀이 공간, 컴퓨터	TV, 소파, 에어컨, 책장(박스형), 디지털피아노, 가족사진
주방·식당	부엌	10.65	3.22	식사	수납장,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밥상
화장실	화장실	3.78	1.14	용변, 목욕	욕조, 세면대, 좌변기
세탁실	세탁실 겸 창고(다용도실)	2.55	0.77	식료품 보관, 세탁	선반, 보관장, 세탁기
창고	창고	0.80	0.24	물품 보관	
현관	현관	1.56	0.47		
발코니	베란다			빨래 널기	김치냉장고, 건조대

비고 : '명칭1'은 분양 당시 아파트 평면도에 기입된 명칭이다. '명칭2'는 제보자가 용도에 따라 구분해 놓은 일반적인 명칭이며, () 안은 인터뷰 동안 제보자가 사용한 명칭이다.

(2) 공간 이용과 아파트 생활

제보자 가정은 서구식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도 전통 주생활의 행태와 인식을 지속하는 변화 과정에 있다. 우선 실(室) 명칭에서 '침실', '공부방' 처럼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안방', '작은방' 등 전통적인 실 명칭을 사용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입식과

19) 'L'은 거실(Living), 'D'는 식당(Dining), 'K'는 부엌(Kitchen)이다.



현관



안방



거실



부엌과 다용도실

배○○ 가족의 주요부

좌식이 혼합된 구조인데, 이 가족의 공간 이용에서도 좌식 생활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 개의 침실 중 큰침실을 제보자는 '침실' 혹은 '안방' 이라고 부른다. 이 침실은 주로 취침 용도로 쓰이며, 남향이어서 실내가 밝고 면적도 11.88㎡(3.59평) 규모로 다른 실에 비해 큰 편이다. 하지만 침대, 서랍장, 옷장, 화장대 등이 있어서 좁게 느껴지기 때문에 잘 때에만 주로 이용한다. 여덟 살인 큰아들은 자기 방이 따로 있지만, 혼자 자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온 식구가 안방에서 잠을 잔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놓인 침대에서는 배○○ 씨와 큰아들이 자는데, 자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큰아들을 창문 쪽에 재우고, 배○○ 씨는 그 옆에서 잔다. 박○○ 씨는 방바닥에 요를 깔고 둘째 아들과 잔다. 방문 쪽에 박○○ 씨가 자고, 그 안쪽에 아직 모유를 떼지 않은 둘째 아들이 잔다. 입식 생활을 위주로 하지만, 취침 시에는 침대의 입식과 요·이불의 좌식이 혼용되는 경우다.

공부방은 '작은방' 이라고도 하며, 큰아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자 놀이 공간이다. 면적은 7.92㎡(2.4평)로 큰침실에 비해 작고, 북향이어서 약간 어두운 편이다. 방안에는 책상, 책장, 서랍장이 있다.

거실은 가족이 TV 시청을 하는 등 평상시 생활 공간이다. 10.80㎡(3.27평) 면적에 남향이라서 밝고 넓은 편인데, 부엌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길쭉한 평면형이다. 이곳에는 TV와 소파, 책장이 놓여 있고, 서쪽의 넓은 벽면에는 가족사진이 걸려 있다. 거실은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도 이용된다. 손님은 주로 큰아들 친구의 엄마들이나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다. 한 번에 1~2명이 오는데, 주로 거실이나 식당에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는다. 2008년에 둘째 아들을 낳기 전에는 손님이 자주 왔지만, 요즘에는 아이 돌보기도 힘들어서 손님맛이를 잘 하지 않는다.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작업도 거실에서 이루어진다. 인터넷이 무선이라 안방이나 거실 모두 가능하지만, 안방에 있는 데스크톱컴퓨터의 경우 침대 밑에 두었기 때문에 잘 쓰지 않게 되었다. 컴퓨터는 본래 공부방에 두었으나, 그곳에 놓으면 아이가 공부할 때 방해될까 봐 큰아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침실로 옮겼다.

이 가옥에서 거실은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이자 의례의 공간이다. 차례와 제사도 거실에서 지낸다. 배○○ 씨는 6남매 중 외아들인데, 경상북도 상주에 계시는 어머니가 차례와 제사 때면 이 집으로 올라오신다. 어머니 잠자리는 공부방(작은방)에 마련한다. 차례상이나 제사상은 거실에서 안방 쪽, 즉 동쪽에 차린다. 외아들이라서 참여 인원은 단출한데, 집이 좁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고 나면 참여한 가족이 모두 시흥시 목감동의 큰누님 댁으로 이동한다.

제보자는 '주방·식당'을 '부엌'이라고 부른다. 부엌은 조리과 식사 공간으로 이용하며, 현관 바로 옆에 있어 거실과 각 방으로 가는 통로로도 쓰인다. 10.65㎡(3.22평)로 규모는 큰 편이지만, 거실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실제 크기는 작다. 이곳에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다. 싱크대는 이들 부부가 이사 오기 전 주인이 한 번 교체한 것으로, 그때 거실 쪽으로 수납장 하나를 추가 설치하였다. 냉장고는 부엌에 둘 수 없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벽면에 놓았다.

식사는 부엌에서 밥상을 놓고 한다. 본래 부엌에 식탁을 놓아 두었으나, 식탁이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둘째 아들이 부딪치는 일도 잦아서 2009년 8월경 치웠다. 식탁이 있을 때에도 손님이 오면 큰상 하나 혹은 두 개를 펴 놓고 식사를 했다. 식탁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일반화되긴 했지만, 사용 시간이나 횟수, 공간 점유 면적을 따져 보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이 집처럼 좁은 평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밥상'이라는 좌식 가구로 돌아간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엌 한쪽에는 식료품을 보관하는 창고(다용도실)가 있다. 이곳에는 쌀이나 식료품, 친정에서 가져다 먹는 간장 등을 담은 항아리를 보관하고 있다. 장보기는 식품의 경우 1주일에 한두 번 인근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주로 이용하고, 공산품은 2주일에 한번 혹은 수시로 이마트에 가서 산다. 조사차 방문한 화요일에는 단지 내에 알뜰장이 열렸는데, 이곳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창고는 그 안쪽에 세탁기가 있어 세탁실의 역할도 겸한다. 오랫동안 안 쓰는 물건들은 발코니(베란다) 쪽 창고에 두지만, 부엌 쪽 창고에는 자주 쓰는 물건이나 재활용 쓰레기 등도 놓아 둔다.



신원 주공11단지 아파트 1104동 옆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창고문은 주름문(아코디언도어)으로 되어 있어 평상시 열어 놓다가 손님이 오면 닫아 놓는다. 재활용 쓰레기는 모아 두었다가 아파트 바로 옆에 자리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분리수거한다. 이 가옥이 있는 1104동에서는 쓰레기 재활용을 매일 한다. 그런데 같은 단지 내라도 1104동처럼 매일 분리수거를 하는 동도 있지만, 요일을 정해 놓고 하는 동도 있다. 재활용 횟수는 통장 뭉치라고 한다.

제철 옷이나 계절이 지나 안 입는 옷 등은 모두 옷장에 보관한다. 세탁은 세탁기로 하고 안방 앞 발코니 쪽 건조대에 옷을 널어놓는다. 다림질은 발코니에 입식 다리미판을 놓고 한다. 제보자가 남편이 자주 입는 옷을 다려서 김치냉장고 위에 걸어 놓으면 남편이 출근할 때 골라 입는다.

〈표 5〉 배○○가옥의 전기·난방 및 관리비 내역

(단위: 원, kW, m)

구분		연월	2008년 12월	2009년 1월	2009년 6월	2009년 7월
전기	사용량		247	275	252	245
	요금		29,520	34,820	30,470	29,130
난방	사용량		158	114	4	4
	요금		115,030	104,130	2,140	1,720
관리비	계		275,940	270,490	152,320	150,950
	일반관리비		22,140	22,170	22,930	22,870
	청소비		6,040	5,800	5,800	5,800
	소독비		440	440	440	440
	승강기 유지비		890	890	890	890
	수선유지비		1,560	1,530	2,130	2,580
	장기수선충당금		22,070	22,070	22,070	22,070
	대표자회의운영비		400	400	400	400
	보험료		420	420	390	390
	생활폐기물수수		800	800	800	800
	경비비		18,400	19,660	19,660	19,660
	세대전기료		29,520	34,820	30,470	29,130
	공동전기료		1,680	680	640	680
	승강기전기료		990	1,120	1,030	990
	TV수신료		2,500	2,500	2,500	2,500
	세대수도료		15,500	15,500	17,470	17,470
	세대난방비		115,030	104,130	2,140	1,720
기본난방비		2,560	2,560	2,560	2,560	
급탕비		35,000	35,000	20,000	20,000	

이 가옥에서는 냉방으로 에어컨을 사용하고, 난방은 지역난방을 이용한 개별 난방이다. 관리비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드는데, 관리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 조리를 하던 지난 겨울에 특히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겨울철 관리비는 20만 원대이고, 다른 계절은 10만 원대 중반이다. 여름철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적는데,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계절임에도 이 가옥에서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전기 사용량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3) 주거 만족도와 계획

배○○ 가옥은 22평 규모의 소형 아파트이지만,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신혼 살림을 이 집에서 시작한 제보자는 현재의 집에 만족하고 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동성(同性)인 점을 감안하면, 몇 년간은 더 이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파, 침대 등 입식 가구와 냉장고,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이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이 좁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점은 소형 아파트 거주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현실적 어려움일 것이다. 결국 이 집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식탁을 없애고 그 공간을 거실과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공간이 협소하기에 제보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 가운데 고치고 싶은 공간으로 거실을 꼽는다. 거실과 베란다(발코니)를 터서 넓게 사용하면 좋겠다고 한다. 또 화장실에 있는 욕조를 없애고 싶은데, 그 이유는 샤워만 주로 해 욕조가 더 이상 필요 없고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도 욕조를 거의 없애는 추세이다. 발코니 공간을 확장하여 거실과 통합하는 것이나 화장실 욕조를 없애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보자는 둘째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평수가 넓은 집을 사서 이주할 계획이나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는 11단지 가 공기도 좋고 쾌적하며 여러 편리한 점이 많아서, 이사를 하더라도 같은 단지 내에서 큰 평형이 있는 삼성아파트나 엘지아파트로 가려고 마음먹고 있다.

2) 산본 주공4단지 한라2차아파트 방○○ 가옥²⁰⁾

(1) 입지와 평면 구성

산본 신도시의 오금동 주공4단지 한라2차아파트는 도장터널을 통과하기 전 수리산역 바로 앞에 있다. 사용 승인일은 1997년 11월 29일이다. 이 아파트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RC구조이다.

20) 방○○ 가옥에 대해서는 그의 부인(여, 55세, 주부)의 제보가 있었다.



수리산역(사진 중앙)을 사이에 둔 산본 4단지(우)와 5단지(좌) 아파트

이 아파트는 15~25층인데,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25층 고층으로는 처음 지은 것이고 시공사인 (주)일신진흥건설이 지진공법을 적용했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16개 동 1,639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26평형대가 대부분이고, 16평형도 136세대가 있다. 규모별 세대수는 55㎡(16.6평) 136세대, 83㎡(25.1평) 130세대, 85㎡(25.7평) 219세대, 87㎡(26.3평) 782세대, 88㎡(26.6평) 294세대, 89㎡(26.9평) 78세대이다.²⁾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조사 대상 가족은 411동에 위치한 26평형 아파트다. 이 가족에는 방○○ 가족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족은 주택 및 택지의 대량 공급과 수도권 주택가격 및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려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산본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을 통해 입주해 새 거처를 마련하게 된 사례이다. 이 아파트로 이사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보자의 가족은 서울에서 살다가 안양시로 이주하였고, 안양에서 다시 군포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사 오기 전까지 군포라는 곳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곳으로 이사할 때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나, 당시에는 분양받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썼을 뿐 어느 단지가 좋은지 따져 보지는 않았다. 더욱이 당시 주택부금으로는 주공아파트에만 청약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국민주택을 선호해서 몇 번 청약 신청을 했으나 계속 당첨이 되지 못했고, 마지막에야 4단지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997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제보자 가족은 그해 있었던 대통령선거일에 입주했다.

제보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분당에 할 걸” 하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산본은 전철이 지상화되어 있는 등 “짠티 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산본은 여러 신도시 중에서도 서민이 살기에 가장 좋은 신도시이며, 군포는 서민이

2) 「단지소개」, 한라2차아파트(<http://www.hanlaapt.com>).

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사 갈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수리산역 앞 4단지 한라2차아파트는 작은 평형부터 매우 다양한데다가 공기 좋고, 교통이 편해서 어디든 가기에 좋다. 노인들이 연금만으로 살기에도 좋아서 사람들은 그 일대를 ‘대한민국 실버타운’이라 부른다고 한다.

조사 대상인 방○○ 가옥이 들어선 411동은 한 층에 5세대가 거주하며, 가운데에 중정이 있고 상부까지 트여 있는 평면형이다. 이를 두고 제보자는 4개 동만 ‘발전(田)자’ 형식이며, 외부 공용 공간과 계단·복도로 인해서 실평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한다. 다만 사람들과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사는 공동생활에는 편하다고 한다. 해당 층의 맨 끝에 위치한 이 가옥은 문을 열어 놓더라도 외부인에게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기에 심리적인 위안을 준다. 더욱이 같은 층에는 오래전부터 생활하던 세대가 많아서 대부분 문을 열고 생활한다. 방○○ 씨 부인은 이런 평면 구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안다.

제보자 집의 전망이 매우 훌륭해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 “네 집 놔 두고 굳이 콘도에 가서 실 필요가 뭐가 있냐?”며 부러워하기도 한다. 아파트 주변에 산이 있고, 근처에 숲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사 온 이후에 어떤 향수 못지않게 냄새가 좋고, 진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칙칙 향기 등 이전에는 몰랐던 자연의 이치를 많이 배웠다고 한다.

주공4단지 한라2차아파트에서 이 가옥과 같은 26평형의 기본 평면은 3개의 침실과 거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발코니, 현관으로 구성된다. 각 공간별 면적을 보면 안방에 해당하는 침실1과 거실은 각각 10.88㎡, 침실2는 7.31㎡, 침실3은 6.48㎡, 주방 및 식당 11.64㎡ 등이다. 제보자는 각 방을 ‘안방’, ‘딸래미방’, ‘아들방’이라고 부르는데, 자녀들은 ‘대빵마녀방’, ‘이쁜딸래미방’, ‘돌이방’이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2) 공간 이용과 아파트 생활

방○○ 가옥에서 가장 큰 방은 안방이다. 이 방은 침실로만 사용하므로 낮 시간에는 이용률이 낮다. 방 안에 침대가 있는데, 이 집에 입주하면서부터 사용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침대를 잠깐 쉬거나 낮잠을 잘 때 유용하고 편리하다고 느낀다. 다만, 침대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 손님이 오면 불편하고 방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산본 주공4단지 한라2차아파트 26평형 기본 평면도
방○○ 가옥은 기본 평면도와 반대이다.

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오랜 기간 출장을 가면 남은 가족들이 거실에 이불을 펴 놓고 함께 잤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크면서 각자 방을 쓰게 되었는데, 올해 스물여섯 살인 딸은 6학년 때, 스물한 살인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기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제보자는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독립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 좀 늦은 편이었다고 생각한다.

안방 외의 두 방은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 더 큰 방을 딸이 쓰는데, 크기보다는 아파트라도 복도 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주게 되었다. 제보자는 딸이 옷, 화장품 등을 많이 사용하니가 더 큰 방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들의 방에는 침대와 책상, 행거가 있으며, 이 방은 창문을 통해 군포시가 다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다.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어 방은 비어 있다.

거실은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이곳에는 소파가 있어서 손님이 오면 여기서 맞는다. TV 시청도 거실에서 하지만, 오후에 필요한 프로그램만 보는 편이다. 인터넷은 아들방과 거실에 설치되어 있다. 제보자는 거실에 놓인 컴퓨터 책상에서 컴퓨터로 각종 작업을 한다. 두 사람이 앉아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컴퓨터 책상이 크기 때문에 거실이 좁아졌다.

주방은 좁은 편이어서 거실까지 가전제품을 두고 사용하고 있다. 주방에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있고, 거실 쪽에 냉장고와 수납장 등을 놓아두었다. 수납장에는 전자레인지와 오븐이 있다. 음식은 김치냉장고와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각종 장류는 한여름에는 곰팡이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 두고 평상시에는 앞쪽 베란다에 놓아 둔다. 이 가옥에도 본래 냉장고를 가릴 정도로 작은 칸막이가 있어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가려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입주 후 5년 정도 지나 마루 바닥재를 교체하면서 칸막이도 철거했다. 그리고 나니까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단점으로는 주방에서 조리하는 음식 냄새가 가옥 전체로 퍼지기 쉬운 평면이다. 또한 주방과 거실이 이어져 있어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 거실에서 TV 시청을 하려면 소리를 높여야 하고, 주방에서도 TV 소리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다.

장보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서는 알뜰장을 이용하는데, 한라2차아파트에는 월요일에, 한라1차 아파트에는 화요일에 장이 선다. 요즘에는 이마트를 자주 이용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알뜰장이나 산본시장에서 주로 구입한다. 이 밖에도 단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채소를 팔러 오는 장사에게서 구입할 때도 있다.

식사는 대개 식탁에서 하고, 손님이 오면 교자상 두 개를 펴고 거실에서 한다. 제보자는 식탁을 식사 외에 여러 용도로 활용한다. 그것은 달리 자신의 책상이 없기 때문인데,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들이 오면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모두 식탁이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 무리가 가서 식탁이나 소파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

옷은 제보자가 창고라고 부르는 불박이장에 보관한다. 이 가옥에는 규모에 비해 불박이장이 많은데, 거실에 2개(딸방 입구와 화장실 입구), 아들방에 1개 등 총 3개가 있다. 아들 옷은 주로 불박이

장에 보관하고, 딸 옷은 딸방에 행거를 놓고 보관한다. 화장실 입구의 불박이장 앞에는 4단 정리박스가 있다. 방 안에 있던 서랍장을 현관에서 거실 사이의 통로로 빼고 장식장도 그곳에 두었다.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과 달리 화장실이 하나라서 불편한데, 그나마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라 다행이라고 한다. 특히 바쁜 아침 시간을 위해서 화장실에 있던 드라기를 바깥으로 빼고 전등을 달았다.

세탁기는 발코니에 있고, 옷 건조는 발코니 천장에 부착된 빨래건조대에서 한다. 다림질은 다리미판을 이용해 식탁이나 거실에서 한다.

이 가옥은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에 위치한다. 따라서 복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나물 등의 채소를 말릴 때 복도의 빈 공간을 많이 활용한다. 조사자가 방문했을 때에도 호박을 썰어서 말리고 있었다. 또한 복도에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기도 한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는 매주 화요일마다 하며, 경비실 옆에 수거장이 있다.

제보자는 이 아파트의 관리비가 한라1차아파트보다 좀 싼 편이나 세대수를 감안하면 결코 싸지 않다고 느낀다.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주부라서 최대한 아끼려고 해도 여름에 12만~13만원, 겨울에 24만~26만 원 정도를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겨울철 관리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난방비다. 지역난방임에도 아파트 단지가 산 쪽에 위치하고 이 가옥이 있는 411동이 그 맨 끝에 있기에 아침저녁 기온차가 커서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한다. 가옥의 향이 남동향이라 아침부터 해가 거실 안쪽까지 들어오기에 오전 중에는 난방을 하지 않고,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부터 보일러를 가동한다. 발코니창과 현관을 열면 맞바람이 불어 매우 시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안 틀어도 된다. 조사차 방문했을 때도 외부는 좀 더웠지만, 집 내부가 시원해서 선풍기조차 틀지 않았다.



중정



거실과 발코니



아들방 입구

방〇〇 가옥의 주요부

〈표 6〉 방○○ 가옥의 관리비와 전기 사용 내역

(단위: 원, ₩)

구분		연월	2009년 1월	2009년 2월	2009년 6월	2009년 7월
관리비 총액			236,610	177,790	124,480	118,640
전기	사용량				189	186
	요금				18,520	18,140

(3) 주거 만족도와 계획

제보자는 대체로 현 거주지에 만족하고 있다. 거주지 이전 이유 중 중요한 부분인 교육에서도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다. 딸은 안양으로 통학했지만, 이들은 초등학교부터 이곳에서 다녔다. 안양시에서 군포시로 이사하면서 안양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딸을 전학시키려 했지만, 친구 관계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다니게 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은 것도 주거만족도를 높여준다. 제보자는 아파트 바로 옆에 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도 좋아 매우 만족한다고 한다. 산본 신도시에서 서울의 강남 지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많은데다가 향후 군포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아쉬움은 있다.

다른 주부들처럼 제보자도 현재 가옥의 주방 이용에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주방이 독립되기를 원하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거실과는 트인 방식을 선호한다. 또한 이 가옥은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구조이지만, 만약 외부와 연결된다면 주방에 조그만 창문 하나가 있어서 빛도 들어오고 환기도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집에서 특별히 고칠 곳은 없고, 지금보다 형편이 훨씬 좋아지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가옥에서 계속 살 계획이다. 자녀들이 분가하면 현재 평형도 그리 좁지 않을 것이기에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사보다는 거실에 있는 집기를 치우고 소파는 큰 것으로, TV는 벽걸이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제보자는 인근 5단지과 4단지의 1차아파트들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면 방과 주방을 넓히는 식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4단지의 한라2차아파트 중에서도 4개 동만이 중정을 지닌 특이한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향후 리모델링이 중정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보자의 가족은 같은 수도권 내에 위치한 안양시에서 군포시로 거처를 옮겼다. 이사 오기 전까지 군포시에 대해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다른 신도시 청약과 함께 여러 번 신청한 끝에 당첨되어 분양받고 이사하였다. 이들의 군포시 정착 과정은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일반 서민의 삶과 이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1997년 12월에 입주하여 10여 년을 이 집에 살아온 제보자

는 “산본은 여러 신도시 중에서도 서민이 살기에 가장 좋은 신도시”라고 말한다. 이러한 찬사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아파트 입지와 훌륭한 조망에 만족과 애착을 가지며 생활하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보자는 자녀들의 결혼 이후에도 현재 가옥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하며, 이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3) 당동 쌍용아파트 정○○ 가옥²²⁾

(1) 입지와 평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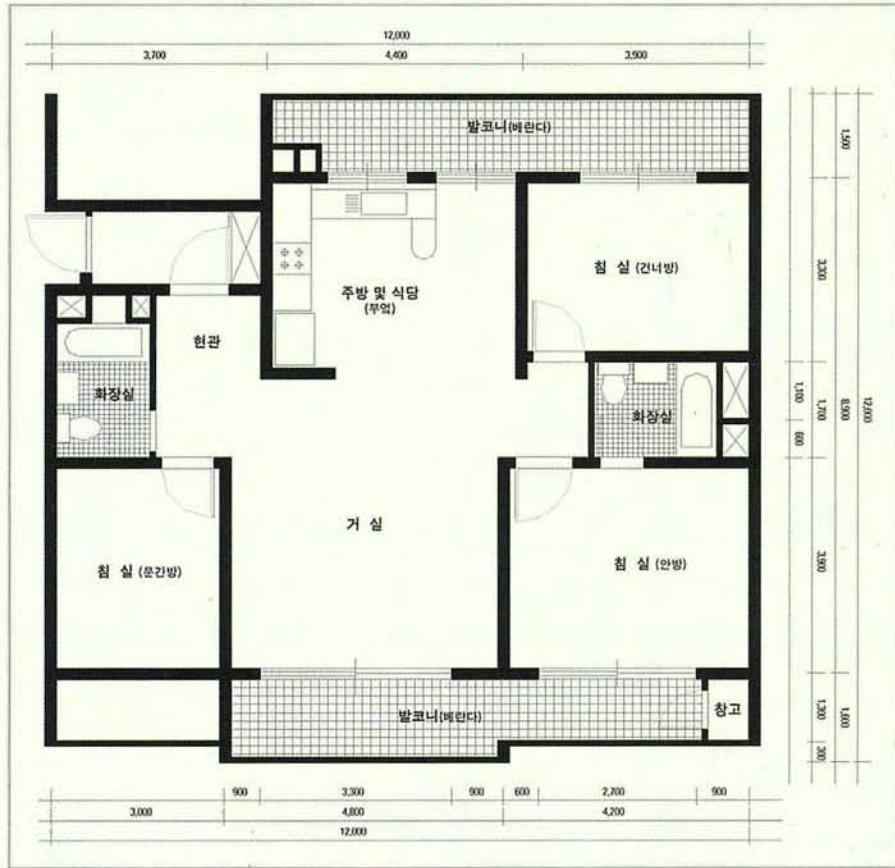
당동 873번지에 위치한 쌍용아파트는 7개 동 77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평형대를 보면, 119㎡(36평) 488세대, 148.76㎡(45평) 142세대, 161.98㎡(49평) 140세대이다. 1998년 7월 1일자로 사용 승인되었다. 이 아파트의 동 배치는 모두 남서향이며, 입구는 남동쪽에 있다. 단지 입구에 상가동 건물이 있으며, 관리사무실과 입주대표자회의실, 부녀회는 단지 맨 안쪽에, 노인정은 단지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2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주민운동시설 1개소가 있다. 이웃 단지와는 남서쪽 통행로를 통해 오간다.

조사 대상인 정○○ 가옥은 단지 남서쪽의 105동에 있는 36평형 아파트다. 분양면적은 119㎡, 전용면적은 99.825㎡(30.19평)이다. 이 가옥에는 부부가 살고 있으며, 1998년 7월 30일에 입주했다. 서른아홉 살인 딸과 그보다 한 살 적은 아들은 함께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다.

이 가족은 본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단독주택에도 살았고, 32평형의 방 3개 아파트에서도 살아 보았다. 현재 가옥으로 이사한 이유는 가장의 퇴직과 건강 때문이었다. 이사 결정은 제보자인 정○○ 씨 부인이 했다. 방배동에서 30년 정도를 살다가 산본에 사는 친구가 “수리산이 좋다.”며 계속 이사하라고 권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위해 수리산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때는 자녀들도 학교를 졸업한 이후라 교육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당시 매우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 가격은 이사 후에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졌지만, 계속 살 생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정○○ 가옥은 침실 2개와 거실이 남서쪽 전면에 배치된 3Bay형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건축되는 중형 규모 아파트에서 잘 나타나는 평면이다. 침실 3개, 거실과 주방 각 1개, 화장실 2개, 발코니 4개(앞쪽 2개, 뒤쪽 1개, 현관 1개)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거실이 한쪽에 있고, 그 옆으로 주방과 식당이 통합된 L-DK형 평면이었는데, 거실과 식당 사이에 있던 칸막이를 없애면서 거실과 식당이 통합된 LDK형 평면이 되었다.

22) 정○○(남, 7세) 가옥에 대해서는 그의 부인 박○○(여, 66세, 주부, 쌍용아파트 부녀회장) 씨의 제보가 있었다.



정○○ 가옥 평면도

이 가옥에서 각 방과 실을 부르는 이름은 분양 시 평면 명칭과 다소 다르다. 침실1을 ‘안방’, 침실2를 ‘건너방’, 침실3을 ‘문간방’ 이라고 한다. 앞쪽 발코니를 베란다로, 뒤쪽 발코니를 뒷베란다로 부르는 것도 다른 가옥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공간 이용과 아파트 생활

정○○ 가옥의 안방은 부부 침실이다. 이곳은 잠을 자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없음에도 ‘안방’으로 불린다. 남서쪽의 밝은 곳에 위치하며 16.36㎡(4.95평) 규모로 다소 크다. 이 부부는 오래 전부터 침대 생활을 하였기에 이제는 바닥에서 요를 깔고 자는 좌식 생활이 더 불편하다고 한다. 침대에서는 거실벽 쪽으로 남편이, 그리고 바깥쪽으로 부인이 잔다. 안방에는 불박이장을 설치하였는데, 작년에 내부를 리모델링하면서 만든 것으로, 자주 입는 옷들은 여기에 보관한다.

건너방과 문간방은 현재는 쓰이지 않는다.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이 건너방을 쓰고, 딸이 문간방을 썼다. 문간방은 입주할 때 불박이장을 뜯어내고 전면에 있는 발코니를 터서 확장하였

〈표 7〉 정○○ 가족의 공간 이용 현황

명칭1	명칭2	규모		용도	주요 집기·가구
		m ²	평		
계		99.8	30.19		
침실1	안방	16.36	4.95	침실	침대, 옷장(불박이장), 전화기, 협탁
침실2	건너방	11.67	3.53	(결혼 전) 아들 방 ※현재 사용하지 않음	침대, 장식장, TV, 화장대, 거울, 서랍장(위에 화장품)
반침		1.20	0.36	철거 후 불박이장으로 전환	
침실3	문간방	11.70	3.54	(결혼 전) 딸 방 ※현재 사용하지 않음	장, 컴퓨터, 컴퓨터 책상, 의자
거실	거실	30.21	9.14	손님 접대, TV 시청, 다림질	TV, 소파, 에어컨, 공기청정기, 가족사진, 문갑장, 십자가(대형), 성모상, 화초(1)
주방·식당	주방·식당	15.40	4.66	취사, 식사	주방 : 싱크대, 수납장,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식당 : 장식장, 식탁, 김치냉장고
욕실1	화장실	4.82	1.46	용변, 목욕	욕조, 세면대, 좌변기
욕실2	화장실	4.59	1.39	침실1 부속 화장실	욕조, 세면대, 좌변기, 두루마리 화장지, 진공청소기
창고	창고	1.00	0.30	물품 보관	
현관	현관	2.85	0.86	손님맞이	
발코니1	베란다			화초, 옷 말리기	화초 여러 개
발코니2	뒷베란다			세탁, 옷 말리기	주방 쪽 : 세탁기, 선반(위에 세탁비누 등 세제), 빨래건조대(천장에 부착) 건너방 쪽 : 다단 선반(식료품), 향아리, 그릇, 들통
발코니3	-			※ 입주 당시 침실3(문간방)을 확장하면서 없어졌음	
발코니4	-			우편물이나 택배 배달	

비고 : '명칭1'은 분양 당시 아파트 평면도에 기입된 명칭이고, '명칭2'는 제보자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다. 딸이 결혼한 후에는 문간방을 아들의 컴퓨터 작업실로 사용하였고, 지금도 컴퓨터가 그대로 있다. 아들은 건너방을 쓰긴 했지만, 운동선수라서 집에서 많이 자지 않았다. 요즘에는 부산에 사는 딸이 친정에 들르면 건너방에서 자고 간다. 아들은 집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굳이 자고 가지는 않는다. 문간방에는 장을 놓아 두고 잘 입지 않는 옷들을 보관하고 있다. 이 장은 안방에 불박이장을 만들면서 그곳에 있던 것을 옮긴 것이다.

거실은 제보자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30.21m²(9.14평)로 다소 넓고 남서향으로 되어 있어서 밝은 공간이다. TV 시청, 친구나 성당의 교우 등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두 거실에서 이루어진다. 손님은 한 달에 한두 번 가량 오는데, 주로 다과나 식사를 함께 한다. 제보자의 아내는 이 아파트의 부녀회장인데, 부녀회 모임은 대부분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부녀회사무실에서 하므로 부녀회 관련으로 가옥 내에서 모임을 갖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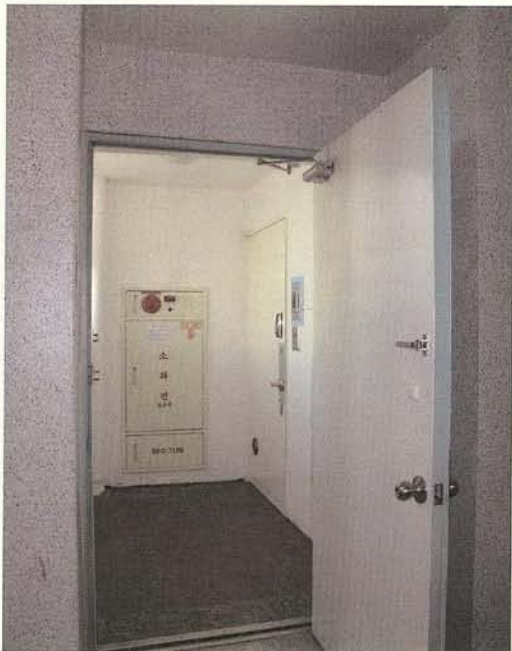
조리를 하는 주방에는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다. 식탁 옆에 김치냉장고를 두어 음식을 저장하



정〇〇가옥 안방



정〇〇가옥 거실



정〇〇가옥 현관

고, 장류는 뒤쪽 발코니에 둔다. 주방이 넓고 싱크대 위쪽에 뒤쪽 발코니 쪽으로 난 창문이 있어 답답하지 않고 쾌적한 느낌을 준다. 2명만 사는 단출한 살림이기에 식사는 식탁에서 하며, 분가한 아들이나 딸 등이 오더라도 대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 다만, 특별한 손님이 오면 거실에 상을 두 개 펴고 그곳에서 식사한다. 장보기는 단지 근처에 있는 K마트나 한국유통을 주로 이용하고, 단지 내에 화요일마다 서는 알뜰장도 이용한다. 알뜰장은 종일 서는데 판매 품목이 꽤 많은 편이다.

앞뒤 발코니에는 창고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다. 전면 발코니에서는 화초를 키우며, 그 안쪽에 있는 창고는 꽤 넓어서 각종 수납 공간으로 활용한다. 뒤쪽 발코니도 넓은 편인데, 이곳에 수납장을 만들고 그릇 등을 정리해 놓았다. 수납장 반대쪽에는 세탁기를 두었다. 세탁은 이곳에서 하지만, 옷 말리기는 앞뒤 발코니를 모두 이용하며, 옷 다리기는 거실에서 한다.

정〇〇가옥의 현관문은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있고, 그 문을 열고 현관 발코니를 지나면 거실로 통하는 문이 있다. 제보자는 이러한 이중문 구조가 문이 하나였던 방배동의 아파트보다 훨씬 좋고 편리하다고 한다. 문이 하나 더 있어서 옆집에서 자전거를 타도 좋을 만큼 방음이 잘되고, 택배나 우편물을 받기도 좋다. 더구나 창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다고 한다.

이 가옥은 36평 규모에 비해서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편이다. 그 이유에 대해 제보자

구분		연월	2009년 1월	2009년 7월
관리비 총액			238,260	144,190
전기	사용량		265	276
	요금		32,900	34,990
난방	요금		94,681	-

는 식구가 적고 그만큼 살림살이도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난방비가 적게 나오는데, 2009년 1월을 보면 9만 4,681원에 불과하여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제보자인 박○○ 씨는 이 아파트 단지의 입주 초기부터 거주하였기에 단지 내 주민들과 교류가 활발하다. 주민들과 가족같이 지내며 계단식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하는 세대가 참여한다고 하여 '라인제(契)'라고 불리는 계에도 참여한다. 제보자가 회장을 맡고 있는 부녀회에는 40대부터 60대까지 17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부녀회장 임기는 2년이며, 제보자가 회장을 맡은 지는 1년 정도이다. 부녀회 모임은 매주 월요일에 열리며, 매월 셋째 주에 월례회의가 개최된다. 조사차 방문한 날에는 부녀회가 주관한 바자회가 열렸는데, 회원들 모두 행사를 준비하고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3) 주거 만족도와 계획

제보자는 현재 살고 있는 가옥의 평면이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집이 오래되어 입주 후 10년이 지난 2008년 7월에 내부를 전부 고쳤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던 칸막이벽과 문²³⁾을 뜯어냈다. 거실이 좁아 보여서 없었는데, 이 벽과 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 집도 꽤 있다. 집을 고치면서 건너방에 있던 불박이장도 없었다. 거실 벽면과 바닥을 교체하고 다른 벽면은 도배하면서 식당과 안방 입구에는 붉은색 포인트 벽지로 도배했다. 싱크대와 바닥은 다른 집에 비해 깨끗했지만, 그래도 다소 지저분해서 고쳤다.

이 가옥은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 함께 방문한 부녀회원이 "마치 모텔하우스 같다."고 할 정도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이는 제보자가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한 덕분이다. 또한 면적에 비해서 살림살이와 식구가 적고 최근에 내부를 고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제보자는 고치고 싶은 곳이 없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안 고쳐도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무단 구조변경을 금하고 있기에 이 아파트에도 동 입구에 우편함과 함께 「내력벽체 위치 안내도」를 붙여 놓았다. 이 안내도에는 세대 평면별 내력벽체를 표시해 놓고 입주자가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부과 등이 이루어진다는 경고 문구가 있다.

23) 박○○ 씨는 이 문을 '중문'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장의 건강을 고려해 서울에서 군포시 당동으로 이사 온 제보자 가족은 36평형 아파트에 4인이 살다가 자녀들이 결혼하여 분가하면서 부부만 살게 되었다. 이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집을 수리할 계획이 없을 만큼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다. 침실 2개와 거실이 남향인 3Bay형에 살면서 안방, 문간방, 건너방 등 방 이름은 전통적 인식에 기반하여 사용하는 반면, 침대와 식탁 생활을 하는 등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뒤에 있는 세 개의 발코니는 손님 맞기, 옷 말리기, 음식 보관과 같은 용도로 쓰여 우리 전통가옥의 마당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앞뒤 발코니에서 더 나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까지 긴 마당을 지나는 듯한 입구 발코니 공간은 한국형 아파트의 정착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5. 주거양식과 주생활의 변화

1) 주거에 따른 주생활의 같고 다름

군포시 주거문화에서 일대 변화는 서울의 과밀한 기능과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산본 신도시 건설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군포시에서는 5만 9,742호의 주택이 늘어나서 약 45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증가분의 91%가 넘는 5만 4,452호가 아파트였다. 주택 보급률도 1990년 48.5%에서 2007년 98.8%로 상승하였다.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 도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9〉 1990·2007년 종류별 주택수와 주택 보급률

(단위: 호, %)

연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보급률
1990	13,285	4,136	4,507	2,537	1,800	305	48.5
2007	73,027	3,962	58,959	1,958	7,721	427	98.8

출처: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이처럼 비슷한 평면을 가진 아파트가 많기에 주생활에서 큰 차이가 없을 듯하지만, 세대수만큼이나 주거나 주생활은 매우 다양하다. 외형상 다른 주거는 물론이고, 아파트처럼 동일한 평면 구성인 경우에도 가족 구성, 생활 방식에 따라 주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다. 집은 '삶을 담는 그릇'으로

서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고, 그 삶을 담아내면서 동시에 닳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같지 않으며,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주생활이다. 따라서 주생활과 그 변화에 대해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는 몇 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 대상 가옥에 나타난 주생활 변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거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자. 우리나라의 주거 특성 가운데 하나가 온돌과 온돌 사용에 따라 정착된 좌식 생활이다. 이 온돌은 오랜 시간 변화·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난방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연료가 장작에서 연탄이나 기름, 가스로 바뀌었을 뿐 바닥을 덮히는 방식에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요와 이불, 문갑, 서안 등의 살림 도구나 가구도 온돌 바닥에 맞춰 바닥과 가깝고 형태와 기능도 이에 따라 맞춰져 왔다.

그러나 침대, 장, 식탁과 의자, 소파 등 입식 가구가 우리 주거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의 기거 방식인 좌식 생활이 변화를 맞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침대와 소파 사용이 두드러진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 대부분 침대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도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요와 이불의 전통적 좌식 생활이 고수되고 있다. 방바닥에 상을 펴고 먹는 '밥상 생활'도 남아 있다. 평상시 식탁을 이용하다가도 고기를 구워 먹거나 손님이 와서 거실·안방 바닥에 상을 펴고 먹는 경우이다. 거실이나 부엌 바닥은 식탁보다 넓으면서 좌식의 아늑함과 안정감, 느긋함으로 주인과 손님 모두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번거로움과 불편함으로 평가되어 온 '밥상'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입식 가구와 입식 생활의 저변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좌식 문화가 여전히 우리 생활에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오랜 생활 방식인 좌식 생활은 외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변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실의 종류와 사용 행태에 대해 정리해 보자. 우리의 주거는 온돌방, 마루, 부엌과 마당으로 구성된다. 단독주택에는 네 요소가 모두 있는데, 최근 지어지는 단독주택에서는 마루와 마당이 없어지기도 한다. 아파트도 이들 요소가 있지만 일부는 우리 고유의 형식에서 조금 변화되어, 마루는 온돌이 들어오는 거실(방)로, 부엌은 흙바닥이 아닌 주방으로, 마당은 발코니로 바뀌었다. 방 가운데 안방, 건넌방은 침실로 사용된다.

방 사용 행태를 보면, 2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모두 가장 큰 방(아파트에서는 침실)인 안방을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 대상 중 3세대(혹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없어 이를 단정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농촌주택에서는 안방에 부모가 산다. 자식들은 건넌방(침실2 혹은 침실 3)을 사용하는데, 자식이 어리면 부모와 함께 자기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독주택에서는 자식들이 외지로 나가고 부모들만 사는 경우 건넌방 등을 비워 놓는다. 종래에는 안방이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거실이 그 역할을 대신 하는 추세이다.

우리 주거 특성 가운데 하나로 실의 다기능성을 들 수 있다. 밥 먹고, 잠자고, 옷 입고, 손님을 맞고, 공부하는 등 여러 기능이 하나의 실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취침 기능을 담당하는 '침실' 보다 안방, 건넌방, 문간방처럼 위치에 따른 이름이 일반적이었다. 어느 하나의 기능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실 명칭에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가 모두 안방, 건넌방 등 전통적인 명칭을 고수하는 경향이다. 조사 대상 가옥 가운데 단독주택은 모두 요와 이불을 사용하였으며, 아파트는 대부분 침대를 사용했다. 그런데 취침 때만 쓰더라도 침실이라 부르지 않고 안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이 같은 명칭이 언제까지 쓰일 지는 알 수 없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파트에서는 침실, 공부방, 아이의 이름을 붙인 ○○방처럼 기능에 따라 이름을 붙이거나 사용자의 이름을 붙여 방 이름을 부르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주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는 전통적인 실의 다기능성은 불합리하며 침실, 식당, 서재 등 단일 용도가 합리적이라고 인식되었다. 그 결과 침실, 식당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 평면이 재편되었지만, 우리 생활로 볼 때 반드시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루 가운데 일부 시간만을 쓰는 활용률을 놓고 본다면 침실과 식당의 공간 점유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가옥에서는 실의 다기능성을 시도하는 점이 주목된다. 좁은 공간에 자리를 차지하는 식탁을 없애고 '밥상'으로 전환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평면과 배치에 대해 정리해 보자. 농촌에서는 튼□자 평면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농촌주택은 점점 사라지고 더 이상 튼□자 평면의 슬레이트집을 짓지 않는다. 안채와 바깥채라는 채 개념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집에서 평면 확장이 되는 사례는 많이 볼 수 있다. 한옥의 경우에 8자 규모이던 방은 그대로이지만 방 두개를 트는 경우나 전·후면을 터서 방을 확장하는 사례가 많다.

아파트의 방 크기는 한옥 단독주택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다. 이 경우에도 초기에 건립된 아파트에 비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방이 커지는 추세인데, 이것은 경제적 여건 변화와 입식 가구의 일상화 영향이기도 하다. 특히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침대, 옷장의 대형화가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아파트 평면은 그동안 소형이나 중형 규모 모두 2Bay였으나, 최근에는 남향 선호에 따라 중형 규모 아파트에서는 3Bay형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3Bay형은 침실1(안방)과 거실의 크기가 같은 평형의 2Bay형 아파트에 비해 줄어드나, 밝은 침실이 두 개 생긴다는 장점이 있어 당분간 지속적으로 환영받을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우리의 전통적 공간인 마당이다. 마당은 우리 주거에서 각 채로 오가는 통로, 사람을 맞는 접객 장소, 놀이의 공간, 빨래 말리는 공간, 장독대 등의 저장 공간, 텃밭 등의 작업 공간이었고, 이 외에 심리적·공간적 여유를 제공한 공간이다. 그러한 마당은 전통가옥에



1980년대 산본리 농가 마당 이용(조병덕 소장)

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현대의 단독주택에서도 어느 정도 그 기능이 남아 있다. 아파트의 경우, 초기 아파트에서는 전면에만 발코니를 두어 빨래 말리는 장소로 쓰는 등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계단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후면 발코니를 주방 보조 공간으로 활용하여 각종 식료품과 큰 그릇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 편리함을 입증 반자,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마당(발코니)을 도입하고 있다. 정〇〇 가족처럼 집 입구의 긴 통로 같은 발코니가 그러한 예이다. 마당이 주는 편리함은 여러 기능 외에도 심리적·공간적인 여유를 우리에게 안겨 준다. 마당의 필요성은 현대의 주택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 같은 존재 이유가 지속되는 한 마당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부터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조직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주생활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확대가족에 따라 형성된 여러 개의 방과 채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지조차 어렵다. 특히 농촌주택에서는 가족 조직과 생활의 변화에 따라 소멸·퇴화되는 공간이 있는 반면, 생성·진화하는 공간도 있다. 주거처인 안방이나 건넌방, 부엌 등은 확장·개선되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진화되지만, 바깥채(혹은 사랑채)는 잘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퇴화될 처지에 놓였다.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부엌, 안방, 화장실 등이 개선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한옥 가운데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엌의 개선이 두드러져서 부엌 바닥과 마당의 단 차이, 수많은 문턱, 취사도구 수납 공간과 조리 공간의 부족, 동선 문제 등을 개선한 입식 주방이 농촌지역 전반에서 나타난다.

이런 변화는 농촌지역의 노령화 및 가족수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보인다.

아파트에서도 자기 가족에 맞도록 집을 변화시키고 있다. 분양 당시의 공간을 고수하기보다는 칸막이벽 등 불필요한 구획을 없앤다거나 각종 생활용품을 편리한 위치에 둔다. 그래서 이사보다는 스스로 현재의 주거 안에서 개선점을 찾고, 해결해 가고 있다.

2) 주생활의 변화에 대한 전망

주생활은 생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농사를 생업으로 영위하던 시대에는 직장(회사)과 주거가 분리되거나 통합되었고 저장 공간을 비롯한 공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택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군포 지역에서는 이제 농사짓는 가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일부 농촌을 제외하고 직장(회사)과 주거가 분리되면서 생업은 주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농사도 짓지 않는데다가 불편한 교통과 생활여건, 교육환경 등 때문에 도심지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노령자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고가옥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정주처가 없지만 그들 사후에 이것이 유지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군포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양식이 언제까지 전망의 대상이며, 가장 좋은 주거 형태로 남을지도 알 수 없다.

현재 군포시에서 단독주택인 전통 농가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모두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계속 진화 중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던 시대의 아파트 평면과 달리 공급이 더 많은 시대에는 거주자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가 주거에 반영되고 사람들의 삶도 주거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입주한 산본 신도시에서는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 시점에서 군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주거 모습을 가져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건축 동향은 천편일률적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평면 형태, 동배치나 단지 설계, 아파트 입지에 이르기까지 수요자인 거주자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판박이를 찍어 내던 시기와 견주어 봐도 격세지감이다.

이런 동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새로운 주거 형식이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아파트를 만들어 내면서 “아파트는 천편일률적이다.”라는 말도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여기에 다른 아파트(단지)는 물론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서도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평면이 시도될 것이다. 더구나 같은 아파트(평면)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자기만의 삶을 집에 담아내고, 그 집에 만족하면서 옆집과 또 다른 '나' 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안양에서 군포로 이사해서 10여 년간을 이 집에 살아온 방○○ 씨 부인의 “산본은 여러 신도시 중에서도 서민이 살기에 가장 좋은 신도시”라는 찬사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 제보자는 자식들의 결혼 이후에도 현재의 집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은 바람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단지 아파트 평면이나 단지 설계 등을 기능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 자리한 ‘공동체성의 회복’이 그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 자연마을에서는 물론이고 얼마 전까지 도심 동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던 ‘개방성’, ‘열림’은 아파트의 등장으로 이제 매우 낮설게 되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산본 주공1단지 아파트나 주공4단지 한라2차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자연스럽게 열어 놓았는데, 그 모습에서 개방성과 열림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주생활은 서양식 주택의 홍수 속에서 변곡점에 있다. 전통적 개념의 마을과 이웃의 ‘공동체’ 의식과 이웃 간의 ‘정’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현대 아파트에서조차 그 ‘정’은 여전히 품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다. 아파트촌으로의 급격한 이행 속에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살펴본 ‘공동체’의 모습은 정주자들의 의지에 따라 그들의 공간과 삶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21세기에 지어지는 군포시 아파트 평면과 아파트 단지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단지 설계나 아파트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 결과에 따라 군포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살고 싶은 도시’로 남게 될 것이다.

제7장 문화유산의 분포와 현황

하문식 |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1. 문화유산의 개념과 분류

문화유산 혹은 문화재란 일반적으로 인류의 생활 과정에서 문화활동이 이루어져 남겨진 결과로서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이다. 최근에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활동한 흔적인 문화유산은 물론 인간과 함께 하여 온 자연유산까지도 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1972년 11월 16일 제 17차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협약에서 문화유산이란 기념물· 건조물· 유적지 등이고, 자연유산은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질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부터 문화재라는 말이 사용되다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률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문화재를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은 현재의 문화재를 통하여 지금의 입장에서 과거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그러한 이해를 미래에까지 지속적으로 전승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며,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다. 기념물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과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이다.

문화재의 구분은 다양하게 이뤄지는데, 대표적으로 지정 유무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지정문화재는 지정 주체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국가의 경우는 문화재위원회,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문화재는 지정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및 문화재자료 등으로 구분된다.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말한다.

지정문화재는 다양하게 구분된다. 유형문화재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는 다시 국보와 보물로 나뉘고, 시도지정문화재인 경우는 지방유형문화재라고 한다. 무형문화재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는 지방무형문화재라고 한다. 기념물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이 있고, 시도지정문화재인 경우는 지방기념물이라고 한다. 민속자료의 경우는 국가가 지정한 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한 지방민속자료로 나뉜다. 그리고 문화재자료란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사가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이다.

지정문화재와는 별도로 등록문화재도 있다.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이는 2001년 3월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된 조항에 의한 구분으로, 등록 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의 규정에 따른다.

한편, 비지정문화재는 매장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로 구분된다. 매장문화재란 토지·해저·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이다. 여기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상태에서는 눈에 띄지 않아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매장문화재는 다시 발견매장문화재와

발굴매장문화재로 구분된다. 발견매장문화재란 매장된 상태에서 우연히 찾아진 문화재이고, 발굴매장문화재는 학술적인 계획 또는 인위적인 지형 변경 등의 사유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학술기관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문화재를 의미한다. 일반동산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즉,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로서, 대체로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재가 이에 해당된다.

2. 유형별 · 시대별 문화유산 분포

군포시는 계획된 도시개발에 의하여 형성되었지만 자연마을이나 원지형이 보존된 곳에는 여러 성격의 유적이 남아 있다. 최근 주택단지 조성과 여러 개발사업으로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이런 유적들이 파괴되거나 멸실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구제발굴의 성격을 띤 학술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군포시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현황은 2004년 세종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한 광역지표 조사 과정에서 그 대개가 알려졌다.¹⁾ 이후 군포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위해 2006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일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²⁾ 이 두 조사는 유형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시행된 지표조사여서 일부 미파악된 유적과 유물이 있고, 둔대농약 등 무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에 대한 파악도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유적과 유물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중 의왕시로 이장된 김동헌·김명연의 묘와 강원도 춘천시로 이장된 홍일동의 묘를 제외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격의 유적이 시 전역에 걸쳐 자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동별로 보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구제조사가 실시된 부곡동 및 산본동, 그리고 자연적인 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속달동에서 다수의 문화유산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 대야미동에서도 비교적 많은 문화유산이 확인되었다.

유형별로는 유물산포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곡동에서 이 유형의 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유물산포지와 더불어 고분, 고려·조선시대 묘 등 무덤유적 및 그에 부속된 기념물도 많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민속유적으로서 산신제당 등의 제당이 다수 확인되었고, 나머지 유형들은 1~4건 정도씩 확인되었다.

1) 세종대학교박물관·군포시, 2004,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 세종대학교박물관, 2007, 『문화유적 분포지도-군포시』.

〈표 1〉 유형별 문화재 분포 현황

(2006년 현재)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소재지										계
		소분류	기타분류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속달동	당동	당정동	둔대동	대야미동	부곡동	도마교동	
유적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4		3			6	7	12	4	36
	생활	주거유적	아영지								1			1
			수혈주거지								1	1		2
			건물지		1								1	2
	무덤(분묘)	고분	고분군		1									1
		고려·조선 묘	고려, 조선, 민묘		8	3	9				4	9	1	34
	산업생산	요업	도자기		1								1	2
	종교신앙	사지	사지		1									1
	민속	제당			2	2	3	1	1	1			1	11
		전설유적											1	1
건축물· 건축물군	주거건축	주거건축 (민가, 반가)					2			1				3
	종교건축	불교건축 (사찰)					1							1
		유교건축 (서원, 향교)	사우										1	1
기념물	비갈	묘비, 신도비			9	3	10				4	9	1	36
	거석기념물	고인돌			3							1		4
	기타					1								1
동산 문화재	전적·서적류			1										1
공예기술													1	1
식물	노거수								1					1
계				1	30	9	28	1	2	8	17	35	9	140

출처 : 세종대학교박물관, 2007, 『문화유적분포지도-군포시』, 97~99쪽.

비고 : 관외 소재 묘 3건 및 통계에서 중복된 문화유산 2건 등을 수정하여 개상하였다.

2006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문화유산 가운데 분묘와 그에 부속된 묘비·신도비 등의 기념물을 통합하여 시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 분묘가 많이 남아 있는 데 따른 결과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청동기시대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중 고려시대의 경우, 산본동에 소재한 일명사지(逸名寺址)를 제외하면 모두 유물산포지인 까닭에 이 시기 군포 지역의 시대상을 복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소재지별로 보면,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대야미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분포한다. 선사시대 유적의 경우, 특히 산본동과 대야미동에 집중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시기의 문화유산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지만, 산본동, 속달동, 대야미동, 부곡동 등지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7 장 문화유산의 분포와 현황

〈표 2〉 시대별 문화재 분포 현황

구분	소재지										계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속달동	당동	당정동	둔대동	대야미동	부곡동	도마교동	
구석기시대								1			1
청동기시대		4						1	3		8
삼국시대								1	2		3
통일신라시대		1		1							2
고려시대		3		2			2	3	7	2	19
조선시대		11	3	13		1	4	7	12	5	56
근현대	1		1	1			1			1	5
시대 미상		2	2	2	1	1	1		2		11
계	1	21	6	19	1	2	8	13	26	8	105

출처 : 세종대학교박물관, 2007, 『문화유적분포지도-군포시』, 114~118쪽.

군포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로 지형의 변화가 심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앞으로도 많은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파괴나 현상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이런 점에서 비지정문화재 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화재급 자료들에 대한 향토유적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이외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멸 가능성이 높거나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애착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초등교육 단계부터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어린 시절부터 향토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애향심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지정 문화유산의 현황

2008년 12월 말 현재 군포시 소재 지정문화재는 총 7건이다. 그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건, 경기도지정문화재 5건이 있다. 이외에 경기도가 지정한 문화재자료 1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통사찰 1건이 있다. 이들 문화유산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지정문화재는 조선시대 5건, 근대 1건, 현대 1건이며, 문화재자료는 조선시대, 전통사찰은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다. 특히 도지정문화재에

서는 조선시대 분묘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자연물 중에서는 노거수 1건이 경기도보호수, 1건이 시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자치단체에 따라 향토유적을 지정한 곳도 있으나 군포시는 아직 향토유적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3〉 지정 문화유산 현황

(2009년 1월 현재)

구분(지정주체)	지정번호	명칭	지정일	소재지	비고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	보물 제569-11호	사군천리이표촌성망안육천행물부정 (思君千里以表寸誠望眼欲穿幸勿負情)	1972. 8. 16.	금정동	안중근의사 친필, 개인소장
	사적 제342호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요지 (軍浦山本洞朝鮮白磁窯址)	1991. 1. 9.	산본동 1057-4	
도지정문화재 (경기도)	경기도기념물 제115호	정난중 선생 묘 및 신도비 외 묘역 일원 (鄭南宗先生墓및神道碑外墓域一圓)	1989. 6. 1.	속달동 산3-1	
	경기도기념물 제121호	이기조 선생 묘 (李基祚先生墓)	1990. 4. 30.	산본동 1152-11	
	경기도기념물 제122호	전주 이씨 안양군 묘 (全州李氏安陽君墓)	1990. 4. 30.	산본동 산27	
	경기도기념물 제131호	김만기 묘역 (金萬基墓域)	1992. 6. 5.	대야미동 158-4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방짜유기장 [方字鎗器匠]	1992. 6. 5.	대야미동 609	기능보유자 김문익
문화재자료 (경기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	군포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 (軍浦東萊鄭氏東萊君派宗宅)	2000. 4. 11.	속달동 24-4	
전통사찰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전통사찰 제86호	수리사(修理寺)	1988. 10. 25.	속달동 329	
보호수	경기-군포-1	당정동 느티나무	1982. 10. 8.	당정동 746	도나무
	경기-군포-4	부곡동 느티나무	1990. 10. 30.	부곡동 537	시나무

1) 국가지정문화재

군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제569-11호인 '사군천리이표촌성망안육천행물부정(思君千里以表寸誠望眼欲穿幸勿負情)', 사적 제342호인 '산본동 조선백자요지'이다. 그중 사군천리이표촌성망안육천행물부정은 1972년 8월 16일에 안중근의사유묵(安重根義士遺墨) 20점이 보물 제569호로 지정될 때 지정되었다. 보물 지정 당시에는 전라남도 화순군에 거주하는 개인이 소장하였으며, 현재는 그의 후손이 군포시에 거주하며 소장하고 있다. 이 밖에 관내 소재 문화재는 아니지만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의 예능보유자인 권오홍 씨(보유자 인정일 1996년 9월 10일)가 당동에 거주하고 있다.

사적 제342호인 산본동 조선백자요지는 1990년 산본지구택지개발 때 호암미술관에서 발굴



사적 제342호 산본동 조선백자요지 전경(좌) 및 발굴 모습(우)

하였다. 발굴 당시 지번은 산본동 144-2번지와 144-3번지, 147번지였으며, 현재 지번은 산본동 1057-4번이다. 여기에는 1992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때 발굴된 청화백자 가마터의 굴뚝이 이전 복원되어 있는데,³⁾ 사적 내부에 철재 보호대를 쳐놓은 지점이 그것이다.

1990년 발굴된 백자 가마터는 수리산 남쪽 기슭의 해발 78~83m 되는 경사진 지점에 위치한다. 이 가마의 사용 시기는 경기도 광주 번천리 5호 가마를 참고할 수 있는데, 주로 16세기 전반에 해당하며 15세기 후반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 가마터에서는 두 곳에서 가마가 확인되었는데, 먼저 산의 능선을 이용하여 사용되다가 폐기되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이용된 점이 특징이다. 초기에 조성된 가마는 지표에서 약 30~40cm를 판 다음 반지하식으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도지미를 놓아 수평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진흙으로 양쪽 벽을 쌓아 올린 터널형 칸가마이다.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는, 뒤에 축조된 가마는 80cm가 넘는 매우 깊은 아궁이가 있고 3개의 칸이 있으며 칸 사이에는 불창(火窓)기둥이 서 있다. 그리고 맨 뒤쪽에는 굴뚝으로 보이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조선 초기 가마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백토를 바른 가마의 벽에는 귀얄 자국이 뚜렷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유리질화가 잘 안된 상태였다. 소성(燒成) 칸을 보면 앞의 두 칸은 그릇을 구운 칸이나 끝 칸은 크기가 작고 내부 모습으로 보아 초벌칸으로 여겨진다. 아궁이는 4곳이 조사되었는데 깊이가 80~110cm나 되어 불이 올라가는 벽이 매우 높고 돌을 많이 사용하여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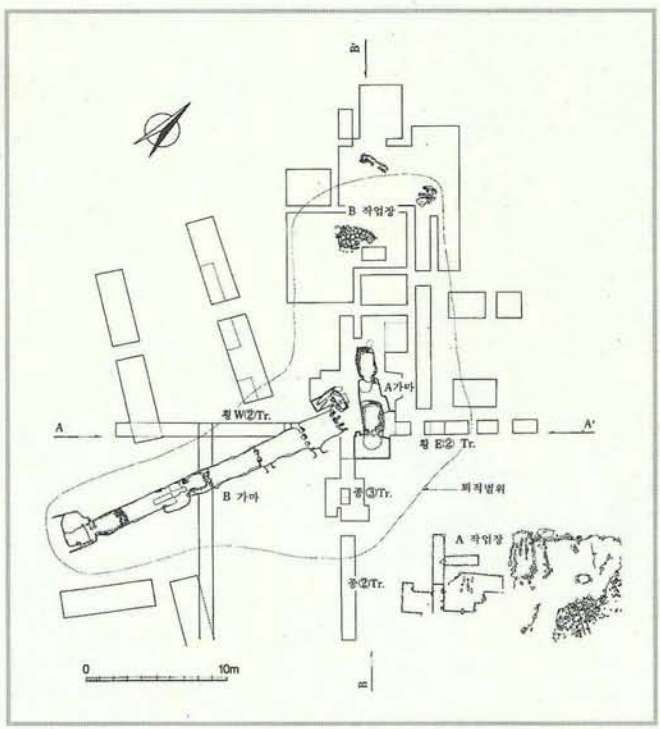
작업장은 가마를 사용한 위치에 따라 2곳에서 조사되었다. 먼저 가마와 관련 있는 작업장이 잘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백토가 얇게 깔려 있어 이곳에서 물레 성형작업을 하였던 것 같고, 특이하게 한 쪽에 돌을 올려놓은 타원형의 백토 저장시설이 발견되었다. 또한 작업장의 서쪽에는 백토 건조와 관련 있는 온돌 구조가 2기 조사되었으며, 조사 당시 불고래 구조가 확인되었다.

3) 이종선·김재열·김구근, 1990, 「도요지 유적」, 『산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명지대학교박물관·호암미술관·경기도, 209~327쪽; 강경숙·이윤석, 1993, 「군포 산본동 청화백자 요지 발굴보고서」, 한국도공공사·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김병호, 1994, 「군포 산본동 청화백자요지 이전 복원」, 『보존과학연구』 제15집, 국립문화재연구소, 157~168쪽.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무늬가 없는 백자류가 대부분이다. 이외에 음각이나 양각, 투각된 청화백자·철화백자·청자·분청자·흑유자·토기·옹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화백자는 조선 전·중기의 도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백자는 갑발(匣鉢)의 사용 없이 포개 구운 것으로 지방 가마의 생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받침은 거의가 도지미 위에 모래를 깔고 그 위부터 태토빚음 받침을 사용하고 있다. 태토(胎土)를 보면 상당히 골라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품 정도의 백자가 생산된 것 같다. 자기는 바리, 접시, 잔이 대부분을 차지해 살림살이에 이용된 그릇을 주로 생산한 것으로 여겨지며, 단지나 병 등은 드물고 간혹 태 단지, 묘지, 제기 등이 출토되어 특별주문에 의한 생산도 있었던 것 같다. 굽다리는 대부분 대마디굽으로 바깥을 위·아래로 비스듬히 깎아 가운데가 볼록하게 하였다.

한편, 산본동 조선백자요지 내에 이전 복원된 청화백자 가마터는 본래 이곳에서 북쪽에 있던 것으로,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에서 발굴하였다. 발굴 당시 지번은 산본2동 114번지 일원이었다. 가마의 사용 시기는 가마 구조, 청화 명문, 각진 굽조각 등을 광주 선동리나 금사리의 가마와 비교할 때 18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발굴 당시, 이 가마터는 해발 91~98m에 위치한 17~25°의 가파른 기슭에 있었다. 바닥의 경사는 경사진 도지미를 사용하여 완화하였고, 작업장은 파괴가 심하였다. 가마는 지표에서 30~40cm를 파고 진흙을 바른 다음 모래를 깔아서 바닥을 만들었다. 서쪽 벽의 석축은 5.2m 정도 남아 있었고 백토를 발라 벽으로 이용한 석축 구조이며, 편평한 면이 가마 안쪽으로 가도록 쌓았다. 7칸의 연실식 오름칸가마로서 모양은 아궁이 쪽이 좁고 굴뚝부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각 칸마다 불창기둥으로 경계를 삼았으며, 칸의 너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마의 경사는 초벌 구이 칸인 7칸이 12°이고, 나머지는 평균 21°쯤 된다. 아궁이는 소성실보다 작으며, 화구는 동남쪽



산본동 백자가마터 평면도



산본동 청화백자 가마터 전경(남-북)

으로 비스듬히 놓인 2개의 바위를 이용하였다. 굴뚝 부분은 완전한 구조 상태로 찾아졌는데, 축조 방법은 마지막 칸의 북쪽 벽에 20cm 높이 까지 산돌과 진흙을 섞어 쌓은 다음 그 위에 4 개의 돌을 가마 방향으로 놓고 다시 가로 방향으로 2개의 돌을 놓아서 만들었다.

출토 유물은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종지, 용기, 도지미 등이 있으며, 퇴적층에서 대접, 접시, 합과 뚜껑, 항아리 조각 등이 있었다. 광주 이외 지역에서 청화백자를 제작했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 글씨가 새겨진 자기를 보면, 복(福)자가 많이 새겨졌고, 그 외에 제(祭), 수(壽), 구(具) 자를 새긴 자기도 있다.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경기도지정문화재로는 도기념물 제115호인 '정난중 선생 묘 및 신도비 외 묘역 일원', 도기념물 제121호인 '이기조 선생 묘', 도기념물 제122호인 '전주 이씨 안양군 묘', 도기념물 제131호인 '김만기 묘역'이 있다. 그리고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이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로 지정되어 있고,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유일하게 '방짜유기장'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1) 정난중 선생 묘 및 신도비 외 묘역 일원⁴⁾

정난중(鄭蘭宗, 1433~1489)은 조선 전기의 명신이자 서예가로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국형(國馨), 호는 허백당(虛白堂), 시호는 익혜(翼惠)이다. 그는 1456년 생원·진사시와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를 거쳐 검열, 대교, 통례문봉례랑(通禮門奉禮郎), 이조좌랑(吏曹佐郎) 등을 역임하였다. 1463년 시강원문학(侍講院文學)을 거쳐 예조정랑, 종부시소윤(宗簿寺少尹)을 지내고, 1466년 문과증시에 급제하여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어 좌부승지, 예조참판을 지낸 뒤 형조참판으로 오위장(五衛將)을 겸하였다. 1467년 황해도관찰사로 이시애(李施愛)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우고 이듬해 호조참판에 전임되었다. 1469년 동지춘추관사로 『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70

4) 군포문화원, 2002, 『군포금석문대관』, 25~36쪽; 세종대학교박물관·군포시, 2004,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30~331쪽.



동래 정씨 동래군파 묘역 전경

년 동지증추부사로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명(明)에 다녀온 뒤 1471년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에 올라 동래군(東萊君)에 봉하여졌고,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뒤 영안도관찰사(永安道觀察使), 호조참판, 한성부판윤, 전라도관찰사를 지냈다. 1483년 주문부사(奏聞副使)로 다시 명에 다녀온 뒤 평안도병마절도사, 이조판서, 공조판서, 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는 훈구파의 중진으로 성리학에 밝았고, 서예에도 일가를 이루어 초서와 예서를 잘 썼으며, 특히 조맹부체(趙孟頫體)에 뛰어났다. 세조는 1465년(세조 11) 『원각경(圓覺經)』 인쇄를 위하여 그에게 주자체(鑄字體)를 쓰도록 하였는데, 이 활자가 을유자(乙酉字)이다. 금석문에도 그의 필적이 적지 않다. 석문으로 서울 탑골공원의 「원각사비음(圓覺寺碑陰)」, 양주의 「고령부원군신숙주묘표(高靈府院君申叔舟墓表)」·「윤자운신도비(尹子雲神道碑)」·「윤자운묘표(尹子雲墓表)」, 연산의 「김철산비(金鐵山碑)」가 있으며, 금문으로 양양의 「낙산사종명(洛山寺鐘銘)」, 고성의 「유점사종명(楡岾寺鐘銘)」, 양주의 「봉선사종명(奉先寺鐘銘)」, 덕수궁의 「흥천사종명(興天寺鐘銘)」이 있다. 진적(眞蹟)은 보기 드물며, 『관란정첩(觀瀾亭帖)」·『해동명적(海東名跡)」·『대동서법(大東書法)」 등에 그의 글씨가 모각되어 있다.

경기도기념물 제115호 정난중 선생 묘 및 신도비 외 묘역은 속달동 산3-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이 묘역에는 정난중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인 정광보(鄭光輔, 1457~1524), 정광필(鄭光弼, 1462~1538) 등의 묘가 위치해 있다. 대야미역에서 둔대초등학교를 지나 죽암마을에서 우회전하면 갈치저수지가 있고, 그곳에서 산 쪽으로 묘역이 자리 잡고 있다. 묘역 초입에는 재실(齋室)인 성달재(省達齋)가 있다.



정난중 신도비각

정난중의 묘역은 쌍분이고 묘표 2기, 장명등(長明燈), 문인석 2쌍,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등의 옛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文人石)은 복두공복형(幘頭公服形)으로 2쌍이다. 한 쌍은 높이 200cm로 교각복두(交脚幘頭)를 쓰고 있으며 홀을 잡은 손은 소매부리에 덮여 보이지 않으며, 폭이 넓은 소매는 팔뚝 부분에서 거의 직선상으로 비스듬히 다리 쪽으로 내려져 있다. 뒷면에는 잔여요대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가슴에 파묻혔고, 가슴은 움크린 상태로 답답한 느낌을

준다. 이목구비를 간략히 표현했는데, 귀는 정면을 향하고 눈은 이중 선각으로 윤곽만을 표현하였으며, 코는 길쭉하나 끝이 평평하고 몽푹하다. 입술은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았고 광대뼈는 약간 볼거져 있다. 다른 한 쌍은 높이 143cm 정도의 단신으로 기본적인 형태는 앞의 것과 비슷하다. 높이 165cm 크기인 장명등은 몸체와 옥개석(屋蓋石)의 이매석(鸚鵡石)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문양은 안상문(眼象紋)이다. 상대석(上臺石)과 화사석(火舍石)을 구별하지 않고 한 몸체로 만들었으나 하대석(下臺石) 부분은 안상을 장식하여 화사부와 구분하였다. 중대석(中臺石)에는 안상을 시문하지 않은 대신 탕주(撐柱)와 우주(隅柱)를 시문하였는데, 우주가 연주기둥인 점이 특이하다. 몸체의 사방에 화창을 뚫었으나 몸체에 비하여 좁은 편이다. 옥개는 사각지붕으로 꼭대기에는 보주를 올렸다. 내림마루와 처마를 간략하게 표현했으며, 낙수면은 경사가 급하지 않은 편이다. 묘표는 방부하엽형(方趺荷葉形)으로 한 매의 돌로 방부, 비신(碑身), 하엽부를 만들었다.

그의 신도비(神道碑)는 묘소 아래에 1999년에 건립한 비각 안에 세워져 있다. 신도비는 총 높이 334cm로, 이수(水)와 비신(碑身)은 대리석으로 방부는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방부(方趺)이수형(方趺螭首形)으로 전면과 뒷면에는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놓고 서로 다투는 쌍룡이 새겨져 있으며, 양측면에는 운문(雲紋)만이 양각되어 있다. 방부의 위에는 복련(覆蓮)이, 사면에는 안상이 2단으로 장식되어 있다. 건립 연대는 1525년(중종 20)이다.

(2) 이기조 선생 묘⁵⁾

이기조(李基祚, 1595~1653)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선(子善), 호는 호암(浩菴), 본관은

5) 명지대학교박물관 · 경기도, 1990, 『군포 산본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59~63쪽; 세종대학교박물관 · 군포시, 2004,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20~321쪽.

한산(韓山)이다. 그는 1615년(광해군 7)에 진사로서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가 박사로 정홍명(鄭弘溟)을 천거했다가 정인홍(鄭仁弘) 등 대북파(大北派)의 탄핵에 의하여 파직되어 그의 아버지 이현영(李顯英, 1573~1642)과 함께 수원 쌍부촌(雙阜村)에 은거하였다.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형조좌랑이 되었다가 뒤이어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듬해 일어난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한남도원수(漢南都元帥)의 종사관으로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 후 지평, 헌납, 수찬, 교리, 이조좌랑, 응교, 좌부승지 등을 역임한 뒤 병조참의, 공주목사, 호조참의를 거쳐 1635년(인조 13)에는 경상도관찰사로 나가 많은 치적을 쌓아 송덕비가 세워졌다. 1636년 안변부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평안도찬회사(平安道贊劃使)로서 적과 싸우기를 원하였으나 감사의 반대로 좌절되자 죽도(竹島)에 영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피란시켜 적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도승지에 이어 대사간, 이조참의와 참판을 역임하였고, 1645년에 부제학으로서 동지사 겸 정조성절사(正朝聖節使)로서 청(淸)에 가서 지나친 세공미 요구를 감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1649년 5월에 효종이 즉위하자 호조판서에 올랐으나 대동법의 시행 및 화폐 사용 등의 문제로 김육(金堉, 1580~1658)과 뜻을 달리 하여 대립하였다. 1650년에 효종이 성지(城池)를 수축하기 위하여 '왜정가려(倭情可慮)'라는 이유로 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남쪽에 성을 쌓고 군사를 훈련할 것을 주장하자 청이 이를 강화조약의 위반이라 하여 조선 정부를 추궁하였을 때 연대책임을 주장하여 효종의 총애를 받았다. 이후 진주사(陳奏使)의 부사로서 청에 들어가 이 일을 잘 수습하고 돌아와 예조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종묘 수리에 태만하였다는 김육 등의 탄핵을 받아 함경감사로 좌천되었으나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 사후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고 충간(忠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경기도기념물 제121호 이기조 선생 묘는 철쭉동산 뒤편, 산본 신도시 5단지 가야아파트 북쪽 끝 지점인 산본동 1152-11번지에 위치한다. 이 묘는 본래 산본동 산16번지에 있었으나 신도시 개발부지에 포함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이를 위해 1992년 10월에 긴급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⁶⁾

현재 묘역에는 합장분의 전방 좌우를 중심으로 문인석, 망주석(望柱石), 동자석(童子石), 상석, 향로석 등의 옛 석물이 배치되어 있고, 묘표는 없다. 높이 161cm인 문인석은 금관조복형(金冠朝服形)으로 각주형 몸통에 머리가 몸통의 3분의 1 정도나 되는 3등신으로 비례감이 다소 떨어지는 인물상이다. 양관(梁冠)은 높고 큰 편이며 얼굴 표정은 양 볼이 풍만하게 표현되고 둥근 편이다. 귀는 옆을 향하며 눈은 가늘게 눈썹 쪽으로 올라갔고 입은 다문 모습을 선각으로 처리하였다. 포는 폐슬(蔽膝)이 간략하게 표현된 조복으로 소매가 양옆으로 경직된 호선을 그리며 드리워져 있고, 양의의

6) 김우림·박성실, 1993, 『한산이씨 충간공 이기조 합장묘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대한주택공사.



이기조 선생 묘 이장 전(위)과 현재(아래) 모습



이기조 신도비

소맷부리가 둥글게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망주석은 높이 175cm 크기에 원두, 운각, 엄의가 선명하게 조각되었으나 주신(柱身)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고 꼬리가 없는 세호(細虎)가 표현되었다. 동자석은 높이 98cm 크기에 머리의 양끝에 뿔처럼 쏘은 동자머리가 있고, 양 볼은 둥글고 풍만하며 코는 낮고 몽툭하여 동안을 표현하고자 의도하였다. 하의는 주름이 진 모양으로 끝단을 뚜렷하게 처리하였으며, 소매에도 둥근 주름을 표현했다. 허리 부분에는 허리띠가 표현되어 있는데 남은 부분이 팔(八)자 모양이면서 아래로 드리워져 있다. 전체적인 자세는 목을 앞으로 내밀고 손을 공손하게 가슴에 올린 모양이다.

이기조의 신도비는 묘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1기가 세워져 있다. 총 높이가 328cm로 개석, 비신, 대석 모두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방부 옥개형(方趺屋蓋形)으로 아무런 조각이 없는 질박하고 검약한 모습이다. 옥개부는 팔작지붕으로 용마루, 내림마루, 처마 등이 간략히 표현되어 있을 뿐, 가구(架構)를 세밀하게 조각하지 않았다. 비문의 제액은 외손인 영의정 신완(申玩, 1646~1707)이 전서로 썼으며, 음기(陰記)는 손자 이명필(李命弼)이 해서로 썼고,

비문은 영의정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지었다.

(3) 전주 이씨 안양군 묘⁷⁾

안양군 이항(李衍, 1480~1505)은 조선 초기의 종실로, 성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성종의 후궁인 귀인 정씨(貴人 鄭氏)이다. 그의 부인인 능성 구씨(綾城 具氏)는 능천군(綾川君) 구수영(具壽永, 1456~1524)의 딸이다. 1504년(연산군 10)에 일어난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연산군은 생모인 폐비 윤씨 사건의 원인이 성종의 후궁인 정씨와 엄씨의 참소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두 귀인을 살해하였다. 이때 안양군은 가재를 적몰당하고 계천에 안치되었다가 동생인 봉안군(鳳安君)과 함께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 후 1506년(중종 1)에 반정으로 중종이 즉위하면서 안양군의 생모인 정씨에게는 삼년 제물이 내려졌다. 안양군과 봉안군도 복작(復爵)되어 쌀·종이·정포(正布)·면 등이 내려짐과 동시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안양군의 시호는 공회(恭懷)이다.

전주 이씨 안양군 묘는 산본동 산27번지에 위치한다. 본래 1520년(중종 15)에 그의 부인의 상소에 따라 택지(擇地)하여 개장(改葬)하도록 교지가 내려지면서 경기도 양주군 진관면 군장리에 조성되었다가, 그곳이 1901년 고종의 능지인 홍릉(洪陵)으로 예정됨에 따라 현 위치로 천장(遷葬)되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산본IC에서 군포 시내로 들어오는 초입에 위치한 태을초등학교 정문 좌



전주 이씨 안양군 묘

7) 명지대학교박물관·경기도, 1990, 『군포 산본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64~69쪽; 세종대학교박물관·군포시, 2004,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16~317쪽.



안양군 묘의 동자석

측에 위치한다. 묘역 앞에는 2009년 신축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사당과 관리사, 연지(蓮池)가 있다. 묘소 좌측 아래에는 1977년에 세운 신도비가 거북바위 위에 서 있는데, 통정대부 신종묵(愼宗默)이 지은 것을 이일형(李一珩)이 음기했으며, 제액은 김충현(金忠顯)이 전서로 썼다.

안양군의 묘는 조선 중기의 전통적인 묘제 양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물들이 당시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조선시대 묘제와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유적이다. 묘는 부인 능성 구씨와의 합장분으로, 사성(莎城)을 높게 쌓았고 화강암 재질의 묘표, 문인석, 동자석, 장명등, 망주석, 석양(石羊), 상석, 향로석 등의 옛 석물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은 207cm 높이에 금관조복형으로 양관을 쓰고 홀(笏)을 턱에 대고 있으며, 얼굴

은 긴 편이고 이목구비가 비교적 충실하게 표현되었다. 목은 가슴에 파묻혀 있으며 어깨는 좁고 둥근 편이다. 포는 소매부리가 표현되어 있으며 옷주름이 유연한 곡선으로 처리되었다. 홀을 잡은 아래팔은 수평을 유지하며 홀을 감싸 잡은 양손이 소매 밖으로 드러나 있다.

동자석은 노출부 길이가 55cm인데, 하반신이 땅에 묻혀 있고 마멸이 심한 편으로 형체가 잘 남아 있지 않으나 양쪽으로 묶어 올린 동자머리는 남아 있다. 명복을 비는 뜻을 담은 석양은 길이 120cm에 몸체가 풍만하고 배가 볼록한 편으로 양다리 사이를 투각하지 않았다. 장명등은 높이 182cm이며, 몸체와 옥개석의 이매석으로 구성되었다. 옥개부는 다각지붕으로 내림마루·박공널(博拱)·방풍판·절병통(節瓶桶)·처마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으며, 대석부에는 당초문(唐草紋)·안상문·복련 등으로 장식하였다. 중대석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몸체의 사방에 화창(火窓)을 뚫었으나 몸체에 비하여 좁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든중하고 질박한 느낌을 준다. 묘표는 총 높이가 202cm이며 화강암 재질로 1916년에 건립되었다. 형태는 방부옥개형이며 특별한 문양을 조각하지는 않았다.

(4) 김만기 묘역⁹⁾

김만기(金萬基, 1633~1687)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영숙(永叔), 호는 서석(瑞石) 또는 정관재(靜觀齋)이다. 우리나라 예학(禮學)의 거두인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중손이며, 『구운몽』을 지은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의 형이다. 그는 1652년(효종 3) 사마시를 거쳐 이듬해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고 수찬·정언·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657년 교리로서 글을 올려 『오례의(五禮儀)』의 복상제(服喪制) 등 잘못된 것을 개정하기를 청했다. 1659년 5월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기년설(基年說)을 주장하여 3년설을 주장하는 남인 윤선도(尹善道)를 공격하였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자 돈녕부영사(敦寧府領事)에 승진되고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현종의 모정(廟庭)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는 『서석집(瑞石集)』 18권이 있다.

김만기의 묘는 대야미동 158-4번지에 위치한다. 대야미역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갈치마을의 동쪽 동산에 있는 광산 김씨 묘역의 맨 윗부분에 위치하며, 묘소에는 합장분을 중심으로 어필비(御筆碑), 묘표, 문인석, 망주석, 상석, 향로석 등의 옛 석물이 설치되어 있다. 문인석은 높이 220cm에 금관조복형이며, 각주형의 4등신으로 신체의 비례감을 유지하면서 잘 조각되어 있다. 얼굴은 온화한 표정으로 귀가 옆으로 향하고, 살짝 미소를 머금은 아랫입술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양관의 테에는 운문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폐슬에도 화염문을 조각하였다. 홀을 쥐 손은 오른손이 왼손을 덮고 있으며, 양의 소맷부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옷주름은 유연하게 아래쪽으로 흘러 내리고 있다. 뒷면에는 화훼문(花卉紋)을, 앞면에는 후수(後綬)와 각대(角帶)를 표현한 요대가 조각되어 있다. 망주석은 높이 200cm로, 꽃봉오리 모양의 원두(圓頭) 아래에 운각과 염의(簾衣) 문양을 조각했는데 운각에는 구름무늬를 입체적으로 표현했으나 염의는 간략하게 선각으로 처리하였다. 향로석은 육각 탁자형으로 다리 부분은 운족(雲足)에 복련문으로 장식했으며 몸체 받침에는 화문을 장식하였다. 상석 받침돌은 고석(鼓石)이나 용문이 조각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김만기 묘역의 묘표는 224cm 크기에 방부원두형으로 대석에는 상면에 복련을 장식했으며 사면에는 동물문을 새겼다. 이 문양에 대하여 “전면에 두 마리의 사자가 가운데 방울을 두고 다투는 모습이고 측면에는 한 마리가 우측의 방울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조각하여 문양의 다양함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명의 석물 조각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하며 현재 중국 북경 창평현의 명 13릉 석패방(石牌坊)의 대석에 새겨진 조각과 흡사하고 국내에서는 안산에 있는 오태주(吳泰周, 1668~1716) 묘갈(1720년)의 문양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설명한 기록이 있다. 음기는 후면과 양 측면에 새겼는데, 그의 스승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지었다. 건립 연대는 1687년(숙종 13)이다. 묘 좌측에 위치한 어필비는 176cm 크기에 방부원수형으로 방부의 상면에 복련, 사면의 상단에는 당초문, 사면의 하단에는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의 전면에 ‘어필(御筆)’이라고 전서로 숙종이 횡서하였다. 측면과 후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다. 음기는 그의 아들 김진구(金鎭龜,

8) 군포시, 1999, 『군포시사』, 975~976쪽; 군포문화원, 2002, 『군포금석문대관』, 61~79쪽; 세종대학교박물관·군포시, 2004,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26~338쪽.



김만기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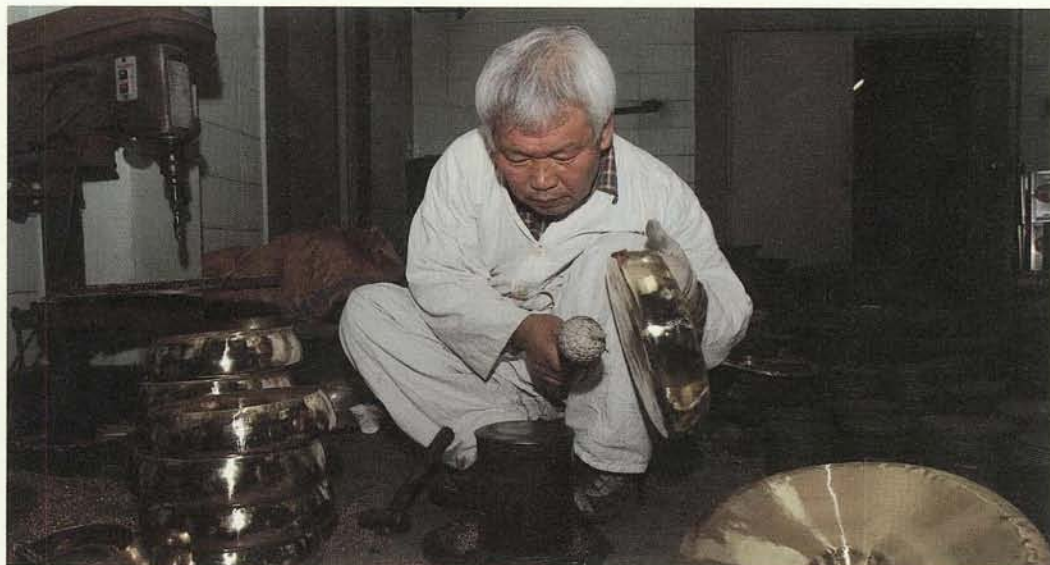
김만기 묘역의 숙종어필비

1651~1704)가 지었다. 건립 연대는 1699년(숙종 25)이다. 비문에는 묘표를 세울 돌을 숙종이 하사한 점, 한때 보사훈(保社勳)이 삭탈되었는데도 그것을 지우지 못한 사정, 그리고 보사훈이 다시 회복되고 숙종이 어필로 묘표의 큰 글씨를 써 준 사실 등을 기록하였다.

1703년(숙종 29) 건립된 김만기 신도비는 광산 김씨 묘역 맨 아래쪽에 서 있다. 337cm 높이에 방부개석형으로 개석, 비신, 대석 모두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양식은 아무런 조식이 없는 단정하고 검약한 모습이다. 비문의 제액은 아들 김진규(金鎭圭, 1658~1716)가 전서로 썼으며, 음기는 스승 송시열이 지었다. 비문은 그의 행적에 대해 칭송하는 내용이다.

(5) 방짜유기장⁹⁾

유기는 구리 합금을 이용하여 그릇 등으로 만든 것이다. 그 성분의 비율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방짜유기, 주물유기, 반방짜유기 등으로 나뉜다. 그중 방짜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쇠물



방짜유기 제작과정 중 소리잡기

로 만든 놋쇠 덩어리를 불에 달구어 두들기면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 주물유기는 쇳물을 틀에 부어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다. 평안북도 정주의 납청(納淸)에서 전해져 오는 방짜유기와 전라남도 순천의 반방짜유기, 경기도 안성의 주물유기가 유명하다. 유기장(鑄器匠)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방짜유기장은 김문익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기능보유자인 그는 군포시 정착 초기에는 당동에서 공방을 열고 주발, 쟁반, 화로, 촛대, 향로, 팽과리, 징 등을 제작하였다. 현재 공방은 대야미동 609번지에 위치한 국일공예사인데, 국도47호선을 따라 군포시에서 안산시 방향으로 가다 시 경계 조금 못미처 좌측에 자리 잡고 있다.

방짜유기는 그 특성상 악기 제작에서 그 장점이 잘 드러나는데,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사용된 바라(裨羅)도 그의 손을 거친 작품이다. 방짜는 구리와 주석을 4 대 1 정도의 비율로 섞는데, 김문익은 구리 3kg에 주석 8.25kg의 비율로 하여 주석의 함유량이 많다. 주석의 함유량이 징·팽과리 등 풍물 악기의 소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적정량의 합금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적은 양의 금·은을 섞는 것도 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6)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¹⁰⁾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은 2000년 4월 11일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9호로 지정되었다. 대야

9) 군포시, 1999, 『군포시사』, 975~976쪽; 세종대학교박물관, 2007, 『문화유적분포지도-군포시』, 89쪽.

10) 군포시, 2004, 『군포시 속달동 동래정씨 동래부원군파종가의 역사와 문화』, 49~117쪽; 경기문화재단, 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제4권 중요전통민가편, 111~113쪽.

미역에서 둔대초등학교를 지나 죽암마을에서 우회전하여 가면 갈치저수지가 나타나는데, 이 저수지 북단에서 우측에 위치한 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전하는 바로는 본래 동래부원군과 묘역 동쪽의 범바위골에 있다가 현 위치로 옮겨왔다고 한다. 현재 건축연대를 알 수 있는 사랑채는 1877년에 지어졌다. 안채는 그보다 100여 년 전에 지어졌다고 전하며, 대청마루 종도리 장여(長欄) 측면에 일부 남아 있는 상량문에 '성상즉위칠년(聖上即位七年)' 이라고 적힌 점으로 미루어 1783년(정조 7)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안채와 큰사랑채, 작은사랑채, 광채, 마방채, 사당 등 6동인데, 대대적인 보수와 복원 공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안채 보수공사가 실시되었고, 2002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사랑채와 행랑채 등에 대한 보수공사가 실



큰사랑채 보수공사 전(좌)과 보수공사 중인 모습(우)¹⁾



동래군파 증택

1) 군포시, 2004, 『군포시 속달동 동래정씨 동래부원군파증가의 역사와 문화』, 25·28쪽.

시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에 훼손한 사당을 2007년에 1칸 규모로 복원하였다. 이 밖에도 원래는 사랑마당 바깥쪽에 행랑과 연못이, 작은사랑채 뒤에 초당이, 안채 뒤에 외양간 등이 있었다고 한다. 초당과 외양간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고, 방앗간이 있던 바깥행랑채는 1970년대에 무너졌다고 한다.

안채는 전면 퇴간(退間)이 있는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입식 부엌과 안방, 우측에 건넌방이 있는 형태다. 안방은 2칸 규모이며, 처마 밑 공간을 활용하여 실(室) 공간을 증축하였고, 부엌 또한 왼쪽 벽면을 확장하여 욕실과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안채의 가구(架構)는 오량(五梁)이며 대공은 판대공(板-)이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올린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랑채는 큰사랑채와 작은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큰사랑채는 전면 5칸으로 구성된 전후 퇴집으로 평면 구성이 독특하다. 누마루, 마루복도, 행사청 등 평면 구성과 칸의 분할이 독특하여 조선 후기 살림집의 기능을 증시킨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구는 두 가지 형태인데, 사랑방 위는 오량이고 대문간 위는 삼량이다. 지붕은 전통기와를 올린 홑처마 팔작지붕이고 기단(基壇)과 주초(柱礎)는 다듬은 돌이다. 예전에 공부방으로 사용되었다는 작은사랑채는 3칸으로 구성된 전퇴집이며 위치와 규모 등이 독특하다. 가구는 오량이고, 지붕은 전통기와를 올린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단석은 다듬은 돌이고, 주초는 자연석이다.

3) 전통사찰⁴²⁾

군포시 관내의 전통사찰로는 수리사가 있다. 수리사는 군포시의 대표적인 종교문화유산으로 1988년 10월 25일에 경기도 전통사찰 제86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수리산과 어우러지는 사찰의 모습과 역사성으로, 군포8경 중 제2경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찰은 수리산 슬기봉에서 이어지는 계곡 사이 속달동 329번지에 위치하며, 사찰을 감싼 능선 일대가 옛 수리사의 터이다. 대야미역에서 갈치저수지를 거쳐 덕고개마을과 납덕골을 지나서 산을 오르면 수리사에 닿는다.

수리사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고려사』 권129 최충헌조(崔忠獻條)에 “흥왕사(興王寺), 흥원사(弘圓寺), 경복사(景福寺), 왕륜사(王輪寺), 안양사(安養寺), 수리사 등의 중으로서 종군한 자들이 최충헌을 살해할 것을 모의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광주목(廣州牧) 불우조(佛宇條)에 “수리사는 수리산에 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대체로 수리사에 대한 옛 기록에는 이와 같이 단편적인 내용만이 전한다. 사찰에 전하는 구전으로는 “창건주는 미상이고, 신라 진흥왕(眞興王, 재위 540~576년) 때 창건되어 왕손인 운산대사가 뼈를 깎는 정

42 세종대학교박물관·군포시, 2004,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87~300쪽.



군포 제2경 수리사 표석 제막식

진으로 마침내 부처님을 친견”해서 산 이름을 ‘견불산(見佛山)’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전한다. 그런데 수리사가 위치한 지역이 진흥왕 대에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것은 확실하지만, 당시는 군포 지역을 비롯한 한강 유역 일대가 삼국의 각축장이었으므로 사찰이 건립되기엔 무리였을 듯하다. 따라서 사찰의 창건은 통일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리사의 사세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고려시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된 유물 가운데 상당수가 고려시대로 편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산포 범위도 넓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찰 북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 수리산을 넘으면 안산시 수암동에 이르는데, 그곳은 옛 안산의 치소였던 곳이다. 고려시대 경기도 광주에 속하던 수리사는 안산 지역과 광주 지역을 잇는 지름길에 있었고, 그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당시 지방세력은 이 사찰과 교통로를 매개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리사에서 고개를 넘어 안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원당사가 있었는데, 이 사찰의 사역도 수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넓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두 사찰은 안산과 광주를 잇는 지름길에 대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 안산의 중요한 지방세력으로는 김은부(金殷傅, ?~1017)를 들 수 있다. 그는 고려 현종(顯宗, 재위 1009~1031년) 대에 시중으로 활약하면서 현종에게 세 딸을 출가시켰다. 그의 본거지는 현재의 안산시 장하동·수암동 일대였으므로, 이 지역이 고려 현종 대에 크게 융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암동에 자리 잡았던 원당사는 김은부의 영향권에 들었을 것이며, 이와 대응하던 수리사도 그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본래 수리사는 대웅전 외에 건물 36동과 산내에 암자 12개가 있는 대찰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에도 다시 전소되었는데, 이 일대가 수리산전투의 격전



수리사 전경

지였기 때문이다. 수리사는 1955년 재건되었다. 재건 당시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도리집으로 기둥머리 부분에는 용머리가 돌출되어 있고 겹처마에 팔작지붕인데 사우(四隅)에 활주(活柱)를 받쳤으며 정면 정자교살문 상부에는 교살창을 달았다. 그 외에 자헌전(6평), 삼신각(3평), 요사가 있었다.

현재 수리사에는 대웅전, 나한전, 산신각, 요사채, 토굴, 종무소 등 모두 6채의 건물이 있다. 지금의 가람은 1997년 중창 당시의 건물을 헐고,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풍집(多包-)으로 팔작지붕 위에는 치미(鷓尾)를 올렸다. 건물은 화강석으로 짜여진 2중 기단 위에 건립되어 있다. 내부에는 석가여래좌상(釋迦如來坐像)과 관음보살(觀音菩薩)·지장보살(地藏菩薩)이 봉안되어 있다. 불화로는 삼세불화(三世佛畵)와 신중탱화(神衆擘畵), 칠성탱화(七星擘畵)가 봉안되어 있는데 모두 근래에 조성된 것이다. 나한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풍집으로 귀포에는 용두를 장식하였다. 대웅전 서쪽의 약간 낮은 단에 소규모로 지어졌다. 나한전 내부에는 석가여래·문수보살(文殊菩薩)·보현보살(普賢菩薩)의 삼존불과 16나한상이 봉안되어 있고, 나한탱화도 2점이 있다. 산신각은 대웅전 북측 언덕 위에 있는데 정면·측면 모두 1칸의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내부에는 산신탱화가 봉안되었다.

대웅전과 나한전 사이의 평탄지에는 많은 석조물 조각이 분포한다. 그 가운데 석조로 추정되는 석재는 반파된 상태이며, 남아 있는 너비는 79cm, 길이 211cm, 높이 72cm로 대형이다. 현재 대웅전 옆 우물가에 있다. 나한전 앞 공터에서도 석탑의 부재(部材)와 석조 기단의 부재로 보이는 석재들이 확인된다. 그 가운데 석탑의 옥개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2점 있다. 석재는 적황색이 감도는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으며, 상면에는 탑신 고임이 마련되어 있다. 석재의 잔존 크기는 각각 56×56



수리사 산신각 옆 석불입상과 대좌

cm, 65×65cm로 비교적 소형이다. 이 옥개석은 무너진 다음 주춧돌로 사용하기 위해 낙수면을 잘라서 손질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크기와 모습은 짐작하기 힘들다.

수리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산신각 동측에 자리 잡은 석불입상(立像)과 대좌(臺座)이다. 석불입상은 몸통만 남은 상태로 화강암으로 제작되었다. 입체감이 없어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진 직

육면체에 가깝다. 표면에는 옷 주름이 표현되었으나 매우 간략하다. 옷 주름의 간격은 5~8cm로 조각 수법 역시 떨어진다. 이 파손된 석불입상은 현 위치에서 약 1km 떨어진 야산 기슭에서 발견되어 사찰로 옮겨졌다고 한다. 또한 자연석을 가공한 대좌가 이 석불입상을 받치고 있는데, 편평한 부정형의 자연석을 가공한 다음 11엽의 연화문을 베풀고 가운데에는 여래의 발 모양을 양각하였다. 각 잎의 사이에는 사잇잎을 새겼는데 간격은 15.5cm이다. 대체적으로 평범한 조각 수법을 보이며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 대좌도 불상과 마찬가지로 근래에 인근 야산에서 옮겨온 것이라 전한다.

이밖에도 사찰 경내에 텃밭으로 사용하는 평탄지들이 존재하는데, 이 일대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채집되고 있다. 수습된 유물 가운데에는 밝은 회색을 띠는 복합문 암키와편과 명문와편이 있다. 수리사에서 출토된 복합문 암키와편은 인접 지역인 광명시 도덕산(道德山)보루 출토품과 일치하여 두 유적 간의 상관관계 내지는 고려 중기 기와의 수급관계를 설명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문와편에서 명문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면 사찰의 역사에 대한 작은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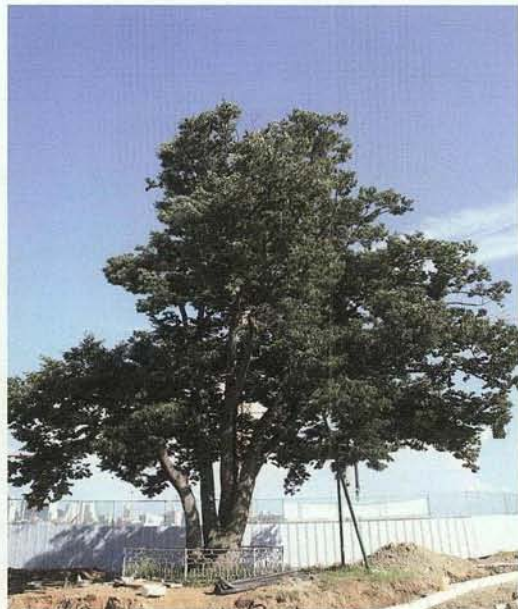
다른 유물 가운데 수리사의 연혁을 대변해 주는 유물도 있다. 밝은 황갈색을 띠는 연질소성의 암키와편인데, 이곳에서 수습된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이 기와의 문양은 종선문(縱線紋)으로 신라시대 기와의 문양 요소를 답습했다. 측면 분할 형태에서는 외면은 예각, 내면은 둔각을 이루는 분할법으로 와도(瓦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한 번에 그어 내려 분할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할 방식은 고구려 기와의 제작기법에서 영향을 받은 신라 기와의 제작기법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 유물의 상한을 신라 말까지 올려 보아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와편의 정선된 태도는 그러한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고 있다. 이 기와의 편년을 통일신라 시기까지 올려 잡을 수 있다면 수리사의 창건 연대는 동 시기이거나 그 이전 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¹³⁾

군포 지역에는 수리사 이외에도 송천사(松泉寺)와 사신암(謝身庵)이라는 불교유적이 존재했던 것으로 전한다. 이들 사찰은 모두 수리산 내지 수리산 남쪽 기슭에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수리사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두 사찰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수리사가 한창 번성하였을 고려시대에 수리사의 암자나 부속 사찰로 존재했다가 그 사세가 약해지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별도의 사찰로 독립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보호수¹⁴⁾

보호수는 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함께하여 보존 및 증식의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혹은 산림청이 지정한다. 이들 보호수는 품격에 따라서 크게 4종류로 나뉜다. 시도나무는 수령 500년 이상이 되고 전국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시도의 상징적인 수목이다. 시군나무는 수령 300년 이상이 되고 전국적으로 희소가치가 있거나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사(故事)나 전설이 있는 수목이다. 읍면동나무는 수령 200년 이상이 되고 전국적으로 희소가치가 있거나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사나 전설이 있는 수목이다. 마을나무는 수령 100년 이상이 되고 해



큰말 느티나무(좌)와 고향치기 느티나무(우)

13) 백종오, 2003, 「고구려와 신라 기와 비교 연구」, 『백산학보』 67, 276~282쪽.

14) 군포시, 2005, 『2005 군포환경백서』, 139~140쪽; 세종대학교박물관, 2007, 『문화유적분포지도-군포시』, 89쪽.

당 시군 내에서 희소가치가 있거나 알려진 고사나 전설이 있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이다.

군포시 관내의 보호수 중 도나무는 당정동 큰말에 있는 느티나무다. 큰말 느티나무는 1982년 10월 8일에 지정되었고, 당시 수령 500년에 높이 20m, 둘레 2.5m 크기였다. 이곳 주민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목(堂木)으로 삼았으며, 나뭇잎이 아래에서부터 나면 흉년이 들고, 위에서부터 나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현재 이 나무는 한쪽 면과 울타리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나무 외에 시나무로 부곡동 고랑치기에 느티나무가 있다. 고랑치기 느티나무는 1990년 10월 30일에 지정되었으며, 수령 400년 높이 20m, 둘레 2.2m 크기였다. 고랑치기와 부곡동택지개발지구 경계에 위치하며, 나무 둘레에는 철재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다.

4. 주요 비지정 문화유산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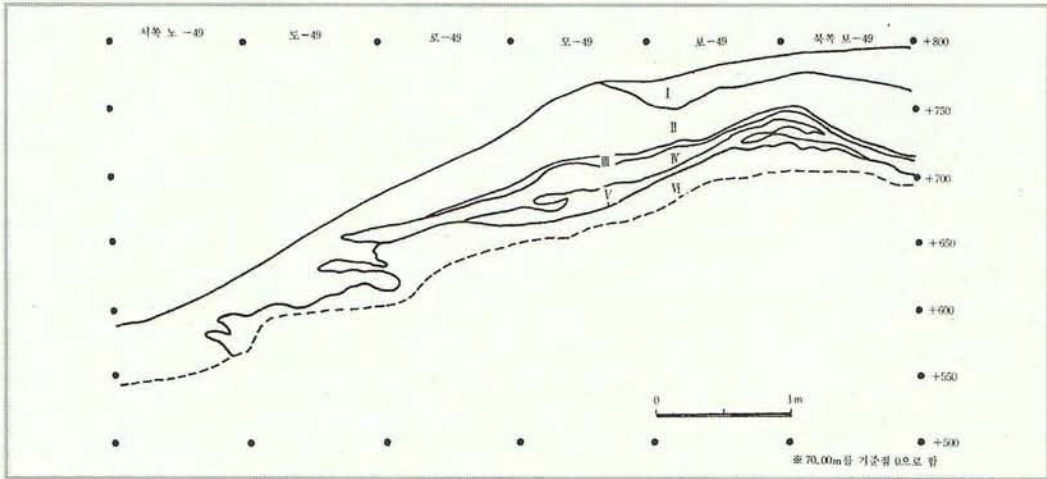
1) 생활유적

(1) 대야미동 구석기유적¹⁵⁾

대야미동 구석기유적은 대야미동 62-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신갈~반월 간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견되어 충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1988년 발굴되었다. 이 유적은 해발 70m 정도의 야산 구릉지대에 위치하며, 정상부의 서남쪽 기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유적의 층위는 6개 층으로 구분되었다. I 층은 표토, II 층은 메워진 층, III 층 본래의 겉흙, IV 층 옅은 갈색흙층, V 층 연노랑 갈색흙층, VI 층 석비레층이다.

유물은 IV 층(두께 약 10cm)에서 출토된 굽개와 밀개, 흙날, 주먹대패, 망치돌 등이 있다. 석기의 제작수법은 르발루아(돌려떼기) 수법이고, 간접떼기로 만든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석기는 몸돌 석기가 많고, 거의 편암암 계통이 재료로 이용되었다. 기능은 굽개, 밀개 등 주로 조리용으로 사용된 것 같으며, 문화층의 두께와 연관을 지어 보면 이곳에서 잠깐 살다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후기 구석기시대의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5) 이웅조·우종운·윤용현, 1988, 「화성 대야미리유적 발굴조사보고」, 『편교~구리·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경기도, 575~609쪽.



대야미동 구석기유적의 층위



대야미동 구석기유적 발굴 후 복토된 모습

(2) 부곡동 청동기시대 집터¹⁶⁾

부곡동 청동기시대 집터는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발견되어 2005년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되었다. 이 집터유적은 얇은 구릉의 꼭대기인 해발 65.95m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삼국시대의 움무덤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된 집터는 표토 밑 30cm 아래에서 윤곽선이 확인되었고, 크기는 길이 10.14m, 너비 6.04m, 움 깊이가 0.87m이며, 평면 생김새는 긴 네모꼴이다. 긴 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한 북서-남동쪽이다.

집터를 만든 방법은 벽 쪽을 ‘L’ 자 모양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깎아낸 다음 편평하게 골랐

16)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내 군포 부곡동 유적』 참조.



부곡동 III지구 청동기시대 집터

다. 나들이 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부 시설은 화덕자리 3기와 벽 쪽에 설치된 기둥구멍이 있다. 화덕자리는 집터의 가운데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2기가 있고 남쪽으로 1기가 있는데, 특별한 시설을 하지는 않고 맨땅을 조금 움푹하게 판 다음 그대로 이용하였다. 벽 쪽과 그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된 기둥구멍은 크

기가 지름 10~30cm로 여러 가지이며, 정연성은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집터의 바닥은 생토를 다진 다음 맨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집터 안에서 흩어져 있었는데, 특히 남동쪽 모서리에 있는 구멍이 옆에서 민무늬토기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고, 화덕 옆에서 겹입술토기, 깊은 바리형 토기, 흙으로 만든 가락바퀴 등이 출토되었다.

부곡동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집터는 비록 1기만 발굴되어 그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경기 남부의 군포 지역 청동기 문화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집터 안에서 겹입술토기가 나온 점, 집터의 평면 모습이 긴 네모꼴인 점 등으로 볼 때 서울 가락동유적과 비슷한 기원 전 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대야미동 청동기시대 집터¹⁷⁾

대야미동 청동기시대 집터는 대야미동 산1-95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2001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1기의 집터를 발굴하였다. 이 집터는 해발 90m 되는 얇은 야산 능선의 기슭에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자리하며, 집터의 긴 방향은 동서쪽이다. 크기는 길이 8m, 너비 2.2m, 움 깊이 50cm이며 평면 생김새는 긴 네모꼴로, 한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집터에서 널리 찾아지는 형식이다.

입지 조건이나 크기 등을 보면, 이 집터는 당시 사람들이 좁은 능선 위에서 효과적으로 공간과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것 같다. 또한 이 집터를 만든 방법을 보면 능선의 위쪽을 ‘L’자 모양으로 판 다음 편평하게 바닥을 고르고, 부분적으로는 풍화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찰흙을 깔고 다진 흔적이 찾아졌다. 이런 방법은 여주 혼암리유적이나 남양주 수석동유적에서도 조사되어 서로 비교된다. 집터 안의 시설은 다른 유적에서 조사된 기둥구멍 자리는 확인되지 않았

17) 배기동·홍주희, 2002, 『군포시 대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시굴·발굴조사보고서』, 군포시·한양대학교박물관 참조.

고, 북쪽과 서쪽 벽을 따라서 불규칙하게 이어지는 구덩이 시설이 찾아져 주목된다. 이 구덩이 안에서는 숯덩어리가 발견되었다. 화덕자리는 집터의 가운데와 서쪽으로 조금 치우친 곳에서 조사되었는데 생토층인 암반층을 조금 판 다음 그대로 이용한 무시설식으로 확인되었다.

이 집터에서는 깊은 바리 모양, 단지 모양, 바리 모양 등의 민무늬 토기가 출토되었고, 석기는 조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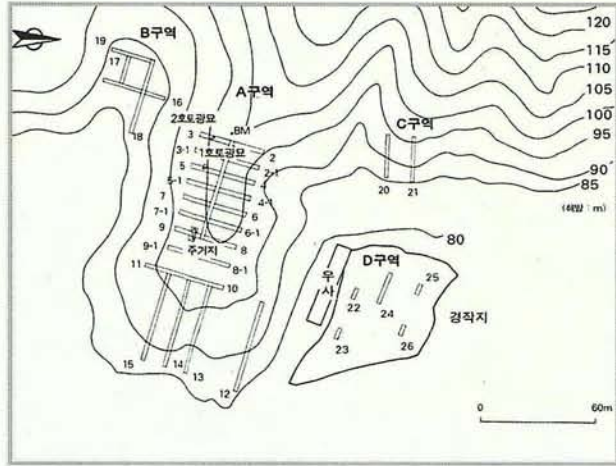
지 않았다. 토기는 굽은 석영과 장석이 섞인 찰흙을 바탕흙으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민무늬토기 가운데에는 골아가리+구멍무늬 토기, 덧띠+구멍무늬 토기가 섞여 있어 주목된다. 특히 덧띠+구멍무늬 토기는 지금까지 출토된 예가 많지 않아 서로 비교하기 어려우며, 한강 이남 지역의 덧띠토기 문화의 기원이나 구멍무늬 토기의 전파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처럼 대야미동의 청동기시대 집터는 군포 지역은 물론 경기 남부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당동 청동기시대 집터¹⁸⁾

당동 청동기시대 집터는 부곡동 632번지에 위치하며, 2008년 중원문화재연구원이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찾아졌다. 이 집터는 I-2지점에서 2기가 조사되었다. 비록 파괴가 심한 상태로 조사되었지만 군포 지역의 선사시대 살림살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돌널무덤이 자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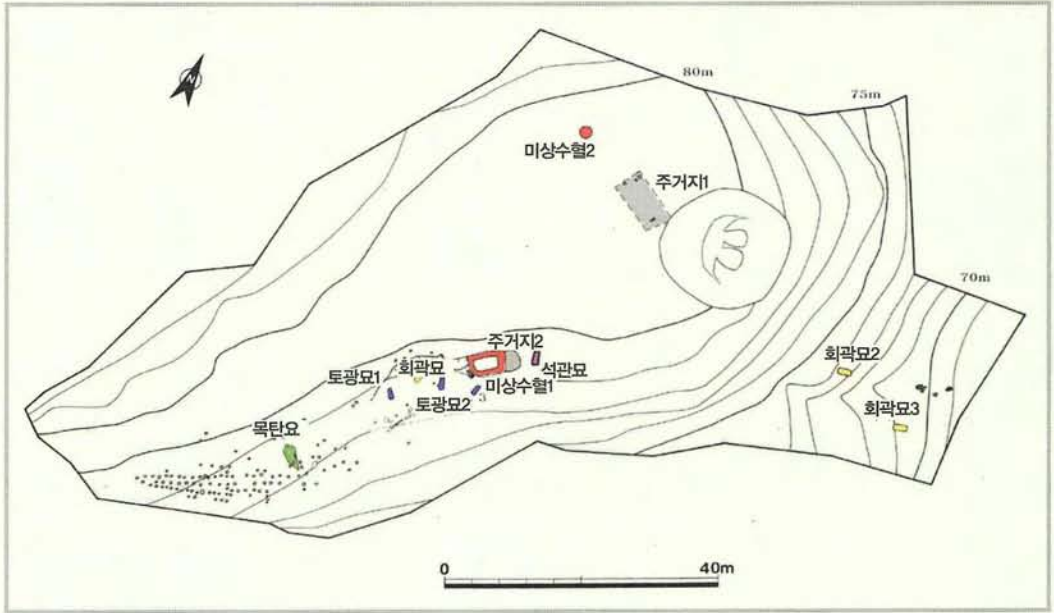
1호 집터는 능선의 가운데에 위치하였는데 많이 파괴되어 화덕자리와 기둥구멍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다. 화덕자리는 편평한 막돌을 세워서 만든 위석식(圍石式)이었다. 그리고 화덕자리에서 2m쯤 떨어져 기둥구멍과 저장구멍이로 여겨지는 구덩이가 확인되었다. 이런 점에서 집터의 크기나 생김새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길이 2m 이상 되는 청동기시대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출토 유물은 집안에서 습베가 2단인 화살촉과 민무늬토기의 바닥이 찾아졌다.

2호 집터는 능선의 남동쪽 기슭에 자리하며 후대(後代)의 움에 의하여 파괴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평면 생김새는 둥근꼴이고, 크기는 지름이 약 275cm이며, 움의 깊이는 50cm 안팎이다. 바닥은



대야미동 청동기시대 집터(A구역)의 입지

18)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군포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참조.



당동2지구 I-2지점 유구 현황도

풍화암반층이고 편평하게 하기 위하여 자리를 고른 흔적이 확인된다. 집터의 가장자리에는 20cm 간격으로 기둥구멍이 찾아졌다.

2) 무덤유적

(1) 부곡동 돌널무덤¹⁹⁾



부곡동 돌널무덤(남동쪽에서)

부곡동 돌널무덤은 부곡동 632번지에 위치하며,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재 조사의 일환으로 2008년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하였다. 유적이 자리한 곳은 얇은 야산이 동서 방향으로 뻗은 능선의 남쪽 기슭으로, 주변은 약간 완만한 지역이다.

돌널무덤의 크기는 길이 220cm, 너비 85cm, 깊이 18cm이며, 서쪽 벽과 아래쪽

19)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군포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요약보고서』 참조.

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돌널은 능선의 높이가 고려되어 등고선과 직교하며 긴 방향은 북서-남동쪽이다. 만든 방법을 보면 먼저 풍화암반층을 판 다음 동서쪽의 벽은 비교적 편평한 막돌을 가로 쌓기로 2~3단 쌓았고, 북쪽 벽은 세로쌓기를 하였다. 바닥은 상당히 작은 크기의 납작한 돌을 여러 개 깔아 놓았지만 부분적으로 파괴된 모습이다. 출토 유물은 돌널의 남쪽에서 사발[碗] 모양의 민무늬토기가 있다.

(2) 부곡동 움무덤과 독무덤²⁰⁾

부곡동 움무덤과 독무덤 유적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하였으며, 부곡동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다. 그중 한성백제시기 움무덤은 얇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분포하는데, I 지구인 서쪽에서 12기, II 지구인 동쪽에서 7기 등 19기가 조사되었다. 독무덤은 I 지구에서 3기, II 지구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부곡동에서 발굴 조사된 이들 무덤유적은 한성백제시기 군포 지역의 문화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조사된 움무덤은 주검을 묻은 움이 주검과 겨묻거리를 모두 포함하는 나무덧널무덤의 형태로 조사되었으며, 유물을 놓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점, 단지 모양의 토기가 많이 겨묻기된 점 등은 경기 남부 지역의 이 시기 무덤과 비교할 때 특징을 지닌다. 한성백제시기 지방세력이 묻힌 무덤으로 여겨지는 이 유적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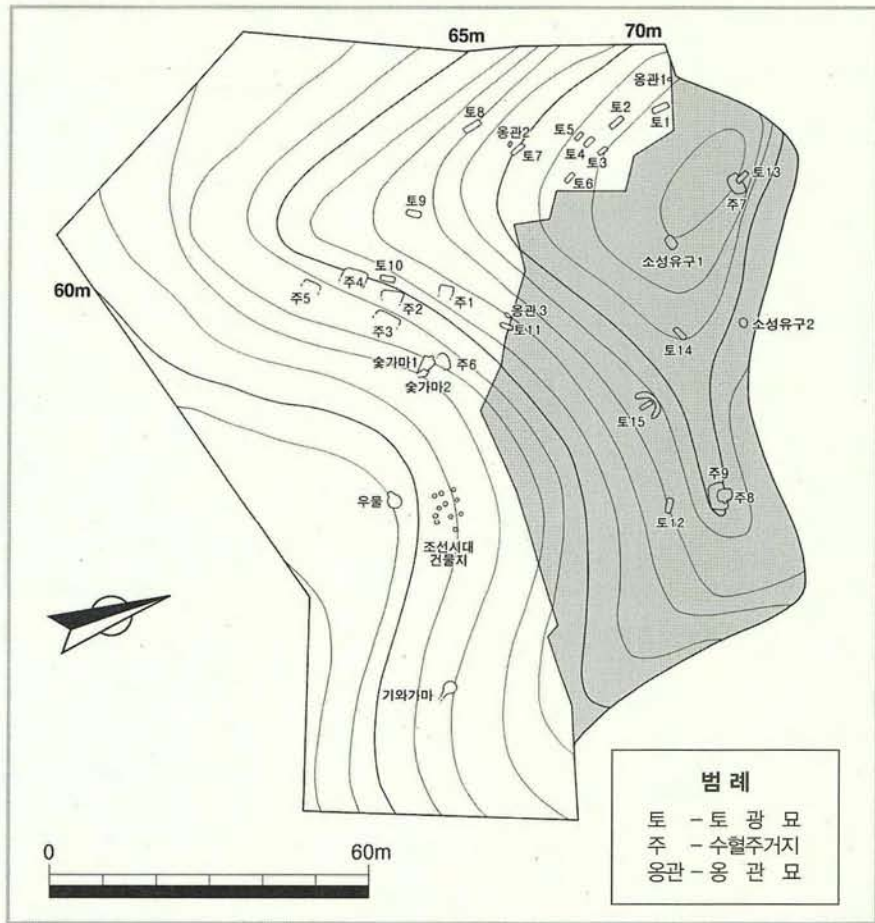
① I 지구

I 지구는 부곡동 구산말 서쪽에 위치한 해발 73m 되는 낮은 구릉지대이다. 움무덤은 이곳 능선의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백제 시기의 독무덤이 남서쪽에서 발굴되었다.

1호 움무덤은 I 지구의 구릉 꼭대기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능선의 해발 72.1m 지점에 위치한다. 서쪽에는 1호 독무덤이, 남쪽에는 2호 움무덤이 있다. 무덤방의 크기는 길이 310cm, 너비 113cm, 깊이 33cm이고, 평면은 긴네모꼴이다. 무덤방의 긴 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한 남북쪽이다. 주검을 묻은 움은 276×84×13cm이고, 무덤방의 남쪽에는 유물을 겨묻기한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 출토 유물은 목이 짧은 단지(1점), 향아리(2점)를 비롯하여 가락바퀴(1점), 바리형 토기(1점) 등이 있다.

2호 움무덤은 I 지구의 서쪽 기슭인 해발 71.6m 지점에 자리한다. 무덤방의 크기는 길이 308cm, 너비 83cm, 깊이 10cm이고, 평면은 긴 네모꼴이다. 무덤방의 긴 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한 북서-남동쪽이다. 무덤방에는 열은 흑갈색 흙을 채워 놓았다. 주검을 묻은 움은 277×55cm 크기이다. 1호처럼 유물을 겨묻기한 공간이 조사되었는데, 이곳에 밑이 납작한 목 짧은 단지, 향아리, 바리형 토기가 1점씩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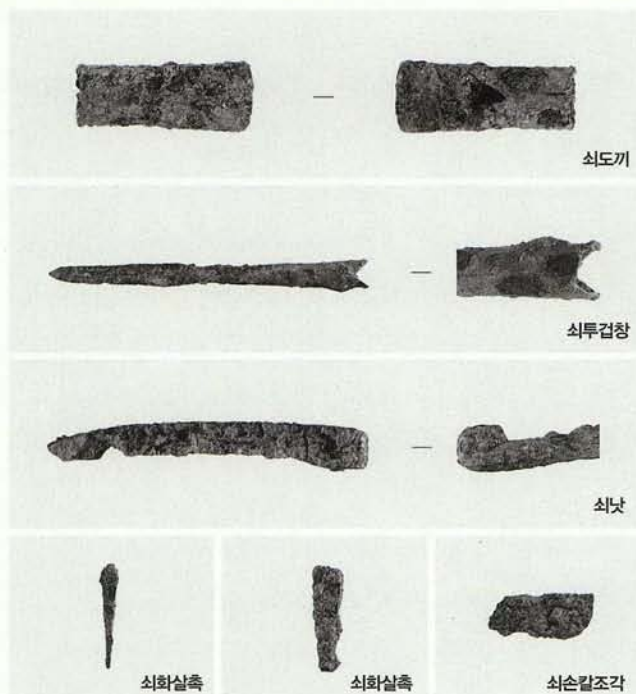
20)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내 군포 부곡동 유적』 참조.



부곡동 택지개발지구 | 지구 유구 배치도

3호 움무덤은 2호 움무덤의 남동쪽에 있으며, 3호 움무덤의 남서쪽에 4호 움무덤이, 남동쪽에는 6호 움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무덤방의 평면은 긴 네모꼴이고, 크기는 길이 210cm, 너비 122cm, 깊이 8cm로 무덤의 윗부분이 많이 파괴된 상태였다. 무덤방의 긴 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한 남북쪽이다. 무덤방 안은 흑갈색 모래흙으로 채워져 있었다. 주검을 묻은 움은 179×49×8cm이다. 유물은 무덤방의 북서쪽 모서리에서 단지의 밑바닥과 남동쪽 벽 옆에서 쇠투겁창(1점), 쇠도끼(1점), 쇠낫(1점), 쇠손칼(1점), 쇠화살촉(2점) 등 여러 가지의 철기 유물이 찾아져 주목된다.

4호 움무덤은 해발 71.4m 되는 지점에 자리하며, 그 바로 옆에는 2호·3호·5호·6호 움무덤이 분포하고 있다. 무덤방의 크기는 길이 260cm, 너비 90cm, 깊이 27cm이고, 긴 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무덤방 안에는 적갈색을 띠는 모래질 찰흙이 채워져 있었다. 주검을 묻은 움은 230×65×16cm이다. 그리고 이 움의 남쪽 벽 옆에 꺼묻거리를 놓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 바닥이 납작한 목 짚은 단지(2점), 무덤방의 가운데에서 쇠낫(1점)과 철제 손칼(1점), 북동쪽 모서리에서 쇠도끼(1점)



부곡동 택지개발지구 | 지구 3호 움무덤 출토 유물

등이 조사되었다.

5호 움무덤은 I 지구의 서쪽 기슭에 위치하며, 동북쪽에 4호 움무덤이, 남쪽에 7호 움무덤이 있다. 무덤방은 등고선과 나란한 북서-남동쪽이고, 크기는 길이 173cm, 너비 71cm, 깊이 35cm이다. 무덤방 안에는 흑갈색의 모래흙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주검을 묻은 움의 크기는 153×52×35cm이고, 무덤방의 남쪽 벽 옆에서 목이 짧은 단지(2점)가 출토되었다.

6호 움무덤은 해발 71.5m 되는 서쪽 기슭에 자리하며, 서쪽에 3~5호 움무덤이 분포한다. 무덤방의 크기는 길이 229cm, 너비 90cm, 깊이 36cm이고, 긴 방향은 북서-남동쪽이다. 무덤방 안에는 흑갈색의 모래흙이 채워져 있었다. 주검을 묻은 움의 크기는 212×55cm이고, 이곳에서 쇠낫(1점), 주조한 쇠도끼(1점), 철제 손칼(1점), 밀이 납작한 목 짧은 단지(1점), 밀이 둥근 단지(1점), 향아리(1점)가 찾아졌다.

7호 움무덤은 서쪽 기슭에 위치하며, 남서쪽에 2호 독무덤과 8호 움무덤이 있다. 무덤방의 크기는 길이 228cm, 너비 110cm, 깊이 23cm이고, 긴 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한 북서-남동쪽이다. 무덤방 안에는 갈색 모래흙이 채워져 있었고, 15cm 아래에서 주검을 묻은 움이 찾아졌다. 움의 크기는 235×78cm이다. 출토 유물은 움의 남쪽에 있는 꺼묻거리 공간에서 밀이 둥근 목 짧은 단지(2점)를 비롯하여 쇠투겁창, 쇠끌, 쇠도끼, 쇠못이 1점씩 발견되었다. 그리고 움의 가운데에서 쇠손칼이, 북

쪽에서 바리형 토기가 출토되었다.

10호 움무덤은 남서쪽 기슭의 해발 65.8m 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북서쪽에 9호 움무덤이 있고, 동쪽에는 조선시대의 움집이 분포하고 있다. 무덤방의 긴 방향은 북동-남서쪽으로 비교적 등고선과 나란하며, 크기는 길이 226cm, 너비 92cm, 깊이 12cm이다. 무덤방 안에는 흑갈색을 띠는 모래질 찰흙이 쌓여 있었다. 주검을 묻은 움의 크기는 225×51cm이다. 출토 유물은 움의 동쪽 모서리에서 밑이 둥근 단지 조각과 붉은 마노(瑪瑙)로 만들어진 구슬(1점)이 찾아졌다.

11호 움무덤은 해발 66.8m 되는 능선의 가운데에 자리한다. 서북쪽에 3호 독무덤이 있다. 표토 밑 40cm에서 조사된 무덤방의 크기는 길이 224cm, 너비 90cm, 깊이 25cm이고, 긴 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주검을 묻은 움의 크기는 192×68cm이고, 유물은 서북쪽 모서리에서 단지 밑부분이 발견되었다.

12호 움무덤은 구릉 꼭대기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내린 해발 68.3m 되는 능선에 위치한다. 북쪽에 조선시대의 움집이 자리하고 있다. 무덤방의 크기는 길이 200cm, 너비 70cm, 깊이 28cm이고, 긴 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출토 유물은 북서쪽 모서리에서 단지(1점)가 찾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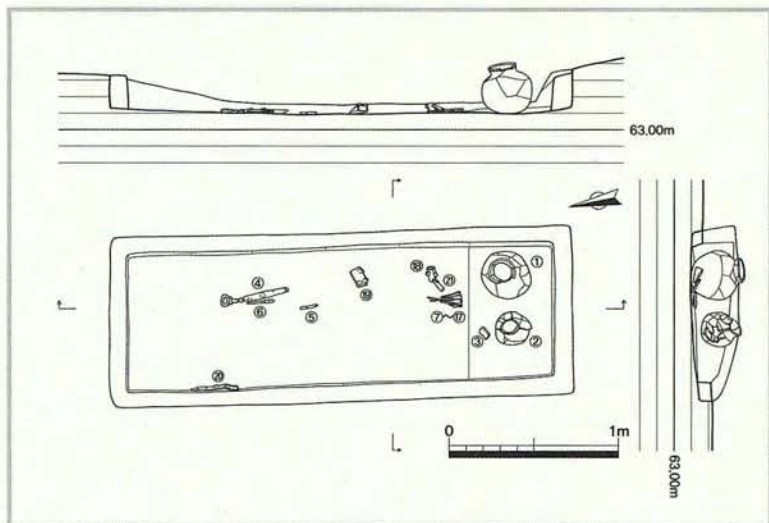
1호 독무덤은 남서쪽 기슭의 해발 72.0m 되는 곳에 위치하며, 그 남서쪽에는 1호 움무덤이 있다. 이 독무덤은 표토 밑 20cm에서 독의 윗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길이 80cm, 너비 40cm 되는 타원형의 무덤방을 파고 2점의 장란형 토기의 입술 부분을 붙여서 이용한 이음독무덤이다.

② II 지구

II 지구는 I 지구의 동쪽에 위치한 해발 67m의 낮은 구릉이다. 이곳에서는 움무덤 7기와 독무덤 1기, 청동기시대 집터 1기, 솟가마 등이 조사되었다.

1호 움무덤은 해발 63.6m 되는 북서쪽의 능선에 자리한다. 남쪽에 9호 움무덤이 있다. 무덤방은 등고선과 나란한 남북 방향이고, 갈색의 모래흙이 채워져 있었다. 무덤방은 길이 270cm, 너비 102cm, 깊이 27cm이며, 주검을 묻은 움은 250×80cm이다. 출토 유물은 남쪽의 벽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둥근 밑의 단지(2점), 솟돌(1점)이 찾아졌고, 무덤방의 북쪽에서 고리 큰 칼과 쇠끌, 서쪽에서 쇠투검장, 그리고 남쪽에서 철제 화살촉 11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이 무덤은 다양한 철기 유물의 발견과 함께 고리 큰 칼이 출토되어 특히 주목된다.

2호 움무덤은 남쪽 기슭의 해발 63.96m 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주변에 조선시대의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다. 무덤방의 크기는 길이 208cm, 너비 90cm, 깊이 16cm이고, 긴 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한 북서-남동쪽이다. 무덤방 안에는 흑갈색 모래흙이 채워져 있었다. 출토 유물은 서쪽 모서리에서 깨어진 잔이, 가운데에서 바리형 토기와 철기가 찾아졌다.



부곡동 택지개발지구 11지구 1호 옴무덤 실측도

(3) 산본동 고분군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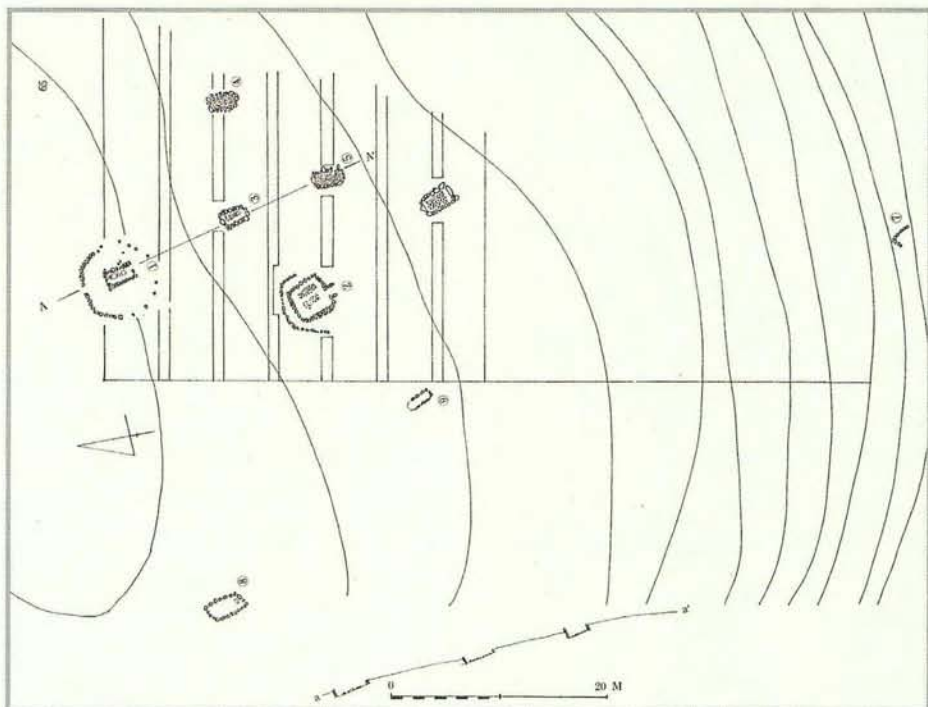
산본동 고분군은 산본동 산1-2번지, 수리산의 동쪽 기슭에 연결된 해발 65m의 구릉 위에 자리하고 있다. 1990년 명지대학교박물관에서 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 때 9기를 발굴하였는데, 그 축조 연대는 도장무늬 토기, 띠꾸미개 등 출토 유물을 보면 7세기 후반이나 8세기 초의 통일신라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 조사 결과, 긴 방향이 남북쪽인 구덩식 돌덧널무덤(8기)과 앞트기식 돌방무덤(1기)이 조사되었고, 돌방무덤의 널길은 남쪽 벽에 마련되어 있었다. 무덤의 봉토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없어져 무덤방의 위쪽이 드러나 있거나 덮개돌이 없어진 채 조사되었다. 특히 1~2호 무덤의 돌레들은 많이 파괴된 상태였다.

돌덧널무덤을 만든 방법은 먼저 긴 네모꼴의 움을 파고, 주로 막돌을 가지고 북쪽의 짧은 벽을 쌓은 다음, 동·서쪽에 긴 벽을 쌓았다. 짧은 벽은 눕혀서 쌓고, 긴 벽은 너비가 좁은 면을 안쪽으로 쌓았다. 무덤방의 바닥에는 주검받침을 마련한 경우(1·3호 무덤)와 바닥의 전면에 납작한 돌을 깔 것(4~5호 무덤)이 섞여 있다. 천장의 구조는 덮개돌이 찾아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나무를 가지고 덮었을 가능성이 많다.

돌방무덤의 네 벽은 돌을 길이 방향으로 눕혀서 쌓았는데, 위로 갈수록 조금씩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돌방의 바닥에는 동쪽 벽에 치우쳐 동·서로 주검받침이 2개 마련되어 있었다. 천장을 덮은 덮개돌은 없고 무덤의 위쪽은 후대에 파괴된 상태였다. 한편 돌방무덤은 널길과 주검받

21) 김기웅·엄익성, 1990, 「고분군 유적」, 『산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9~145쪽.



산본동 고분군 유구 배치도

침으로 볼 때 묻힌 사람의 머리 방향은 북쪽이고, 추가장은 없었던 것 같다.

이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은 토기와 청동으로 만든 띠꾸미개가 있다. 토기는 회청색 경질토기 병(2호 무덤)과 도장무늬 뚜껑합과 보시기(1호 무덤), 도장무늬 목 긴 병(3호 무덤)이 있다. 경질토기 병은 짧은 목에 입술이 바깥으로 바라졌고 바닥은 편평하다. 이런 토기가 몽촌토성의 1호 움무덤에서 찾아져 서로 비교되며, 백제 계통의 토기일 가능성도 있다. 도장무늬 토기는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산본동 고분군의 성격을 시사하고 있다. 청동제 띠꾸미개는 안압지에서 조사된 것과 비교된다.

3) 거석기념물

(1) 골안 고인돌²²⁾

골안 고인돌은 1990년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 당시 지번으로 산본2동 179번지 일원에 자리하였고, 당성사(堂成寺)로 들어가는 골안마을 입구의 논에서 2기의 고인돌이 조

22) 신천식·엄익성, 1990, 「지석묘 유적」, 『산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명지대학교박물관·호암미술관·경기도, 152~1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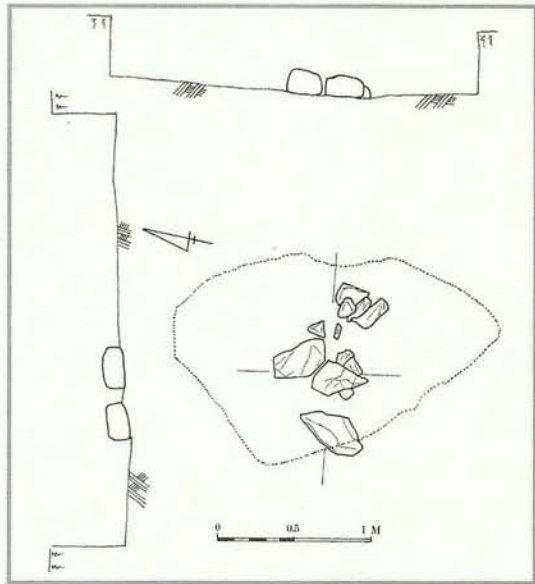
사되었다. 당시 그곳은 수리산 꼭대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능선 사이의 계곡 부분에 해당하고, 주변에는 산본천으로 유입하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1호 고인들은 해발 45m 되는 계단식 논에 위치하였는데, 뿔개돌과 같은 방향으로 작은 물줄기가 나란히 흐르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뿔개돌의 재질은 화강암이고, 크기는 205×140×50cm로 평면 생김새는 길쭉한 타원형이다. 가장자리에는 돌아가면서 다듬은 흔적이 뚜렷하며, 뿔개돌의 가운데 부분은 솟아올라 마치 거북등 모양이었다. 뿔개돌 아래의 가운데와 남쪽 부분에서 작은 막돌들이 조사되었지만 이미 무덤방은 파괴된 상태였다.

2호 고인들은 1호에서 남쪽으로 4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뿔개돌의 크기는 180×85×30~50cm이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평면 생김새는 일정한 꼴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고, 긴 방향은 동서쪽이다. 1호와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손질을 많이 하였다. 뿔개돌 아래의 무덤방은 빨과 모래가 섞여 있는 교란층으로 확인되었고, 이미 파괴된 상태였다. 개석식 고인들이 조사된 골안유적은 뿔개돌의 손질, 주변 지세와의 관계 등을 볼 때 다른 지역의 고인들과 비교된다.



골안 제호 고인돌 노출 상태



골안 제호 고인돌 하부 구조

(2) 광정 고인돌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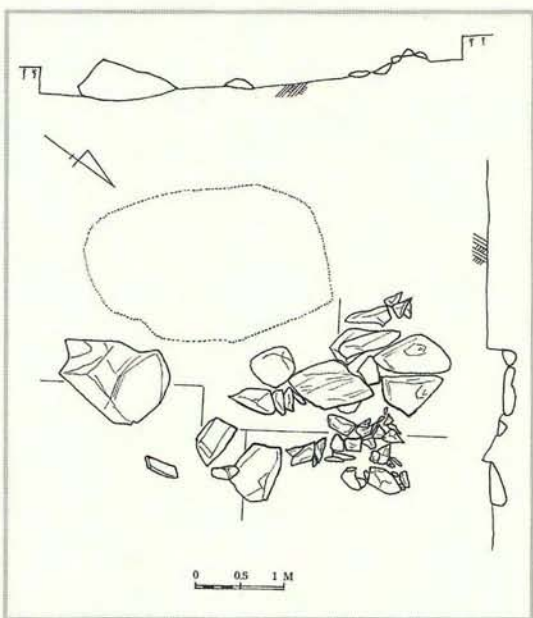
광정 고인들은 산본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위치는 당시 지번으로 산본2동 345번지였다. 이곳은 수리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큰 능선의 아래쪽으로 해발 75m 되는 지점이다. 고인들은 남북 방향으로 70m에 걸쳐 5기가 발굴되었다.

1호 고인들은 가장 서쪽에 자리하며, 이 유적에서 뿔개돌이 가장 크다. 뿔개돌의 재질은 화강암

23) 신천식·엄익성, 1990, 「지석묘 유적」, 『산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명지대학교박물관·호암미술관·경기도, 157~169쪽.



광정 제1호 고인돌 노출 상태



광정 제1호 고인돌 하부 구조

이고, 크기는 $265 \times 140 \times 50 \sim 55$ cm이다. 평면 생김새는 타원형이고, 긴 방향은 남북쪽이다. 덮개돌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손질한 흔적이 관찰되며, 가운데 부분은 불룩하게 솟아 있어 골안 1호 고인돌의 덮개돌과 비교된다. 덮개돌의 동북쪽에서 길이 $50 \sim 70$ cm, 너비 $40 \sim 50$ cm 크기의 막돌 5~6개가 'L'자 모양을 이룬 돌덧널이 찾아졌지만 대부분 파괴되었다. 무덤방 안에는 작은 돌들이 놓여 있었으며, 복원된 크기는 길이 200cm, 너비 80cm쯤 된다.

2호 고인돌은 1호에서 동북쪽으로 40m 떨어져 있다. 주변에 $100 \sim 200 \times 50 \sim 100$ cm 크기의 큰 돌이 5개 놓여 있으며, 남쪽에 있는 $196 \times 93 \times 37$ cm 크기의 돌이 고인돌 덮개돌로 해석된다. 덮개돌의 긴 방향은 동서쪽이고, 북쪽에서 1호 돌덧널, 남쪽에서 2호 돌덧널이 조사되었다. 1호 돌덧널은 가장 북쪽에 놓여 있던 130×90 cm 되는 큰 돌의 바로 옆에서 확인되었다. $40 \sim 50 \times 30 \sim 40$ cm 되는 돌을 이어지게 만들었는데 동남쪽은 파괴가 많이 되었다. 복원한 돌덧널의 크기

는 길이 100cm, 너비 70cm쯤 되었다. 2호 돌덧널은 덮개돌의 남쪽 부분에서 찾아졌다. 30×20 cm 크기의 막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복원된 크기는 길이 160cm, 너비 80cm쯤 된다. 조사 결과 2호 고인돌은 서로 달리하는 2기의 고인돌이 있었는데 후대에 파괴가 이루어져 조사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없다.

3호 고인돌은 2호에서 남쪽으로 3m 떨어져 있다. 크기가 210×150 cm, 150×90 cm 되는 큰 돌이 2개 놓여 있었다. 덮개돌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긴 방향은 남북쪽이지만 동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덮개돌의 동쪽 부분 100×70 cm 범위에 납작한 돌들이 놓여 있어 무덤방으로 여겨지지만 이미 파괴되었다.

4호 고인돌은 3호에서 5m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154×100 cm이지만 조사

전 이미 4개로 쪼개져 있었다. 덮개돌의 재질은 화강암이고, 남북 방향이지만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덮개돌 밑의 무덤방은 이미 파괴되었다.

5호 고인돌은 4호에서 동쪽으로 19m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덮개돌의 재질은 화강암이고, 크기는 166×145×20~25cm이다. 남쪽 부분은 둥글게 다듬었고 북쪽은 각이 지게 하여, 평면 생김새는 타원형이다. 덮개돌 아래에서 모래와 자갈이 섞인 층이 조사되어 무덤방은 파괴된 모습이였다.

(3) 문화촌 고인돌²⁴⁾

문화촌 고인돌도 골안 및 광정 고인돌과 함께 1990년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위치는 당시 지번으로 산본동 1-2번지였으며, 이곳은 수리산의 동쪽 기슭에서 흘러내린 능선이 다시 남쪽의 가지 능선을 이룬 해발 55m 되는 지점이다. 발굴 조사된 고인돌은 총 4기였다.



문화촌 고인돌군 발굴 전 전경

1호 고인돌은 구릉 기슭의 동남쪽에 자리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00×180×20cm이며, 재질은 편마암이다. 긴 방향은 북서쪽이며, 평면 생김새는 타원형이다. 가장자리는 손질하여 다듬은 흔적이 뚜렷이 관찰된다. 덮개돌 밑에 부식토층이 있었지만 무덤방은 조사 전에 파괴된 상태였다.

2호 고인돌은 1호에서 서쪽으로 7m 떨어져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290×263×64cm이며, 재질은 편마암이다. 긴 방향은 남북쪽이고, 덮개돌 아래에 40~60cm 크기의 납작한 돌들이 깔려 있었는데 파괴된 무덤방으로 여겨진다.

3호 고인돌은 2호 고인돌에서 북쪽으로 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210×150cm이고, 재질은 편마암이다.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손질한 흔적이 뚜렷이 관찰된다. 무덤방은 파괴된 상태였다.

4호 고인돌은 3호에서 1.5m 떨어져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210×130cm이고, 재질은 편마암이다. 덮개돌 밑에는 2호처럼 납작한 돌들이 부분적으로 깔려 있었지만 무덤방은 파괴되었다.

(4) 부곡동 고인돌²⁵⁾

부곡동 고인돌은 부곡동 464-1번지에 자리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역 조사

24) 신천식·임익성, 1990, 「지석묘 유적, 『산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명지대학교박물관·호암미술관·경기도, 169~175쪽.

25) 이용조, 1988, 「시흥 부곡리 지석묘 발굴조사 보고, 『판교~구리·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55~572쪽.

의 일환으로 1988년 발굴되었다. 호상편마암을 재질로 이용한 덮개돌은 크기가 210×130×45cm이다. 덮개돌의 윗면에 구멍이 1개 파여 있으며,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손질을 많이 하여 마치 거북등 모양을 하고 있다. 덮개돌 밑을 조사한 결과, 무덤방은 발견되지 않았고, 제자리에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600m쯤 떨어진 과수원에도 덮개돌의 크기가 230×105×50cm쯤 되는 개석식이 1기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진 상태다.

4) 종교문화유산

(1) 산본동 절터²⁶⁾

산본동 절터는 산본동 840-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이곳에는 1975년 창건된 상연사(祥然寺)가 있다. 절터에는 축대와 건물지가 남아 있다.

축대는 2단으로 축조되어 있어 2체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서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도 작은 규모의 축대가 무너진 상태로 있어 부속 건물이 있었던 것 같다. 축대시설 중 아래쪽에 있는 제1단 축대는 다듬어진 할석으로 13~15단 정도로 쌓여 있는데, 위아래의 석열이 서로 엇갈리도록 하였고, 아랫단에는 비교적 큰 돌을 놓았다. 남아 있는 축대의 동서 길이는 21.5m이고, 높이는 3.5m 정도이다. 위쪽의 제2단 축대는 제1단 축대로부터 북쪽으로 13.6m 거리에 쌓여 있고, 동서 길이가 15m, 남은 높이가 80cm 정도이다. 그리고 제1단 축대 위에는 건물지가 남아 있는데, 현재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건물지에는 초석으로 사용된 넓직한 돌이 2기 정도 남아 있고, 기와와 백자조각 등의 유물이 지표면에 드러나 있다. 남아 있는 초석의 크기는 길이 110cm, 너비 78cm, 두께 30cm이다. 이곳에서 북서쪽에 남아 있는 다른 건물지는 위치로 보아 산신각이나 칠성각 등의 1칸짜리 건물이 2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수습한 유물은 주로 기와류로, 어골복합문과 복합문이 시문된 암키와류가 많고, 무늬가 없는 민무늬가 있으며, 자기류는 백자만 수습되었다.

산본동 절터는 수습된 유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경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하는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력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면 절터의 규모와 창건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6) 세종대학교박물관·군포시, 2004,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84~286쪽.

(2) 속달동 출토 금동보살입상²⁷⁾

속달동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수리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197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신고(국립중앙박물관 신02389) 처리되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고 금동 도금도 거의 다 벗겨져 청동제처럼 보인다. 높이 9.3cm이며, 이중연화좌대 위에 직립한 형태이다. 불신에 비하여 머리가 다소 크게 표현되었는데,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다. 오른손은 위로 들고, 왼손은 아래로 향한 모습이다. 대좌는 양련(仰蓮)과 복련(覆蓮)을 갖춘 형태의 연화좌(蓮花座)이며, 뒷면에 광배(光背)를 달기 위한 꼭지가 돌출되어 있다.

(3) 삼성사

삼성사(三星祠)는 1882년 신안 주씨(新安 朱氏) 문중의 주정홍(朱珽弘)이 문중과 사림의 도움으로 사우(祠宇)를 창건하고, 임헌회(任憲晦, 1811~1876)가 소장하고 있던 주자(朱子)의 진영(眞影)을 이곳에 안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자의 진영을 봉안하였기에 달리 주자영당(朱子影堂)이라고도 불린다. 주자 진영을 옮겨 온 이듬해에 주정홍이 죽자 사우는 30여 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1912년에 이종만



택지개발 전 삼성사 전경

(李鍾晩)이 중수하였다. 일제시기에는 이종만과 문중의 주낙흥(朱洛興) 등이 협력하고 지방 유림들의 협조로 이 사당을 유지하였으나, 한국전쟁의 와중에 사우가 붕괴되고 주자의 영정도 소실되었다. 그러나 문중과 사림의 도움으로 다음해에 사우를 완공하고, 주자의 진영을 모사하여 봉안하였다. 그 뒤 몇 차례 중수와 보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²⁸⁾

삼성사는 부곡동 148-2번지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당동2지구택지개발로 임시 이전한 상태이다. 이전하기 전 삼성사는 사당과 재실인 모현재(慕賢齋)로 구성되었다. 사당은 콘크리트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전면은 뒷간이었다. 지붕은 방풍판을 부설한 맞배지붕이었다. 사당에는 삼성사(三星祠)라는 현판을 걸고 내부에 주자의 진영을 봉안하였다. 재실에는 제기와 제복 등을 보관하였다. 그리고 재실 좌측 마당에는 1995년에 세운 「주문공삼성사중건기념비(朱文公三星祠重建

27) 세종대학교박물관·군포시, 2004,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522쪽.

28) 금오문화연구소, 2004, 『군포 주자영당 삼성사의 역사와 제향』, 군포시·군포문화원 참조.



삼성사 이전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2007.6.5.)

紀念碑)가 서 있었다.

삼성사에서는 매년 음력 3월 9일에 춘향(春享), 음력 9월 15일에 추향(秋享)을 지낸다. 이때에는 군포시를 비롯하여 인근 지역의 신안 주씨와 유림들이 모여 제향을 올린다. 이는 삼성사봉찬회에 의해서 진행되며, 이때에는 신안 주씨 문중의 주영호 씨 댁에서 제물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여 백

제8장 전통건축유산의 현황과 특징

김지석 | 안양시 향토사료실 전문위원

김명원 | 문화재수리기술자

1. 전통건축물 분포와 조사 현황

전통건축이라 함은 이 땅의 조상들이 대대로 짓고 살아온 건축물을 말한다. 그 범주에는 '한옥(韓屋)'이라 불리는 살림집이 대표적이며, 궁궐건축, 관아건축, 종교건축 등도 포함된다. 군포시에도 이러한 전통건축물들이 있다. 경기도 소재 전통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1999년 자료에 의하면,¹⁾ 당시 군포시에는 1945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194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동별로 보면, 당동 32개소, 당정동 18개소, 부곡동 45개소, 산본동 6개소, 금정동 9개소, 둔대동 5개소, 속달동 28개소, 대야미동 27개소, 도마교동 24개소였다. 그러나 이들 중 둔대동과 속달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던 건축물은 택지 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대부분이 사라졌거나 폐가로 버려진 상태이다.

한편, 1999년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문화재단이 2003년에 펴낸 『경기도 건축문화유산』에는 군포시의 전통가옥 8개소가 조사 보고되었다. 또한 문화재청의 『2008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에도 건축물 8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가 실렸는데,²⁾ 그 수록 내용은 2003년 보고서

1) 경기문화재단, 1999, 『1945년 이전 일반 건축물』. 이 자료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을 파악한 결과이며, 1999년 7월 27일자로 작성되었다. 파악된 건축물 중 10% 정도는 심화조사를 거쳐 『경기도 건축문화유산』(경기문화재단, 2003) 전 5책으로 발간되었다.

에 비해서 매우 소략한 편이다. 조사된 건축물 중 2개소는 두 보고서에 모두 실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둔대동 소재 전통건축물이 주로 조사되었다.³⁾ 건축적 현황 조사, 특히 가옥 조사는 그 특성상 거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정리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거주자가 있는 집들과 조사가 가능했던 집들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도마교동의 경우에는 둔대동보다 건축연대가 오래된 가옥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임대주택단지 개발로 주민들이 이미 소개된 상황이어서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과 박문의 가옥, 이민희 가옥은 건축적으로 의미가 크지만, 기존 조사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기존 조사가옥 중 재조사한 경우에는 관련 도면과 사진을 좀 더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일부 가옥의 경우에는 가옥 내의 생활상 및 공간 이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표 1〉 전통건축물 조사 현황

번호	명칭	소재지	건축시기	경기문화재단		문화재청		2009년 조사	
				실측도면	사진	실측도면	사진	실측도면	사진
1	김재진 가옥	당정동 724	사랑채 1947년	X	○				
2	심건보 가옥	둔대동 192-2	안채 1937년			X	○	○	○
3	심규일 가옥	둔대동 194-1	1967년					○	○
4	심돈섭 가옥	둔대동 194-3	미상(1900년대 추정)	○	○	○	○		
5	심완섭 가옥	둔대동 195	안채 1958년					X	○
6	심재현 가옥	둔대동 194-4	사랑채 1930년대 중반 추정, 안채 1950년대 중반 추정			X	○	○	○
7	심태섭 가옥	둔대동 193	미상(1960년대 추정)			X	○		
8	심재범 가옥	둔대동 145-3	사랑채 1974년			X	○	○	○
9	심평섭 가옥	둔대동 144	안채 1937년, 사랑채 1971년	X	○	X	○		
10	김용철 가옥	둔대동 48-3	안채 1957년					○	○
11	박문의 가옥	둔대동 433	안채 1929년	○	○				
12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	속달동 24-4	안채 1820년대, 큰사랑채 1876년	○	○				
13	이민희 가옥	속달동 237-1	안채 1908년	○	○				
14	김홍선 가옥	속달동 32	미상					X	○
15	납다골 박씨 가옥	속달동	미상	○	○				
16	정인숙 가옥	도마교동	1940년	X	○				
17	죽암정미소 (대감정미소)	둔대동 215	1960년대			X	○	○	○
18	둔대교회	둔대동 434	1930년대 중반 중창			○	○	○	○

2) 문화재청, 2008, 『2008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II 경기도』, 93~105쪽.

3) 이번 조사의 시점은 2009년 8~9월이며, 필자들은 문화재청의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2008년도 도마교동과 속달동 일대를 조사한 바 있다.

2. 조사마을에 대한 이해



집과 집을 잇는 마을 안길



죽암마을 입구의 간이 농산물구판장

주거(住居)란 사람이 한곳에 머물러 사는 일을 말하고, 주거문화란 사람이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살림을 꾸리고 삶을 영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에는 주변 환경에 따른 지형과의 배치, 공간의 짜임, 구조 등의 특징이 나타나며, 생활에서는 공간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주자의 생활양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개인이나 집단을 둘러싼 사회와 경제, 자연적 환경에 따라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는 특징이 있다.

대야동 일대, 특히 이번 조사마을에 속한 속달동과 둔대동은 기존 도시권 및 산본 신도시권의 도시화된 환경과 달리 전통 마을의 취락 구조와 경관이 잘 남아 있는 곳이다. 마을들은 수리산 자락

을 등지고 앉아 하천과 들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천은 마을을 감싸 흐르고 길은 산허리를 돌아 지나면서 마을과 마을, 집과 집을 이어 준다. 또한 길과 길이 만나는 곳은 교통과 물자의 교류, 크고 작은 마을의 정보교환과 휴계의 공간으로 쓰이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동구(洞口)길은 마을로 들어와 안길이 되고 집 앞에 멈추어 바깥마당과 만나지만, 담장을 감싸고 골목길이 되어 빠져나가며 또 다른 안길과 이어진다. 길은 길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 바깥마당은 안길과 집의 점이(漸移)공간으로, 생활공간의 영역이 된다. 따라서 바깥마당은 대문을 넘어 안마당으로 이어져 안채와 사랑채를 만들고, 안채를 끼고 돌아 뒷마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바깥마당은 생업의 규모와 비례하고 안마당은 살림의 규모와 비례한다.

이번 조사는 둔대동의 죽암(대감)·복개·안골·둔터 등 네 마을과 속달동 속달에 위치한 가옥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반월저수지 옆에 위치하여 음식점이 다수 자리 잡은 둔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을들은 근교농업에 기반을 둔 농촌의 주거 형태와 생활이 유지되는 곳들이다. 특히

주생활에 농촌 사회의 생활상과 흔적이 잔존하며, 집성촌의 규범과 질서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사마을 중에서 죽암마을은 청송 심씨의 집성촌이다. 서울지하철 4호선의 연장인 전철 안산선 대야미역에서 둔대초등학교 앞을 지나 반월저수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보이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수리산 남쪽의 산기슭을 따라 가옥 30여 채가 웅기종기 모여 형성되었고, 마을에



전통건축물 조사마을 위치

서는 그 산을 뒷산이라고 부른다. 마을 동쪽으로 대야미동이, 북쪽으로 속달동이 있으며, 북쪽으로 600m 정도 거리에 갈치저수지가 있다. 가옥들은 산을 등지고 농경지를 바라보며, 마을 앞을 흐르는 죽암천은 반월저수지로 흘러 들어간다. 복개는 죽암마을 입구에서 서쪽으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안골은 죽암이나 복개와 산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마을로, 주로 광산 김씨가 살고 있다. 안골교 옆 마을 입구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면 나타난다. 세 마을은 낮은 산등성을 따라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둔터는 반월저수지 옆에 위치한 마을로, 저수지에 수몰된 가옥들 일부가 이전하면서 현재와 같은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곳에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다. 속달동의 속달은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 동래군파 묘역이 위치한 곳이다.

이들 마을에서 조사된 전통건축물 현황을 기술하기에 앞서,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통가옥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그곳에서의 살림살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전통적인 개념에서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남녀 역할로 파악하면, 여성이 주관하는 살림을 안살림이라고 하고, 남성이 주관하는 살림을 바깥살림이라 한다. 이 둘을 합쳐서 안팎살림이라고 부른다. 안살림은 공간적으로 안채를 중심으로 안방과 부엌, 장독과 우물 등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반면 바깥살림은 사랑채와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사랑채는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의 기능과 더불어 생업에 따른 수확과 저장, 손님 접대와 휴게의 기능을 가진 남성 전용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가옥 내의 주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역시 안살림인데, 둔대동 죽암마을에 거주하는 70~80대 연령층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통민가의 안살림살이와 여성

4) 이 글에 사용된 모든 위성지도의 출처는 다음 위성지도(<http://local.daum.net/map/index.jsp>)이다.



김흥선 가옥의 돌절구와 공이

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⁵⁾

여성들의 안살림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 길기와 빨래이다. 군포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100%에 이르는 오늘날에야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가옥이 없지만, 예전에는 집 안에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보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을에 한두 개 있는 공동 우물이 유일한 상수원이었다. 죽암마을의 공동 우물은 두 곳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이곳 청송 심씨 문중의 종가인 심규일 씨 댁 앞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마을 위쪽에 있었다. 공동 우물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는 아낙들의 대화로 소란스러웠다. 가을이면 우물가에서 김장을 하는 일도 잦았다. 빨래는 마을 앞 '깡구장'(하천 또는 도랑)을 이용하였는데, 죽암마을이 청송 심씨 집성촌이었기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심씨 문

중의 며느리들이었다. 그래서 빨래터는 집안 제사와 살림살이, 세간 형편까지 아낙들의 속내와 일상의 이야기가 오가는 장소였고, 그들의 쉼터이기도 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대부분 보릿고개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70~80대 연령층인 제보자들은 젊어서는 물론이고, 1970대 초반까지도 식량 사정이 어려워 춘궁기에는 다 영글지도 않은 퍼런 보리로 '곰쌀미(곰삶이, 콩보리밥)'를 많이 해 먹었다고 한다. 보리는 대개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수확하지만, 알곡이 생기는 시기는 5월 상순과 중순 사이여서 이때부터 햇보리로 밥을 지어 먹었다. 그러나 보리를 베어도 알곡이 여물지 않아 껍질을 벗겨내는 절구질을 할 수 없으므로 큰 가마솥에 물을 붓고 알곡을 삶아 말려서 꼬들꼬들해지면 절구에 찼어 껍질을 벗겨 내고 밥을 지어 먹었다. 그리고 그냥 먹는 보리밥은 끈기가 없으므로 보리밥에 감자를 으깨어 섞어 찰지게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리를 베어 밥을 해 먹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또한 보리 속겨로 개떡과 수제비도 많이 만들어 먹었다. 보리개떡은 겉겨가 벗겨진 다음에 나

5) 안살림살이에 대해서는 홍정표(여, 89세), 이태숙(여, 78세), 김영순(여, 77세), 장춘지(여, 70세) 등의 주민들이 제보해 주었다. 제보자들은 20대 초반에 죽암마을로 시집와서 50여 년 이상을 살아 왔다.

오는 희고 고운 겨를 모아 떡을 만든 것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애물(보리 껍데기)을 절구에 찧고 다시 키로 겨를 까불러서 속겨를 모으는데, 속겨가 모이면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과 소다를 섞어 떡을 만들어 먹었다. 수제비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그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는 일은 고된 삶의 여정이었으며, 여성들에게 풋보리를 찧는 절구질은 몹시 힘든 노동이었다. 보리를 찧는 도구인 절구와 절굿공이의 크기는 사용자의 키와 비례하는데, 절구통은 보통 여자 키의 절반보다 약간 작았다. 절구질할 때에는 공이의 가운데 오목한 부분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작업하는데, 양손을 번갈아서 허리가 휘도록 움직이며 찧어야 했다. 같은 절구질인데도 벼를 찧을 때는 흰 쌀밥을 먹는다는 기대에 웃음이 나왔다고 한다. 오죽하면 “풋보리는 원수방아…… 벼를 찧으면 웃음방아”라는 전래 민요의 구절이 생겨났을까.

먹을거리 가운데 육류와 생선은 귀한 음식이었으나 혼례·회갑·제사 등의 의례나 동네잔치, 그리고 산제사 같은 마을공동체의 신앙이 행해질 때에는 어려운 살림에도 상에 올라왔다. 그래도 소고기는 귀한 음식으로 삶은 국수에 가늘게 찢어 넣어서 먹는 정도였다. 남의 집에 잔치가 있으면 빈손으로 갈 수 없으므로 선물을 준비하여 갔는데, 주로 국수 한 판, 술 한 동이, 감주 한 병, 계란 한 줄 등을 가져가 축하 인사를 하였다. 생선은 사리 포구(현 안산시) 등에 가서 사다 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마을에 들어와서 판매하는 장사꾼을 통해서 구입했다. 그런 장사꾼들은 동태와 고등어는 물론이고, 마른 생선과 조개젓 등 젓갈류를 지게에 싣고 왔는데, 현금으로 사기도 하지만 보리쌀과 바꾸는 현물 교환을 많이 하였다. 생선은 보리쌀 한 되에 두 마리쯤 되었다고 하는데, 보리쌀 한 말이 남의 집 일을 해 주고 받는 이틀치 품삯이고, 쌀 한 말이 사흘치 품삯이었다고 하니 생선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여성들의 안살림 중에서 중요한 일의 하나는 옷 만들기와 손질이었다. 요즘처럼 공산품을 사서 입는 것은 1960년 후반에 들어서야 차츰 보편화되기 시작했으니 그 이전까지는 추수가 끝난 늦가을이면 옷 만들기와 손질이 여성들의 주요 일과였다. 손과 바느질이 야무진 사람은 보통 하루에 성인 옷 한 벌을 만들고 손놀림이 늦은 사람도 하루 반나절이면 만들었다고 한다. 어린아이 옷은 시간이 덜 걸려서 반나절이면 만들었다고 한다. 두툼한 겨울옷은 옷감 사이에 솜을 넣고 안감에 솜이 뭉치지 않게 시침을 하여 꿰매어 만들었다.

옷 만들기와 손질은 주로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누이 등이 모여서 했다. 옷감은 주로 광목이었고, 옥양목·모시·명주는 고급 옷감이었다. 대개 광목으로 만드는 일상복은 잘 손질하지 않지만, 좋은 옷감을 사용하여 만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의 외출복은 단정하게 다듬어서 보관하였다. 특히 정월 명절이나 잔치를 앞두고 의복 손질을 많이 했다. 의복은 풀을 매겨 다듬이질을 하거나 흥두께에 말아 두들겨 곱게 폈다.

풀을 먹일 때에도 옷감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랐는데, 광목에는 밀가루 풀을, 고급 천에

는 쌀가루 풀을 사용하였다. 쌀풀은 한나절 물에 담가 잘 불린 쌀로 쑀었다. 불린 쌀을 건져서 물기를 뺀 후 절구에 뺨아 가루를 곱게 만들어 솥에 물과 함께 넣어서 약한 불로 천천히 쑀었다. 물과 쌀의 비율은 약 10 대 1의 비율이 적당했는데, 사람이 계속 주걱으로 저어 가며 타거나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색상이 맑고 투명한 좋은 풀을 쓸 수 있었다. 풀을 먹인 옷감이 꾸덕꾸덕하게 마르면 방짓돌(다듬잇돌)에 두들겨 애무리(애벌 다듬기)를 하고 말린 후에 다시 두 번 다듬질을 하였다. 두 번째 다듬질은 흥두께에 말아서 두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옷감이 곱게 윤이 나면서 반질반질하고 더디 더러워져 옷맵시가 더욱 좋았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버선을 만들어 신었으므로 가정마다 버선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물론 나일론 양말도 있었으나 여성들은 외출 시 치마저고리에 버선을 신었다. 버선본은 식구들 발 길이와 모양이 제각기 다르므로 신문지나 갱지, 창호지 등에 연필로 선을 그어 본을 만들고 이름을 써넣어 보관하였다. 버선본은 천으로 만든 버선본 주머니나 사각 보자기, 종이상자 등에 넣어서 보관하였다. 버선 만드는 시간은 보통 한 켄레에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좌우 구별은 발이 들어가는 버선목의 바느질 눈이 우측이면 오른쪽, 좌측이면 왼쪽으로 구분하였다. 대개 버선 한 짝을 만들면 2년 정도를 신었다고 한다.

침구(寢具)인 이불과 요, 베게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 더운 여름철 침구는 돛자리에 모시나 흠이불 요를 펴고 소나무 목침으로 잠을 청하기 때문에 간단한 편이다. 그러나 겨울철 침구는 두터운 솥을 넣어서 만들었다. 요와 이불은 대개 한 채로 장만했는데, 누에 명주실을 불러 만드는 명주솥은 부잣집에서 사용하였고, 보통은 목화솥에 무명천으로 요와 이불을 만들었다고 한다.

요와 이불에 들어간 솥은 습기를 잘 빨아들여 쉽게 색상이 변하거나 무거워지기 때문에 햇볕에 말렸다. 그래도 오래되면 눌러서 딱딱해지므로 몇 년 간격으로 뭉친 솥을 꺼내어 틀었다. 그 시절에는 어느 시장통에 가더라도 솥틀집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제보자들이 시집와서는 반월장에 있던 솥틀집을 주로 이용했다. 솥틀질에 솥을 가져가면 두꺼운 솥은 나누고 뭉친 솥은 손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폈다. 먼지 같은 잔솥은 날려 가며 솥을 틀었다. 솥이 잘 부풀어 오르고 보송보송한 상태가 되면 집으로 가져와 솥을 싸 주는 속싸개천으로 솥을 감싸서 바느질했다. 바느질은 굵은 바늘로 등섬등성하게 가로와 세로로 누비질을 하는데, 솥이 골고루 퍼진 상태에서 솥과 솥이 분리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흘청을 꿰맬 때는 전체적인 형태가 반듯해야 하므로 넓게 펼쳐 사방 귀퉁이를 먼저 꿰맬 후에 나머지 바느질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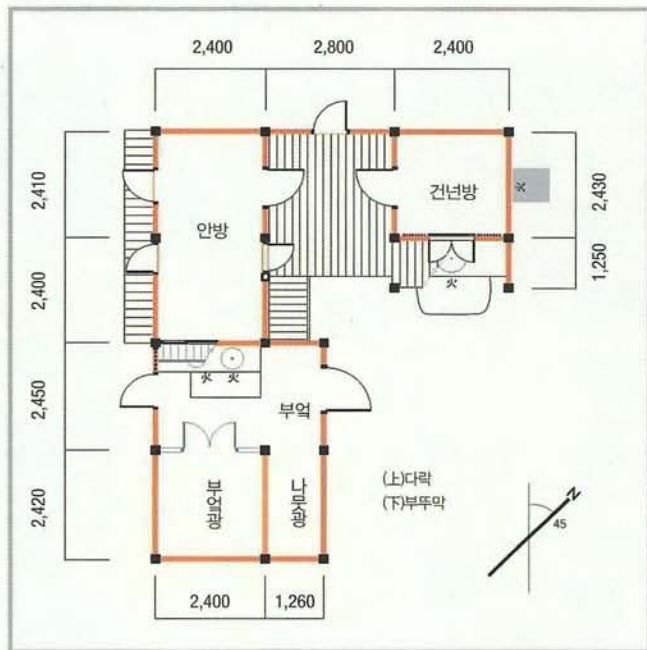
3. 조사가옥의 현황

1) 죽암마을 심건보 가옥

• 소재지 : 둔대동 192-2

심건보 가옥은 시멘트 블록과 양철판, 그리고 시멘트 펜스 블록으로 담장을 둘렀고, 대문은 철대문이다. 높직한 막돌허튼층 쌓기로 석축을 한 후 터를 닦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가옥의 형태는 ‘튼ㄱ’ 자형인데, ‘ㄱ’ 자형 안채와 정면 2칸 크기인 ‘|’ 자 형태의 별채로 이루어진다. 별채는 외양간채이다. 문간채는 애초부터 없었다. 안채는 1937년 건립되었는데, 안채의 안쪽 중도리에 “龍昭和十二年丁丑二月初五日癸卯巳時立柱上樑乾坐家主乙巳生鳳”이라고 쓰인 상량(上樑) 목서(墨書)가 있어 건립시기를 알려 준다. 상량문에는 ‘좌(坐)’에 대한 기록만 보이고 ‘향(向)’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실제 안채의 좌향은 건좌손향(乾坐巽向)이며, 남동향으로 틀어 앉았다.

안채는 앞쪽으로 곱은자형 뒷간을 두고 있다. 안방은 2칸으로 부엌 뒷문 쪽에 머리쪽마루를 두었다. 평(平)4량 구조인 안채의 간살은 안방과 건넌방이 8자, 마루가 9자 4치로 마루가 방보다 조금 넓다. 장마루 뒷벽 쪽으로 상부 옷다락을 두어 제기(祭器)를 보관하고 있다. 중앙의 1칸 마루는 뒷기둥(退柱) 못미처 끝나고 있어 얼핏 보아도 속 들어간 느낌인데, 원래 처마가 짧은 초가였기에 마루에 걸터앉았을 때 비가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런 마루의 구성은 주변 도시의 민가에서도 간혹 보인다. 건넌방 앞의 반 칸 뒷마루는 원래 대청마루보다 자반(尺半) 정도가 높고, 그 밑에 쇠죽을 꿰이는 부뚜막 아궁이가 있다. 부엌은 흙바닥으로 된



심건보 가옥의 안채 평면도⁶⁾

6) 이 글에 제시된 가옥 평면도의 모든 단위는 'mm'이다.



가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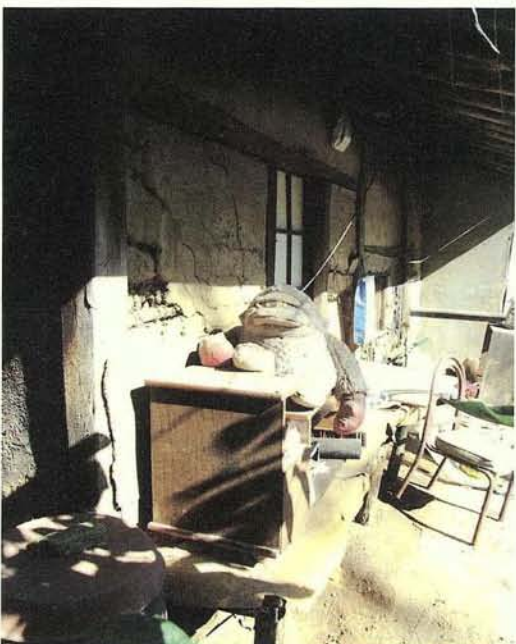
안채 전경



마루와 바라지창



부엌 내부



안방의 머리뿔마루



안채의 굴뚝



건년방의 뒷마루



올처마

삼진보 가옥 각 부 모습

옛 부뚜막 그대로이고, 내부에는 한 칸 부엌광과 반 칸 나뭇광이 있었으나 현재는 방으로 개조되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원래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 외벌대 뜨럭⁷⁾은 현재 시멘트로 감싸져 있다.

2) 죽암마을 심규일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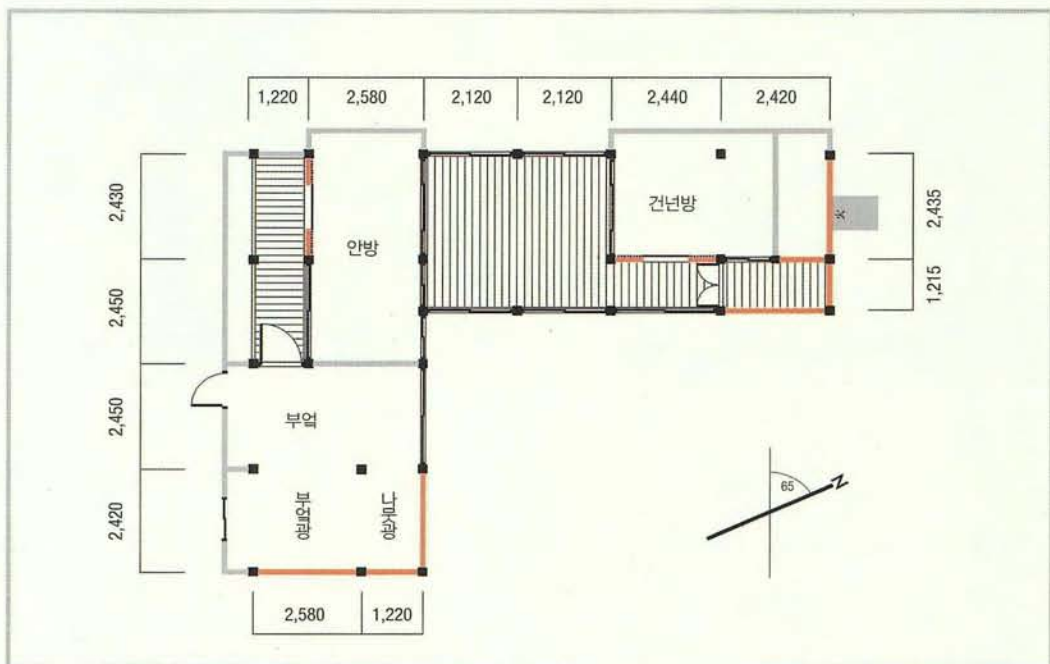
- 소재지 : 둔대동 194-1

심규일 가옥은 죽암마을의 동녘길에 위치하며, 심규일(남, 81세) 씨는 이곳 청송 심씨 문중의 종손이다. 이 가옥에서 바깥마당을 지나 마을길인 대감로를 따라 내려가면 남북 방향으로 속달동과 연결되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있고, 마을 초입에 자리한 마을회관 겸 경로당 동남쪽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난다. 마을에서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안산선 대야미역까지 약 15분 거리이다. 마을회관 앞에는 버스가 정차한다.

심규일 가옥은 너른 바깥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안마당을 끼고 정면에 안채가 있다. 안채의 우측으로 돌아 뒷마당과 연결되는 공간에 장독대가 있고 넓은 뒷마당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뒷마당에는 원래 사당이 있었으나 1967년 새로 집을 지을 때 헐린 후로는 사랑채 날개의 끝방을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 옆 마당에는 참죽나무와 능소화, 백일홍, 호두나무가 있고 맨드라미 등 화초류가 자라고 있다. 뒷마당에는 대추나무 두 그루와 잣나무 다섯 그루를 비롯해서 뽕나무, 감나무, 앵두나무 등이 있다.

이 가옥은 ‘튼□’ 자에 동향의 신좌을향(辛坐乙向)이다. 대지 418평에 건평이 50평으로, 안채는

7) 뜨럭이란 집을 지을 때 집이 들어설 만큼의 면적을 마당보다 높이 만드는데, 그중 집 주위를 빙 둘러 있는 지붕처마 밑의 명바닥 부분을 말한다. 돌을 한 커로 쌓아 만들면 ‘외벌대’, 두 커로 높게 쌓아 만들면 ‘두벌대’라고 부르고, 높아지게 되면 계단을 놓아 편의를 도모하는데, 일본식 용어로는 기단(基壇)이다.



심규일 가옥 안채 평면도

1고주(高柱) 5량(梁), 사랑채는 평4량 기와집이다. 본래 있던 가옥을 1967년에 헐고 개축하였는데, 안채는 기본보다 안마당 쪽으로 조금 더 나오고 건넌방을 2칸으로 증축하였다. 행랑채는 추가였던 것을 7년 전에 블록조 건물로 바꾸면서 기와로 지붕을 덮었다. 집을 보수할 때 대청에 분합문과 기단, 아궁이와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과 마루의 바닥도 교체하였다.

1967년도의 집 짓는 일은 부친이 주관하셨으나 심규일 씨도 관여하였다. 그전에 살던 집은 400여 년 된 고가였으나 너무 낡아 쓰러질 정도가 되어 집을 허물고 다시 짓게 된 것이라 한다. 그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 대목은 이씨 성을 가진 이로, 사찰을 지을 정도로 인근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당시 건축비는 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자재비를 다 합칠 경우 그 시절 양옥집 가격 이상 들어갔다고 한다. 건축비는 모아 둔 돈과 땅을 팔아 충당했다.

서까래는 앞산과 뒷산에서 베어 왔고, 보와 도리의 재목은 당시 반월면 팔곡리(현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의 민도사 집에서 한 아름 반(半) 정도가 되는 굵고 늘씬한 소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소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와 켜서 사용했다고 한다. 그 밖의 부재는 옛집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일부 목재는 수원에서 사 오기도 했다. 주춧돌자리는 초석 두께의 네 배 정도인 삼한 자루 길이로 파고 모래와 양회, 물을 섞어 정초(定礎)하였다. 구들돌은 뒷산에서 캐 왔는데, 그 크기는 2자 정도였고 지게에 싣고 짊어지고 올 만큼의 무게였다.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농사지으면서 틈틈이 구들장 운반을 도왔다. 기둥과 보를 올리고 상량고사를 지냈는데,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당숙이 상

량문을 썼다. 상량하는 날에는 마을의 대소가가 모여 함께 점심을 나누어 먹었다.

가옥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안채는 1고주 5량의 소로수장(小櫨修粧)을 한 겹처마 기와 집이며, 안방을 왼쪽 끝에 두고 몸통과 날개를 달아낸 ‘ㄱ’자 형태의 평면을 취한다. 이렇게 꺾인 평면을 갖춘 집을 ‘곱은자집’, ‘고패집’ 또는 ‘꺾음집’이라고도 말한다. 몸통의 정면은 5칸 반, 측면은 1칸 반이다. 안채에서 기둥과 기둥의 거리인 간살은 7자와 8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안방을 8자 6치로 키웠다. 기둥의 길이는 2,660mm, 굵기는 145×145mm이다. 보의 굵기는 270×250mm, 도리의 굵기는 135×180mm이며, 서까래의 내밀기와 굵기는 550ø55, 부연의 내밀기와 굵기는 330ø55이다. 주초와 뜨력은 원래 산석을 썼을 것으로 추정되나, 두벌대 높이의 뜨력을 구성하는 댓돌은 현재 붉은 벽돌 4단으로 바뀌어 있다.

안방은 2칸 크기이다. 그 바깥쪽으로 반 칸 ‘머리뫼마루’ (방의 곁에 만든 뫼마루)가 있는데, 뫼마루에 부엌과 소통할 수 있는 출입문을 내었다. 장마루를 간 3칸 규모의 대청은 정면 2칸, 측면 1칸 반이다. 대청 오른쪽에는 전퇴를 갖춘 2칸 규모의 건넌방을 두었다. 부엌은 정면 2칸에 측면 1칸 반으로 3칸 크기이다. 안기둥을 안방의 기둥 열(列)에 일치시키지 않았는데, 안방은 바깥쪽으로 뫼마루를 두어 몸통의 주심도리와 날개의 주심도리가 만나는 ‘회첨(會檐, 처마와 처마가 90도로 만나는 구석진 곳) 부분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고, 부엌은 나뭇광과 부엌광의 위치를 고수하려는 입장이 서로 존중되었기 때문이다. 부엌 뒤편에는 우물이 있다. 사랑채는 평면이 ‘ㄱ’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 지붕부만 전통건축의 형식을 빌리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대화되어 있다.

현재 안채에는 심규일 씨의 아들 내외가 거주하고, 사랑채에는 심규일 씨 부부와 손자가 거주한다. 심규일 씨의 부인 김경희(여, 80세) 씨는 안산 상록수에서 자랐으며, 집안 어른의 증매로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왔다고 한다. 이때가 25세로, 시댁에는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열 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다. 방의 공간 이용의 경우, 안방을 시부모님과 시누이 네 명이 함께 쓰고, 건넌방을 심규일 씨 부부가, 사랑채를 시동생 네 명이 이용하였다. 안방물림은 3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루어졌다. 지금처럼 사랑채로 옮긴 것은 7~8년이 되었다. 사랑채로 옮길 때 집안 살림은 아들 부부가 하계끔 하였으나 재산은 아직 넘겨 주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가족의 수가 적으나 김경희 씨가 시집을 때만 해도 열 명이 사는 대가족이었다. 식구가 많았으므로 집안일도 적지 않았다. 특히 빨래가 큰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집에 공동우물로 쓰는 우물이 있었으나 물이 거칠어 주로 개울가에 나가 빨래를 했다. 빨래를 한 번 하면 보통 큰 소쿠리 분량이 되었는데, 한겨울 빨래는 손이 부을 정도로 무척 힘들었다. 옷감은 주로 옥양목과 광목이었다. 빨래가 끝나면 말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풀을 매겨 다듬이질을 하고 바느질을 했다. 이 일이 끝나면 새벽 두 시쯤 되었다. 다듬이질은 시어머니와 주로 했고, 때로는 시누이와 함께 했다. 시어머니의 다듬이질은 ‘타각타각’ 하는 다듬이질 소리도 좋았지만 옷감을 곱게 잘 두드리셨다고 한다.



삼규일 가옥 입구 전경



안채 전경



사랑채 전경



대청에서 본 안방



안채의 대들보



안채의 교주 5량 가구



안채의 회침부



안채의 소로수장



안방의 머리뿔마루



안채의 엇선자와 겹치마

심규일 가옥 각 부 모습

〈표 2〉 심규일 가옥의 공간별 세간 구성

구분	위치	명칭
안마당 - 붉은색 및 회색 시멘트 벽돌	동향	사랑채 돛통, 신발장, 우산 및 지팡이류
	서향	안채, 자전거(2)
	남향	안채 부엌, 수도 시설, 물뿌리개, 고무호스, 향아리(5), 가스통, 마늘 포대(3)
	북향	신발장, 사랑채 날개, 빨래 건조대(2), 평상, 자전거
안방 - 노란색 비닐장판, 흰색 벽지, 형광등	동향	다락
	서향	TV, 문갑, 가족사진
	남향	문갑, 전화기, 처마 밑 간이 실내공간(문갑, 전자레인지, 청소기, 전기밥솥, 식탁, 쌀)
	북향	옷걸이, 벽시계, TV, 문갑, 거울
대청 - 니스 칠한 널마루, 회벽, 4등 전구	동향	미단이 대청문
	서향	미단이창, 책장, 소품 장식장, 액자(壽山福海)
	남향	김치냉장고
	북향	전퇴 좌측 끝 간이공간(병풍, 사각식탁 의자 5개, 책장 등 허드레 세간)
건년방 - 노란색 비닐장판, 흰색 벽지, 형광등	서향	목재 장롱
	북향	벽부형 옷장 및 침대
부엌 - 비닐장판, 흰색 종이벽지, 형광등(2)	동향	싱크대, 찬장, 수도 시설, 주방용구, 달력
	서향	안방 연결 미단이 외딴문 및 여닫이창, 액자(모란)
	남향	냉장고, 사각식탁, 정수기, 조미료 탁자, 식기류, 기동 메모꽂이
사랑방 - 비닐장판, 흰색 종이벽지, 형광등(2)	북향	사각 밥상, 전기밥솥
	동향	3단 옷장, 벽 달력, 수납용 플라스틱 바구니
	서향	문갑, 경대, TV, 전화기, 시계 등
	남향	네짱 목재 장롱

비고 : () 안은 수량을 표시한 것이다.

심규일 씨 덕은 현재 마을 뒷산에 6,800여 평, 앞산에 1,500여 평, 둔대초등학교 뒷산에 1,500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증조와 고조까지는 땅이 많았으나 “시골서 선비생활을 하느라 돈 버는 일 없이 쓰기만 해서 재산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어린 시절만 해도 사랑방에는 항상 손님이 많았다. 손님은 적게는 한두 명, 많을 때는 여러 명이었고, 보름이나 한 달씩 숙식할 때도 있어서 식사 대접은 물론 빨래까지 해 주었다고 한다. 종가였기 때문에 제사를 비롯한 집안 대소사에 모이는 사람이 많았다. 시향은 음력 10월 21일 지내는데, 많을 때에는 100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 시향을 마치고 점심 겸 음복을 할 때에는 집에 사람이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현재 연간 열세 번의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그 비용은 위토에서 나오는 곡물로 충당하고 있다.

3) 죽암마을 심완섭 가옥

• 소재지 : 둔대동 195

심완섭 가옥은 동남향의 건좌손향(乾坐巽向)이며, ‘ㄱ’자 형태의 안채와 ‘ㅡ’자 형태의 바깥채로 이루어진 ‘ㄷ’자 형태로 대지는 207평 정도이다. 안채는 1고주 5량이며, 지붕은 시멘트 기와로 덮여 있으나 원래는 초가였다. 바깥채는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는데, 예전에는 외양간으로 쓰였다. 본래 이 가옥은 심완섭 씨 부부가 결혼 후 세간을 나뉘던 1958년에 지은 것인데, 1990년대 중반에 집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면서 안채의 외벽을 시멘트 벽돌과 붉은 벽돌로 교체하였다. 그때 보일러를 가설하고 부엌을 입식으로 교체하였다. 화장실도 안채에 설치하였다. 집안의 세간은 큰아들의 혼례 시에 일부 교체하였으며, 큰아들 내외는 결혼 후 3년간 건넌방에서 살다가 분가하였다.

안마당과 바깥마당은 1980년대 중반에 함께 시멘트로 포장하였다. 바깥마당 한 쪽에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방형의 쓰레기소각장(77×73cm, 높이 69cm)과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은 시멘트로 만들어졌는데, 화장실과 외부를 시각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화장실문 1m 앞에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20년 정도 된 탱자나무 울타리는 화장실을 가리는 역할을 하면서 화장실 내부에서 바깥 동정을 살필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또한 바깥마당에는 대문입구 좌측 공간에 백일홍, 목련, 감나무, 향나무, 은행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다섯 그루의 은행나무 중에 가장 큰 것은 밑동치 직경 56cm, 높이 8.5m 정도 크기이다. 안마당에는 대문가와 부엌 사이 공간에 분재용 화분으로 장식하였다. 종류는 소나무 2그루와 10년 이상 된 단풍나무, 주목 한 그루, 열매를 맺는 굴나무가 있으며, 큰 플라스틱 양동이는 수련(睡蓮)을 띄워 꽃을 피웠다. 겨울철의 경우, 화초들을 안채 실내에 있는 화장실과 방, 마루에 놓아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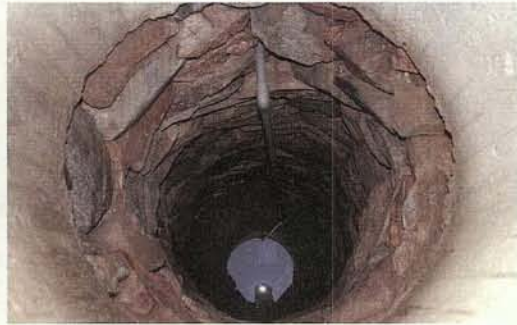
안마당의 화분



장독대



우물



우물 내부



바깥 화장실과 탱자나무
심완섭 가옥 주요 부 모습

안채 옆 마당에는 장독대(2.54×2.68m, 높이 59cm)와 시멘트관(직경 90cm)으로 된 우물이 있다. 우물이 빨래터(2.5×2.8m)에는 돌로 만든 빨래판과 수도시설, 오이지를 만들 때 쓰는 누름돌이 놓여 있다. 본래 죽암마을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공동우물을 사용하는 집이 많았다고 한다. 이 덕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안우물을 파서 썼는데, 마을 주민 두 명이 약 보름에 걸쳐 우물을 팠다. 우물은 거

의 수직에 가깝게 팠다고 하는데, 이는 심재범 가옥의 갈때기형 우물과기와 비교된다. 현재는 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베니어판으로 덮어 두었다. 25년 전에 자가 펌프를 설치하였고, 10년 전쯤 수도가 설치되면서 우물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옆 마당에는 담장을 따라 도장나무들이 가지런하게 식재되어 있고, 향나무·탱자나무·주목·모란·포도나무·감나무도 식재되어 있다. 약간의 텃밭이 있어 호박과 채소를 키운다.

이 가옥에는 현재 심완섭(남, 79세) 씨와 그의 부인 이태숙(여, 78세) 씨가 거주하고 있다. 이 부부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으며,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였다. 심완섭 씨는 22세 때 혼례를 올리고 4

년 정도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분가하였다. 그는 분가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논 950평과 밭 750평을 살림 밑천으로 받았다. 현재는 2,500여 평의 밭과 800여 평의 논을 경작하고 있다. 소유한 논은 본래 연간 콩 서 말에서 닛 말 정도의 도지(賭地)를 주고 경작하던 것을 매입한 것이다.

심완섭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지어서 분가했는데, 그 당시 집의 위치나 규모, 배치 등은 집안 어른들이 결정하였다. 마을에서 집을 많이 지어 본 심두섭 씨가 대목을 맡아서 1년 정도 시간을 들여 집을 지었다. 필요한 목재는 외지에서 사 오기도 하고 마을 뒷산에서 베어다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주민 중 누군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다른 주민들이 일을 도왔는데, 농번기에는 주로 식전에 많이 도왔다. 주민들은 목재 운반, 목재의 껍질 벗기기와 치목(治木), 초석이나 구들로 쓸돌을 깨고 나르는 일 등을 도왔다, 구들돌은 주로 우래산 중턱에서부터 한 사람이 등짐으로 하루에 두 번씩 4장을 옮겨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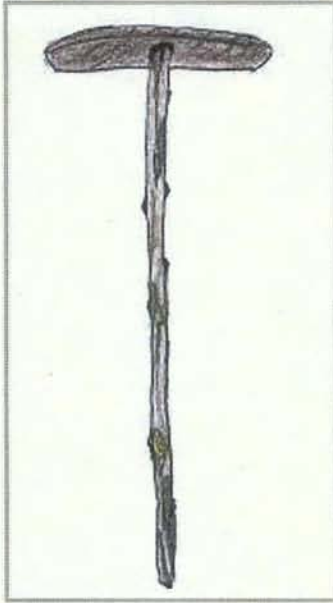
상량문은 마을 주민인 심진숙 씨가 썼고, 점심 때 상량식을 치렀다. 시루떡 한 시루와 북어를 차려 집 주인이 절하고 상량식을 치른 후 밥과 찌개, 김치, 나물, 떡, 막걸리 등을 준비하여 주민들과 나누어 먹었다. 집을 짓는 동안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막걸리를 준비하였고, 안주는 김치를 많이 내었고 간혹 두부찌개를 내놓기도 하였다. 집이 완공된 후 입주 고사도 상량 고사와 같은 방식으로 지냈다.

심완섭 씨는 마을 이장을 10년 정도 맡아 보았고, 노년에 들어서는 둔대농악보존회 고문을 맡는 등 마을의 전통을 되살리고 보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노인회 활동이나 수리사의 신도들 중심으로 구성된 다묵회(茶墨會) 활동도 하는 등 노년의 일상을 활발하게 꾸려 나가고 있다. 그는 이번 조사를 위해 면담하는 동안에 농기구 제작법을 소상히 설명하였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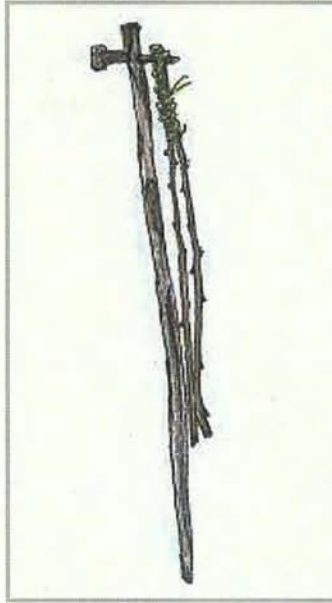
■ 지게

지게는 주로 소나무를 사용하여 만들며, 굽기가 균일하고 짐반이의 휘어진 각도가 적절한 나무가 재료로 선택된다. 그러나 지게로 만들 수 있는 소나무가 흔한 것은 아니기에 평소 산에 가서 나무를 할 때 미리 눈여겨보고 위치를 확인해 둔다. 지게는 주로 겨울에 만드는데, 그 이유는 여름철에는 송진이 흐르기 때문이다.

지게를 만들 때에는 우선 나무를 톱으로 베어 집으로 가져와서 낮으로 잔가지를 쳐낸 후 자귀를 이용해 지겟다리까지 꺾질을 벗겨내고 표면을 다듬는다. 그리고 지게의 짐반이 받침대가 일정한 각도로 유지되도록 끈으로 지게 몸통과 받침대 가지를 동여매어 고정시킨다. 이때 더욱 강하게 조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탕개' 또는 '탱기' 라고 하며, '비녀장' 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고정시킨 나무를 1주일에서 10일 정도 건조시키면 받침대가 제자리를 잡는다. 받침대가 고정되면



거문대



도리깨



도리깨 연결부 상세

망치와 끌로 지게 몸통을 연결하는 홈을 파고 지게 맨 위의 좁다란 부분인 '세고자리' 부터 지게를 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 연결하는 막대인 '세장' 을 연결하면 지게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다. 그리고 지게를 질 때 등이 편하도록 만든 '등태' 를 지게에 부착시키고, 짐을 질 때 어깨 위에 얹기 위해 짚을 꼬아 만든 '밑빠' 를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지게를 받치는 지게 작대기⁸⁾와 함께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바수걸이⁹⁾를 얹어 고정하면 지게가 완성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지게 만들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나무를 잘라 와서 지게를 완성하기까지 20 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게는 잘만 사용하면 2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 거문대

거문대는 곡식을 모으고 펴는 도구이며, '고무래' 로도 불린다. '쭉' 이라 불리는 T자 모양의 반달형 널조각의 중앙에 '다래끼' 라고 불리는 작대기를 끼워 제작한다. 작대기의 재목으로는 가볍고 단단한 나무가 좋은데, 보통 소나무가 많이 사용된다.

8) 지게 작대기는 단단하고 질긴 참나무나 밤나무, 가시나무로 만들며, 지게를 받치기 위한 Y자형 부분을 '알구리' 라고 한다.

9) 바수걸이(바수거리, 발채)는 짐을 얹기 위해 지게에 장착하는 씨릿대 짐받이다. 칩으로 씨리를 촘촘하게 파베기 꼬듯 엮어서 만든다. 지름 5mm, 길이 1m 정도인 씨릿대를 사용하여 만들며, 뿌리 쪽을 위로 향하게 하여 엮는다. 양손 묶음에 3단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된 바수걸이 하나를 만들 수 있다. 바수걸이의 맨 윗부분(씨릿대의 밑동 부분)을 낮으로 잘라내어 다듬으면 작업이 끝나는데, 이렇게 바수걸이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두세 시간 정도가 걸린다.

■ 도리깨

도리깨는 알곡을 터는 도구로, 사람이 손으로 긴 작대기를 잡고 휘두르면 회초리와 같은 ‘도리깨아들’이 알곡을 털게 된다. 도리깨대로는 소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도리깨아들로는 물푸레나무를 쓴다. 도리깨와 도리깨아들이 연결되는 부위를 ‘꼬다리’라 부르는데, 여기에 도리깨아들의 가늘고 긴 회초리가 부챗살처럼 새끼줄로 묶여져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리깨대에 구멍을 뚫고 도리깨아들과 연결한다. 나무를 베어 말리는 시간은 약 3일이 걸리고, 제작시간은 반나절 정도가 소요된다.

■ 코뚜레

코뚜레는 일소를 길들이고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소 콧구멍 사이의 얇은 막인 코척살이 연한 일년생 미만의 송아지에게 코뚜레를 꿰는데, 단단하면서 잘 휘어지는 노간주나무를 둥글게 만들어 사용한다. 코뚜레를 꿰 때에는 어미 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다.

4) 죽암마을 심재현 가옥

• 소재지 : 둔대동 194-4

심재현 가옥은 ‘ㄱ’자 형태 안채와 ‘ㄴ’자 형태 사랑채가 ‘ㄷ’자 형태 배치를 이룬다. 상량문이 보이지 않아 건립연대를 알 수 없으나 심재현 씨에 의하면, 사랑채는 지은 지 75년 정도, 안채는 그 후 다시 지어져 55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 집에서 태어나 13세부터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2000년에 다시 이곳으로 내려왔고, 그의 부친 심두섭(沈斗燮) 씨가 이 집을 손수 지었다고 한다. 관리는 잘된 편이나 안채 안팎으로 목재에 페인트칠을 한 상태이다. 대청바닥은 난방을 설치하면서 원래 모습을 잃었다.

이 가옥의 안채는 계좌정향(癸坐丁向)의 남향으로 배치되었고, 1고주 5량 구조이다. 안채의 평면은 건넌방과 안방 밖으로 반 칸을 붙여서 구성한 것이 특이하다. 건넌방의 반 칸은 창고와 다락이고, 다락 밑에는 부뚜막아궁이가 있다. 안방의 반 칸은 툇마루이다. 간살은 안방이 8자 남짓, 대청이 6자 반, 건넌방이 8자로 각기 다르나, 측면 간살은 8자로 고르게 편성했다. 안채의 대청은 장마루 3칸이다. 대청 앞에는 원래부터 4짝 분합문을 설치하였다고 하며, 안방 오른쪽으로 반 칸 퇴를 두었다. 사랑채의 간살은 8자를 기준으로 사랑방 2칸 중 대문간 쪽이 10자로 넓다.



가옥 전경



가옥 입구 전경(사랑채)



사랑채 높은 뜨럭



안채 전경



안채의 1교주 5랑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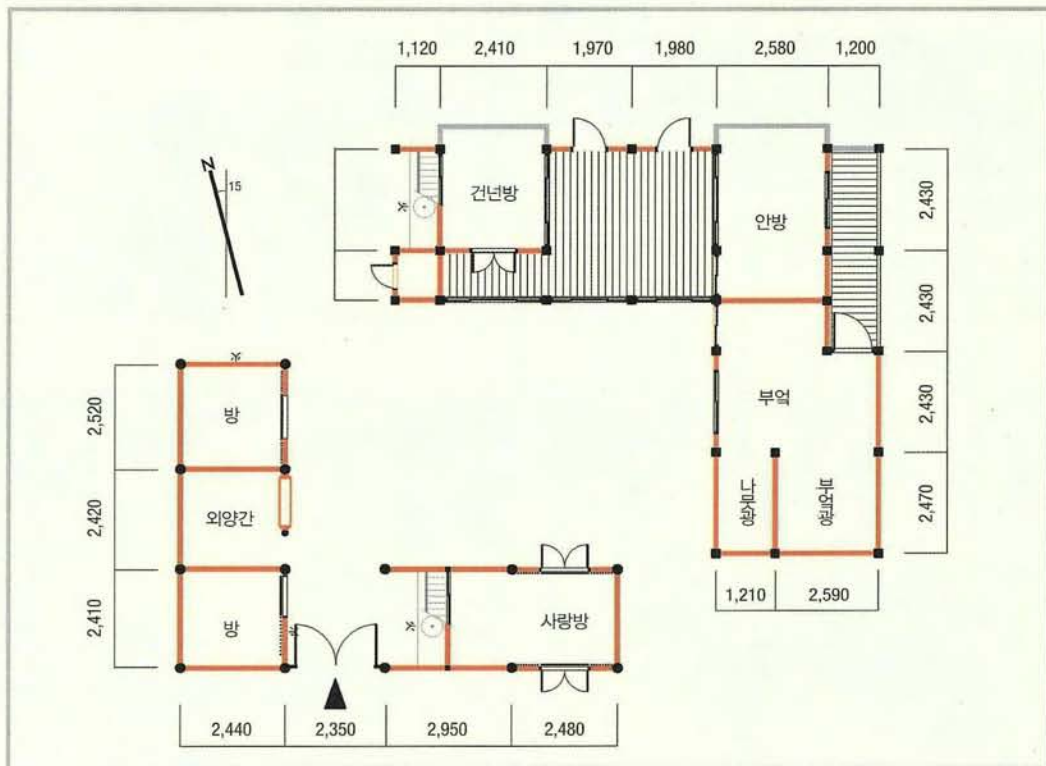


안채 건넌방 다락과 아궁이



안채 몸통 뒷모습

심재현 가옥 각 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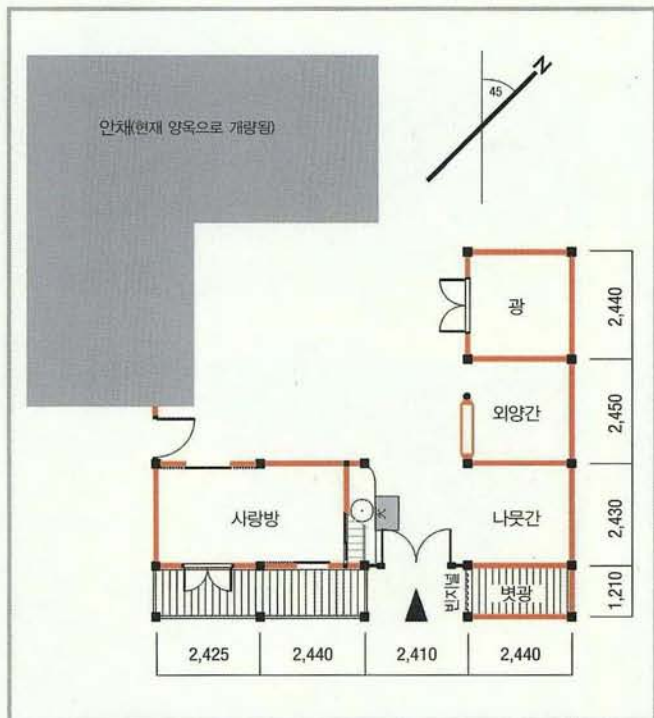
심재현 가옥 배치평면도

5) 복개마을 심재범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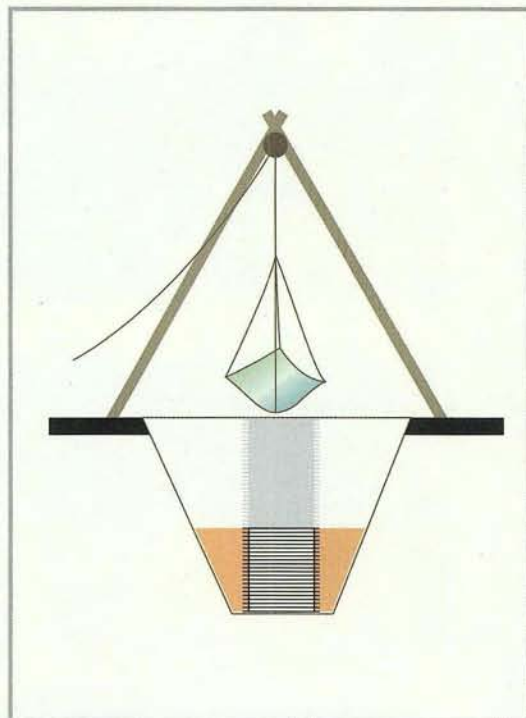
- 소재지 : 둔대동 145-3

심재범 가옥은 'ㄱ' 자 형태 안채와 'ㄱ' 자 형태 사랑채가 'ㄷ' 자 배치를 하고 있다. 안채는 현대식이고, 사랑채는 단기 4307년(1974년)이라고 묵서된 상량문이 있어 건립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부인인 홍송순(여, 77세) 씨는 1974년에 서울시의 구로동에서 둔대동으로 시집왔는데, 당시에는 안채도 초가였다고 한다. 안채는 신접살림을 새로 내느라 급하게 지었기에 터다지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며, 완전히 현대식으로 탈바꿈하여 원형을 찾을 수 없다.

사랑채는 건좌손향(乾坐巽向)으로 남동향이다. 사랑채에는 대문이 있고, 뒤쪽 담장과 이어지는 부분에 쪽문이 있다. 안채와 달리 사랑채는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2칸 사랑방 앞으로 반칸의 퇴가 있고, 대문을 들어서 왼쪽 사랑방 쪽으로 쇠죽을 끓이던 아궁이도 온전히 남아 있다. 오른쪽으로는 반 칸 전퇴가 있는 빗광이 그대로 있으며, 그 뒤 날개 쪽에는 나뭇간, 외양간, 광이 있다. 사랑채 회침 부분에는 중도리에 걸친 회침추녀의 뒷뿌리가 보인다. 'ㄱ' 자 형태의 가옥에서 몸



심재범 가옥 배치평면도



우물파기의 예

통과 날개가 만나는 꺾임부분의 가구(架構)는 중도리가 휘어진 곱은 도리로 처리하면 결구(結構)가 쉬워지는데, 이 가옥에서는 곱은 중도리 혼자서 회침추녀를 받기에는 허약하다고 생각하여 처마 도리와 처마도리를 수평으로 걸친 부재를 밑에 대고 그 위에 곱은 중도리를 받쳐서 구조적인 안정을 취했다.

이 가옥에는 안마당에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사라졌지만, 홍송순 씨는 우물을 팔 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대체로 우물구덩이의 폭은 작업에 사용되는 삼의 길이에 좌우되므로 대략 3자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우물파기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구덩이를 수직으로 파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필요한 모든 준비물이 갖추어지고 단시간에 우물돌 쌓는 일을 끝낼 수 있을 때 사용된다. 둘째,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우물을 파는 경우, 구덩이가 무너지지 않게 흙의 안식각(또는 휴식각)을 유지하면서 비스듬하게 파는 경우이다. 이 집의 우물은 두 번째 방법으로 파았다고 한다. 긴 장대를 묶어세우고 도르래에 가마니를 달아 흙을 퍼 올리는데, 여기에 돌을 내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면 작업 능률이 오른다. 이 방법은 수직구덩이를 팔 때보다 넓은 작업공간이 확보되므로 몇 사람이 우물돌을 쌓고 뒷채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옥 입구 전경



가옥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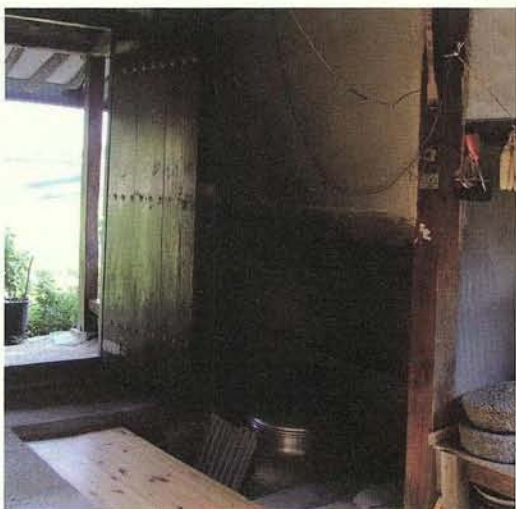
가옥 측면



사랑채 문간 앞 벗광



사랑채 사랑방 전경



사랑방아궁이



사랑채 회첨추녀와 가구

심재범 가옥 각 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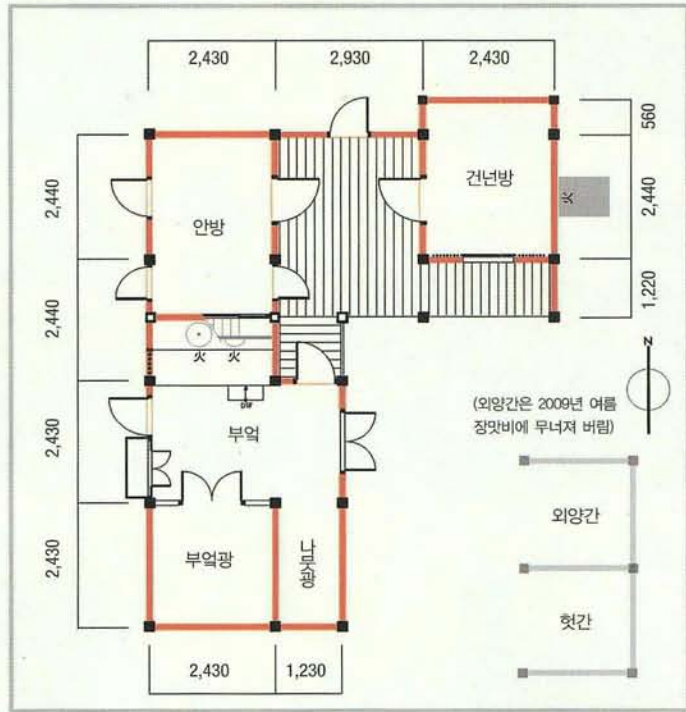
6) 안골마을 김용칠 가옥

• 소재지 : 둔대동 48-3

김용칠 가옥은 죽암마을 뒤편에 위치한 안골마을 끝 자락에 위치하며, 현재는 거주용이 아니라 농사철 임시 거처와 창고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원래는 'ㄱ'자 형태 안채와 헛간을 갖춘 2칸 규모의 '丨'자 형태 외양간채가 'ㄱ'자형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2009년 여름의 장맛비에 외양간이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 현재는 그 자리에 컨테이너가 자리하고 있다. 건축연대의 경우, “龍 檀紀

四千二百九十年丁酉二月二十四日午時 立柱上樑 家主己卯生 成造運 子坐午向 鳳”이라고 적힌 상량문이 있어 1957년에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용칠 씨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대목을 도와서 집을 지었고, 본래는 초가였다고 한다. 재목은 주로 우래산에서 베어다 사용하였는데, 기둥으로는 밤나무와 미루나무가 사용되었다.

이 가옥의 안채는 몸통과 날개 모두 1고주 5량 가구 구조를 취한다. 기둥은 길이 2,200mm, 굵기 140×140mm이고, 도리는 굵기 130×200mm, 서까래의 내밀기와 굵기는 880ø90이다. 트럭의 높이와 내밀기는 450×750mm이고, 마루의 높이는 400mm이다. 안채의 간살은 8자와 10자를 용척으로 사용하였다. 안방은 1칸 반 크기이며, 마루와 면한 쪽에는 외여단이 출입문과 바라지창이 있다. 외기와 면하는 부엌 뒷문 쪽에는 외여단이 창문이 칸마다 달렸다. 마루는 장마루로, 뒷벽으로 외여단이창을 두었다. 1칸 규모의 건넌방에는 마루로 통하는 출입문을 외여단으로 처리하고 전퇴 쪽에 홑쌍미단을 달았다. 뒷벽으로 2자 정도 외부로 돌출된 부분은 애초 건축을 할 때부터 그리 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건넌방의 아궁이는 측면에 있다.



김용칠 가옥 배치평면도



가옥 입구 전경



안채 날개의 부엌 외관



안채 뒤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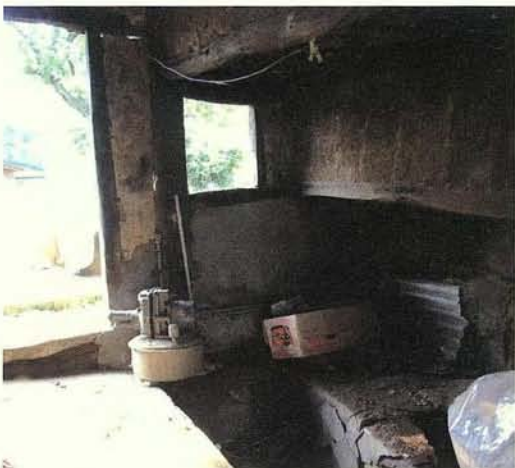
안채 건넌방 문과 뒷마루



안채 안방의 다락문



부엌의 부엌광과 니뭇광



부엌의 부뚜막



안채 상량문

부엌에는 나뭇광과 부엌광 사이에 칸막이벽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김용철 씨가 이곳에 거주할 때에는 나뭇광에는 소나무 잎이나 가랑잎을 굵어다 쌓아 놓고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장작은 처마 밑에 쌓아 놓았다고 했다. 나뭇광과 부엌광의 바닥은 흙바닥이다. 부엌 찬장 또한 제 위치에 온전하게 남아 있다.

7) 속달마을 김홍선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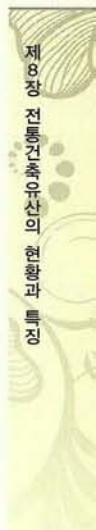
• 소재지 : 속달동 32

김홍선 가옥은 경기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동래 정씨 동래군과 종택 뒤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과 갈치저수지가 만나는 지점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야미역-수리산역-산본역을 왕복하는 마을 버스가 하루 9번 정도 운행한다. 이곳에서 둔대동 죽암마을까지는 도보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속달마을 중에서도 옷말 쪽에 위치한 가옥들은 대부분 서향을 하고 있는데, 이 가옥도 신좌경향(申坐庚向)으로 서향이다. 건축 시기는 미상이나 기존 자료에는 1930년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김홍선 가옥은 전퇴가 있는 평4량 초가집에 공간은 안채와 사랑채가 'ㄷ'자 형태를 이룬 가옥으로, 집의 기둥은 높이 2,250mm, 굵기 150×130mm이고, 서까래는 직경 90mm, 길이 880mm이다. 이 가옥의 대지는 약 120평, 건평은 안채와 사랑채가 25평 정도 크기이다. 안채 몸통에는 마루와 건넌방이 있는데, 건넌방에는 소죽을 끓이는 아궁이가 남아 있어 난방용으로 사용된다. 건넌방은 김홍선 씨가 주로 사용하며 잠도 이곳에서 잔다. 안채의 우측 날개에는 집을 보수하면서 안방 대신 부엌을 들였다. 부엌에는 끝방이라 부르는 방이 달려 있는데, 끝방은 김홍선 씨의 부인 신봉숙(여, 76세) 씨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안채 천장은 반자를 설치하였고, 벽은 시멘트 벽돌이다. 약 25년 전 둘째 아들이 혼례를 치를 무렵에 지금처럼 개조하였다. 사랑채에는 대문 우측으로 나뭇광, 좌측으로 외양간과 사랑방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허드레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마당으로는 안마당과 바깥마당이 있는데, 모두 시멘트로 포장되었다.

김홍선 씨의 본관은 김해이고, 부인인 신봉숙 씨의 본관은 평산이다. 신봉숙 씨는 20세에 집안 어른의 중매로 시집왔다. 슬하에 딸 하나, 아들 셋을 두었고, 모두 출가하였다. 농사는 논 열 마지기과 밭 500평 정도를 경작했는데, 1979년 이후에 모두 팔고 젃소 20여 마리를 사서 20년 정도 키웠다. 둘째 아들이 분가하기 전까지 함께 키웠다. 김홍선 씨는 40세 전후로 3년 정도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했고, 45세에는 마을 이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담배는 많이 피우는 편이나 술은 하지 않는다. 60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한다.

김홍선 씨 부부는 현재 텃밭을 가꾸는 외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따라서 집에서 특별하게 노



〈표 3〉 김홍선 가옥의 공간별 세간 구성

구분	위치	명칭
안마당 - 붉은색 및 회색 시멘트 벽돌	동향	개 사료(4), 화분류(12), 에어컨 공기 배출구
	서향	사랑채 날개, 신발장, 뒤주, 고무대야, 농약통, 창고, 전기 모기 퇴치기
	남향	안채 부엌, 수도시설, 물뿌리개, 고무호스, 향아리(5), 가스통, 마늘 포대(3)
	북향	부엌 수도, 세제류
마루 - 살색 비닐장판, 회벽, 형광등	동향	김치냉장고, 거울, 선풍기, 쓰레기통, 화장실, 소파, 달력, 가족액자(8)
	서향	미닫이 대청문, 커튼
	남향	건년방, TV, 문갑, 전화기, 벽부형 에어컨, 비디오 플레이어
	북향	부엌
부엌 끝방 - 살색 비닐장판, 흰색 벽지, 형광등	서향	4짝 장롱
	남향	3단 옷장, 경대, 장식장
	북향	허드레 옹품, 청소기, 말린 고추 포대
건년방 - 살색 비닐장판, 흰색 벽지, 형광등	동향	4짝 자개장, 3단 옷장, 히터기
	남향	침대(머리 방향), 선풍기
	북향	옷걸이, TV, 3단 옷장, 거울, 족보, 서적류 보관장
부엌 - 노란 비닐장판, 흰색 종이벽지, 형광등(1)	동향	벽 부착 그릇장, 싱크대, 수도시설,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서향	냉장고, 간이 양념류 수납 시설, 골방
	북향	식탁, 의자, 달력, 가스레인지, 벽부착 그릇장, 싱크대
화장실 - 비닐장판, 형광등(2)	동향	세면도구 수납장(벽부착), 세면도구 보관함, 수도시설, 거울
	서향	세탁기, 변기, 쓰레기통
	남향	욕조, 플라스틱 그릇류, 세면기
	북향	플라스틱 의자 및 청소 옹품 바꾸니

비고 : () 안은 수량을 표시한 것이다.



가옥 전경



입식으로 개조한 부엌



실내화된 마루



실내 화장실

동하는 일은 없다. 생활비는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김홍선 씨가 받는 정부보조금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 등으로 충당한다. 가장 큰 지출은 난방 등에 필요한 기름값으로, 연간 150만 원 정도 쓰인다고 한다. 이 부부는 낮 동안에는 대개 노인정에서 마을의 다른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 가옥을 조사하던 당일, 신봉숙 씨는 오이지 항아리를 땅에 묻고 그 둘레에 황토를 바른 후 굳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황토를 바르는 일을 ‘개흙 쌓기’라고 하며 예전에는 여

자들도 간단한 부뚜막 수리는 했다고 한다. 이날의 개흙 쌓기는 먼저 항아리가 들어가는 주변에 발흙과 잔돌을 넣어 다지고, 항아리 입구 주변에는 작년에 못자리를 낸 후 집으로 가져온 고운 논흙 두 포대와 붉은 산흙을 물과 섞어 손으로 곱게 펴서 바르는 식으로 했다고 한다.



땅에 묻은 오이지 항아리

〈표 4〉 신봉숙 씨의 일상생활

시간	활동 내용
5:30~6:00	기상, 세면 및 집안 청소
6:00~8:00	식사, 집 주변 청소, 밭일
8:00~10:00	밭일, 채소 다듬기 또는 반찬 만들기
10:00~12:00	의복 손질 또는 노인정 가기
12:00~13:00	노인정에서 중식
13:00~17:00	노인정 활동이나 동네 마실, 외부일 보기
17:00~18:00	집안일 보기, 청소
18:00~19:00	저녁 식사
19:00~22:00	TV 시청
22:00~	취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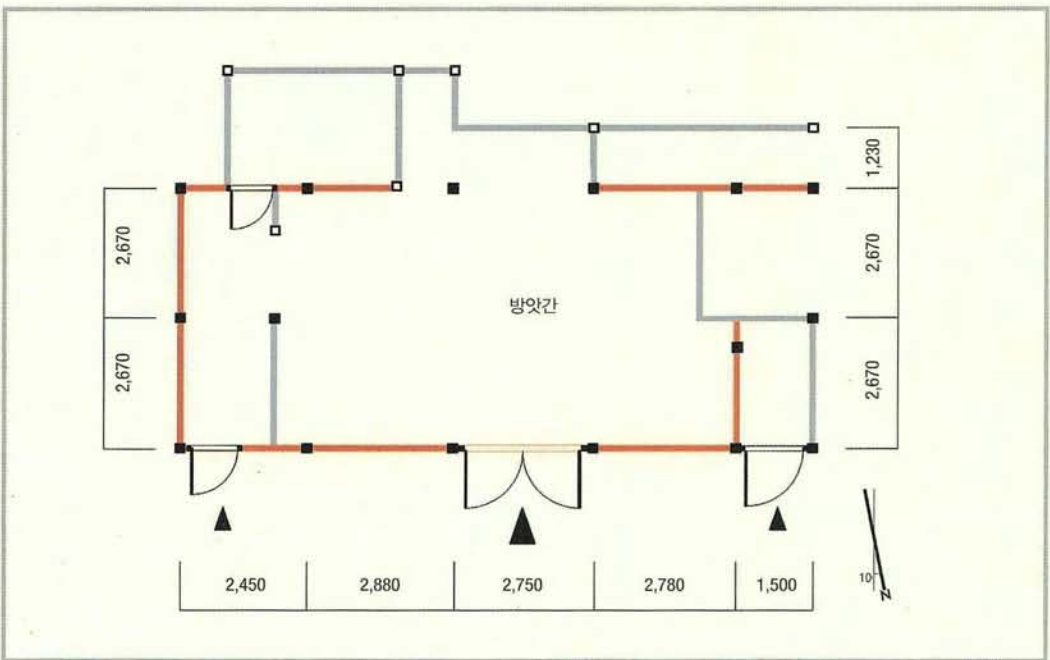
4. 생산시설과 종교건축

1) 죽암정미소

- 소재지 : 둔대동 215

죽암정미소는 '대감정미소' 라고도 하며, 현재는 폐쇄된 상태이다. 소유자는 몇 차례 바뀌었고, 현 소유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이 건물은 도로에 면한 긴 변을 기준으로 정좌계향(丁坐癸向)의 북향이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一'자 형태 평면이다. 가구는 트러스 구조이고, 양철로 된 맞배지붕이다.

이 건물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농촌마을의 문화사적인 면에서 그 기여도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건물 내부는 외부와는 달리, 꾸며지고 공간을 덧달아 내었다. 정미(精米)에 필요한 기계설비 일부, 즉 축(軸)이며 피대 따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나 최근 시설물이 모두 철거되어 사진으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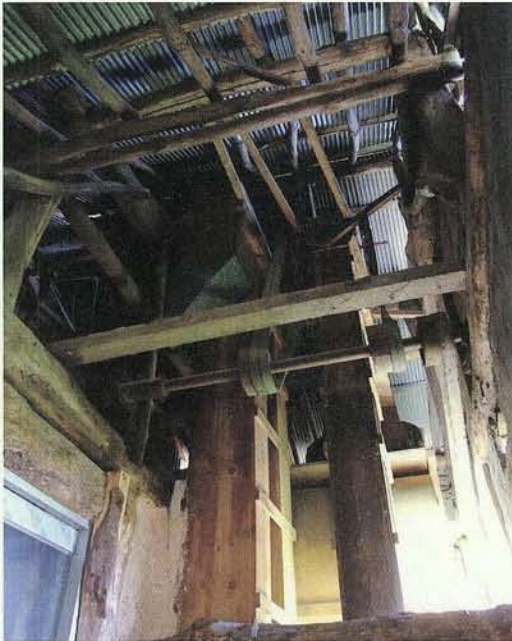
죽암정미소 평면도



정미소 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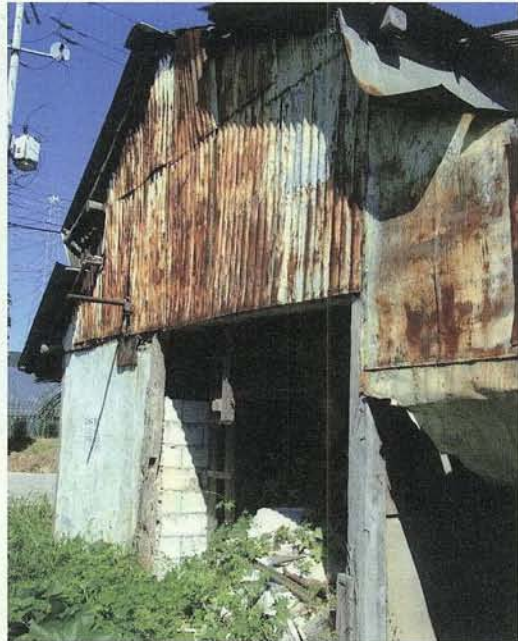


정미소 내부(2008년)



정미소 내부 시설물(2008년)

죽암정미소 주요 부 모습



우측면 및 지붕

2) 둔대교회

• 소재지 : 둔대동 434

둔대교회는 1903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용덕 씨가 144평의 부지를 희사하여 설립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1930년대 중반 건축되었다고 하는데, 상량문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건립 시기를 알기 어렵다. 이 교회 건물은 1950년대에는 폐허가 된 학교를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했다. 교회 증축 계획에 따라 현 건물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둔대교회는 약간 경사진 지형에 ‘—’자 형태의 예배당과 그 북서쪽의 교회종탑 및 북동쪽의 목



둔대교회 전경



예배당 측면



예배당 입구



예배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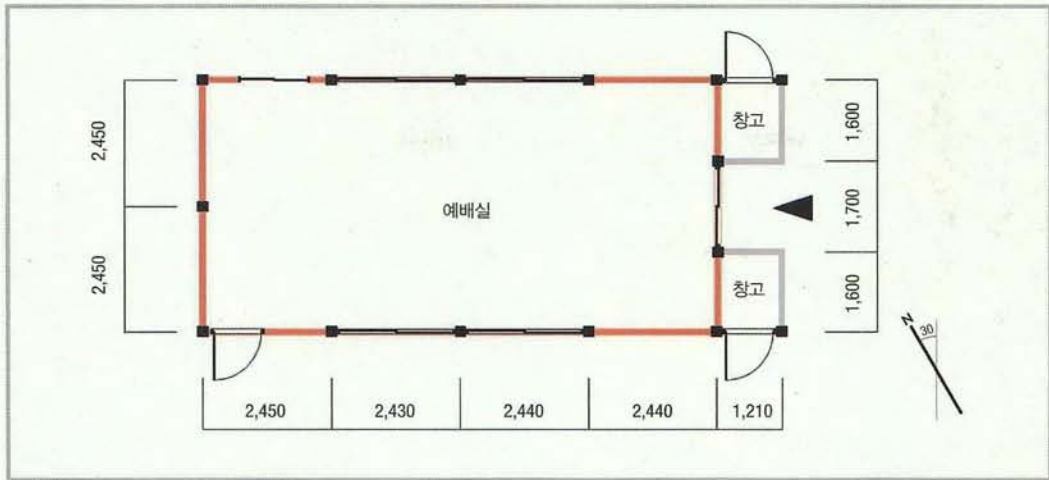


종탑

둔대교회 주요부

사관 겸 접견실로 구성된다. 예배당은 종교건물답게 주출입구가 맞배지붕의 측면으로 나 있으며, 좌향(坐向)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보면 곤좌간향(坤坐艮向)으로 북동향이다. 정면에는 높직한 3별대 기단, 뒷면에는 외별대 기단을 갖추고, 정면 4칸에 측면 2칸 규모이다. 간살은 8자로 일정하다. 그러나 주출입구의 측면은 정간 좌우에 뒷간을 구성하여 3칸이다. 뒷간의 폭은 1,600mm, 기둥 굵기는 120×120mm, 높이 2,640mm이다. 서까래의 굵기는 지름이 72mm, 처마의 내밀기는 620mm이다. 예배당의 내부는 폭이 4,900mm인데, 기둥은 하나

도 없다. 천장을 반자 처리하여 가구 구조를 파악할 수 없으나, 목조트러스 구조로 바뀌었다고 추측된다. 간단한 구조의 건축물로 건축적인 특이 사항은 없고, 외곽 담장이나 대문 없이 주변 자연 지



둔대교회 평면도

세의 일부를 빌어 숲 속에 터를 잡고 들어앉은 까닭에 별다른 조경을 하지 않았다.

5. 군포 지역 전통건축의 특징

이번 조사의 중심에 있는 둔대동과 속달동의 자연마을들은 환경적으로 수리산 자락에 형성되었고, 도시 외곽에 속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농촌생활상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러한 생활상에서 안채 중심의 안살림이든, 사랑채 중심의 바깥살림이든, 그 중심에는 가옥이 있다. 그들 가옥은 자연을 거슬러 건축되지 않았다. 가옥의 배치와 구조, 그 가옥을 이어 주는 마을길이 자연과 동화되고, 세월의 흔적을 켜켜이 쌓아 가면서 그 자체로 자연의 하나가 되었다.

이들 자연마을의 주거 양상을 살펴보면, 전통가옥들 가운데 그 연혁이 오래된 것은 드물었다. 이는 한국전쟁 시기에 이 일대가 1951년의 수리산전투로 피해를 입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그러나 그 이후 건축된 가옥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집터와 건물 배치를 보면, 대부분의 가옥이 1970년대까지도 풍수서로 널리 알려진 『양택삼요결(陽宅三要訣)』의 삼대간법(三大看法)을 바탕으로 지었음이 나타난다.

삼대간법에서는 배산임수(背山臨水)하면 건강장수하고, 전저후고(前低後高)하면 출세영웅하며, 전착후관(前窄後寬)은 부귀여산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집을 지을 때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며, 앞은 낮고 뒤는 높되, 출구는 좁고 들어오면 넓어짐을 의미하는데, 공기의 순환과 계절 변화



'ㄷ'자형의 가옥이 두드러진 죽암마을 경관

에 따른 일조량과 바람, 탁 터진 시야, 집의 인락함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결국 좋은 집이란 따뜻하고 시원하며 집 앞의 농경지와 함께 아늑하고 건강한 조건을 지녀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건강과 출세, 다복함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죽암마을과 속달동에서 조사한 전통가옥의 입지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자연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인위적 주거 공간의 꾸밈이 적절한 개방성과 폐쇄성, 아늑함과 온화함을 갖출 때 비로소 가장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바깥세상의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전통가옥의 삶 속으로도 들어와 조금씩 변화를 일으켰고, 조사가옥들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보인다.

먼저 조사가옥의 배치와 구조를 보면, 공통점이 드러난다. 대부분 가옥이 'ㄷ'자형 안채와 'ㄱ'자형 사랑채의 'ㄷ'자형이라는 점이다. 안채에서 'ㄷ'자형이 'ㄱ'자형보다 많은 현상은 인근 과천시와 안양시 등에서도 발견된다. 조사가옥들의 간살은 8자를 기본 용척으로 하며, 가구의 짜임은 1고주 4량과 1고주 5량이 주류를 이룬다. 기둥은 각기둥에 민도리 형식의 구조이며, 여기에 약간의 소로 장식을 곁들인 집도 보인다.

주거의 변화와 공간 쓰임에서는 조사가옥 모두가 다른 지역에서처럼 새마을운동 시기의 생활

환경 개선, 1976년의 농어촌 주택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변화한 양상을 보여 준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증가, 즉 아들의 혼례와 출산 등을 계기로 집을 새로 짓거나 내외부를 대대적으로 수리하였다. 심규일 가옥이 전자의 예라면, 심완섭 가옥과 김홍선 가옥은 후자의 예라 할 수 있다. 내부 공간의 수리는 1990년대까지도 계속되는데, 안채의 경우에는 주로 부엌의 입식화, 화장실과 수도시설의 실내화가 주를 이룬다. 또한 내부 창호가 미닫이에서 외짝 여닫이로 바뀌고, 대청에 미닫이문을 달면서 안채 내부 공간과 안마당이 구분되는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사랑채는 핵가족화와 그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남성 전용의 농업과 연관한 생업공간에서 최소한의 허드레와 농업 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바뀌었다.

또 다른 변화는 안살림을 중심으로 편리와 쾌적함을 위해 내부를 치장하는 것이다. 수도시설의 설치로 부엌에 개수대와 가스레인지, 식탁 등이 등장하고,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 중요한 안살림 품목으로 자리 잡은 것이 그러한 예이다. 동시에 실내 벽지와 비닐 장판의 사용도 보편화되었다. 한편, 공간 활용에 있어 심규일 가옥의 경우에는 3대가 한집에 사는데, 심규일 씨 부부는 약 30년 전까지 안채 건넌방에 살다가 부친이 작고한 후 안방을 사용하였고, 다시 7~8년 전부터 안채를 아들 부부에게 내어 주고 사랑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방물림은 정주성을 근거로 하는 농경사회의 모습으로, 도시에 인접한 농촌주택과 생업 환경이 핵가족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것이다.

현재 군포 지역에 남아 있는 전통가옥들 중에서 건축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은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이며, 나머지는 대개 1900년대 초부터 1975년 이전까지 건립되었다. 그리고 기존 자료를 보면, 주로 속달동, 당정동, 둔대동에서 보존상태가 좋은 집이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 그 수는 10여 채를 조금 넘고, 그중 상당수는 없어지거나 쓸모없게 되어 버렸다. 또한 도마교동과 부곡동 등지에도 전통가옥이 다수 존재했으나 택지개발로 사라지거나 그 면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가가 되어 버렸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